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62-01  
연구총서 18-CB-01



#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A study on the reentry of juvenile offenders from the  
training schools in South Korea (II)

박성훈 · 조영오 · 김정숙 · 황여정 · 이주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Ⅱ)”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62-0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훈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협력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영오 부연구위원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숙 부연구위원 황여정 부연구위원 이주영 교수



# 머리말

얼마 전 인천에서 소년들의 집단폭력으로 다문화가정 출신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부산에서 벌어진 여중생 폭력사건, 인천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연 이어 보도되는 충격적인 소년범죄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소년법의 폐지·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와 언론도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소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사건 자체만으로 보면 절대 용서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냉대 받고 소외된 비참한 존재'로서 범죄자를 단순히 낙인찍고 그들의 범죄원인을 개인적 기질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는데 그치고 만다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학과 철학 등 인문학이 '지고지순한 인간상'을 추구하며 부조리한 현실을 이해의 수준에서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은 객관적 사실의 수집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인간현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반화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소년범죄자 중에서도 중범죄 혹은 상습범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학업 교육, 인성교육, 직업교육을 통해 성행개선과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판사님들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소년범죄와 관련한 통계는 소년원을 나온 적지 않은 수의 소년들이 범죄중단이 아닌 범죄지속의 경로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들은 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왜 소년원을 똑같이 경험한 소년범죄자 중에서 일부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개인별로 행적을 추적하는 반복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와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계속되는 연구과제로서 1차년 연구가 제도적 측면에서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돕는 제도를 연구했다면, 2차년 연구에서는 경험적 측면에서 소년들의 사회정착 과정을 추적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를 총괄한 연구책임자로서 이번 연구가 소년범죄자를 형사적 혹은 처벌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교육적 혹은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년이라는 소년법 명제를 재확인하는 계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학계, 실무계, 정치인,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과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한 해 동안 쉽지 않은 연구를 함께 기획하고 발로 뛰어 주신 조영오 박사님을 비롯해 학계 간 협동연구의 취지를 잘 살려 좋은 연구성과를 내 주신 동덕여자대학교 이주영 교수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정숙 박사님과 황여정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는 법무부의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수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구진 못지않은 열정과 관심으로 연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용운 과장님, 이법호 서기관님, 전영선 사무관님, 이승원 사무관님, 김현정 사무관님, 박우근 사무관님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전국의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소년교도소를 돌며 수많은 소년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연구자의 무력함에 대한 함께 소회를 나누었던 손소영 연구원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박 성 훈

---

# 목 차

---

국문요약 ..... 1

| 제1장 | 서 론 · 박성훈 ..... 7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9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 12

1. 1차년 주요연구내용 ..... 12

2. 2차년 연구추진체계 ..... 14

제3절 연구의 내용 ..... 16

| 제2장 | 패널종단조사 분석결과 · 조영오·박성훈 ..... 17

제1절 개관 ..... 19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20

1. 종단연구와 패널종단조사 ..... 20

가. 종단연구의 장단점 ..... 20

나. 패널종단조사의 유형 및 특징 ..... 22

2. 범죄학 분야의 주요 패널종단조사 ..... 25

가. The Gluecks' study ..... 26

나. The Cambridge study ..... 27

다. The Dunedin study ..... 28

3. 소년원 출원생 패널종단조사 ..... 33

제3절 패널종단조사 연구설계 ..... 36

1. 조사개요 ..... 36

2. 조사설계 ..... 38

가. 임시퇴원자 조사설계 ..... 39

나. 만기퇴원자 조사설계 .....	42
다. 비교집단 조사설계 .....	43
3. 조사대상자 .....	45
가. 소년원 재원생(9호/10호 처분) .....	45
나. 임시퇴원자와 만기퇴원자(9호/10호 처분) .....	46
다. 보호관찰대상자(4호/5호 처분) .....	46
4. 조사내용 및 자료수집 .....	48
가. 정적 요인 .....	48
나. 동적 요인 .....	49
제4절 분석결과 .....	51
1. 처분에 따른 비교 .....	51
가.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 .....	51
나. 사회정착 변수 .....	56
2. 성별 및 처분에 따른 비교 .....	60
가.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 .....	61
나. 사회정착 변수 .....	66
3. 사회정착 요인과 보호 및 위험 요인의 관계 .....	73
가. 보호 및 위험 요인이 긍정적 인지/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 .....	73
나. 보호 및 위험 요인이 긍정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	77
다.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부정적 인지/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 .....	80
라.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부정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	82
4. 사회연결망 요인 .....	86
가. 범죄와 연결망 분석 .....	86
나. 보호소년의 사회연결망의 특성 .....	89
제5절 소결 .....	105

## | 제3장 | 보호소년의 유형화 · 이주영 ..... 111

제1절 개관 .....	113
1. 소년범죄자 분류 및 처우 .....	113
2. 유형화의 필요성 및 목적 .....	118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119

    1. 소년범죄자의 이질성 ..... 119

    2. 소년범죄자 유형 분류의 새로운 기준 ..... 123

    3. 이질성에 따른 유형분류를 위한 방법론 ..... 125

제3절 보호소년 유형화 분석 ..... 127

    1. 연구대상 ..... 127

    2. 조사도구 ..... 128

        가. 패널조사 설문지 ..... 128

        나.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 Report: YSR) ..... 130

    3. 연구결과 ..... 133

        가.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 문제행동 비교 ..... 133

        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 135

        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 136

        라. 유형화를 위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 137

        마. 유형별 특성 비교 ..... 143

제4절 유형화 결과의 시사점 ..... 153

제5절 소결 ..... 158

**| 제4장 | 사회정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61**

제1절 개관 ..... 163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164

    1. 평가모형의 개요 ..... 164

    2. 실용적 평가 ..... 166

        가. 목표지향 평가 ..... 166

        나. 의사결정지향 평가 ..... 167

    3. 결과지향 평가 ..... 168

        가.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 ..... 168

        나.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의 장단점 ..... 170

제3절 사회정착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연구설계 ..... 170

- 1. 연구방법 ..... 170
  - 가. 문헌연구 ..... 170
  - 나. 실험조사 ..... 171
  - 다. 면담조사 및 전문가 FGI ..... 173
- 2. 평가지표의 개발 ..... 173
  - 가. 평가지표 개발의 원칙 및 고려사항 ..... 174
  - 나. 측정지표의 도출 ..... 174
  - 다. 핵심지표의 도출 ..... 185

제4절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188

- 1. 분석 개요 및 분석 결과 ..... 188
  - 가. 분석 개요 ..... 188
  - 나. 효과성 분석 결과 ..... 194
  - 다. 만족도 분석 결과 ..... 213
- 2. 면담조사 개요 및 분석 결과 ..... 220
  - 가. 면담조사 개요 ..... 220
  - 나. 면담조사 분석 결과 ..... 221

제5절 소결 ..... 234

**| 제5장 | 결 론 · 박성훈 ..... 237**

제1절 결과의 요약 ..... 239

- 1. 1차 패널조사 결과 ..... 240
- 2. 보호소년 유형화 ..... 242
- 3. 사회정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245

제2절 정책적 함의 ..... 247

- 1. 패널조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 247
  - 가. 여자 소년원생에 대한 집중 처우 ..... 247
  - 나. 관계유형의 특성에 따른 개별 처우 ..... 248
  - 다. 정신건강 고위험자에 대한 치료 처우 ..... 248

라. 보호자 및 가족의 보호력 회복을 위한 개입 ..... 249

마. 소년보호관찰 분류와 처우의 연계 ..... 251

바. 소년원과 소년보호관찰의 연계 ..... 252

2. 효과성 평가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 253

가.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 ..... 253

나.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 ..... 254

다. 프로그램 전문강사의 확보 ..... 256

라. 사회정착프로그램 최종안 및 활용예시 ..... 257

**참고문헌** ..... 261

**Abstract** ..... 273

**부록** ..... 277

[부록1] 각 변수에 대한 문항 및 신뢰도 ..... 277

[부록2] 사회정착 변수와 보호 및 위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 282

[부록3] 패널조사 설문지 ..... 286

## 표 차례

---

〈표 1-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	9
〈표 2-1〉 범죄학 분야의 국외 종단연구 현황 .....	30
〈표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패널사업 현황 .....	34
〈표 2-3〉 조사기준과 처분특성을 고려한 설문조사 방식 .....	39
〈표 2-4〉 임시퇴원자 조사설계 .....	42
〈표 2-5〉 비교집단(4호/5호 처분) 조사설계 .....	44
〈표 2-6〉 소년원별 조사참여자 수 .....	45
〈표 2-7〉 보호관찰소별 조사참여자 수 .....	47
〈표 2-8〉 설문조사 내용 .....	49
〈표 2-9〉 나이 .....	52
〈표 2-10〉 교육수준 .....	52
〈표 2-11〉 거주지 .....	53
〈표 2-12〉 후보호자 .....	53
〈표 2-13〉 개인 내적 특성 .....	54
〈표 2-14〉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	55
〈표 2-15〉 지역사회 특성 .....	55
〈표 2-16〉 긍정적 인지/정서 특성 .....	56
〈표 2-17〉 긍정적 행동 특성 .....	57
〈표 2-18〉 부정적 인지/정서 특성 .....	58
〈표 2-19〉 부정적 행동 특성 .....	59
〈표 2-20〉 흡연 여부 .....	60
〈표 2-21〉 경고/주의 여부 .....	60
〈표 2-22〉 나이 .....	61
〈표 2-23〉 교육수준 .....	62
〈표 2-24〉 거주지 .....	62
〈표 2-25〉 후보호자 .....	63
〈표 2-26〉 개인 내적 특성 .....	64
〈표 2-27〉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	65
〈표 2-28〉 지역사회 변인 .....	66
〈표 2-29〉 인지/정서 특성 .....	67
〈표 2-30〉 행동 특성 .....	68

<표 2-31> 인지/정서 특성 ..... 70

<표 2-32> 행동 특성 ..... 71

<표 2-33> 흡연 여부 ..... 72

<표 2-34> 경고/주의 여부 ..... 72

<표 2-35> 보호 및 위험 요인이 긍정적 변화 중 인지/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 ..... 75

<표 2-36> 보호 및 위험 요인이 긍정적 변화 중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 78

<표 2-37>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부정적 변화 중 인지/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 ..... 81

<표 2-38>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부정적 변화 중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 83

<표 2-39> 보호 및 위험 요인이 흡연, 범죄피해, 경고/주의에 미치는 영향 ..... 85

<표 2-40> 사회연결망 관련 문항 ..... 88

<표 2-41> 소년원과 보호관찰 성별 연결망의 유사성 비교 ..... 91

<표 2-42> 소년원과 보호관찰 거주지 연결망의 비교 ..... 91

<표 2-43> 소년원과 보호관찰 연결망의 유대정도 비교 ..... 92

<표 2-44> 소년원과 보호관찰 연결망의 도움정도 비교 ..... 93

<표 2-45> 소년원과 보호관찰 연결망의 영향정도 비교 ..... 94

<표 2-46> 소년원과 보호관찰 연결망의 비행유혹정도 비교 ..... 95

<표 2-47> 소년원과 보호관찰 연결망 중심성의 차이 비교 ..... 98

<표 2-48> 소년원과 보호관찰 구조적 공백의 차이 비교 ..... 100

<표 2-49> 소년원과 보호관찰 성별 속성에 따른 연결망 중심성 비교 ..... 100

<표 2-50> 소년원과 보호관찰 거주지 속성에 따른 연결망 중심성 비교 ..... 101

<표 2-51> 소년원과 보호관찰 관계유형 속성에 따른 연결망 중심성 비교 ..... 102

<표 2-52> 소년원 연결망 속성과 연결망 구조의 상관관계 ..... 104

<표 2-53> 보호관찰 연결망 속성과 연결망 구조의 상관관계 ..... 105

<표 2-54> 연구설계 개요 ..... 106

<표 3-1>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 항목 및 점수 배점 ..... 115

<표 3-2>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의 요인별 문항 ..... 116

<표 3-3> 표본의 특성 ..... 127

<표 3-4>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활용된 변인 및 문항 내용 ..... 128

<표 3-5> YSR 문제행동 척도의 구성 ..... 130

<표 3-6> YSR 문제행동 척도의 내용 ..... 131

<표 3-7>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 135

<표 3-8> 주요 변인 간의 상관 ..... 137

<표 3-9> 잠재계층 모형의 적합도 비교 ..... 138

<표 3-10>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유형화 결과 ..... 139

〈표 3-11〉 소년원의 유형화 결과 .....	141
〈표 3-12〉 보호관찰의 유형화 결과 .....	142
〈표 3-13〉 소년원의 유형별 성비 및 보호처분명 .....	143
〈표 3-14〉 소년원의 유형별 교육수준 .....	144
〈표 3-15〉 보호관찰의 유형별 성비 및 보호처분명 .....	144
〈표 3-16〉 보호관찰의 유형별 교육수준 .....	145
〈표 3-17〉 소년원의 유형별 음주 문제 .....	145
〈표 3-18〉 보호관찰의 유형별 음주 문제 .....	146
〈표 3-19〉 소년원의 유형별 비행행동 .....	146
〈표 3-20〉 보호관찰의 유형별 비행행동 .....	146
〈표 3-21〉 소년원의 유형별 비행 항목별 차이 .....	147
〈표 3-22〉 보호관찰의 유형별 비행 항목별 차이 .....	148
〈표 3-23〉 소년원의 유형별 담당교사와의 관계 및 변화에 대한 태도 .....	149
〈표 3-24〉 보호관찰의 유형별 담당교사와의 관계 및 변화에 대한 태도 .....	150
〈표 3-25〉 소년원의 유형별 DSM 진단 척도(T점수)의 차이 .....	150
〈표 3-26〉 보호관찰의 유형별 DSM 진단 척도(T점수)의 차이 .....	152
〈표 3-27〉 소년원의 유형화 결과 및 유형별 개입 방안 .....	156
〈표 3-28〉 보호관찰의 유형화 결과 및 유형별 개입 방안 .....	157
〈표 4-1〉 CIPP 모형의 내용 .....	167
〈표 4-2〉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 .....	169
〈표 4-3〉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 설계 .....	169
〈표 4-4〉 면담조사 및 전문가 FGI 참여자 .....	173
〈표 4-5〉 프로그램 영역별 교육목표 및 측정지표 .....	175
〈표 4-6〉 프로그램 영역별 측정지표 및 측정문항 .....	183
〈표 4-7〉 프로그램 핵심지표 및 측정문항 .....	187
〈표 4-8〉 A소년원(남자) 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 및 절차 .....	189
〈표 4-9〉 B소년원(여자) 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 및 절차 .....	191
〈표 4-10〉 효과성 평가를 위한 조사참여자 현황 .....	192
〈표 4-11〉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척도의 신뢰도 계수 .....	194
〈표 4-12〉 효과성 평가지표 사전 측정치와 집단 동질성 검증 (전체) .....	195
〈표 4-13〉 효과성 평가지표 사후 측정치와 집단 간 차이 검증 (전체) .....	196
〈표 4-14〉 효과성 평가지표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전체) .....	199
〈표 4-15〉 효과성 평가지표(전체 및 하위영역별) 사전 측정치와 집단 동질성 검증 (A소년원) .....	203

<표 4-16> 효과성 평가지표 사후 측정치와 집단 간 차이 검증 (A소년원) ..... 204

<표 4-17> 효과성 평가지표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A소년원) ..... 205

<표 4-18> 효과성 평가지표(전체 및 하위영역별) 사전 측정치와 집단 동질성 검증  
(B소년원) ..... 208

<표 4-19> 효과성 평가지표 사후 측정치와 집단 간 차이 검증 (B소년원) ..... 209

<표 4-20> 효과성 평가지표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B소년원) ..... 210

<표 4-21> 면담조사 참여자 ..... 220

<표 4-22> 전문가 대상 FGI 참여자 ..... 221

<표 4-23> 효과성 평가를 위한 공분산분석 결과 요약 ..... 235

<표 5-1> 소년원생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최종안 ..... 258

<표 5-2> 사회정착 프로그램의 활용(예시) ..... 260

## 그림 차례

[그림 1-1] 소년범죄자의 재범과 재범중단 .....	11
[그림 1-2] 2년차(2018년) 연구추진체계 .....	15
[그림 2-1] 패널중단조사 추진과정 .....	20
[그림 2-2] 자료수집을 위한 중단연구 설계 .....	23
[그림 2-3]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유형 .....	89
[그림 2-4]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성별 .....	90
[그림 2-5]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같은 동네거주 여부 .....	91
[그림 2-6]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유대정도 .....	92
[그림 2-7]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도움정도 .....	93
[그림 2-8] 가까운 사람의 영향정도 .....	94
[그림 2-9]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비행유혹 정도 .....	95
[그림 2-10] 소년원 재원생의 자아중심 - 연결망 전체표본(N=533) .....	96
[그림 2-11] 소년원 재원생의 자아중심 - 연결망 랜덤포본(N=10) .....	97
[그림 2-12] 자아중심 - 연결망의 유형 .....	98
[그림 3-1] 연구모형 .....	126
[그림 3-2]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집단의 YSR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T점수 .....	133
[그림 3-3]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집단의 DSM 진단 척도 T점수 .....	134
[그림 3-4] 소년원의 잠재계층별 특성 .....	139
[그림 3-5] 보호관찰의 잠재계층별 특성 .....	139
[그림 3-6] 소년원의 유형별 DSM 진단척도 T점수 .....	151
[그림 3-7] 보호관찰의 유형별 DSM 진단척도 T점수 .....	152
[그림 4-1] 프로그램 평가 접근방법의 구분 .....	165
[그림 4-2] 교수설계를 위한 ADDIE 모형 .....	171
[그림 4-3]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실험조사 절차 .....	172
[그림 4-4]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실험조사 설계 .....	172
[그림 4-5] 소년원생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한 핵심지표 구성 ..	186
[그림 4-6] 효과성 평가지표(총합)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200
[그림 4-7]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	200
[그림 4-8] 회복탄력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	200
[그림 4-9] 비공격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	201
[그림 4-10] 분노통제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	201



[그림 4-11] 자기조절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 201

[그림 4-12] 진로효능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 201

[그림 4-13] 출원서비스 인지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 202

[그림 4-14] 효과성 평가지표(총합)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소년원) ..... 206

[그림 4-15]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A소년원) · 206

[그림 4-16] 회복탄력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A소년원) · 206

[그림 4-17] 비공격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A소년원) ..... 206

[그림 4-18] 분노통제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A소년원) ..... 207

[그림 4-19] 자기조절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A소년원) ..... 207

[그림 4-20] 진로효능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A소년원) · 207

[그림 4-21]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A소년원) ..... 207

[그림 4-22] 효과성 평가지표(총합)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B소년원) ..... 211

[그림 4-23]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B소년원) · 211

[그림 4-24] 회복탄력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B소년원) · 212

[그림 4-25] 비공격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B소년원) ..... 212

[그림 4-26] 분노통제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B소년원) ..... 212

[그림 4-27] 자기조절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B소년원) ..... 212

[그림 4-28] 진로효능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B소년원) · 213

[그림 4-29]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B소년원) ..... 213

[그림 4-30]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단위: %) ..... 214

[그림 4-31]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단위: %) ..... 214

[그림 4-32] 이번 교육은 출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단위: %) ..... 214

[그림 4-33]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위: %) ..... 214

[그림 4-34]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나에게 중요했다 (단위: %) ..... 215

[그림 4-35]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 (단위: %) ..... 215

[그림 4-36]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 (단위: %) ..... 216

[그림 4-37]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 (단위: %) ..... 216

[그림 4-38]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단위: %) .....	216
[그림 4-39]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단위: %) .....	216
[그림 4-40] 이번 교육은 출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단위: %) .....	217
[그림 4-41]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위: %) .....	217
[그림 4-42]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나에게 중요했다 (단위: %) .....	217
[그림 4-43]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 (단위: %) .....	217
[그림 4-44]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 (단위: %) .....	217
[그림 4-45]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 (단위: %) .....	217
[그림 4-46]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단위: %) .....	218
[그림 4-47]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단위: %) .....	218
[그림 4-48] 이번 교육은 출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단위: %) .....	219
[그림 4-49]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위: %) .....	219
[그림 4-50]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나에게 중요했다 (단위: %) .....	219
[그림 4-51]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 (단위: %) .....	219
[그림 4-52]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 (단위: %) .....	219
[그림 4-53]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 (단위: %) .....	219

---

# 국문요약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사회재진입(reentry) 관점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검토와 출원 후 소년들의 실태를 종단적으로 연구하고자 기획된 연속과제이다. 2017년에 수행된 1차년 연구에서는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소년원 사회복지교육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자립생활관 및 Y.E.S.센터 등 소년원생의 사회재진입을 돕는 기관의 개선방안,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간 협력확대의 필요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018년에 수행된 2차년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보다 경험적 측면에서 소년들의 사회정착과정을 추적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재범여부나 재범원인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아가는 과정이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부 소년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강력사건을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으나, 상당수 소년범죄자들은 엄연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고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 혹은 재범의 시각에서만 소년범죄자를 바라볼 경우 이들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놓칠 수 있다. 소년범죄자를 형사적 관점을 넘어서 청소년복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출원 후 재범실태나 재범원인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연구는 1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자에 적합한 조사설계를 기획하였으며,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전공의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의 함의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 □ 패널종단조사 분석결과

패널종단조사는 범죄학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여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종단조사를 통한 연구가

## 2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패널조사(prospective panel design)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조사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패널종단조사의 기획단계부터 법무부 정책실무기들과 꾸준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예비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설계 및 조사항목을 수차례 검토하였다.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패널종단조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 만기퇴원 및 임시퇴원 등 퇴원유형, 개인별로 다른 퇴원시기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과정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4호·5호(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사설계를 바탕으로 2차년 연구에서는 1차 표본으로 소년원생 553명, 보호관찰소년 463명을 조사하였다.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생의 자기통제, 도덕성, 일탈적 일상활동은 보호관찰소년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으나, 스트레스와 종교심은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보다 높았다. 소년원생의 개인내적 특성이 보호관찰소년보다 대체로 취약한 편이나 모든 부분에서 취약하지는 않았다. 부모와의 애착, 부정적 낙인의 인식, 비행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정착관련 긍정적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정체성, 담당직원과의 애착, 저축, 이타적 행동, 타인과 잘 지내는 정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정도에서 보호관찰소년이 소년원생보다 높아, 인지·정서·행동의 긍정적 측면에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에 비해 취약한 편이었다. 분노, 범죄유혹, 책임회피, 음주로 인한 문제, 흡연, 도박, 사이버일탈, 폭력행위, 성적일탈, 피해경험, 학대경험 등 사회정착과 관련한 부정적 변화에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보다 좋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소년원생 및 보호관찰소년을 성별 및 처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남자 소년원생, 여자 소년원생, 남자 보호관찰소년, 여자 보호관찰소년) 비교한 결과, 여자 소년원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취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보다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그 중에서도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소년원생의 긍정적 변화는 부모애착, 종교심, 스트레스, 도덕성 등이 주요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생의 부정적 변화는 자기통제, 스트레스, 종교심, 도덕성, 부정적 낙인, 지역치안수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자기통제의 경우 소년원생들의 분노, 우울, 범죄유혹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에 비해 친구·애인·선배 등 교우관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거주지 측면에서는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 모두 유사성(similarity) 경향을 보였다. 연결망속성과 연결망형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연결정도나 연결밀도가 높았다. 반면 여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다른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중개자역할이 높게 나타났다. 소년원생의 경우 친구나 가족중심의 연결망을 가질수록 연결정도나 연결밀도가 높은 반면, 친구-가족-선생님 등 고른 형태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중개자역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보호관찰소년에서는 관계유형에 따른 연결망형태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 보호소년의 유형화 분석결과

이번 연구에서는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을 포함한 보호소년이 단일한 집단이 아닌 이질적인 집단임을 전제로 보호소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보호소년의 이질성에 근거한 유형화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맞춤형된 처우의 방향을 알려주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패널종단조사를 통해 수집된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분석하기 위한 청소년 행동평가척도(YSR)를 조사하였다. 변인-중심 접근과 달리 개인-중심 접근에 기초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은 겉으로는 관찰되지 않는 집단 내 이질성을 규명하는데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유형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 모두 세 개 유형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정 집단'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수준이 모두 낮았으며,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주요 지표들도 양호한 편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주로 규칙위반 행동과 공격행동이 두드러졌

#### 4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으며 내재화 문제 수준은 낮았다. 세 번째 유형은 ‘혼합-불안정 집단’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수준이 모두 높고,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지표들이 매우 부정적이며, 상대적으로 여자소년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둘째, 소년원생 가운데 혼합-불안정 집단에 속하는 비율은 35.7%로 문제행동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외현화 집단에 속하는 비율은 46.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은 변화의지 측면에서 혼합-불안정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안정 집단에 속하는 비율은 18.1%로 적지 않은 소년들이 여러 변인들에서 안정적 성향을 보였다. 안정 집단은 문제행동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되는 위험요인의 수준도 낮기 때문에 사회정착 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셋째, 소년원생 중에서 안정 집단과 외현화 집단의 대부분은 남자소년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혼합-불안정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자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 소년이 남자 소년보다 전반적으로 문제행동 심각성이 높을 뿐 아니라 범죄와 관련되는 특성에서도 남자 소년생보다 좋지 않았다.

넷째, 보호관찰소년에 대한 유형화 역시 소년원생과 비슷하였으나, 각 유형별 비율은 조금씩 달랐다. 외현화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51.4%로 소년원생(46.2%)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고, 안정 집단에 속하는 비율 역시 37.6%로 소년원생(18.1%)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혼합-불안정 유형에 속하는 소년은 9.9%로 소년원생(35.7%)보다 적었으나, 이들은 소년원생 혼합-불안정 집단보다 내재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였다. 변화의지나 자기가치 측면에서도 소년원집단의 혼합-불안정 유형과 비교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자신에 대한 유능감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내 처우를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도 심각한 대상자가 있음을 보여준다.

##### □ 사회정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1차년 연구에 개발했던 ‘소년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시범적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검토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이번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체 영역을 평가하는 ‘측정지표’와 프로그램 전반의 교육목표를 포괄하여 평가하는 ‘핵심지표’를 구분하였다. 측정

지표에는 ① 자기이해 및 탐색 영역 중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 ② 의사소통·대인관계 기술 영역에서는 공격성/분노통제 및 공감능력, ③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에서는 긍정적 관계유지와 자기조절, ④ 경제관리·경제교육 중 경제지식, 경제관념, ⑤ 미래 설계 I (꿈·비전 설계) 영역 중 진로의식, 진로효능감, ⑥ 미래 설계 II (진학 준비·취업 준비) 영역 중 직업가치, 근로보호 관련 지식, ⑦ 출원 후 정보제공 및 수료식 영역 중 출원 지원 서비스 인지, 주관적 효과 및 교육만족도가 포함되었다. 핵심지표에는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대인관계역량, 자기조절, 진로효능감,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주관적 효과 및 교육만족도가 포함되었다.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실험설계를 적용하였다.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남자소년원 및 여자소년원 각각 1곳씩 총 2곳에서 전문강사의 진행에 따라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실험집단)과 비참여집단(통제집단)을 30명씩 배정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양적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 소년원 담당직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들과는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평가지표가 높게 나타났고, 사전 점수를 통제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가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역량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공격성, 진로효능감,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등에서 프로그램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만족도 분석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특히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 있었다' 등 교육내용과 관련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도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정착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게 한다는 점, 출원 이후 목표 수립 및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프로그램이 목표로 했던 대인

## 6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관계 향상, 진로목표 설정 등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소년원생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정착프로그램의 개선 사항으로 소년들은 프로그램 회기 당 충분한 시간 보장, 활동중심의 내용 보강을, 소년원 담당자들은 소년원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합리적 배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강사들은 처분에 따른 참여자 구성, 적정 참여인원의 배정, 참여자 특성에 맞는 내용구성, 소년원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의 다양화, 현실을 반영한 일부내용의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 □ 정책적 함의

이번 연구는 소년원생에 대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자 소년원생에 대한 집중 처우, 관계유형의 특성에 따른 개별 처우, 정신건강 고위험자에 대한 치료 처우, 소년범죄자 가족의 보호력 회복을 위한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 소년보호관찰의 분류와 처우의 실질적 연계 및 소년원과 소년보호관찰의 기능적 연계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정착프로그램의 시범적용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향후 프로그램의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내용 및 운영 측면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예산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박 성 훈



#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난 5년 간 소년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소년 10만명 당 1006.9명에서 2016년 810.6명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2015년 737.4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년범죄자의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대부분 재산범죄로 강력범죄의 비율(4.4% 2016년 기준)은 낮은 편이지만, 성인범죄를 포함한 전체범죄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가볍게 여길 만한 수치는 아니다(박준휘 외, 2018: 108-111).

〈표 1-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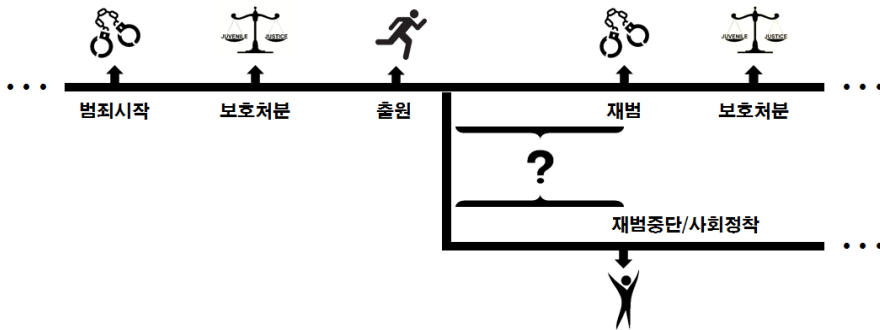
구분	소년범죄자수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범죄자 중 점유비율	소년인구 10만명당 소년범 수
	소년형법범	소년특별법범	계			
2007	60,426(68.6)	27,678(31.4)	88,104	27.3	4.5	709.7
2008	79,766(59.1)	55,226(40.9)	134,992	53.2	5.5	1,117.6
2009	81,378(72.0)	31,644(28.0)	113,022	-16.3	4.5	1,111.5
2010	70,045(78.0)	19,731(22.0)	89,776	-20.6	4.6	933.6
2011	66,240(79.7)	16,828(20.3)	83,068	-7.5	4.4	940.6
2012	87,778(81.7)	19,711(18.3)	107,490	29.4	5.1	1,006.9
2013	74,509(81.3)	17,124(18.7)	91,633	-14.8	4.3	875.1
2014	63,145(81.4)	14,449(18.6)	77,594	-15.3	4.1	786.0
2015	56,962(80.2)	14,073(19.8)	71,035	-8.5	3.6	737.4
2016	61,162(80.5)	14,838(19.5)	76,000	6.4	3.8	810.6

출처: 대검찰청(2008-2017), 박준휘 외(2018) 108면

범죄통계에서 주목할 사실 중 하나는 소년범죄자의 재범통계인데, 만성적 특성의 4범 이상 재범률이 2007년 6.9%에서 2016년 15.3%로 증가하였고(박준휘 외, 2018: 115), 2016년 기준으로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이 성인(5.7%)보다 높은 12.3%에 이르고 있으며(범죄백서, 2017: 567), 소년원 재입원율도 평균 20.0% 내외로 적지 않은 수의 소년들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성훈 외, 2017: 8-9).

흔히 소년범죄 관련 통계는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흉악하고 폭력적이며 저연령화, 만성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흉악한 소년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나 소년범죄자 형량 인상 등 강력한 처벌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일면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처벌수단의 강화를 통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소년범죄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해관계자들의 조급함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지 되물어 보게 된다.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범죄학자들은 소년범죄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 같다. 물론 외국에서도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범죄학자를 비롯해 소년사법당국은 좀 더 장기간에 걸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즉, 소년범죄문제를 어느 한 시점이 아닌 보다 오랜 기간의 관찰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 재범의 시각에 갇히지 않고 범죄중단 혹은 사회정착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소년범죄문제에 접근한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왜 소년범죄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까’라는 질문에서 ‘왜 어떤 소년범죄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반면, 왜 어떤 소년범죄자는 범죄를 중단하는 것일까’로 질문을 바꾼 것이다.



[그림 1-1] 소년범죄자의 재범과 재범중단

Sampson과 Laub(1995: 8-17)에 따르면, 심리학 분야에서는 아동기 반사회적 행동의 연속성 혹은 안정성에 대해 일찍부터 논의가 있었다. 여러 경험적 자료를 통해 발달심리학에서는 어린 적 반사회적 행동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범죄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회학 영역에서 이러한 행동발달의 관점을 놓치기는 하였으나, 사회학은 개인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Sampson과 Laub은 발달심리학의 행동발달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동기 반사회적 행위가 성인기 범죄행위로 지속될 수 있으나, 반대로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Sampson과 Laub은 인생경로에서 범죄의 지속 혹은 중단은 개인을 둘러싼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를 통해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범죄중단의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s)으로 결혼(marriage), 취업(employment), 군입대(military service)를 언급하였다(Sampson & Laub, 1995: 219-222).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년범죄자의 인생경로가 반드시 성인기 부적응이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효과적인 보호관찰과 중재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긍정적 발달경로(positive developmental trajectory)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본다(Laub et al., 1998; Leve et al., 2005). 시간을 더 늘려보면, 소년범죄자의 실패는 자신의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를 통해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범죄문제는 재범으로만 환원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재진입 혹은

사후보호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사회재진입 관점에서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사회정착지원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혜자인 소년원의 재원생과 출원생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원 후 소년들의 생활실태나 경로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박성훈 외, 2017: 10).

패널종단조사로 대표되는 종단연구설계(longitudinal research design)는 범죄학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연구방법론 중 하나이다. 이번 연구는 동태적 관점(dynamic perspective)에서 개인 간 차이는 물론 개인 내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소년원생의 출원 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그림 1-1]에서 ‘출원과 재범’ 혹은 ‘출원과 재범중단/사회정착’ 사이의 기간 동안 각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다. 사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다루지 못한 채 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횡단연구에 근거하여 이 부분을 추론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치 ‘블랙박스’와 같은 이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그동안 밝히지 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 1. 1차년 주요연구내용

이번 연구는 3년 동안(2017~2019) 진행되는 계속 연구과제로 비교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이들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검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필요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난 1차년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박성훈 외, 2017).

첫째, 사회정착을 위한 시설 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결과, 소년원 인성교육은 비행유형별 교육, 상담, 인문학, 멘토링,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추상적이고 효과성 검증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혼재되고 중복성격의 프로그램도 있어 일부 유익했다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억에 남는 교육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원들 역시 전문화된 기능분담이 불가능한 업무구조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과 사회복귀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사회 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결과, 출원한 소년원생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도우미제도는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만족도, 보람, 성과 인식),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방문보다 통신지도의 증가, 낮은 지역사회 활용도, 업무부담 가중)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착업무와 관련하여 소년원 직원이 소년보호협회나 보호관찰 직원에 비해 역할갈등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편이나, 출원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소년원 직원이 보호관찰 직원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소년보호관찰의 경우, 임시퇴원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어려움, 임시퇴원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소년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부족, 성인대비 높은 재범율로 인한 부담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Y.E.S.센터는 직업능력의 심화를 위한 기관이지만, 기관의 목적에 맞는 적합한 대상자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출원생들의 기피현상, 기초직업훈련 미이수 등), 자립생활관과 창업보육기업의 경우 출원생에게 안정적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직원들의 높은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 일본, 독일의 소년범죄자 사회정착제도 및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소년보호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 소년보호기관의 역할재정립, 소년범죄자를 위한 서비스나 감독의 연속성 유지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시설 내와 사회 내 중간다리 연결 프로그램의 필요성, 사회정착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방식의 필요성(재범 외에 프로그램 준비과정, 프로그램 운영과정, 프로그램 참가자의 친사회적 및 반사회적 결과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측정

치를 활용)을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출원 후 즉시적이며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소년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활동이나 체험 위주로 구성하면서 소규모 체험활동을 위해 모듬활동을 기본단위로 하였다. 소년원생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된 총 21회기의 프로그램 내용은 ① 자기이해 및 탐색(2회기), ② 의사소통·대인관계기술(4회기), ③ 사회적 관계 영향 파악하기(2회기), ④ 경제관리·경제교육(3회기), ⑤ 미래 설계 I(꿈&비전 설계) 2회기, ⑥ 미래 설계II(진학 모듈 3회기/ 취업 모듈 3회기), ⑦ 출원 후 정보제공/수료식(2회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소년원별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12회기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 ⑥미래 설계II는 취학모듈과 진학모듈로 나누어 교육대상의 욕구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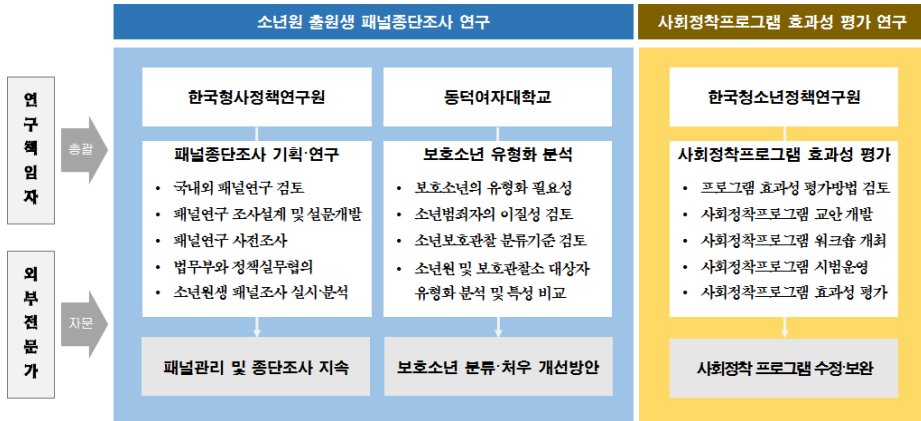
## 2. 2차년 연구추진체계

1차년 연구를 바탕으로 2차년 연구는 패널종단조사, 보호소년 유형화, 사회정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1년차 연구가 주로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제도운영과 해외사례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년차 연구는 패널종단조사를 통한 소년원 출원생의 실태파악 및 유형화 분석, 그리고 1차년에 개발된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패널종단조사의 학술적·정책적 중요성과 필요성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의 유형화 분석 역시 정책적 측면이나 학술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년범죄자들이 단일한 집단이 아닌 여러 이질적 하위집단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대상인 소년원생을 비롯해 보호관찰소년의 이질성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은 향후 이들의 사회적응 및 사회정착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도 기존 변인-중심(variable-centered) 접근이 아닌 개인-중심(person-oriented) 접근을 통해 집단 내 이질성을 규명하고 이론에 근거한 의미 있는 유형분류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1차년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



역시 학술적 측면에서나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림 1-2] 2년차(2018년)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협동연구과제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 기관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패널종단조사의 기획·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맡았고,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호소년의 유형화 분석을 담당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차년 연구에 이어 사회정착프로그램의 시범적용 및 효과성 평가를 담당하였다. 그 밖에 법무부 소년보호담당자와 주기적인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패널조사 및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학계의 교수 및 소년보호관련 실무가 등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조사설계, 설문지개발, 프로그램 수정 등에 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였다.

1)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세 가지 연구주제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상적으로는 패널종단연구를 통해 소년원 출원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소년원생에 대한 유형화를 분석하며, 유형화 분석을 통해 발견한 집단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보고서 일정, 공동연구진과 계약기간이 달라 서로 다른 시기에 연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의 이유로 이상적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연구진이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개별 연구주제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밝힌다.

### 제3절 연구의 내용

이번 2년차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제2장은 패널종단연구에 관한 내용으로 종단연구의 개념, 국외 범죄학 분야의 종단 연구, 국내 패널조사 등을 검토한 후, 이번 패널종단연구의 조사설계 및 조사항목을 도출하기까지 고려사항과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비교를 통해 사회정착관련 요인, 위험·보호요인, 사회연결망 요인을 중심으로 소년원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보호소년 유형화에 관한 내용으로 소년범죄자 유형화의 필요성과 정책적 의미를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한 후, 2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형화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유형화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조사설계,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사회정착프로그램의 시범적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두 개 소년원에서 이루어진 효과성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 소년원 담당직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와의 심층 면접 결과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2차년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패널종단조사 분석결과 및 효과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 2 장

패널종단조사 분석결과

조영오·박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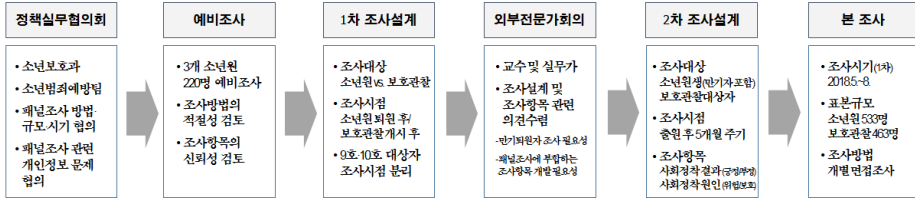


# 패널종단조사 분석결과

## 제1절 개관

이번 연구는 사회재진입의 관점에서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사회정착지원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태를 살펴보고,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지원 체계를 점검하여 정책적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실태나 경로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추적조사 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연구가 전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이 되었다면, 2차년도 연구는 후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년원생이 출원 후 어떻게 사회에 적응해 나아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 정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동태적 관점에서 범위의 지속 혹은 중단, 취업의 시작 혹은 중, 학업의 시작 혹은 중단 등 과정을 살펴보고, 각 개인이 그러한 변화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동적요인(dynamic factors)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박성훈 외, 2017: 11).

이번 연구는 소년보호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청소년관련 전문기관의 협동연구로 기획되었다. 특히 패널종단연구는 정책당국과의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 전문가들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조사를 기획하였고,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해 조사방식 및 조사항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다. 정책당국과의 협의 및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1차 조사설계안 및 조사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크숍과 자문회의를 통한 수차례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최종 조사설계안 및 조사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그림 2-1] 패널종단조사 추진과정

이 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주요 방법론인 종단연구(longitudinal research)를 범죄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해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패널조사의 종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 기획한 패널종단조사의 설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과 관련하여 인지 및 행동적인 측면에서 소년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사회정착과정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인지/행동 변화와 사회정착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결망의 속성과 형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1. 종단연구와 패널종단조사

#### 가. 종단연구의 장단점

종단연구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고 변인들 간의 시간적 선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만병통치약(panacea)’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종단연구는 비용측면에서 너무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패널마손(panel attrition)’을 최소화해야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더구나 인과성 문제가 언제나 종단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적 선후관계가 분명한 변인들, 예를 들어 성별, 연령, 인종 등 생물학적 변인과 같이 다른 변인에 확실히 선행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종단연구는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불완전한 연구설계나 빈약한 자료분석의 문제를 모두 극복할 수는 없다(Menard, 1991: 3-4).

종단연구는 특정한 변인의 변화패턴(the patters of change)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 혹은 변인 간 인과관계의 방향 및 크기(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casual relationship)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설계이다(Menard, 1991: 5). 일례로 어떤 연구자가 범죄두려움을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측정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연령별로 20대와 50대의 범죄두려움 차이를 두 시점에서 비교할 수도 있으나, 2008년 당시 20대는 2018년 30대로, 50대는 60대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령별 범죄두려움의 변화추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만일 2008년 표본과 2018년 표본이 동일하다면, 개인 혹은 집단 내 차이 뿐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 간 차이까지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자료에 비해 훨씬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종단연구 역시 횡단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일생에 걸친 범죄정보를 얻기 위한 주요한 자료 출처 중 하나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이다. 공식통계는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기반으로 하나 경찰에 체포된 경력도 자료로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공식통계는 모든 범죄 중에서 일부만이 경찰에 신고 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자료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종단자료의 다른 출처는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tudy)이다. 1960년대 이래로 자기보고식 조사가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었고, 일부 학자들도 자기보고식 조사야말로 범죄경력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조사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응답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응답할 때,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해서 보고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신뢰할만한 연구는 공식적인 기록과 자기보고식 자료를 결합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보고를 기반으로 한 자료까지 추가로 더해진다면 자료의 신뢰성은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과 자기보고식 자료에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의 자료까지 더해진다면 한 사람의 범죄행동에 대한 가능한 완벽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oothil et al., 2009: 39-40).

종단연구는 횡단연구와 비교할 때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순수한 횡단연구에서 측정은 분석단위(개인, 조직, 국가 등)마다 한 번씩만 가능하다. 반면, 종단연구는 하나의 변인이 두 번 이상 여러 시간에 걸쳐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변인은 상호 비교도 가능하다. 횡단연구와 비교해서 종단연구의 장점은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변인의 차이, 즉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Menard, 1991: 4). 또한 횡단연구와 달리 종단연구는 각 개인의 발달단계(developmental sequences)를 고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마다 서로 다른 발달궤적(individual trajectories)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생사건의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종단연구가 시간에 따른 개인 내 변화(within individual changes)를 측정하기에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종단연구의 한계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였듯이 종단연구는 횡단연구에 비해 비용측면에서 비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많은 자원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정책실무가에게 연구결과 및 대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Soothil et al., 2009: 41).

#### 나. 패널종단조사의 유형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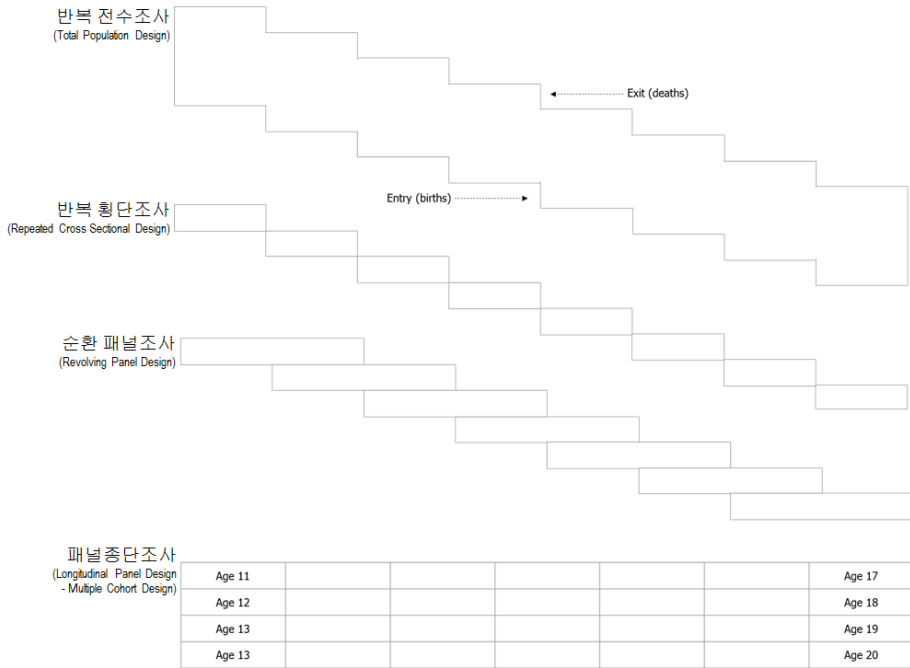
학자에 따라 종단연구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종단연구는 반복 횡단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design), 전향적 패널조사(prospective panel design), 회고적 패널조사(retrospective panel design)로 구분될 수 있다(Menard, 1991: 4-5).<sup>2)</sup> 패널종단조사(longitudinal panel design)는 다른 유형, 즉 반복 전수조사(total population design), 반복 횡단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design), 순환 패널조사(revolving panel design)와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Menard, 1991: 24-30).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복 전수조사의 대표적인 예는 인구센서스 조사이다. 센서스 조사는 정해진 기간 마다(통상 10년 주기)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센서스 조사보다는 약하지만 FBI에서 발표하는 전미범죄통계(Uniform Crime Reports) 역시 매년 경찰

2) Menard는 일부 학자들이 좁은 의미에서 종단연구를 전향적 패널조사와 회고적 패널조사 등 두 가지 유형으로만 정의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볼 때 반복 횡단조사 역시 서로 다른 시점에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횡단연구와 다른 종단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종단연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1991: 5).



에 보고된 모든 사건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반복 전수조사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Menard, 1991: 24).



[그림 2-2] 자료수집을 위한 종단연구 설계

출처: Menard(1991), 25면.

둘째, Menard가 분류한 나머지 종단조사의 유형은 반복 전수조사와 달리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한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Menard, 1991: 26). 반복 횡단조사는 연구자가 특정시점에서 독립적인 확률 표본(independent probability samples)을 추출하기 때문에 매 시점마다 표본 사례가 다르기 마련이다. 일부 중첩된 표본이 속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의 무시할만한 수준이며, 반복 전수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점별로 비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60년대 시행된 전미청소년조사(National Survey of Youth)로 연구자들은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967년과 1972년에 두 차례 자료를 수집하였다. 흥미롭게도 이 자료를 통해 수집된 청소년비행율과 1967년부터 1972년까지 공식통계에 나타난 청소년의 체포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반복 횡단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태도나 인식변화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다. 다만, 반복 횡단조사의 단점은 코호트의 발달유형(developmental patterns)을 연구한다거나 인과적 순서(causal order)를 고려한 연구주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반복 횡단조사는 동일한 결과를 시기만 달리해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내 변화(intra-cohort change)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발달패턴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례에 대해 최소 두 시점 이상 변인을 측정하지 않고서는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어렵다. 사실 반복 횡단조사는 개인수준이 아닌 집단수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논하는데 적절한 연구설계이다. 만일 변인들 간의 인과적 순서마저 분명하다면, 반복 횡단조사는 인과분석에도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Menard, 1991: 26-28).

셋째, 순환 패널조사는 어떤 한 시점에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단계에서 그 표본의 일부는 버리고 다른 사례들로 대체하여 그 표본을 유지해 나가는 조사를 말한다. 순환 패널조사는 전향적 패널조사에서 발생하는 패널탈락 문제와 반복된 측정으로 인한 오염문제를 완화시킬 뿐 아니라 회고적 패널조사에서 오랜 회상기간 때문에 발생하는 기억의 오류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순환 패널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된 표본은 단기간 동안 개인 내 변화(intra-cohort developmental change)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조사기간 동안 새롭게 대체된 표본은 집단수준에서 장기간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1980년대 전미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Survey)는 순환 패널조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전미범죄피해조사 패널에 속한 가구원들은 6개월 단위로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3년 동안 7회 가량 조사에 참여한 표본은 자연스럽게 표본에서 탈락되고 새로운 가구의 표본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단기간 동안 가구단위의 피해율 변화를 분석할 수는 있었으나, 장기간에 걸친 가구단위의 피해율 변화를 분석할 수는 없었다(Menard, 1991: 26-28).

넷째, 패널종단조사는 다시 회고적 패널조사(retrospective panel design)와 전향적 패널조사(prospective panel design)로 구분할 수 있다. 만일, 재범에 관심이 있는 어떤 연구자가 교도소에 찾아가 수형자의 청소년기 비행이나 범죄사실에 대해 질문한다면 이러한 조사는 회고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고적 패널조사의 단점

중 하나는 잘못된 기억(faulty memories)의 문제이다. 또 다른 단점은 과거의 기록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접근한다 해도 과거의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이다(Maxfield and Babbie, 2015: 101). 패널종단조사는 매 시점마다 동일한 표본에 대해 같은 조사를 반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결측자료(missing data)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패널마손(panel attrition)이라고 하는데, 패널마손은 대부분 한 번 이상 반복조사를 실시하는 전향적 패널조사와 관련이 있다. 회고적 패널조사에서 패널마손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최소 두 번 이상의 시점에 대한 자료를 한 번에 수집하는 회고적 패널조사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회고적 패널조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시점 이전에 표본이 죽거나 사라진 경우 그 표본은 모두 배제되기 때문에 표본의 편향문제(sampling bias)가 제기될 수 있다(Menard, 1991: 29). 특히 범죄경력 연구에서 회고적 패널조사는 그 특성상 전향적 패널조사에 비해 범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과장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주제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Maxfield and Babbie, 2015: 102). 그 밖에 전향적 패널조사나 회고적 패널조사에 관계없이 응답자가 과거의 사건, 행동, 태도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자가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하는 경우,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결측자료가 나타날 수 있다. 사실 패널종단조사는 조사시점이나 표본의 수만 충분하다면 여러 개의 코호트를 포함하는 연구설계도 만들 수 있다. 단일 코호트 패널조사로는 여러 코호트 간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다중 코호트 패널조사를 통해서는 연령효과(age effects), 기간효과(period effects), 코호트효과(cohort effects) 등을 비교할 수 있다(Menard, 1991: 30).

## 2. 범죄학 분야의 주요 패널종단조사

범죄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앞서 살펴본 이유를 근거로 종단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범죄학 분야에서 많은 종단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단연구는 Robert J. Sampson과 John H. Laub이 재발견한 글룩 부부의 연구(The Glueck's Unravelling Juvenile Delinquency Study), Donald J. West와 David P. Farrington이 수행한 케임브리지 연구(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cy Development), Terrie E. Moffitt과 동료들이 뉴질랜드에서 수행한 더니

든 연구(The Dunedin Multi-disciplinary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Study)를 들 수 있다(Soothil et al., 2009: 37).

### 가. The Gluecks' study

범죄학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 중 하나는 미국 하버드 법대의 Sheldon과 Eleanor Glueck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들은 Massachusetts 州 Boston 인근 빈곤지역에 살고 있던 10살부터 17살까지 비행소년 500명과 일반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집단은 연령(age), 민족(ethnicity), 지능(IQ) 측면에서 매칭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1939년부터 1948년까지 진행되었다. 글룩 데이터의 장점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즉 대상 소년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 선생님, 이웃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더불어 그들의 범죄기록도 수집되었다. 두 번째 조사는 1949년과 1963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글룩부부는 소년들의 평균연령이 25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32세가 되었을 때 조사를 수행하였다. 세 번의 조사를 거치면서 비행소년 500명 중 438명이, 일반소년 500명 중 44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Benson, 2013: 22). 글룩부부는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로 연령과 범죄 사이의 강한 관계,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개인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향, 둘째로 범죄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범죄경력도 길어지고 지속되는 경향, 셋째로 미래의 반사회적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과거의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사실, 넷째로 원칙 없고 변덕스러운 훈육과 처벌, 부모와 자녀 간의 약한 감정적 유대와 무관심 등 가족요인이 비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향이 나타났다(Soothil et al., 2009: 43). 약 20년 후 Sampson과 Laub은 하버드 대학 도서관 지하실에서 글룩부부의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여 방대한 자료를 다시 코딩하고 분석하였다(Sampson and Laub, 1995: 1). 그들은 이 자료를 통해 생애과정에서 범죄의 지속과 중단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1963년 중단된 글룩부부의 연구를 계속 이어서 새로운 연구를 기획하였는데, 1963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당시 소년들의 체포기록, 군경력, 사망기록 등을 수집하고, 이미 60대 후반에서 70대에 접어든 비행소년 52명을 추적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Laub and Sampson, 2003: 69).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여 Laub과 Sampson은 그들의 이론을

보완한 연구를 세상에 내놓았고, 이들의 데이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로 기억되고 있다(Benson, 2013: 23).

#### 나. The Cambridge study

케임브리지 연구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종단연구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1953년을 전후로 태어난 411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패널조사로서 범죄 행위와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탐구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Soothil et al., 2009: 44). 연구에 참여한 표본은 1961~1962년 런던의 노동자계급이 사는 지역에 살고 있던 당시 8세~9세 사이의 소년들이었다. 대다수 소년들은 양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영국태생의 백인들이었다(Farrington and Welsh, 2007: 26). 연구가 시작될 당시 책임자는 Donald J. West였으나 1982년부터는 David P. Farrington이 맡아 진행하였다. Farrington은 2001년 무렵 8세부터 48세까지 조사에 참여했던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케임브리지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4권의 책과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Benson, 2013: 24). 케임브리지 연구의 패널마손은 낮은 편이었는데, 연구진은 소년들이 32세가 될 무렵 원래 표본의 94%와 접촉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자료는 소년은 물론 그들의 부모, 선생님, 친구, 공식통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였다. 지능, 성격, 충동성은 학교를 통해 수집하였고, 생활환경, 일자리 경험, 여자친구와 관계, 음주, 약물, 폭력과 같은 정보는 소년과의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소년들의 나이가 8세부터 15세까지 1년에 한 차례씩 소년의 아버지와도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에서는 가족의 수입, 가족구성원, 아버지의 직장경력, 자녀양육태도, 자녀와의 일시적 혹은 완전한 별거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학교선생님과는 소년들이 8세, 10세, 12세, 14세 때 만나서 교실 내에서 보이는 불안, 주의력결핍, 가출, 학교애착, 파괴적 행동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추가로 소년들의 범죄기록, 부모·형제와의 면접, 배우자·동거자와의 면접, 잠재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면접도 이루어졌다(Farrington and Welsh, 2007: 26-27).

케임브리지 연구의 목적은 도심지역 백인 남성들의 비행과 범죄의 발달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비행과 범죄가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예견될 수 있는지, 왜 소년

기 비행이 성인범죄로까지 지속되는지 혹은 성인범죄에서 중단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즉 이 연구는 범죄의 시작, 중단, 예측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케임브리지 연구의 주요한 기여 중 하나는 범죄행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혀준 것이었다. Farrington은 충동성(impulsivity), 지능·학업성취(intelligence or attainment),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poor parenting), 범죄자가 있는 가족력(criminal family), 사회경제적 취약성(socio-economic deprivation), 아동기 반사회적 행동(child anti-social behavior) 등이 성인기 범죄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케임브리지 연구의 정책 시사점 중 하나는 범죄행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춘 범죄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Soothil et al., 2009: 45).

#### 다. The Dunedin study

뉴질랜드에 위치한 더니든에서 수행된 ‘건강과 발달에 관한 학제 간 연구(The Multidisciplinary Health and Development Study)’는 전향적 패널조사로서 1972년 4월 1일부터 1973년 3월 31일 사이에 더니든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 중에서 1975년 현재 더니든에 살고 있는 아기를 연구대상 코호트로 하였다. 당시 1,139명 중에서 1,03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1975년부터 2년 간격으로 심리적 요인, 의료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을 조사를 하였다. 더니든 연구는 3세부터 21세까지 대상자는 물론 부모님과 선생님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고, 공식기록도 수집하였다(Benson, 2013: 24). 인종 측면에서 이들은 주로 유럽계 백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뉴질랜드 남부의 인종 분포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아이를 마오리인 또는 태평양 섬주민으로 생각한 엄마는 채 2%도 되지 않았다. 이들 중 약 절반정도는 여전히 더니든 근처에서 살았고, 나머지는 뉴질랜드의 다른 도시나 호주로 이주하였으며, 극히 일부만이 영국, 미국,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othil et al., 2009: 47).

Moffit은 더니든 자료를 통해 평생지속형 반사회적 행동(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과 청소년기 한정형 반사회적 행동(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이라는 두 가지 유형론(taxonomy of the two prototypes)을 제시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평생지속형 경로는 3세 때 측정된 통제력 결여, 신경이상, 운동신경의

지연발달, 그리고 낮은 지능, 독해력 부족, 신경심리학 측정결과 낮은 기억력, 과장행동, 느린 심장박동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따라 달리 예측되었다. 또한 평생지속형 경로는 십대 미혼부모,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엄마, 자녀를 심하게 무섭게 대하거나 방임적인 엄마, 일관되지 않고 엄격한 훈육방식, 가족 간 갈등이 심한 가정 분위기, 주보호자의 잦은 교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친구들로부터 따돌림 경험 등 양육 관련 위험요인에 따라서도 달리 예측되었다. 청소년기 한정형 유형은 평생지속형 유형과 십대 시절의 비행정도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배경요인은 정상적이거나 오히려 더니든 아이들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Moffitt, 2009: 278-280).

Moffitt에 따르면, 더니든 연구는 인생 초기 20년 동안의 건강, 발달,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다시 말해, 더니든 연구는 다른 종단연구처럼 10대 시절부터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어린 시절부터 발달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또한 Moffitt은 더니든 연구가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과 위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에 초점을 맞춘 것도 독특한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니든 연구 역시 학제 간 연구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켄브리지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켄브리지 연구가 청소년비행(delinquency)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더니든 연구는 개인의 건강과 발달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ur)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Soothil et al., 2009: 47).

이처럼 범죄학 분야의 대표적인 패널종단연구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패널종단조사가 시행되었고, 현재도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 범죄학 분야의 국외 종단연구 현황

No.	연구자	연도	종단연구명	국가	연구대상 및 표본	기간	조사주기
1	McCord	1937	Cambridge-Somerville Youth Study	미국	1937~1939년 Cambridge, Somerville, Massachusetts의 공립학교를 다니는 남아(평균 10세)(650명)	30년	상당기간(1939~1945년, 평균 5.5년), 1948년, 1975년~1981년
2	Laub & Sampson	1939	The Glueck's Longitudinal Study	미국	1939~1944년 교정시설 경험이 있는 비행소년(500명), 이들과 매칭된 Boston에 거주중인 비행소년(500명)	약 70년	2년에 한 번 자료수집, 5년에 한 번 physical health 정보 수집, 5~10년 주기로 인터뷰
3	Wolfgang et al.	1945	Philadelphia Birth Cohort Studies	미국	1945년 Philadelphia에서 태어나 10~17세까지 그곳에서 거주한 남아(9,945명) 1958년 Philadelphia에서 태어나 10~17세까지 그곳에서 거주한 아동(27,160명)	4년	26세, 30세
4	Wadsworth & Douglas	1946	National Survey of Health and Development	영국	1946년 3월의 한 주 동안의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출생자(5,362명)	70년	21세, 26세, 36세, 43세, 50세
5	Kolvin & Miller	1947	Newcastle Thousand Family Study	영국	1947년 Newcastle Upon Tyne에서 태어난 아동(1,142명)(5,362명)	약 60년	출생일, 5세, 15세, 22세, 32세, 50세, 54세, 62세
6	Janson & Wikström	1953	Stockholm Project Metropolitan	스웨덴	1953년 태어나 1963년 Stockholm에 거주한 아동(15,117명)	32년	
7	Smith & Werner	1955	Kauai Longitudinal Study	미국	1955년 하와이 출생자(698명)	40년	2세, 10세, 18세, 30세, 40세
8	Denno et al.	1959	National Collaborative Perinatal Project	미국	1959~1962년 Philadelphia 출생 African American(987명) 1960~1966년 Providence, Rhode Island 출생(3,823명)	22년	생후 4개월, 8개월, 12개월, 3세, 4세, 7세, 8세
9	Klinterberg	1959	Young Lawbreakers as Adults	스웨덴	1959~1963년 Stockholm 11~14세 남자 비행청소년(192명)과 통제집단 남자 청소년(95명)	35년	38~46세
10	Eron et al.	1960	Columbia County Longitudinal Study	미국	1960년 Columbia 주에 거주하는 아동(856명)	40년	10년(1970), 11년(1981), 18년(1999~2002)
11	Farrington & West	1961	The Cambridge Study	영국	1961~1962년 South London에 거주중인 8~9세 남아(411명)	40년	8세, 10세, 14세, 16세, 18세, 21세, 25세, 32세, 48세
12	Magnusson et al.	1965	Orebro Project	스웨덴	1965년 Orebro의 3학년(10세) 아동(1,027명)	35년	13세, 15세, 43~45세
13	Hugh & Wolf	1965	Copenhagen Project Metropolitan	덴마크	1953년 Copenhagen에서 태어난 남아(12,270명)	12년	1965~1966년 검사 시작, 1976년



No.	연구자	연도	종단연구명	국가	연구대상 및 표본	기간	조사주기
14	Kellam et al.	1966	Woodlawn Project	미국	1966년 Chicago African American 1학년(6세) 아동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과 어머니 제공(1,242명)	26년	10년(16세), 16년(32세), 10년(42세)
15	Räsänen	1966	Northern Finland Birth Cohort Study	핀란드	1966년에 태어나 핀란드에 거주하는 남성(5,636명)	46년	10년에 한 번
16	Pulkkinen	1968	Jyväskylä Longitudinal Study of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핀란드	1969년 태어나 Jyväskylä에 거주하는 8-9세 아동 (369명)	42년	6-8년(8세-50세)
17	Moffitt et al.	1972	Dunedin Multidisciplinary Health and Development Study	뉴질랜드	1972~1973년 출생자(1,037명)	32년	2~3년에 한 번 조사
18	Raine et al.	1972	Mauritius Joint Child Health Project	모리셔스	1968~1970년 Mauritius에서 태어나 거주중인 3세 아동 (1,795명)	37년	8세, 11세, 17세, 23세, 28세, 35세, 40세
19	LeBlanc	1974	Montreal Two-Samples Longitudinal Studies	캐나다	1974년 Montreal의 15세 남자 비행청소년(458명) 1974년 Montreal의 불어를 사용하는 12~16세 청소년(3,070명)	15년	17세, 22세, 30세, 40세(범죄경력)
20	Elliott & Huizinga	1976	National Youth Survey	미국	11~17세 청소년(1,725명)	28년	1년(-5차), 3년(-1993, 2002-2003)
21	Fergusson & Horwood	1977	The Christchurch Health and Development Study	뉴질랜드	1977년 Christchurch에서 태어난 신생아(1,265명)	25년	출생일, 생후 4개월, 생후 12개월, 매년(-16세), 18세, 21세, 25세
22	Najman et al.	1981	The Mater University Study of Pregnancy	호주	1981년 Brisbane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그들의 어머니 (8,556명)	30년	생후 3-5일, 생후 6개월, 5세, 14세, 21세(어머니는 30년 2011~2014년에 조사함)
23	Patterson et al.	1983	Oregon Youth Study	미국	1983~1985년 Eugene, Springfield에 거주하는 4학년 (10세) 아동(206명)	30년	매년 조사
24	Tremblay	1984	Montreal Longitudinal-Experimental Study	캐나다	1984년 Montreal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남아(6세) (1,037명)	17년	연 1회(10세~26세)
25	Hawkins & Catalano	1985	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	미국	1985년 Seattle에 거주하는 5학년(10세)(808명)	18년	매년(-16세), 2~3년(-최소 27세)에 한 번 조사
26	Huizinga & Esbensen	1987	Denver Youth Survey	미국	1987년 Colorado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이웃을 둔 7세, 9세, 11세, 13세, 15세(1,528명)	15년	매년(-1998) 조사

No.	연구자	연도	종단연구명	국가	연구대상 및 표본	기간	조사주기
27	Loeber et al.	1987	The Pittsburgh Youth Study	미국	1987~1988년 1학년(1,165명), 4학년(1,146명), 7학년(1,125명) 남자 청소년	12년	3년간은 연 2회 조사, 이후 19세(1학년 코호트) 또는 25세(7학년 코호트)까지 연 1회 조사
28	Thornberry et al.	1988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	미국	1988년 Rochester의 7~8학년(13~14세) 청소년(1,000명)	20년	연 2회 또는 1회 조사
29	Maxfield & Widom	1988	Longitudinal Study of Abused Children	미국	1967~1971년 Indianapolis 법정에서 학대받은 것으로 기록된 11세 이하 아동(908명)과 매장된 아동(667명)	25년	1988년, 1994년
30	Tolan et al.	1990	Chicago Youth Development Study	미국	1991년 Chicago 내 공립학교의 5학년, 7학년(11~13세) African American과 Latino 남아 (362명)	15년	연 1회 6차까지 조사
31	Mednick et al.	1996	Danish Birth Cohort Studies	덴마크	1944~1947년 덴마크 출생자(358,180명) 1951~1959년 Copenhagen에서 태어난 남자(4,169명)	44년	
32	Brook et al.	1998	New York State Longitudinal Study	미국	1~10세 자녀를 둔 어머니(976명)	16년	

출처: Farrington and Welsh(2007), 29~36면의 내용을 재구성

### 3. 소년원 출원생 패널종단조사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패널종단조사는 범죄학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여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시간에 따른 임금의 변화 등을 연구하는 데, 정치학 분야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당의 행태 등을 분석하는데, 심리학·사회학·보건학 분야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구대상의 인식이나 행태 변화를 분석하는 데 패널자료가 이용되고 있다(남상호, 2011: 13). 분석의 측면에서 패널자료는 횡단자료와 비교해 변인 간의 동태적 관계(dynamic relationship)를 분석할 수 있고, 시계열 자료와 비교해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함으로써 편의(bias)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남상호, 2011: 14).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패널종단조사는 대우경제연구소 가계패널조사(KHPS, Korea Household Panel Study)인데, 1993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998년까지 진행되었다(남상호, 2011: 15). 패널종단조사는 2000년대 들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패널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패널조사만 해도 약 20개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하형석 외, 2017: 11).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여러 패널자료는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수집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일반에 공개된 이후 201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려 1,090편의 논문과 보고서에 활용되었고, 제3차~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여성가족부의 각종 청소년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하형석 외, 2017: 28).

34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표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패널사업 현황

주관 연구기관	패널자료명	사업기간	조사주기	조사대상	표본규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998~계속	1년	도시거주 가구 및 15세 이상 개인	5,000가구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1)	2001~2006	1년	만 15~29세 청년	5,956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	2003~2008 2004~2008	1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3,697명(중2) 2,949명(초4)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2010	1년	전국 16개 시도 150개 중학교	6,908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2004~계속	2년	100인 이상 기업체	1,899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	2004~2015	1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000명(중3) 4,000명(고3)
한국고용정보원	대출자직업이동 패널	2006~계속	1년	2004.8.~2005.2. 전문대이상 졸업자	26,544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2006~계속	1년	2006국민생활 실태조사원료가구	3,500가구(일반) 3,500가구 (저소득)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6~계속	2년	인사·노무담당자 및 근로자 대표	1,905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2007~계속	2년	만 19~64세 여성	9,997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	2007~계속	2년	100인 이상 기업체 여성관리자· 인사담당자	341개 기업 (2,361명)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07)	2007~계속	1년	만 15~29세 청년	10,206명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	2008~계속	1년	15개 시도 거주 가구 및 가구원	5,634가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2008~계속	1년	2008년 태생 코호트 및 부모	2,150가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패널	2008~계속	1년	2005인구주택총 조사 350개 조사구	7,866가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2010~2016	1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2,342명(초1) 2,378명(초4) 2,351명(중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	2011~계속	1년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학생 1,635명 부모 1,625명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2020	1년	초등학교 5학년	7,324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2차	2016~계속	1년	고등학교 2학년	10,770명

출처: 남상호(2011), 14면을 참고하되 일부내용은 수정·보완하였음

이처럼 국외 범죄학 분야는 물론 국내 여타 학문분야에서 패널종단조사는 그 필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범죄학 분야에서는 패널종단조사가 활발하게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패널종단조사가 다른 조사에 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더불어 다른 조사대상과 달리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형사사법기관 외에 일반인이 범죄자와 접촉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를 법률에 정해진 목적 외에 조회나 회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김지선 외, 2014: 295-29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연구들 중에는 회고적 패널조사를 통해 범죄경력 및 재범연구를 수행한 사례도 있다. 일례로 김준호·이순래(1995: 39-43)는 1994년 당시 서울소년원에 보관 중인 소년부기록을 통해 1983년부터 1985년 사이 서울소년원에서 출원한 모든 소년 961명을 대상으로 가족환경, 친구관계, 교육배경, 최초범죄시 연령, 지역사회환경, 행동습관 및 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어서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시 4개 지청의 협조를 얻어 1994년 당시 961명에 대한 수사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병기·노성호(1994: 55-56) 역시 1989년 7월부터 1990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소년감별소(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부 기록을 조사한 후 1993년 6월 기준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의뢰하여 총 549명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소년범죄자의 43.0%에서 67.0%가 소년범죄에서 성인범죄로 전이된다는 사실(김준호·이순래, 1995:113)이나 소년범죄자의 57.9%는 소년감별소에서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 후 50%가 1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였다(이병기·노성호, 1994:150).

이후 패널종단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나 최근 보호관찰대상 소년을 중심으로 3년 간 전향적 패널조사를 수행한 연구가 발표되었다(전영실 외, 2013). 이 연구의 모집단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고등학생이지만, 가출이나 비행 등의 이유로 학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별도의 패널을 구축하고자 일반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는 다른 비행성향의 학교박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보호관찰대상 소년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는데(윤철경 외, 2013: 10),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사대상자 확보의 어려

움 때문이었다. 사실 비행성향을 가진 학교밖청소년을 일반인이 만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간 종단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패널확보가 우선 고려되었고, 수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비행성향을 가진 대상으로 보호관찰대상 소년을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특히 안정적 패널확보를 위해 장기보호관찰(최대 2년)을 받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기간이 1년 미만인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220명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167명이 패널로 참여하였다(전영실 외, 2013: 2015).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연구(이병기·노성호, 1994; 김준호·이순래, 1995)는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된 패널연구이기는 하나 표본의 편향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회고적 패널조사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 수행된 연구(전영실 외, 2013: 2015; 김지영 외, 2014)는 전향적 패널조사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패널참여자 수가 매우 적은 편이고, 연구주제가 학업중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행의 시작, 중단, 지속 등 범죄학 분야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제3절 패널종단조사 연구설계

#### 1. 조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소년원에서 출원한 소년들이 사회정착을 하는데 있어 (1) 인지/정서 및 행동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2)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적인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3) 인지/정서 및 행동적인 변화가 궁극적으로 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절에서는 조사설계,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조사설계, 조사대상, 조사내용 등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할 때 소년원생만의 특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소년원 출원생들의 사회정착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대한 오랜 기간(예: 3년 이상) 그리고 반복적으로(예: 매달) 소년을 관찰할수록 사회정착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널조사라는 점, 연구기간 등의 한계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3번 소년의 상태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 시점은 사회에 진입하기 전 단계로 소년원내에서 소년의 인지/정서 및 행동적인 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시설 내에서 소년을 관찰할 경우 개인 간의 상호작용 혹은 환경이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시설 이전과 이후 소년의 변화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시점은 시설에서 출원한 소년이가 사회에 진입한 단계로, 많은 부분이 제한된 시설내의 생활과는 달리 상당부분이 소년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환경에서 사회적응을 위해 소년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단계는 단기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소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시점은 사회진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단기적인 사회적응을 넘어 장기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소년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년원생들이 받은 처분의 차이로 인해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 그리고 임시퇴원을 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조사시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소년원 1개월 수용인 8호 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소년원생들은 보호처분 중 9호 혹은 10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만기퇴원의 경우 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6개월 동안,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2년 동안 소년원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9호 혹은 10호 처분을 받은 상당수의 소년원생들은 처분 받은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임시퇴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처분기간 종료 전에 소년원에서 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sup>3)</sup> 이처럼 소년원생들이 받은 처분의 개인 간 차이와 개인에게 부여되는 상벌점에 따른 퇴원일의 차이 때문에 조사시점을 정하기가 일반 청소년 패널에 비해 쉽지 않다. 즉,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할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소년원 내에서 1차 조사 후, 사회 내에서 2차 혹은 3차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예: 사회진입 시점,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시작 혹은 종료 시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서 조사설계를 해야 한다.

셋째, 소년원생 중 대부분은 임시퇴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에서 받은 처분 기간보다 일찍 소년원에서 퇴원해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즉, 소년원생들은 모든 처분기간을 다 채우고 퇴원하는 만기퇴원자와 임시퇴원자로 구분된다. 임시퇴원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년원을 일찍 퇴원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정해진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경우 사법부의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게 된다. 반면, 만기퇴원자의 경우 소년원에서 출원하게 되면 희망도우미 제도를 통하여 소년원과 퇴원자들이 어느 정도 연결되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공식적인 절차는 소년원을 출원하게 되면서 끝나게 된다. 소년원 퇴원 방식의 이러한 차이는 조사설계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요컨대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특성(소년원생의 사회정착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 소년원생들의 처분, 퇴원일, 보호관찰 여부 등 법원처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 만기퇴원자와 임시퇴원자의 출원 과정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고려하여 조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대상을 선별해야 하며, 조사내용 역시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 조사설계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조사설계를 할 때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이슈가 제기된다. 첫째는 조사시점이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정 주기를 정해서 설문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패널조사를 실시할 경우 매년 4월과 10월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원생들의 경우 소년원에 입원하는 날짜가 개인별로 상이하고 임시퇴원이라는 제도로 인해 같은 날 입원한 소년이라도 퇴원하는 날짜가 다르다. 그로인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예를 들어 6개월 마다 조사 실시), 2차 조사 시 1차 조사대상자 중 일부는 소년원에 계속 남아있고 일부는 퇴원하여 사회에서 생활하게 된다. 둘째는 소년원에 재원중인 소년들이 각기 다른 처분(9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기 때문에 소년이 받는 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설계를 달리할지, 아니면 처분



과 상관없이 동일한 조사설계를 적용할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두 가지 이슈에 더해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패널조사 계획을 수립할 경우 임시퇴원자와 만기퇴원자를 구분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시퇴원자의 경우 소년원에서 퇴원하게 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의 도움을 받으면 조사를 보다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다. 반면, 만기퇴원자의 경우는 소년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소년원 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호관찰처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임시퇴원자와 만기퇴원자에 따라 어떻게 조사설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 한 후, 소년원 처분에 따른 조사시점을 고려한 조사설계에 대해 논의하고, 소년원생들의 비교집단으로 4호(보호관찰 1년)/5호(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설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임시퇴원자 조사설계

### 1) 조사방식의 종류

임시퇴원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슈(조사기준과 처분특성)를 고려하면 4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3〉 조사기준과 처분특성을 고려한 설문조사 방식

구 분		조사기준	
		일정시점 기준	사회정착 단계별 특성 기준
처분특성(9호와 10호)	동일한 방식	A	B
	다른 방식	C	D

조사기준의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패널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개월 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방식은 사회정착 단계별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경우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정착 과정에서 소년이 경험

하는 시기적인 특성(예: 소년원 시설 내, 소년원에서 퇴원한 직 후, 소년원에서 퇴원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시점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년원생이 받은 처분을 기준으로(9호와 10호 처분)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조사기준과 처분 특성에 따라 <표 2-3>과 같이 4가지 방식이 산출된다.

조사설계 중 A와 C 방식의 경우 사회정착 단계와는 상관없이 모든 소년원생들을 일정시점에 조사하는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패널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단, A 방식의 경우 9호 혹은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같은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C 방식의 경우 9호 처분을 받은 소년과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다른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방식의 경우 9호 혹은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모두 6개월 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반면, C 방식의 경우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소년원에서 더 오래 머문다는 점을 고려하여 9호는 3개월 마다 10호는 6개월 마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년원생의 사회정착 단계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에 소년원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1차 조사를 받은 소년 중 일부는 계속해서 소년원에 있게 되고, 일부는 갓 소년원을 퇴원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이미 사회에 진입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일 수 있다. 이처럼 2차 조사를 받을 당시 개인별로 사회정착 단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A 방식의 경우 조사를 반복할 때마다 조사 참여자의 탈락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탈락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조사주기를 짧게 하는 것이다(예: 3개월 마다). 그럴 경우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상당수는 소년원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 이 소년들의 사회정착에 있어서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 할 수 없다. 반대로 10호 처분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있어서의 변화를 충분히 살펴보기 위해 조사주기를 길게 할 경우(예: 6개월 마다), 9호 처분을 받은 상당수의 소년들은 소년원을 퇴원하고, 보호관찰도 다 끝낸 시점이어서 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이 B 방식과 D 방식이다.

B 혹은 D 방식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 할 경우 소년원생의 사회정착 단계별 특성에 따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4차에 걸쳐 패널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년원 내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2차 조사는 보호관찰을 개시하는 시점, 3차 조사는 보호관찰을 끝마치는 시점, 그리고 4차 조사는 보호관찰을 마치고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은 소년원을 퇴원하는 시점,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시점, 보호관찰을 마치는 시점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의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B 방식의 경우 9호 처분을 받았다가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은 보호관찰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시점과 끝마치는 시점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10호 처분을 받았던 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시점과 보호관찰을 마치는 시점 간의 간격이 너무 길다는 한계가 있다.

## 2) 임시퇴원자 조사설계

각 조사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조사 진행상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목적(즉, 소년원생들의 사회정착 단계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가장 부합한 D 방식을 사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D 방식을 기초로 한 조사설계는 다음과 같다.

9호 처분 혹은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는 소년원 내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소년원 내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년원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혹은 소년원에 입소하기 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사회진출 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2차 조사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시작하고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소년원생들의 사회정착 초기 단계에서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3차 조사는 9호 처분자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호관찰이 종료하기 1개월 전 시점에서 실시하기로 정하였다.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소년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보호관찰이 끝나는 시점에서 소년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10호 처분자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9호 처분자와 동일하게 보호관찰 종료 시점에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시점이 너무 늦춰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9호 처분자의 상당수가 3차 조사를 마치는 시점과 4차 조사와의 시간간격을 고려하여 10호 처분자는 2019년 2월경 비록 보호관찰기간 중이지만 3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 마지막 조사인 4차 조사는 보호관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년들의 재범이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여 9호 처분자의 경우 보호관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반면, 10호 처분자의 경우도 보호관찰을 마친 시점에 4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럴 경우 이번 연구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3차 조사 후 5개월이 지난 2019년 7월경에 4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때 조사를 실시할 경우 10호 처분자의 일부는 보호관찰을 마친 시점이 고 일부는 여전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

〈표 2-4〉 임시퇴원자 조사설계

구 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9호 처분자	소년원 (5월 18일 ~ 31일)	2018년 7월부터 조사 중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보호관찰 종료 전 1개월(예정)	보호관찰 종료 후 3개월(예정)
10호 처분자			2019년 2월(예정)	2019년 7월(예정)

#### 나. 만기퇴원자 조사설계

만기퇴원자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은 소년원을 퇴원한 소년들과 연락을 취하고 만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임시퇴원자의 경우 보호관찰이라는 구속력이 있는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동안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소년들을 만날 수 있다. 반면, 소년원에서 처분 받은 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원하는 만기퇴원자의 경우 소년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는 있으나 보호관찰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퇴원자를 패널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소년들이 만기퇴원하기 전 사회복지귀반에 배정될 때, 패널조사를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원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귀반 담당자가 바뀔 수 있고, 소년들이 퇴원

후 조사에 대한 안내를 기억하여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란 쉽지 않다. 만기퇴원자 패널조사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희망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년원에서는 현재 모든 퇴원자들을 대상으로 희망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년원에서는 최소 6개월 동안 퇴원생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희망도우미 담당자가 만기퇴원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때 패널조사에 대해 소개하고 그 소년이 동의할 경우 패널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만기퇴원자 중 희망도우미 담당자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 둘째, 희망도우미 담당자와 연락이 된다고 해도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셋째, 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조사 당일 조사하기로 한 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넷째, 만기퇴원자를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만기퇴원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만기퇴원자들이 임시퇴원자들과 개인적 및 환경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은 수라도 만기퇴원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만기퇴원자들이 임시퇴원자들과 개인적 및 환경적 특성에서 얼마나 유사하거나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소년원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할 때 두 집단 모두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부터는 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윤리적인 이슈로 인해 희망도우미 담당자에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한 소년들만을 조사에 포함시켰고, 연구진이 직접 만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다. 비교집단 조사설계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에 복귀한 후 개인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조사하는 것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소년원생들의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 소년원생에 대한 비교집단으로는 비행경험이 거의 없는 소년 집단과 낮은 수준의 비행경험이 있는 소년 집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비교집단으로 정하고

패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 두 집단과 소년원생을 비교하는 것은 소년원 출원 후 사회정착 과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년원생들이 소년원 퇴원 후 경험하는 변화를 비행경험이 거의 없는 소년들과 비교하는 것은 이미 두 집단 간에 개인적인 혹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교의 필요성과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비행경험이 낮은 소년들을 비교집단으로 정하였다.

비행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는 보호처분 중에서 4호 처분(보호관찰 1년) 혹은 5호 처분(보호관찰 2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을 선정하였다. 이번 연구대상의 상당수가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임을 고려하면 소년원을 경험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과 소년원을 경험한 후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을 비교하는 것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이 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호 혹은 5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패널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차 조사는 임시퇴원자들이 2차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인 2018년 7월경에, 2차 조사는 4호 혹은 5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보호관찰을 마치는 시점인 동시에 10호 처분을 받은 임시퇴원자가 3차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인 2019년 2월경에, 3차 조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위험이 가장 높은 기간인 보호관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임시퇴원자와 상황적인 특성을 유사하게 유지하게 한 것은 두 집단 간 시기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4호 혹은 5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보호관찰 전후 변화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2-5〉 비교집단(4호/5호 처분) 조사설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호/5호 처분 동일	2018년 7월 9일 ~ 8월 3일	2019년 1월-2월(예정)	2019년 7월(예정) (보호관찰을 마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 3. 조사대상자

#### 가. 소년원 재원생(9호/10호 처분)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설계를 보면 1차 조사는 소년원에서 실시하고 2차 조사 부터는 사회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즉, 소년원생 중 2차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 사회로 복귀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소년원생만을 1차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9호 처분을 받은 소년원생들은 6개월이 지나면 모두 사회로 재진입을 하기 때문에 소년원생 중 9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경우 전체를 1차 조사에 포함시켰다. 반면,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원생의 경우 조사 당시 소년원에서 8개월 이상 경과한 소년들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표 2-6〉 소년원별 조사참여자 수

소년원	패널조사 참여자 수(명)
서울소년원	128
부산소년원	39
대구소년원	77
광주소년원	68
전주소년원	49
안양소년원	54
춘천소년원	66
청주소년원	43
제주소년원	9
총 계	533

전국 소년원 중 대부분의 소년원생이 7호 처분자와 의료처분자인 대전소년원을 제외하고 제주소년원을 포함한 전국 9개 소년원을 조사기관에 포함하였다.<sup>4)</sup> 1차 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5월 18일에서 5월 31일까지 소년원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각 소년원에서 조사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 조사하지 않고 최대한 소규모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부산소년원의 경우

4) 조사대상자 중 신체적인 질병 등으로 개인실에 있거나 외부병원 진료 등과 같은 다른 일정으로 조사할 당시 소년원에 부재한 소년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39명을 4집단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였다. 각 소년원별로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표 2-6>과 같다. 총 53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는 2018년 5월 기준 9호와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966명)의 55.2%에 해당한다(법무부 내부자료). 조사에 참여한 소년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82%이고 여자가 18%로 9호와 10호 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의 성별비율(남자: 81%, 여자: 19%)과 거의 같다.

#### 나. 임시퇴원자와 만기퇴원자(9호/10호 처분)

소년원생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시퇴원자와 만기퇴원자로 구분 되고, 2차 조사부터는 따로 조사가 실시된다. 임시퇴원자들의 경우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 나누어 배정되고, 소년마다 소년원 출원일이 다르며, 조사날짜에 불참하는 소년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연구진이 매번 임시퇴원자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로 인해, 각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담당자가 해당 임시퇴원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과 설문 조사의 이해 및 협조를 높이기 위해 담당보호관찰관의 연구 및 소년범죄예방팀에서 주최한 소년보호관찰담당자 정기 워크숍에서 연구 목적과 내용 및 조사항목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임시퇴원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만기퇴원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소년원의 사회복귀담당자가 출원한 소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패널조사의 참여의사를 확인했고, 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윤리적인 이슈로 인해 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년들에 한해서 연구진이 직접 만나서 일대일 개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다. 보호관찰대상자(4호/5호 처분)

비교그룹인 4호 혹은 5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경우 조사설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3차 조사를 기준으로 보호관찰을 마치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사가 가능한 소년들만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2019년 2월에서 4월에 보호관찰 만기 예정인 소년들만 조사에 포함하였다. 1차 조사 시 4호 처분자의 경우 4호 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된 소년들이 이에 해당하고, 5호 처분자의 경우 5호 처분을 받은 지 15개월이 된



소년들이 이에 해당한다.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군 혹은 나군 급에 속한 19개의 보호관찰소를 1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대상인 소년원 성별구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대상자도 최대한 성비를 고려하였다.<sup>5)</sup> 4호/5호 비교집단에 대한 1차 조사 역시 연구진이 직접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19개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각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대상자를 오전과 오후로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어서 대부분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보호관찰소별로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sup>6)</sup>

〈표 2-7〉 보호관찰소별 조사참여자 수

보호관찰소	패널조사 참여자 수(명)
서울보호관찰소	25
서울남부보호관찰소	37
서울동부보호관찰소	21
서울서부보호관찰소	12
의정부보호관찰소	32
춘천보호관찰소	15
인천보호관찰소	15
안산보호관찰소	32
수원보호관찰소	41
고양보호관찰소	12
부천보호관찰소	7
천안보호관찰소	16
대전보호관찰소	29
대구보호관찰소	19
부산보호관찰소	33
창원보호관찰소	31
울산보호관찰소	29
광주보호관찰소	36
전주보호관찰소	21
총 계	463

- 5) 조사에 참여한 소년원생 중 남자가 전체의 82%, 여자가 전체의 18%이고 조사에 참여한 보호관찰 대상자 중 남자의 비율은 74%, 여자의 비율은 26% 인.
- 6) 보호관찰 대상자 중 가능하면 이전에 소년원 경험이 없는 소년들만을 조사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조사에 참여가능 한 전체대상자(2월에서 4월 중에 보호관찰이 만료되는 소년)가 한정되어 있어 소년원 경험여부를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었다.

총 46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는 2018년 5월 기준 4호와 5호 처분을 받은 소년(12,118명)의 3.8%에 해당한다(법무부 내부자료). 조사에 참여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74%, 여자 26%로 4호와 5호 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의 성별비율(남자: 80%, 여자: 20%)과 비교해(법무부 내부자료) 조사에 참여한 여자소년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 4. 조사내용 및 자료수집<sup>7)</sup>

##### 가. 정적 요인

재범을 포함하여 사회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적인 요인과 동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인 요인은 주로 이전 범죄경력, 이전 소년사법기관 접촉 경험, 이전 일탈행위(예: 흡연, 음주, 성행위, 유해물질흡입 등)와 같이 과거에 발생하여 변화하지 않지만 여전히 현재의 인지/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반면, 동적인 요인은 개인의 인지, 정서 및 행동, 개인 간의 상호작용, 지역사회 특성과 같이 소년의 발달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한 요인을 포함한다. 정적인 요인에 대한 정보는 한 번만 수집하면 되고 조사에 참여하는 소년들의 기억력 문제점 및 허위정보 제공을 피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서를 기초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결정전조사서에서 추출한 정보는 본 사건 죄명, 공범여부, 범죄경력 및 최초 비행 연령, 이전 보호관찰 및 소년원 경력, 학교유예·무단결석·문신·음주·흡연·성경험·유해물질흡입 등을 처음 경험한 나이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결정전조사서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주의/경고 내역, 보호관찰 위반여부, 재범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소 시스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sup>8)</sup>

7) 설문응답 시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질문에 답하도록 한 반면, 소년원생의 경우 소년원에 입소하기 전을 기준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8) 결정 전 조사는 법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혹은 검사(소년법 제49조의2)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보호관찰소장 혹은 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호관찰 혹은 소년원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소년원 임시퇴원자의 경우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기 때문에 보호관찰시스템에 결정 전 조사서의 정보가 존재하지만, 만기퇴원자의 경우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정 전 조사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나. 동적 요인

동적인 요인들은 소년들의 발달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복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동적인 요인들은 사회정착 변수와 사회정착 보호변수 및 위험변수로 나누어진다.<sup>9)</sup>

〈표 2-8〉 설문조사 내용

구분	요인	변수
사회정착	긍정적 변화	- 인지/정서 특성: 부적 감정 억제, 긍정적 정체성, 사회적지지 담당직원과의 애착, 책임인정 - 행동특성: 취미활동, 저축, 이타적 행동, 타인과 잘 지냄, 가족과 함께 함, 직업준비,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부정적 변화	- 인지/정서 특성: 범죄유혹, 책임회피, 분노, 우울 - 행동특성: 음주, 흡연, 도박, 사이버일탈, 폭력행위, 성적일탈, 범죄 피해 경험, 학대경험, 경고/주의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나이, 교육수준, 거주지, 주 보호자
	개인 내적 특성	- 자기통제, 스트레스(긴장), 일탈적 일상활동, 종교심, 도덕성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 사회연결망 - 비행친구, 부모애착, 부정적 낙인
	지역사회 특성	- 지역무질서, 지역치안수준

### 1) 사회정착 변수

기존 연구들에서는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재범여부뿐만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소년 사법기관에서는 소년범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정착의 최종 목표이기는 하나 재범여부만을 가지고 사회정착을 판단할 경우 사회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너무 단순화하게 되고,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볼 때 재범을 하지 않은 것을 성공적인 사회정착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소년원 출원생은 소년원을 퇴원한 직후 소년원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직면과 대응

9) 사회정착 변수와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는 서로 다르거나 혹은 완전히 구분되기 보다는 상당부분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정착 변수 중 상당수는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요인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단, 이 장에서 사회정착 변수는 소년들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변화와 관련이 높은 변수를 포함하는 반면,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는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방식은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혹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결국에는 재범 혹은 범죄중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소년원에서 막 출원해서 재범을 하거나/하지 않는 결과까지의 과정 중에 소년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사회정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사회정착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재범을 하게 되었는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착을 평가함에 있어 재범여부 뿐 아니라 소년이 사회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변화까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복지라는 광의의 시각에서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정착 변수를 2가지로 구분하였다. 사회정착의 첫 번째 측면은 소년의 긍정적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들로 인지/정서 특성과 행동 특성으로 구분하였다.<sup>10)</sup> 인지/정서 특성은 부적감정(예: 분노, 우울 등) 억제, 긍정적 정체성, 인지된 사회적 지지, 담당직원과의 애착, 책임인정 변수들이 포함되었고, 행동 특성으로는 취미활동, 저축, 이타적 행동, 타인과 잘 지냄, 가족과 함께 함, 직업준비, 자격증/검정고시 준비가 포함되었다. 사회정착의 두 번째 측면은 소년의 부정적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인지/정서 특성으로는 범죄유혹, 책임회피, 분노, 우울을 측정하였고, 행동 특성으로는 음주, 흡연, 도박, 사이버일탈, 폭력행위, 성적일탈, 범죄피해 경험, 학대경험, 경고/주의 등으로 구성하였다.

## 2)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sup>11)</sup>

사회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혹은 위험요인은 범죄학 이론 혹은 기존 연구에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억제하는 요인으로 사용된 변수들을 기초로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측면은 개인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소년 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YSR)와 아울러 자기통제(민수홍 외, 2015; 조제성

10) 사회정착 변수를 인지/정서 특성과 행동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나 일부 변수는 두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다 많은 특성을 포함하는 쪽으로 구분하였다.

11)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 중 일부는 개인내적인 특성과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다 많은 특성을 포함하는 쪽으로 구분하였다.

외, 2017; Pratt & Cullen, 2010; Vazsonyi 외, 2017), 스트레스(긴장)(김도영, 2017; 정선희 외, 2016; Agnew, 2012; Turanovic 외 2013), 일탈적 일상활동(김현동 외, 2016; Felson 외, 2016), 도덕적 신념(Schoepfer 외, 2006; Wikström 외, 2010), 신앙심(Jang, 2018; Kelly 외, 2015)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측면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소년원에 오기 전과 사회정착 과정에서 주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변수와 양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비행친구와의 관계(민수홍 외, 2015; 임정재, 2016; 조은미 외, 2016; 황성현, 2016; Pratt 외, 2010), 부모와의 관계(정규형 외, 2016; Hoeve 외, 2012), 부정적 낙인(아영아, 2015; Liberman 외, 2014; Wiley 외, 2013))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측면은 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곳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지역무질서(정선희 외, 2016; Braga 외, 2015)와 지역치안수준(Felson 외, 2016)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가 사용되었다. 네 번째 측면은 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변수인 나이,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 주 보호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정착 요인 및 사회정착 보호/위험 요인에 대한 문항 및 신뢰도계수에 대한 정보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 제4절 분석결과

### 1. 처분에 따른 비교

#### 가.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의 나이 및 교육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면 평균나이에 있어서 소년원생의 평균나이(17.52세)가 보호관찰대상자 평균나이(16.86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2-9〉 나이

		N	평균	표준편차	t
나이	소년원생	532	17.52	1.32	7.02**
	보호관찰대상자	463	16.86	1.60	
	총계	995	17.21	1.49	

\*p<.05, \*\*p<.01

교육수준에 있어서의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혹은 중퇴가 전체의 38.6%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3.3%로 그 다음으로 많은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혹은 중퇴가 전체의 49.7%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소년원생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고,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재학 및 중퇴가 17.8%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이 소년원생이 더 많은 이유는 소년원생의 평균 연령이 더 높기도 하지만 소년원에서의 검정고시 교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대 재학, 휴학 및 퇴학 이상의 비율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2-10〉 교육수준

	교육수준								x <sup>2</sup>
	초졸 미만	초졸 중퇴 / 중재	중졸	고퇴 / 고재	고졸	전문대 퇴 / 휴 / 재학	대학교 퇴 / 휴 / 재학	총계	
소년원생	3 (0.6%)	36 (6.8%)	99 (18.8%)	204 (38.6%)	176 (33.3%)	2 (0.4%)	8 (1.5%)	528 (100%)	75.74**
보호관찰 대상자	1 (0.2%)	82 (17.8%)	51 (11.1%)	229 (49.7%)	76 (16.5%)	4 (0.9%)	18 (3.9%)	461 (100%)	

\*p<.05, \*\*p<.01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의 거주지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거주지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친척, 친구, 쉼터 등)로 구분하였다. 소년원생의 경우 56.7%인 301명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85.7%인 397명이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답하여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에 있어서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소년원생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거주지

	거주지		계	x <sup>2</sup>
	부모님	그 외		
소년원생	301(56.7%)	230(43.3%)	531(100%)	99.89**
보호관찰대상자	397(85.7%)	66(14.3%)	463(100%)	

\*p&lt;.05, \*\*p&lt;.01

주보호자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년원생들은 42.7%가 친부모님이 주보호자라고 답하였고 그 외(편부모, 친척, 조부모 등)와 양부모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5%와 13.5%인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51.5%가 친부모님을 주보호자로 답하였고 그 외와 양부모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38.7%와 8.0%였다. 친부모가 주보호자인 경우는 보호관찰대상자가 8.8% 높았으나 친부모와 양부모를 주보호자라고 답한 비율을 합하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3.3%로 감소한다. 보호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소년원생들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주보호자

	주보호자					x <sup>2</sup>
	친부모	양부모	그 외	보호자 없음	계	
소년원생	224(42.7%)	71(13.5%)	218(41.5%)	12(2.3%)	525(100%)	11.79**
보호관찰대상자	238(51.5%)	37(8.0%)	179(38.7)	8(1.7%)	462(100%)	

\*p&lt;.05, \*\*p&lt;.01

## 2) 개인 내적 특성

개인 내적 특성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자기통제수준의 경우 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트레스(긴장)의 경우 소년원생들보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시점(소년원생의 경우 소년원에 입소하기 전을 기준)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환경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즉, 소년원생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소년원

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소년들 간의 스트레스는 크겠지만 그 외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교대상도 제한되어 있다.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사회 내에서 생활하다보니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자극이 많고 비교대상이 보다 다양할 수 있어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의 스트레스가 소년원생보다 높을 수 있다. 일탈적 일상활동의 경우 범죄에의 노출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년원생의 범죄에의 노출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심의 경우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소년원생의 경우 소년원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 높은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 도덕성의 경우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개인 내적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t
자기통제	소년원생	529	2.09	0.50	-5.34**
	보호관찰대상자	461	2.25	0.43	
	총계	990	2.16	0.48	
스트레스(긴장)	소년원생	531	1.98	0.71	-28.50**
	보호관찰대상자	460	3.18	0.62	
	총계	991	2.53	0.90	
일탈적 일상활동	소년원생	532	2.97	0.71	22.29**
	보호관찰대상자	463	2.05	0.60	
	총계	995	2.54	0.81	
종교심	소년원생	533	1.89	0.86	2.86**
	보호관찰대상자	462	1.74	0.78	
	총계	995	1.82	0.83	
도덕성	소년원생	531	2.41	0.77	-14.61**
	보호관찰대상자	463	3.05	0.61	
	총계	994	2.71	0.77	

\*p<.05, \*\*p<.01

### 3)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개인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모애착의 경우 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부모와 거주한다고 답한 비율과 부모를 주보호자라고 답한 비율이 보호관찰대상자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 타인으로 부터 비행소년이라고 낙인 받는 정도에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높았고, 비행친구 관계에서도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t
부모애착	소년원생	529	3.00	0.74	-7.90**
	보호관찰대상자	461	3.34	0.58	
	총계	990	3.16	0.69	
부정적 낙인	소년원생	532	2.49	0.84	8.91**
	보호관찰대상자	461	2.04	0.76	
	총계	993	3.20	0.47	
비행친구	소년원생	530	2.97	0.97	7.11**
	보호관찰대상자	463	2.53	0.98	
	총계	993	2.76	1.00	

\*p<.05, \*\*p<.01

#### 4)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무질서와 지역치안수준에 있어서의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년원생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의 지역무질서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생활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CTV, 경찰(차), 경찰서의 가시정도를 반영하는 지역치안수준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15〉 지역사회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t
지역무질서	소년원생	533	2.85	0.75	16.19**
	보호관찰대상자	463	2.09	0.73	
	총계	996	2.49	0.83	
지역치안수준	소년원생	531	2.98	0.77	1.82
	보호관찰대상자	462	2.89	0.79	
	총계	993	2.94	0.78	

\*p<.05, \*\*p<.01

나. 사회정착 변수

사회정착 변수는 긍정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와 부정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변수로 구분하였고, 각 변화는 인지/정서 특성과 행동 특성으로 세분화하였다.

1) 긍정적 변화 변수

(1) 긍정적 인지/정서 특성

사회정착의 긍정적인 변화 중 인지 및 정서적인 특성에 있어서의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간의 차이가 아래 <표 2-16>에 제시되었다. 부적감정억제, 인지된 사회적 지지 및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인정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정체성과 담당직원과의 애착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긍정적 인지/정서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t
부적감정억제	소년원생	532	2.90	0.65	-1.49
	보호관찰대상자	460	2.96	0.59	
	총계	992	2.93	0.62	
긍정적 정체성	소년원생	532	3.16	0.45	-3.15**
	보호관찰대상자	461	3.25	0.50	
	총계	993	3.20	0.47	
사회적 지지	소년원생	533	3.24	0.65	-1.70
	보호관찰대상자	463	3.31	0.59	
	총계	996	3.27	0.62	
담당직원과의 애착	소년원생	532	3.18	0.77	-4.98**
	보호관찰대상자	463	3.40	0.61	
	총계	995	3.28	0.71	
책임인정	소년원생	528	3.33	0.73	-0.58
	보호관찰대상자	460	3.36	0.65	
	총계	988	3.35	0.70	

\*p<.05, \*\*p<.01

## (2) 긍정적 행동 특성

긍정적인 변화 중 행동적인 특성에 있어서의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간의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가 아래 <표 2-17>에 제시되었다. 취미활동 여부와 직업에 대한 관심과 준비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lt;표 2-17&gt; 긍정적 행동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t
취미활동	소년원생	533	3.05	0.96	-0.43
	보호관찰대상자	463	3.08	0.89	
	총계	996	3.07	0.93	
저축	소년원생	533	2.61	1.04	-3.01**
	보호관찰대상자	463	2.80	0.97	
	총계	996	2.70	1.01	
이타적 행동	소년원생	532	2.94	0.82	-9.33**
	보호관찰대상자	463	3.37	0.61	
	총계	995	3.14	0.76	
타인과 잘 지냄	소년원생	532	3.11	0.82	-6.88**
	보호관찰대상자	463	3.44	0.68	
	총계	995	3.27	0.78	
가족과 함께 함	소년원생	533	2.35	0.96	-6.85**
	보호관찰대상자	462	2.76	0.91	
	총계	995	2.54	0.96	
직업준비	소년원생	531	3.06	0.62	-1.25
	보호관찰대상자	461	3.11	0.63	
	총계	992	3.08	0.63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소년원생	531	3.31	0.78	10.66**
	보호관찰대상자	461	2.73	0.92	
	총계	992	3.04	0.90	

\*p<.05, \*\*p<.01

저축여부, 남을 돕는 이타적 행동, 친구 이외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 정도, 밖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정도에 있어서 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격증/검정고시 준비에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소년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검정고시를 준비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부정적 변화 변수

(1) 부정적 인지/정서 특성

사회정착의 부정적인 변화 중 인지/정서적인 특성에 있어서 분노의 경우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높았지만, 우울정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범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정도와 자신이 저지른 비행에 대한 책임회피에 있어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부정적 인지/정서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t
분노	소년원생	533	2.79	0.94	6.71**
	보호관찰대상자	463	2.40	0.88	
	총계	996	2.60	0.93	
우울	소년원생	533	2.42	0.95	0.72
	보호관찰대상자	463	2.37	0.88	
	총계	996	2.40	0.92	
범죄유혹	소년원생	532	2.30	1.01	14.50**
	보호관찰대상자	463	1.52	0.68	
	총계	995	1.93	0.95	
책임회피	소년원생	532	2.07	0.97	7.50**
	보호관찰대상자	462	1.67	0.71	
	총계	994	1.89	0.88	

\*p<.05, \*\*p<.01

(2) 부정적 행동 특성

음주로 인한 문제, 흡연량, 도박, 사이버일탈, 폭력행위, 성적일탈, 범죄피해, 학대경험 모두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부정적 행동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t
음주로 인한 문제	소년원생	530	2.13	0.87	9.64**
	보호관찰대상자	461	1.65	0.70	
	총계	991	1.91	0.83	
흡연량	소년원생	493	3.35	0.73	11.03**
	보호관찰대상자	402	2.80	0.76	
	총계	895	3.10	0.79	
도박정도	소년원생	532	2.37	1.13	6.18**
	보호관찰대상자	463	1.94	1.07	
	총계	995	2.17	1.12	
사이버일탈	소년원생	532	2.11	0.77	5.08**
	보호관찰대상자	463	1.86	0.72	
	총계	995	1.99	0.76	
폭력행위	소년원생	532	2.26	0.89	9.17**
	보호관찰대상자	463	1.80	0.70	
	총계	995	2.05	0.84	
성적일탈	소년원생	531	2.30	0.88	11.04**
	보호관찰대상자	463	1.71	0.79	
	총계	994	2.03	0.89	
범죄피해경험	소년원생	529	0.48	1.22	3.17**
	보호관찰대상자	462	0.27	0.82	
	총계	991	0.38	1.06	
학대경험	소년원생	531	1.96	1.06	2.43*
	보호관찰대상자	463	1.80	0.97	
	총계	994	1.88	1.02	

\*p&lt;.05, \*\*p&lt;.01

흡연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소년원생 중 94.2%인 469명이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84.2%인 390명이 흡연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두 집단 간 흡연여부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반면, 흡연량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소년원생 중 흡연하는 비율은 보호관찰대상보다 더 높지만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더 많이 흡연한다고 볼 수는 없다.

〈표 2-20〉 흡연 여부

	흡연 여부		계	x <sup>2</sup>
	피움	피우지 않음		
소년원생	469(94.2%)	29(5.8%)	498(100%)	25.00**
보호관찰대상자	390(84.2%)	73(15.8%)	463(100%)	

\*p<.05, \*\*p<.01

소년원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경고 및 주의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년원생의 경우 40.9%가 경고 혹은 주의를 받았다고 답한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31.1%가 경고 혹은 주의를 받았다고 답하여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더 높았다.

〈표 2-21〉 경고/주의 여부

	경고/주의 여부		계	x <sup>2</sup>
	없음	있음		
소년원생	315(59.1%)	218(40.9%)	533(100%)	10.34**
보호관찰대상자	319(68.9%)	144(31.1%)	463(100%)	

\*p<.05, \*\*p<.01

이러한 차이는 소년원생의 경우 24시간 모니터링을 받기 때문에 사소한 규정위반이나 경고나 주의가 보호관찰소 직원보다는 소년원 직원에 의해 보다 잘 적발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2. 성별 및 처분에 따른 비교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정착 변수 혹은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에 있어서의 차이가 성별의 영향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과 처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들을 남자 소년원생, 여자 소년원생, 남자 보호관찰대상자, 여자 보호관찰대상자로 나누어서 변수들에 있어서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 사후검증을 통해 4집단 중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각 표에서는 사후검증 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만 적시하였다.

## 가.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나이의 경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 소년원생이 17.56으로 가장 높은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16.82로 가장 적었다. 단, 나이가 가장 많은 집단과 가장 적은 집단의 차이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표 2-22〉 나이

		N	평균	표준 편차	F	사후검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나이	소년원 남자	436	17.56	1.27	18.11**	소년원&보남, 소년원&보여, 소년원&보남
	소년원 여자	96	17.29	1.49		
	보호관찰 남자	344	16.82	1.55		
	보호관찰 여자	119	16.97	1.72		
	총계	995	17.21	1.49		

\* $p < .05$ , \*\* $p < .01$

사후검증 : 소년원 남자(소년), 소년원 여자(소여), 보호관찰 남자(보남), 보호관찰 여자(보여)

교육수준에 있어서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퇴/고재 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77.1%로 가장 높았고, 남자 보호관찰대상자와 여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각각 73.1%와 64.6%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59.1%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처분을 기준으로(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비교하였을 때는 소년원생들의 학력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학력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을 추가 할 경우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62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표 2-23〉 교육수준

	교육수준								x <sup>2</sup>
	초졸 미만	초졸 중퇴/중재	중졸	고퇴/고재	고졸	전문대 퇴/휴/재학	대학교 퇴/휴/재학	총계	
소년원 남자	3 (0.7%)	24 (5.6%)	72 (16.7%)	168 (38.9%)	156 (36.1%)	2 (0.5%)	7 (1.6%)	432 (100%)	103.29**
소년원 여자	0 (0.0%)	12 (12.6%)	27 (28.4%)	35 (36.8%)	20 (21.1%)	0 (0.0%)	1 (1.1%)	95 (100%)	
보호관찰 남자	1 (0.3%)	56 (16.4%)	35 (10.2%)	181 (52.9%)	51 (14.9%)	3 (0.9%)	15 (4.4%)	342 (100%)	
보호관찰 여자	0 (0.0%)	26 (21.8%)	16 (13.4%)	48 (40.3%)	25 (21.0%)	1 (0.8%)	3 (2.5%)	119 (100%)	

\*p<.05, \*\*p<.01

거주지와 주보호자에 있어서의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님과 거주한다고 답한 비율에 있어서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88.1%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소년원생이 3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보호자가 친부모라고 답한 비율에 있어서도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55.1%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소년원생이 23.7%로 가장 낮았다. 주 보호자를 친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답한 비율에 있어서도 여자 소년원생이 37.7%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 거주지 및 주 보호자를 종합해 볼 때 집단 중에서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거주지

	거주지		계	x <sup>2</sup>
	부모님	그 외		
소년원 남자	265(61.1%)	169(38.9%)	434(100%)	126.53**
소년원 여자	35(36.5%)	61(63.5%)	96(100%)	
보호관찰 남자	303(88.1%)	41(11.9%)	344(100%)	
보호관찰 여자	94(79.0%)	25(21.0%)	993(100%)	

\*p<.05, \*\*p<.01



〈표 2-25〉 주보호자

	주보호자				계	x <sup>2</sup>
	친부모	양부모	그 외 보호자	보호자 없음		
소년원 남자	202 (46.9%)	57 (13.2%)	165 (38.3%)	7 (1.6%)	431 (100%)	40.33**
소년원 여자	22 (23.7%)	13 (14.0%)	53 (57.0%)	5 (5.4%)	93 (100%)	
보호관찰 남자	189 (55.1%)	28 (8.2%)	121 (35.3%)	5 (1.5%)	343 (100%)	
보호관찰 여자	49 (41.2%)	9 (7.6%)	58 (48.7%)	3 (2.5%)	119 (100%)	

\*p&lt;.05, \*\*p&lt;.01

## 2) 개인 내적 특성

개인 내적 특성의 모든 변수들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기통제의 경우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다. 스트레스(긴장)에 있어서는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높은 반면, 남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고, 일탈적 일상활동에 있어서는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았다. 종교심의 경우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은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았고, 도덕성의 경우 여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다.

〈표 2-26〉 개인 내적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자기통제	소년원 남자	433	2.13	0.50	15.01**	소년&소여, 소년&보남,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6	1.91	0.48		
	보호관찰 남자	343	2.25	0.45		
	보호관찰 여자	118	2.23	0.39		
	총계	990	2.16	0.48		
스트레스 (긴장)	소년원 남자	435	1.89	0.67	299.84**	모든 집단 간
	소년원 여자	96	2.38	0.76		
	보호관찰 남자	343	3.24	0.61		
	보호관찰 여자	117	2.99	0.61		
	총계	991	2.54	0.90		
일탈적 일상활동	소년원 남자	436	2.93	0.70	168.13**	소년&소여, 소년&보남, 소년&보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6	3.19	0.72		
	보호관찰 남자	344	2.05	0.60		
	보호관찰 여자	119	2.04	0.63		
	총계	995	2.54	0.81		
종교심	소년원 남자	437	1.84	0.85	5.92**	소년&소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6	2.12	0.87		
	보호관찰 남자	343	1.73	0.78		
	보호관찰 여자	119	1.78	0.79		
	총계	995	1.82	0.83		
도덕성	소년원 남자	435	2.45	0.76	72.38**	소년&소여, 소년&보남, 소년&보여, 소여&보남, 소여&보남
	소년원 여자	96	2.22	0.79		
	보호관찰 남자	344	3.05	0.62		
	보호관찰 여자	119	3.07	0.60		
	총계	994	2.71	0.77		

\*p<.05, \*\*p<.01

## 3)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의 경우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고, 부정적 낙인과 비행친구와의 관계의 경우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았으며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았다.

〈표 2-27〉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부모애착	소년원 남자	434	3.08	0.72	31.70**	소남&소여, 소남&보남,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5	2.68	0.76		
	보호관찰 남자	342	3.38	0.57		
	보호관찰 여자	119	3.22	0.59		
	총계	990	3.16	0.69		
부정적 낙인	소년원 남자	437	2.43	0.84	30.63**	소남&소여, 소남&보남, 소남&보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5	2.74	0.79		
	보호관찰 남자	343	2.00	0.77		
	보호관찰 여자	118	2.11	0.73		
	총계	993	2.28	0.83		
비행친구	소년원 남자	435	2.92	0.98	18.73**	소남&보남, 소남&보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5	3.18	0.92		
	보호관찰 남자	344	2.52	0.99		
	보호관찰 여자	119	2.54	0.95		
	총계	993	2.76	1.00		

\* $p < .05$ , \*\* $p < .01$ 

사후검증 : 소년원 남자(소남), 소년원 여자(소여), 보호관찰 남자(보남), 보호관찰 여자(보여)

4)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특성에서 지역무질서의 경우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은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치안수준의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28〉 지역사회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지역무질서	소년원 남자	437	2.82	0.74	89.05**	소년원&보남, 소년원&보여, 소년원&보남, 소년원&보여
	소년원 여자	96	2.99	0.80		
	보호관찰 남자	344	2.08	0.73		
	보호관찰 여자	119	2.11	0.72		
	총계	996	2.50	0.83		
지역치안수준	소년원 남자	435	2.95	0.77	2.18	유의미한 차이없음
	소년원 여자	96	3.10	0.75		
	보호관찰 남자	343	2.90	0.81		
	보호관찰 여자	119	2.85	0.72		
	총계	993	2.94	0.78		

\*p<.05, \*\*p<.01

나. 사회정착 변수

1) 긍정적 변화

(1) 인지/정서 특성

사회정착의 긍정적인 변화 중 사회적 지지를 제외한 모든 인지/정서 특성에 있어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적감정 억제는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다. 긍정적 정체성은 남자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담당직원과의 애착은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다. 범행에 대한 책임인정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29〉 인지/정서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차이집단)
부적감정 억제	소년원 남자	436	2.94	0.63	6.58**	소년남&소여, 소여&보남
	소년원 여자	96	2.72	0.71		
	보호관찰 남자	342	3.00	0.59		
	보호관찰 여자	118	2.83	0.59		
	총계	992	2.93	0.62		
긍정적 정체성	소년원 남자	436	3.15	0.44	4.56**	소년남&보남
	소년원 여자	96	3.17	0.50		
	보호관찰 남자	343	3.28	0.50		
	보호관찰 여자	118	3.18	0.48		
	총계	993	3.20	0.47		
사회적 지지	소년원 남자	437	3.23	0.65	1.17	유의미한 차이없음
	소년원 여자	96	3.28	0.63		
	보호관찰 남자	344	3.30	0.59		
	보호관찰 여자	119	3.33	0.62		
	총계	996	3.27	0.62		
담당직원 과의 애착	소년원 남자	436	3.21	0.77	11.12**	소년남&보남, 소여&보남
	소년원 여자	96	3.04	0.79		
	보호관찰 남자	344	3.44	0.61		
	보호관찰 여자	119	3.28	0.60		
	총계	995	3.28	0.71		
책임인정	소년원 남자	435	3.35	0.73	2.68	유의미한 차이없음
	소년원 여자	93	3.25	0.74		
	보호관찰 남자	343	3.41	0.63		
	보호관찰 여자	117	3.23	0.71		
	총계	988	3.35	0.70		

\*p&lt;.05, \*\*p&lt;.01

## (2) 행동 특성

긍정적 행동 특성 중 직업준비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미활동, 저축, 이타적 행동, 친구를 제외한 타인과 잘 지내는 정도, 가족과 밖에서 함께하는 정도에 있어서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높은 반면, 취미활동만

여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았고 그 외에는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다. 자격증/검정고시 준비에 있어서는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은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았다.

〈표 2-30〉 행동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차이집단)
취미 활동	소년원 남자	437	3.08	0.97	3.67*	보남&보여
	소년원 여자	96	2.93	0.96		
	보호관찰 남자	344	3.15	0.90		
	보호관찰 여자	119	2.87	0.85		
	총계	996	3.07	0.93		
저축	소년원 남자	437	2.65	1.04	4.39**	소여&보남
	소년원 여자	96	2.43	1.02		
	보호관찰 남자	344	2.82	0.99		
	보호관찰 여자	119	2.76	0.94		
	총계	996	2.70	1.01		
이타적 행동	소년원 남자	436	2.95	0.82	28.64**	소남&보남, 소남&보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6	2.92	0.81		
	보호관찰 남자	344	3.40	0.63		
	보호관찰 여자	119	3.29	0.56		
	총계	995	3.14	0.76		
타인과 잘 지냄	소년원 남자	436	3.13	0.81	17.37**	소남&보남,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6	3.02	0.86		
	보호관찰 남자	344	3.48	0.68		
	보호관찰 여자	119	3.34	0.67		
	총계	995	3.27	0.78		
가족과 함께 함	소년원 남자	437	2.42	0.95	20.24**	소남&소여, 소남&보남,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6	2.07	0.94		
	보호관찰 남자	343	2.80	0.91		
	보호관찰 여자	119	2.65	0.89		
	총계	995	2.54	0.96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차이집단)
직업준비	소년원 남자	435	3.06	0.62	0.53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 없음
	소년원 여자	96	3.06	0.61		
	보호관찰 남자	342	3.11	0.65		
	보호관찰 여자	119	3.11	0.58		
	총계	992	3.08	0.63		
자격증/ 검정고시 준비	소년원 남자	435	3.28	0.79	40.06**	소남&보남, 소남&보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6	3.44	0.70		
	보호관찰 남자	342	2.71	0.94		
	보호관찰 여자	119	2.79	0.87		
	총계	992	3.04	0.90		

\*p<.05, \*\*p<.01

사후검증 : 소년원 남자(소남), 소년원 여자(소여), 보호관찰 남자(보남), 보호관찰 여자(보여)

## 2) 부정적 변화

### (1) 인지/정서 특성

사회정착과 관련된 부정적 변화 중 모든 인지/정서 특성이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노와 우울의 경우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은 반면, 분노는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우울은 남자 보호관찰대상자/남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다. 범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장 낮았다. 범행에 대한 책임회피의 경우 남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은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았다.

〈표 2-31〉 인지/정서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차이집단)
분노	소년원 남자	437	2.73	0.93	20.46**	소년&소여, 소년&보남,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6	3.06	0.89		
	보호관찰 남자	344	2.34	0.89		
	보호관찰 여자	119	2.55	0.84		
	총계	996	2.60	0.93		
우울	소년원 남자	437	2.26	0.91	32.50**	소년&소여, 소년&보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보남&보여
	소년원 여자	96	3.12	0.79		
	보호관찰 남자	344	2.26	0.86		
	보호관찰 여자	119	2.69	0.86		
	총계	996	2.40	0.92		
범죄유혹	소년원 남자	435	2.25	1.00	69.67**	모든 집단 간
	소년원 여자	96	2.51	1.03		
	보호관찰 남자	344	1.52	0.69		
	보호관찰 여자	119	1.50	0.64		
	총계	994	1.93	0.95		
책임회피	소년원 남자	436	2.08	1.00	18.08**	소년&보남, 소년&보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6	2.03	0.82		
	보호관찰 남자	343	1.66	0.71		
	보호관찰 여자	119	1.70	0.70		
	총계	994	1.89	0.88		

\*p&lt;.05, \*\*p&lt;.01

사후검증 : 소년원 남자(소년), 소년원 여자(소여), 보호관찰 남자(보남), 보호관찰 여자(보여)

## (2) 행동 특성

부정적 변화의 모든 행동적인 특성이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로 인한 문제, 흡연량, 폭력행위, 범죄피해경험, 학대경험에서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은 반면, 흡연량의 경우 여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았고, 그 외 변수에서는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았다. 도박정도, 사이버일탈, 성적일탈의 경우 남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은 반면, 도박정도와 사이버일탈에서는 여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았고, 성적일탈은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낮았다.



〈표 2-32〉 행동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차이집단)
음주로 인한 문제	소년원 남자	434	2.07	0.85	41.53**	소년&소여, 소년&보남, 소여&보남, 소여&보여, 보남&보여
	소년원 여자	96	2.39	0.91		
	보호관찰 남자	342	1.56	0.66		
	보호관찰 여자	119	1.92	0.74		
	총계	991	1.91	0.83		
흡연량	소년원 남자	405	3.33	0.74	41.22**	소년&보남, 소년&보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88	3.44	0.69		
	보호관찰 남자	306	2.80	0.74		
	보호관찰 여자	96	2.77	0.81		
	총계	895	3.10	0.79		
도박정도	소년원 남자	436	2.44	1.14	23.51**	소년&소여, 소년&보남, 소년&보여, 소여&보여, 보남&보여
	소년원 여자	96	2.05	1.02		
	보호관찰 남자	344	2.08	1.11		
	보호관찰 여자	119	1.55	0.86		
	총계	995	2.17	1.12		
사이버일탈	소년원 남자	435	2.19	0.76	40.27**	모든 집단 간
	소년원 여자	96	1.74	0.72		
	보호관찰 남자	344	2.02	0.71		
	보호관찰 여자	119	1.42	0.55		
	총계	994	1.990	0.76		
폭력행위	소년원 남자	435	2.22	0.89	29.99**	모든 집단 간
	소년원 여자	96	2.46	0.88		
	보호관찰 남자	344	1.78	0.68		
	보호관찰 여자	119	1.85	0.74		
	총계	994	2.05	0.84		
성적일탈	소년원 남자	435	2.30	0.89	42.45**	소년&보남, 소년&보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6	2.29	0.85		
	보호관찰 남자	344	1.66	0.74		
	보호관찰 여자	119	1.86	0.90		
	총계	994	2.03	0.89		
범죄피해경험	소년원 남자	434	0.31	0.87	29.09**	소년&소여, 소여&보남, 소여&보여
	소년원 여자	95	1.28	2.03		
	보호관찰 남자	343	0.21	0.76		
	보호관찰 여자	119	0.45	0.95		
	총계	991	0.39	1.06		

72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차이집단)
학대경험	소년원 남자	435	1.88	1.04	7.35**	소남&소여, 소여&보남
	소년원 여자	96	2.30	1.13		
	보호관찰 남자	344	1.76	0.96		
	보호관찰 여자	119	1.93	1.01		
	총계	994	1.89	1.02		

\*p<.05, \*\*p<.01

사후검증 : 소년원 남자(소남), 소년원 여자(소여), 보호관찰 남자(보남), 보호관찰 여자(보여)

흡연여부의 경우 여자 소년원생이 95.5%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 보호관찰대상자가 77.3%로 가장 낮았고, 소년원 혹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받은 경고 혹은 주의의 경우 역시 여자 소년원생이 49%로 가장 높은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26.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낮았다.

〈표 2-33〉 흡연 여부

	흡연여부		계	x <sup>2</sup>
	비흡연	흡연		
소년원 남자	25(6.1%)	383(93.9%)	408(100%)	33.19**
소년원 여자	4(4.5%)	85(95.5%)	89(100%)	
보호관찰 남자	46(13.4%)	298(86.6%)	344(100%)	
보호관찰 여자	27(22.7%)	92(77.3%)	119(100%)	

\*p<.05, \*\*p<.01

〈표 2-34〉 경고/주의 여부

	경고/주의 여부		계	x <sup>2</sup>
	없음	있음		
소년원 남자	265(60.8%)	171(39.2%)	436(100%)	24.63**
소년원 여자	49(51.0%)	47(49.0%)	96(100%)	
보호관찰 남자	252(73.3%)	92(26.7%)	344(100%)	
보호관찰 여자	67(56.3%)	52(43.7%)	119(100%)	

\*p<.05, \*\*p<.01

### 3. 사회정착 요인과 보호 및 위험 요인의 관계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요인이 사회정착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sup>12)</sup> 요인들 간의 관계가 소년의 처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 가. 보호 및 위험 요인이 긍정적 인지/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감정 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년원생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심과 부모애착 및 지역치안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감정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애착과 지역치안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무질서가 낮을수록 부적감정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나이, 비행친구와의 관계,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정체성이 증가하는 반면, 부정적 낙인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정체성이 감소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부모가 아닌 사람과 같이 살고, 스트레스(긴장)와 부모애착이 증가할수록 소년들은 자신들을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반면, 부정적 낙인을 더 받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인지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심, 도덕성, 부모애착,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더 많다고 인지하는 반면, 자기통제, 스트레스(긴장), 부정적 낙인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종교심, 도덕성, 부모애착, 비행친구와의 관계,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년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도 증가한 반면, 부모와 거주하고,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소년의 인지된 사회적 지지는 감소하였다.

담당직원과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종교심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담당직원과의 애착이 큰 반면,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와 거주하는

12) 사회정착 요인과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요인의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 참고

소년이 그렇지 않은 소년보다, 부정적 낙인이 높은 소년이 담당직원과의 애착이 낮았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부모애착과 부정적 낙인만이 담당직원과의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이 증가하고 부정적 낙인이 감소할수록 직원과의 애착이 증가하였다.

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한 책임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종교심, 부모애착, 지역무질서가 증가할수록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가 높아진 반면, 일탈적 일상활동이 증가할수록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가 낮아졌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도덕성, 부모애착,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년의 비행행동을 인정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표 2-35〉 보호 및 위험 요인이 긍정적 변화 중 인지/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감정억제	긍정적 정체성	사회적지지	담당직원과의 애착	책임인정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상수	1.67(0.53) 2.72(0.50)	1.90(0.37) 2.16(0.05)	2.26(0.51) 1.56(0.47)	2.80(0.65) 3.32(0.52)	2.78(0.64) 2.87(0.53)
성별(여자)	-0.18(0.08)/-0.10* -0.14(0.06)/-0.10*	0.06(0.05)/0.05 -0.04(0.05)/-0.04	0.15(0.07)/0.09* 0.08(0.06)/0.06	-0.22(0.09)/-0.11* -0.11(0.06)/-0.08	-0.12(0.09)/-0.06 -0.12(0.07)/-0.08
나이	0.57(0.02)/0.11* -0.01(0.02)/-0.02	0.05(0.02)/0.16** 0.00(0.02)/0.01	0.03(0.02)/0.06 -0.02(0.02)/-0.05	-0.01(0.03)/-0.01 -0.03(0.02)/-0.08	0.01(0.03)/0.02 -0.02(0.02)/-0.06
교육수준	0.01(0.03)/0.01 0.00(0.03)/0.00	0.00(0.02)/0.01 0.05(0.02)/0.12*	-0.03(0.03)/-0.05 0.03(0.03)/0.06	-0.01(0.04)/-0.01 0.06(0.03)/0.11	-0.03(0.04)/-0.05 -0.06(0.03)/-0.10
거주지 (부모)	-0.12(0.06)/-0.09 -0.03(0.08)/-0.02	0.02(0.04)/0.02 -0.14(0.06)/-0.10*	0.07(0.06)/0.05 -0.16(0.08)/-0.10*	-0.07(0.07)/-0.04 -0.06(0.08)/-0.03	-0.04(0.07)/-0.03 -0.07(0.09)/-0.04
주보호자 (친부모)	-0.05(0.06)/-0.04 -0.03(0.06)/-0.02	-0.02(0.04)/-0.02 -0.01(0.04)/-0.01	-0.03(0.06)/-0.02 0.05(0.05)/0.04	-0.18(0.07)/-0.12* -0.05(0.06)/-0.04	0.03(0.07)/0.02 -0.07(0.06)/-0.05
자기통제	-0.03(0.07)/-0.02 -0.03(0.07)/-0.02	-0.08(0.05)/-0.09 -0.09(0.05)/-0.08	-0.20(0.07)/-0.16** -0.13(0.06)/-0.10*	-0.08(0.09)/-0.05 -0.03(0.07)/-0.02	-0.09(0.08)/-0.06 -0.01(0.07)/-0.01
스트레스 (간장)	0.02(0.05)/0.02 0.02(0.05)/0.02	-0.05(0.03)/-0.08 0.10(0.04)/0.13*	-0.13(0.04)/-0.14** 0.08(0.05)/0.08	-0.04(0.06)/-0.04 -0.05(0.05)/-0.05	-0.02(0.05)/-0.02 -0.01(0.05)/-0.01
일탈적 일상활동	-0.06(0.06)/-0.07 -0.09(0.06)/-0.09	0.07(0.04)/0.12 0.01(0.05)/0.01	-0.07(0.06)/-0.08 -0.00(0.06)/-0.00	0.06(0.08)/0.05 -0.05(0.06)/-0.05	-0.15(0.07)/-0.14* -0.06(0.06)/-0.05
종교심	0.10(0.03)/0.13** 0.02(0.03)/0.02	0.04(0.02)/0.08 0.04(0.03)/0.07	0.07(0.03)/0.10* 0.12(0.03)/0.16**	0.11(0.04)/0.12* 0.01(0.04)/0.01	0.11(0.04)/0.13** 0.02(0.04)/0.03

	부적감정억제	공정적 정체성	사회적지지	담당직원과의 애착	책임인정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도덕성	0.00(0.05)/0.00 0.06(0.05)/0.06	0.01(0.03)/0.01 0.07(0.04)/0.09	0.13(0.05)/0.15** 0.14(0.05)/0.15**	0.22(0.06)/0.21** 0.10(0.06)/0.10	0.10(0.06)/0.11 0.16(0.06)/0.15**
부모애착	0.20(0.04)/0.22** 0.16(0.05)/0.15**	0.05(0.03)/0.08 0.24(0.04)/0.28**	0.17(0.04)/0.20** 0.29(0.05)/0.28**	0.08(0.05)/0.07 0.21(0.06)/0.20**	0.11(0.05)/0.12* 0.26(0.06)/0.23**
부정적 낙인	-0.05(0.04)/-0.07 0.01(0.04)/0.01	-0.08(0.03)/-0.14** -0.07(0.03)/-0.11*	-0.08(0.04)/-0.11* -0.04(0.04)/-0.05	-0.10(0.05)/-0.11* -0.12(0.04)/-0.16**	-0.02(0.05)/0.02 0.01(0.04)/0.01
비행친구	-0.00(0.03)/-0.00 0.00(0.03)/0.00	0.06(0.02)/0.14** 0.01(0.02)/0.02	0.12(0.03)/0.18** 0.08(0.03)/0.12*	0.00(0.04)/0.00 0.05(0.03)/0.08	-0.04(0.04)/-0.06 0.01(0.03)/0.01
지역무질서	-0.05(0.06)/-0.06 -0.13(0.05)/-0.16*	-0.04(0.04)/-0.07 -0.07(0.04)/-0.11	0.01(0.06)/0.01 -0.03(0.05)/-0.04	0.19(0.08)/0.18* -0.00(0.06)/-0.00	0.22(0.07)/0.22** -0.10(0.06)/-0.11
지역치안 수준	0.09(0.04)/0.11* 0.10(0.04)/0.13**	0.06(0.03)/0.10* 0.03(0.03)/0.05	0.07(0.04)/0.08 0.11(0.03)/0.14**	-0.02(0.05)/-0.02 0.02(0.04)/0.02	0.02(0.05)/0.02 0.14(0.04)/0.16**
F	5.32** 4.08**	3.97** 9.58**	7.30** 8.26**	3.11** 4.07**	2.43** 6.08**
R <sup>2</sup>	0.11 0.09	0.08 0.22	0.16 0.20	0.06 0.09	0.04 0.15

\*p<.05, \*\*p<.01

### 나. 보호 및 위험 요인이 긍정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취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종교심과 도덕성만이 소년의 취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종교심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소년이 취미활동을 더 많이 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종교심과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취미활동도 많은 반면, 일탈적 일상활동이 증가할수록 취미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의 경우, 소년원생은 나이가 많을수록, 도덕성이 증가할수록 저축을 많이 하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애착이 증가할수록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을 도와주는 이타적 행동의 경우, 소년원생은 종교심, 도덕성,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할수록 이타적 행동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도덕성, 부모애착,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이타적 행동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친구를 제외한 타인과 잘 지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애착이 증가할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부모애착과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낙인과 지역무질서가 감소할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좋은 경향이 있다. 가족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의 경우, 소년원생은 종교심, 도덕성, 부모애착이 증가할수록 가족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종교심과 부모애착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낙인이 감소할수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직업준비의 경우, 소년원생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부모와 거주하는 소년이 그렇지 않은 소년보다, 종교심, 도덕성, 부모애착, 비행친구와의 관계,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년이 직업준비를 더 많이 하는 반면, 자기통제와 일탈적 일상활동이 증가할수록 직업준비정도가 감소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종교심과 부모애착이 증가할수록 소년의 직업준비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검정고시 준비와 관련하여 소년원생의 경우 스트레스(긴장)가 감소할수록, 지역무질서가 증가할수록 소년의 자격증/검정고시 준비정도가 증가하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나이가 많고 부모와의 애착이 증가할수록 자격증/검정고시 준비정도가 증가하였다.

〈표 2-36〉 보호 및 위험 요인이 긍정적 변화 중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취미활동		저축		이타적 행동		타인과 잘 지냄		가족과 함께 함		직업준비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β 소년원 보호관찰
상수	0.66(0.81) 2.66(0.74)	-1.36(0.84) -0.15(0.83)	1.16(0.74) 2.14(0.55)	1.65(0.73) 3.11(0.62)	0.65(0.78) 1.71(0.74)	1.61(0.53) 1.51(0.57)	2.23(0.71) 0.25(0.87)							
성별(여자)	-0.21(0.12)/-0.08 -0.22(0.09)/-0.11*	-0.15(0.12)/-0.06 -0.03(0.10)/-0.01	-0.09(0.11)/-0.04 -0.16(0.07)/-0.11*	-0.01(0.10)/-0.00 -0.11(0.08)/-0.07	-0.08(0.11)/-0.03 -0.04(0.09)/-0.02	0.07(0.08)/0.04 0.04(0.07)/0.03	0.18(0.10)/0.09 0.01(0.11)/0.00							
나이	0.06(0.03)/0.08 -0.02(0.03)/-0.03	0.15(0.04)/0.19** 0.10(0.04)/0.16*	0.03(0.03)/0.05 -0.01(0.02)/-0.02	0.06(0.03)/0.11* -0.03(0.03)/-0.06	-0.01(0.03)/-0.01 -0.07(0.03)/-0.12*	0.05(0.02)/0.11* -0.03(0.03)/-0.09	0.02(0.03)/0.04 0.09(0.04)/0.15*							
교육수준	-0.07(0.05)/-0.08 0.02(0.05)/0.03	-0.06(0.05)/-0.05 0.01(0.05)/0.02	0.02(0.04)/0.03 0.04(0.03)/0.08	0.00(0.04)/0.00 0.02(0.04)/0.03	0.05(0.04)/0.05 0.06(0.04)/0.07	-0.03(0.03)/-0.05 0.06(0.03)/0.11	0.04(0.04)/0.06 -0.01(0.05)/-0.01							
거주지 (부모)	0.04(0.09)/0.02 0.23(0.12)/0.09	-0.04(0.10)/-0.02 0.10(0.14)/0.04	-0.06(0.08)/-0.04 -0.15(0.09)/-0.09	0.03(0.08)/0.02 -0.04(0.10)/-0.02	0.01(0.09)/0.01 0.22(0.12)/0.09	0.14(0.06)/0.11* -0.17(0.09)/-0.09	-0.15(0.08)/-0.10 -0.11(0.14)/-0.04							
주보호자 (친부모)	-0.08(0.09)/-0.04 -0.10(0.08)/-0.06	0.01(0.09)/0.00 -0.18(0.09)/-0.09	0.04(0.08)/0.02 0.05(0.06)/0.04	-0.01(0.08)/-0.01 0.01(0.07)/0.01	0.04(0.08)/0.02 0.11(0.08)/0.06	-0.08(0.06)/-0.07 0.01(0.06)/0.01	-0.12(0.08)/-0.08 -0.05(0.09)/-0.03							
자기통제	-0.13(0.11)/-0.07 -0.14(0.10)/-0.07	-0.02(0.11)/-0.01 -0.06(0.11)/-0.03	-0.08(0.09)/-0.05 -0.09(0.07)/-0.06	-0.13(0.09)/-0.08 -0.07(0.08)/-0.04	-0.08(0.10)/-0.04 -0.08(0.09)/-0.04	-0.20(0.07)/-0.16** 0.07(0.07)/0.05	-0.05(0.09)/-0.03 -0.00(0.11)/-0.00							
스트레스 (긴장)	0.06(0.07)/0.04 0.12(0.08)/0.08	0.07(0.07)/0.05 0.11(0.09)/0.07	0.04(0.07)/0.04 -0.03(0.06)/-0.03	-0.08(0.06)/-0.07 0.09(0.06)/0.08	-0.01(0.07)/-0.01 0.02(0.07)/0.01	-0.05(0.05)/-0.05 0.02(0.06)/0.02	-0.21(0.06)/-0.19** -0.05(0.09)/-0.03							
일탈적 임상활동	-0.02(0.10)/-0.02 -0.21(0.09)/-0.14*	-0.18(0.10)/-0.12 -0.03(0.10)/-0.02	-0.16(0.09)/-0.14 -0.04(0.06)/-0.04	0.04(0.09)/0.04 0.07(0.07)/0.06	-0.25(0.09)/-0.18 -0.12(0.09)/-0.08	-0.15(0.06)/-0.16* -0.06(0.07)/-0.05	0.06(0.08)/0.05 -0.19(0.10)/-0.12							
종교심	0.19(0.05)/0.17** 0.14(0.05)/0.12**	0.16(0.05)/0.13 0.11(0.06)/0.09	0.24(0.05)/0.24** 0.05(0.04)/0.06	0.01(0.05)/0.01 0.05(0.04)/0.06	0.23(0.05)/0.21** 0.21(0.05)/0.17**	0.20(0.03)/0.28** 0.11(0.04)/0.13**	0.07(0.05)/0.08 0.05(0.06)/0.04							



	취미활동	저축	이타적 행동	타인과 질 지범	가족과 함께 함	직업준비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도덕성	0.33(0.08)/0.26** 0.06(0.08)/0.04	0.35(0.08)/0.26** 0.06(0.09)/0.03	0.18(0.07)/0.17** 0.12(0.06)/0.12*	0.07(0.07)/0.07 0.08(0.07)/0.08	0.17(0.07)/0.13* 0.02(0.08)/0.01	0.10(0.05)/0.13* 0.06(0.06)/0.06	-0.01(0.06)/-0.01 0.05(0.09)/0.04
부모애착	0.13(0.07)/0.10 0.23(0.08)/0.15**	0.13(0.07)/0.09 0.33(0.09)/0.19**	0.09(0.06)/0.08 0.33(0.06)/0.32**	0.16(0.06)/0.15** 0.16(0.06)/0.14*	0.46(0.06)/0.36** 0.64(0.08)/0.41**	0.13(0.04)/0.16** 0.40(0.06)/0.36**	0.10(0.06)/0.10 0.32(0.09)/0.21**
부정적 낙인	0.03(0.06)/0.03 -0.10(0.06)/-0.09	-0.02(0.06)/-0.02 -0.02(0.07)/-0.02	0.06(0.05)/0.06 -0.02(0.04)/-0.03	0.01(0.05)/0.01 -0.16(0.05)/-0.17**	-0.03(0.06)/-0.03 -0.13(0.06)/-0.11*	-0.05(0.04)/-0.07 0.03(0.05)/0.03	-0.01(0.05)/-0.01 0.12(0.07)/0.10
비행친구	0.01(0.05)/0.01 0.00(0.05)/0.00	0.04(0.05)/0.04 0.03(0.05)/0.03	0.13(0.05)/0.16** 0.02(0.03)/0.03	0.06(0.04)/0.08 0.04(0.04)/0.06	-0.06(0.05)/-0.06 -0.04(0.05)/-0.04	0.07(0.03)/0.11* -0.01(0.04)/-0.02	-0.02(0.04)/-0.02 0.02(0.05)/0.02
지역무질서	0.07(0.09)/0.06 0.03(0.08)/0.02	0.08(0.10)/0.05 -0.04(0.09)/-0.03	0.01(0.08)/0.01 -0.01(0.06)/-0.01	-0.16(0.08)/-0.15 -0.24(0.06)/-0.25**	0.17(0.09)/0.13 -0.07(0.08)/-0.06	0.07(0.06)/0.08 0.01(0.06)/0.01	0.18(0.08)/0.17* 0.02(0.09)/0.02
지역치안 수준	0.11(0.06)/0.09 0.06(0.05)/0.05	0.13(0.06)/0.09 -0.03(0.06)/-0.03	0.03(0.06)/0.03 0.10(0.04)/0.12*	0.08(0.05)/0.07 0.16(0.04)/0.18**	0.06(0.06)/0.05 0.01(0.05)/0.00	0.11(0.04)/0.13** 0.06(0.04)/0.07	-0.00(0.05)/-0.00 0.03(0.06)/0.02
F	4.00** 5.13**	6.32** 3.72**	3.62** 6.01**	2.58** 6.20**	10.57** 13.15**	7.47** 6.18**	3.02** 2.18**
R <sup>2</sup>	0.08 0.12	0.14 0.08	0.08 0.16	0.05 0.17	0.25 0.32	0.18 0.17	0.06 0.04

\*p<.05, \*\*p<.01

### 다.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부정적 인지/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스트레스, 지역무질서,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년의 분노가 증가하는 반면, 자기통제가 증가할수록 분노는 낮아졌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통제와 스트레스(긴장)가 감소할수록 소년의 분노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호 및 위험 요인이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와 거주하는 소년이 그렇지 않은 소년에 비해, 스트레스(긴장)와 종교심이 증가할수록 소년의 우울한 정도가 높아지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증가할수록 우울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 낙인과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긴장)가 증가할수록 우울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범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 소년원생의 경우 일탈적 일상활동, 부정적 낙인과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할수록 범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는 반면, 자기통제와 도덕성이 증가할수록 유혹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도덕성이 감소할수록, 부정적 낙인이 증가할수록 범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한 책임회피에 있어서 소년원생의 경우 스트레스(긴장)와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종교심이 증가할수록, 도덕성과 지역치안수준이 감소할수록 소년이 자신의 비행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표 2-37〉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부정적 변화 중 인지/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	우울	범죄유혹	책임회피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상수	2.98(0.68) 4.34(0.77)	-0.28(0.74) 2.39(0.77)	2.23(0.76) 1.67(0.59)	0.33(0.87) 2.04(0.66)
성별 (여자)	-0.02(0.10)/-0.01 0.23(0.10)/0.11*	0.55(0.11)/0.22** 0.23(0.10)/0.11*	-0.08(0.11)/-0.03 -0.02(0.07)/-0.01	-0.24(0.12)/-0.09 -0.02(0.08)/-0.01
나이	0.02(0.03)/0.03 -0.03(0.04)/-0.05	0.12(0.03)/0.16** 0.04(0.04)/0.07*	-0.05(0.03)/-0.07 0.01(0.03)/0.01	0.02(0.04)/0.03 0.05(0.03)/0.11
교육수준	-0.01(0.04)/-0.01 0.07(0.05)/0.09	-0.13(0.04)/-0.13** -0.03(0.05)/-0.04	0.04(0.04)/0.04 0.03(0.04)/0.05	0.04(0.05)/0.04 0.04(0.04)/0.06
거주지 (부모)	0.06(0.08)/0.03 0.01(0.12)/0.00	0.19(0.08)/0.10* 0.20(0.12)/0.08	-0.05(0.09)/-0.03 -0.08(0.09)/-0.04	0.15(0.10)/0.07 -0.01(0.10)/-0.01
주보호자 (친부모)	-0.05(0.07)/-0.03 0.01(0.08)/0.01	0.02(0.08)/0.01 -0.02(0.08)/-0.01	-0.03(0.08)/-0.02 0.07(0.06)/0.05	-0.01(0.09)/-0.01 -0.04(0.07)/-0.03
자기통제	-0.80(0.09)/-0.43** -0.53(0.10)/-0.26**	-0.29(0.09)/-0.15** -0.07(0.10)/-0.04	-0.24(0.10)/-0.12* 0.02(0.07)/0.01	-0.02(0.11)/-0.01 -0.04(0.08)/-0.03
스트레스 (긴장)	0.21(0.06)/0.16** -0.31(0.08)/-0.12**	0.39(0.07)/0.29** -0.48(0.08)/-0.34**	0.12(0.07)/0.09 0.00(0.06)/0.00	0.26(0.08)/0.19** -0.12(0.07)/-0.11
일탈적 일상활동	0.03(0.08)/0.02 0.06(0.09)/0.04	-0.08(0.09)/-0.06 -0.02(0.09)/-0.01	0.25(0.09)/0.17** 0.13(0.07)/0.11	-0.06(0.10)/-0.04 -0.01(0.08)/-0.01
종교심	-0.00(0.04)/-0.00 -0.04(0.06)/-0.03	0.11(0.05)/0.10* 0.04(0.06)/0.03	-0.00(0.05)/-0.00 0.06(0.04)/0.06	0.10(0.06)/0.09 0.10(0.05)/0.11*
도덕성	-0.03(0.06)/-0.03 -0.14(0.08)/-0.10	-0.11(0.07)/-0.09 0.05(0.08)/0.04	-0.21(0.07)/-0.16** -0.41(0.06)/-0.36**	-0.12(0.08)/-0.10 -0.26(0.07)/-0.23**
부모애착	-0.02(0.06)/-0.01 0.03(0.08)/0.02	0.02(0.06)/0.01 -0.10(0.08)/-0.07	0.05(0.06)/0.03 0.03(0.06)/0.03	0.07(0.07)/0.06 -0.01(0.07)/-0.01
부정적 낙인	-0.09(0.05)/-0.08 -0.02(0.06)/-0.02	0.06(0.05)/0.05 0.17(0.06)/0.15**	0.11(0.06)/0.09* 0.14(0.05)/0.15**	0.12(0.06)/0.11 0.06(0.05)/0.07
비행친구	0.04(0.04)/0.04 0.01(0.05)/0.02	0.03(0.05)/0.03 0.04(0.05)/0.04	0.27(0.05)/0.26** 0.03(0.04)/0.04	-0.06(0.05)/-0.06 -0.08(0.04)/-0.01
지역 무질서	0.19(0.08)/0.15* 0.15(0.08)/0.12	-0.03(0.08)/-0.02 0.01(0.08)/0.01	-0.01(0.09)/-0.01 0.06(0.06)/0.06	0.15(0.10)/0.11 0.13(0.07)/0.13
지역치안 수준	0.14(0.05)/0.12** 0.05(0.05)/0.04	0.10(0.06)/0.08 0.12(0.05)/0.11*	-0.03(0.06)/-0.02 -0.06(0.04)/-0.07	0.14(0.07)/0.11* -0.11(0.05)/-0.12*
F	18.60** 8.98**	13.91** 7.33**	16.40** 10.18**	4.77** 4.98**
R <sup>2</sup>	0.37 0.24	0.31 0.20	0.34 0.26	0.11 0.14

\*p&lt;.05, \*\*p&lt;.01

### 라.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부정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음주로 인한 문제경험에 있어서 소년원생의 경우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일탈적 일상활동과 종교심이 높을수록 소년이 음주로 인해 경험하는 문제가 증가하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일탈적 일상활동과 종교심 및 지역무질서가 증가할수록, 지역치안수준이 감소할수록 소년의 음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흡연량과 관련하여 소년원생의 경우 어느 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일탈적 일상활동과 지역무질서가 증가할수록 소년의 흡연량이 증가하였다.

도박정도와 관련하여 소년원생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애착과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할수록 소년이 도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 낙인과 비행친구 관계 및 지역무질서가 증가할수록 소년의 도박이 증가하였다. 사이버일탈의 경우 소년원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긴장), 일탈적 일상활동, 부모애착, 및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할수록 사이버일탈이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친부모가 후보호자인 소년이 그렇지 않은 소년보다, 도덕성이 감소할수록, 부정적 낙인과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할수록 사이버일탈이 증가하였다. 폭력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비행친구와의 관계 및 지역무질서가 증가할수록 폭력행위가 증가하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일탈적 일상활동, 부정적 낙인,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할수록 폭력행위가 증가하였다. 성적일탈과 관련하여 소년원생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일탈적 일상활동과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할수록 성적일탈이 증가하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심과 비행친구관계가 증가할수록, 부모애착이 감소할수록 성적일탈이 증가하였다. 학대경험과 관련하여 소년원생의 경우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소년이 부모와 거주하는 소년보다, 자기통제와 일탈적 일상활동이 감소할수록, 스트레스(긴장)와 부정적 낙인이 증가할수록 학대경험이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스트레스(긴장)와 부모애착이 감소할수록, 종교심이 증가할수록 학대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8〉 보호 및 위험 요인이 부정적 변화 중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음주로 인한 문제	흡연량	도박정도	사이버일탈	폭력행위	성적일탈	학대경험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상수	-1.43(0.70) -0.94(0.59)	2.97(0.66) 0.64(0.71)	-1.11(0.96) -0.67(0.96)	0.74(0.64) 2.34(0.61)	1.21(0.68) 0.08(0.61)	-0.18(0.74) -0.49(0.69)	1.12(0.87) 3.89(0.78)
성별(여자)	0.07(0.10)/0.03 0.38(0.07)/0.22**	-0.04(0.10)/-0.02 -0.04(0.09)/-0.03	-0.41(0.14)/-0.14** -0.47(0.12)/-0.19**	-0.55(0.09)/-0.28** -0.57(0.08)/-0.34**	-0.03(0.10)/-0.01 0.08(0.08)/0.05	-0.24(0.11)/-0.11* 0.05(0.09)/0.03	0.09(0.12)/0.03 0.01(0.10)/0.00
나이	0.04(0.03)/0.06 0.08(0.03)/0.18**	-0.00(0.03)/-0.01 0.09(0.03)/0.19**	0.06(0.04)/0.07 0.06(0.04)/0.09	0.03(0.03)/0.05 -0.00(0.03)/-0.01	-0.03(0.03)/-0.04 0.04(0.03)/0.08	0.09(0.03)/0.14** 0.16(0.03)/0.32**	-0.01(0.04)/-0.01 -0.02(0.04)/-0.03
교육수준	0.06(0.04)/0.07 -0.01(0.04)/-0.01	-0.01(0.04)/-0.01 0.03(0.04)/0.05	0.14(0.06)/0.12* 0.11(0.06)/0.12	0.01(0.04)/0.01 0.06(0.04)/0.09	0.10(0.04)/0.11* 0.01(0.04)/0.02	-0.01(0.04)/-0.01 0.03(0.04)/0.05	0.08(0.05)/0.08 0.04(0.05)/0.04
거주지 (부모)	0.07(0.08)/0.04 -0.04(0.09)/-0.02	-0.11(0.07)/-0.08 0.02(0.11)/0.01	0.16(0.11)/0.07 -0.12(0.15)/-0.04	0.09(0.07)/0.06 0.02(0.10)/0.01	0.06(0.08)/0.03 -0.12(0.10)/-0.06	-0.14(0.08)/-0.08 -0.00(0.11)/-0.00	-0.24(0.10)/-0.11* 0.01(0.13)/0.01
주보호자 (친부모)	0.08(0.08)/0.05 0.04(0.06)/0.03	-0.04(0.07)/-0.03 0.05(0.08)/0.03	0.16(0.10)/0.07 0.12(0.10)/0.05	0.02(0.07)/0.01 0.14(0.07)/0.10*	-0.03(0.07)/-0.02 0.08(0.07)/0.06	0.02(0.08)/0.01 -0.07(0.07)/-0.05	0.04(0.09)/0.02 -0.00(0.09)/-0.00
자기 통제	-0.18(0.09)/-0.10* 0.04(0.08)/0.03	-0.02(0.08)/-0.01 -0.11(0.09)/-0.06	-0.18(0.12)/-0.08 -0.16(0.12)/-0.07	-0.13(0.08)/-0.09 -0.06(0.08)/-0.03	-0.30(0.09)/-0.17** -0.10(0.08)/-0.06	-0.11(0.10)/-0.06 -0.17(0.09)/-0.10	-0.24(0.11)/-0.11* -0.11(0.11)/-0.05
스트레스 (긴장)	0.11(0.06)/0.09 -0.02(0.06)/-0.02	-0.04(0.06)/-0.03 0.08(0.07)/0.06	-0.03(0.09)/-0.02 0.13(0.10)/0.07	0.15(0.06)/0.14** 0.00(0.06)/0.00	0.02(0.06)/0.02 -0.03(0.06)/-0.03	-0.00(0.07)/-0.00 -0.03(0.07)/-0.02	0.36(0.08)/0.24** -0.39(0.08)/-0.24**
일탈적 일상활동	0.41(0.08)/0.33** 0.24(0.07)/0.20**	0.01(0.08)/0.01 0.21(0.08)/0.16*	0.17(0.11)/0.10 0.16(0.11)/0.09	0.18(0.08)/0.16* -0.02(0.07)/-0.01	0.13(0.08)/0.10 0.18(0.07)/0.15*	0.18(0.09)/0.14* -0.02(0.08)/-0.01	-0.24(0.10)/-0.16* -0.03(0.10)/-0.02
종교심	0.18(0.05)/0.18** 0.09(0.04)/0.09*	0.07(0.04)/0.09 -0.06(0.05)/-0.06	0.01(0.06)/0.01 0.03(0.07)/0.02	-0.01(0.04)/-0.01 0.01(0.05)/0.01	0.04(0.04)/0.04 0.07(0.05)/0.07	0.07(0.05)/0.06 0.14(0.05)/0.13**	0.08(0.06)/0.06 0.23(0.06)/0.19**

	음주로 인한 문제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흡연량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도박정도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사이버일탈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폭력행위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성적일탈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학대경험 B(표준오차)/ $\beta$ 소년원 보호관찰
도덕성	0.100(0.06)/0.09 -0.100(0.06)/-0.09	-0.03(0.06)/-0.03 0.03(0.08)/0.03	0.02(0.09)/0.01 -0.03(0.10)/-0.02	-0.05(0.06)/-0.05 -0.27(0.07)/-0.23**	-0.04(0.06)/-0.03 -0.11(0.07)/-0.10	-0.02(0.07)/-0.01 -0.10(0.07)/-0.08	0.05(0.08)/0.04 -0.10(0.09)/-0.06
부모애착	0.05(0.06)/0.05 0.01(0.06)/0.01	-0.03(0.05)/-0.03 -0.13(0.08)/-0.10	0.17(0.08)/0.12* 0.03(0.10)/0.02	0.13(0.05)/0.12* 0.05(0.07)/0.04	0.00(0.06)/0.00 0.07(0.07)/0.06	0.01(0.06)/0.01 -0.20(0.07)/-0.15*	-0.01(0.07)/-0.01 -0.18(0.09)/-0.11*
부정적 낙인	0.04(0.05)/0.04 0.07(0.05)/0.08	0.04(0.05)/0.04 0.04(0.06)/0.04	0.12(0.07)/0.09 0.16(0.08)/0.11*	0.07(0.05)/0.08 0.14(0.05)/0.14**	0.07(0.05)/0.07 0.14(0.05)/0.15**	0.05(0.05)/0.05 0.09(0.06)/0.09	0.21(0.06)/0.17** 0.09(0.07)/0.07
비행친구	0.03(0.04)/0.04 0.03(0.04)/0.05	0.07(0.04)/0.10 -0.02(0.04)/-0.02	0.22(0.06)/0.19** 0.24(0.06)/0.21**	0.15(0.04)/0.19** 0.12(0.04)/0.15**	0.23(0.04)/0.25** 0.13(0.04)/0.17**	0.24(0.05)/0.27** 0.15(0.04)/0.18**	0.10(0.05)/0.09 0.05(0.05)/0.05
지역무질서	0.11(0.08)/0.09 0.23(0.06)/0.23**	0.11(0.08)/0.12 0.17(0.07)/0.16*	0.13(0.11)/0.09 0.24(0.10)/0.16*	-0.06(0.07)/-0.05 0.04(0.06)/0.04	0.22(0.08)/0.18** 0.11(0.06)/0.12	0.04(0.09)/0.04 0.08(0.07)/0.07	0.02(0.10)/0.02 -0.01(0.09)/-0.01
지역치안 수준	0.04(0.05)/0.04 -0.10(0.04)/-0.11*	0.03(0.05)/0.03 0.01(0.05)/0.01	0.02(0.07)/0.01 -0.07(0.07)/-0.05	0.06(0.05)/0.06 -0.01(0.04)/-0.01	-0.03(0.05)/-0.02 0.03(0.04)/0.04	-0.03(0.06)/-0.03 -0.03(0.05)/-0.03	-0.02(0.07)/-0.02 -0.07(0.06)/-0.06
F	11.01** 10.15**	2.62** 4.10**	7.44** 7.48**	8.80** 10.82**	14.59** 8.83**	7.47** 7.49**	6.35** 6.28**
R <sup>2</sup>	0.25 0.26	0.05 0.11	0.18 0.20	0.21 0.28	0.32 0.24	0.18 0.20	0.14 0.15

\*p<.05, \*\*p<.01

흡연여부, 범죄피해, 경고/주의 여부의 경우 경험이 있는 경우를 1로, 경험이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흡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일탈적 일상활동과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할수록 흡연하는 경향이 높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 일탈적 일상활동/부정적 낙인/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할수록, 종교심이 감소할수록 흡연하는 경향이 높다.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긴장)가 증가할수록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긴장)가 감소할수록, 종교심이 증가할수록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증가한다.

소년원 혹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경고/주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년원생의 경우 자기통제와 부모와의 애착이 감소할수록 경고/주의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도덕성과 부정적 낙인이 증가할수록 경고/주의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표 2-39〉 보호 및 위험 요인이 흡연, 범죄피해, 경고/주의에 미치는 영향

	흡연여부	범죄피해여부	경고/주의여부
	B(표준오차)/Wald/Exp(B)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Wald/Exp(B)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Wald/Exp(B) 소년원 보호관찰
상수	-5.85(4.03)/2.10/0.00 -9.99(2.79)/12.85/0.00	-5.41(2.32)/5.44/0.00 -3.54(2.50)/2.00/0.03	3.57(1.92)/3.48/35.61 -6.10(2.07)/8.71/0.00
성별(여)	0.28(0.63)/0.20/1.33 -0.89(0.32)/7.47/0.41**	0.95(0.29)/10.98/2.59** 0.81(0.30)/7.44/2.24**	0.11(0.27)/0.17/1.12 0.58(0.25)/5.51/1.79*
나이	0.22(0.18)/1.52/1.24 0.40(0.13)/9.07/1.49**	-0.03(0.10)/0.12/0.97 0.07(0.12)/0.36/1.07	-0.09(0.08)/1.26/0.91 0.12(0.09)/1.69/1.13
교육수준	0.07(0.24)/0.08/1.07 -0.07(0.17)/0.18/0.93	-0.09(0.13)/0.48/0.91 -0.36(0.17)/4.29/0.70*	0.08(0.11)/0.48/1.08 -0.01(0.13)/0.01/0.99
거주지 (부모)	0.61(0.49)/1.56/1.84 0.02(0.48)/0.00/1.02	-0.24(0.26)/0.87/0.78 -0.10(0.42)/0.06/0.90	0.08(0.21)/0.14/1.08 0.09(0.33)/0.08/1.10
주보호자 (친부모)	0.24(0.45)/0.29/1.27 0.83(0.32)/6.65/2.30*	0.31(0.26)/1.42/1.36 0.07(0.30)/0.06/1.07	0.40(0.20)/3.77/1.49 0.34(0.23)/2.13/1.40
자기통제	0.11(0.57)/0.04/1.12 -0.34(0.38)/0.79/0.71	0.56(0.31)/3.34/1.75 0.59(0.37)/2.61/1.81	-0.66(0.25)/7.22/0.52** -0.44(0.27)/2.60/0.64

	흡연여부	범죄피해여부	경고/주의여부
	B(표준오차)/Wald/Exp(B)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Wald/Exp(B) 소년원 보호관찰	B(표준오차)/Wald/Exp(B) 소년원 보호관찰
스트레스 (긴장)	-0.51(0.35)/2.14/0.60 0.03(0.27)/0.01/1.03	0.61(0.20)/9.45/1.83** -0.85(0.26)/10.21/0.43**	-0.26(0.16)/2.45/0.77 -0.27(0.21)/1.65/0.77
일탈적 일상활동	1.11(0.50)/4.87/3.04* 0.75(0.35)/4.58/2.12*	-0.07(0.28)/0.07/0.93 -0.04(0.32)/0.02/0.96	0.04(0.22)/0.03/1.04 0.45(0.25)/3.25/1.57
종교심	0.03(0.26)/0.01/1.03 -0.40(0.18)/4.63/0.67*	0.12(0.15)/0.62/1.12 0.37(0.18)/4.06/1.45*	0.10(0.12)/0.73/1.11 0.18(0.15)/1.52/1.20
도덕성	0.67(0.45)/2.21/1.96 0.30(0.31)/0.93/1.34	-0.06(0.22)/0.07/0.94 -0.01(0.29)/0.00/0.99	-0.32(0.18)/3.29/0.73 0.59(0.23)/6.64/1.80*
부모애착	-0.56(0.38)/2.23/0.57 0.32(0.32)/1.01/1.38	-0.07(0.19)/0.13/0.94 -0.14(0.28)/0.27/0.87	-0.41(0.15)/7.20/0.66** -0.36(0.22)/2.55/0.70
부정적 낙인	-0.59(0.33)/3.19/0.55 0.49(0.24)/4.25/1.63*	-0.20(0.18)/1.17/0.82 0.12(0.21)/0.31/1.13	-0.22(0.14)/2.40/0.80 0.39(0.17)/5.27/1.48*
비행친구	0.51(0.24)/4.58/1.66* 0.39(0.18)/5.03/1.48*	0.16(0.15)/1.23/1.18 0.23(0.18)/1.65/1.26	0.04(0.12)/0.11/1.04 0.10(0.13)/0.58/1.11
지역무질서	0.31(0.50)/0.38/1.37 0.19(0.32)/0.35/1.21	0.45(0.27)/2.78/1.57 0.28(0.29)/0.88/1.32	0.15(0.22)/0.47/1.16 0.14(0.22)/0.38/1.15
지역치안 수준	0.23(0.33)/0.46/1.26 0.35(0.19)/3.27/1.42	0.02(0.18)/0.02/1.02 0.21(0.21)/0.99/1.23	0.04(0.15)/0.06/1.04 0.17(0.16)/1.16/1.19
Nagelkerke R <sup>2</sup>	0.18 0.23	0.16 0.19	0.12 0.17

\*p&lt;.05, \*\*p&lt;.01

#### 4. 사회연결망 요인

##### 가. 범죄와 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혹은 연결망(network)이란 '상호 연결된 행위자들의 집합(set of actors and the ties among them)' 또는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조(structures of relationships linking social actors)'라고 정의할 수 있다(Perry et al., 2018: 3). 최근 들어 연결망 분석이 사회과학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방법론적으로 인터넷, SNS, 빅데이터 등 이전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가 증가했음을 뿐 아니라(Hansen et al., 2011), 이론적으로 사회현상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개인, 집단, 기업 혹은 국가 등 분석단위(unit of analysis)의 관계적 속성을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다는(김용학, 2004)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범죄학 분야에서 연결망 분석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Sarnecki, 2001: 5). 사실 범죄학 이론 중에서 연결망에 기초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범죄학 분야의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인 차별교제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 이론에 가까운 이론이다(Sarnecki, 2001: 8). 잘 알려진 대로 차별교제이론은 범죄행동은 학습된다는 전제 하에 범죄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비롯해 범죄동기, 범죄기술이 범죄자 주변의 친밀한 집단(intimate groups)을 통해 학습되고 강화된다고 주장한다(Akers et al., 2017: 84 - 85).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 또한 개인들 간 관계에 기초하여 범죄행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관점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허쉬(Travis Hirschi)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관습적이고 규범화된 사회와의 링크(links), 즉 유대(bonds)가 약화되면서 시작된다. 사회유대의 네 가지 요소(attachment, commitment, involvement, belief)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애착(attachment)은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 및 여러 기관 등 사회와의 연결되는 정도(ties)를 의미한다(Sarnecki, 2001: 20).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은 범죄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적 도구(methodological tool)이다(Sarnecki, 2001: 168). 특히 범죄학 분야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행위자들의 관계가 유발하는 결과 혹은 어떤 요인에 의해 행위자들의 관계가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데 연결망 분석은 매우 유용한 관점과 분석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아중심-연결망(egocentric network or ego-nets) 접근을 활용하여 소년원 재원생 및 보호관찰대상 소년의 사회연결망 요인을 살펴보았다. 자아중심-연결망은 전체 연결망(whole network or global network)과 달리 특정한 자아(ego)를 중심으로 형성된 타자(alters)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Crossley et al., 2015: 18). 자아중심-연결망 분석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특정한 자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개인중심의 연구설계(personal-network research design)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수도 있다(Borgatti et al., 2018: 305). 이번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자아중심-연결망 자료수집에서 이용되는 이름나열(name generator) 및 이름속성(name interpreter) 방식을 활용하였다(Borgatti et al., 2018: 307 - 313). 즉 조사응답자에게 가족,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을 포함하여

‘현재 여러분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5명’을 떠올리게 하고, 5명 각각에 대해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같은 동네거주 여부, 현재 연락여부, 그 사람과의 유대정도,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도,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비행유혹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어서 자신을 제외한 5명의 관계에 대한 이자관계(dyadic relationship)를 조사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 척도는 다음과 같다.

〈표 2-40〉 사회연결망 관련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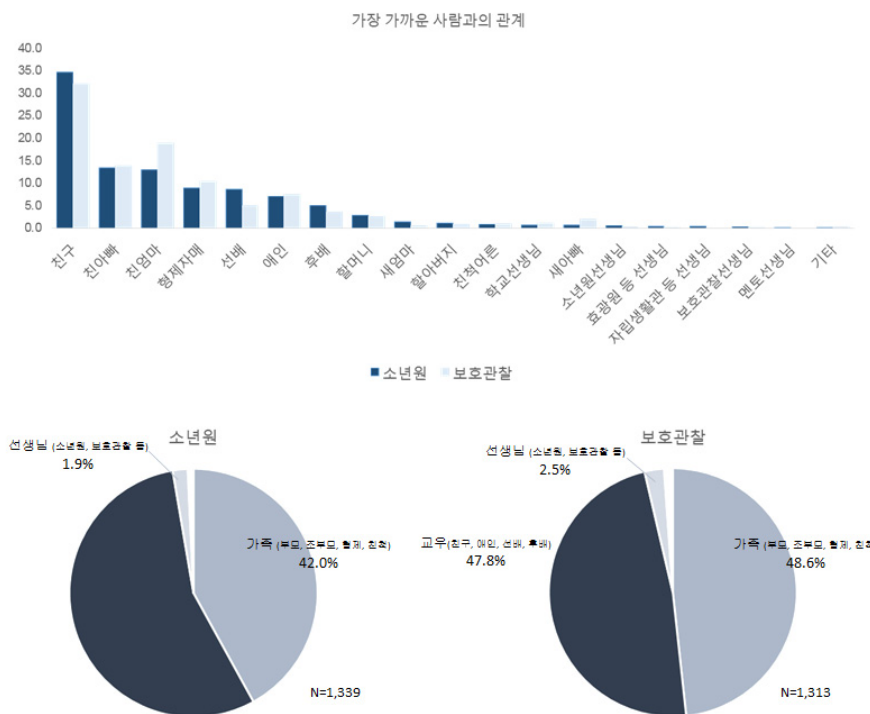
질문	척도	
그 사람과의 관계	① 친아빠 ② 친엄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형제·자매 ⑥ 새아빠 ⑦ 새엄마 ⑧ 친구 ⑨ 애인 ⑩ 선배 ⑪ 후배 ⑫ 친척어른 ⑬ 소년원 선생님 ⑭ 보호관찰 선생님 ⑮ 학교 선생님 ⑯ 효광원·마자렐로 등에서 만난 선생님·수녀님 ⑰ 자립생활관·YES센터 등에서 만난 선생님 ⑱ 멘토 선생님 ⑲ 기타	명목척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명목척도
같은 동네거주 여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명목척도
현재 그 사람과 연락 여부	① 자주 연락 ② 가끔 연락 ③ 연락 안함	명목척도
그 사람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정도	① 매우 낮음 ② 다소 낮음 ③ 약간 높음 ④ 매우 높음	4점척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정도	① 거의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가끔 있음 ④ 자주 있음	4점척도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정도	① 매우 낮음 ② 다소 낮음 ③ 약간 높음 ④ 매우 높음	4점척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행유혹을 느끼는 정도	① 매우 낮음 ② 다소 낮음 ③ 약간 높음 ④ 매우 높음	4점척도

## 나. 보호소년의 사회연결망의 특성

### 1) 자아중심 - 연결망의 속성

#### (1) 관계유형

가장 가까운 관계를 파악한 결과,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모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친구(소년원생 34.7%, 보호관찰 32.1%)로 나타났다. 소년원생의 경우 친구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사람은 친아빠(13.4%), 친엄마(12.9%), 형제·자매(8.9%), 선배(8.6%), 애인(7.0%), 후배(5.0%) 순으로 나타난 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친구 다음으로 친엄마(18.9%), 친아빠(13.8%), 형제·자매(10.3%), 애인(7.4%), 선배(5.0%), 후배(3.5%) 순이었다. 친엄마와 친아빠를 제외하고 두 집단의 관계유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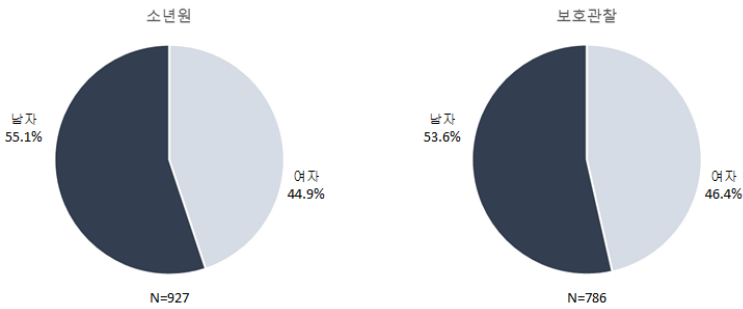


[그림 2-3]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유형

〈표 2-40〉에 제시된 19개의 관계유형을 ‘가족관계’, ‘교우관계’, ‘선생님(멘토)관계’로 범주화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소년원생은 가족 42.0%, 교우 55.3%, 선생님(멘토) 1.9%로 나타났고, 보호관찰대상자는 가족 48.6%, 교우 47.8%, 선생님(멘토) 2.5%로 나타나,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친구·선후배·애인 등과 친밀한 관계를 더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성별

가까운 사람들의 성별유형을 비교한 결과, 소년원생은 남자 55.1%, 여자 44.9%로 나타났고, 보호관찰대상자는 남자 53.6%, 여자 46.4%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2-4]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성별

소년원생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가까운 사람의 성별이 얼마나 유사한지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가까운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원 남자의 경우 가까운 남자의 수가 평균 3.43명인 반면, 소년원 여자의 경우 가까운 여자의 수가 평균 3.32명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대상자 역시 남자인 경우 가까운 남자의 수가 3.50명, 여자인 경우 가까운 여자의 수가 3.18명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성별에 따른 ‘집단유사성(ego - alter similarity)’ 경향 (Borgatti et al., 2018)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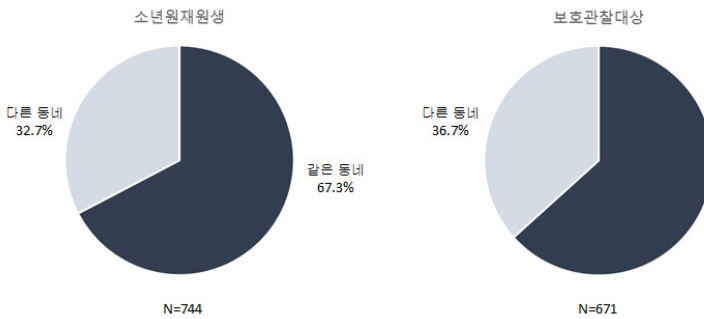
〈표 2-41〉 소년원과 보호관찰 성별 연결망의 유사성 비교

구분	사례수	가까운 사람 - 남자			t값	가까운 사람 - 여자			t값
		평균(명)	S.D.			평균(명)	S.D.		
소년원	남자 (436)	3.43	1.24	13.38**	1.35	1.10	-15.82**		
	여자 (96)	1.59	1.14		3.32	1.13			
보호관찰	남자 (344)	3.50	1.21	18.37**	1.20	0.98	-17.16**		
	여자 (119)	1.22	1.03		3.18	1.33			

\*p<.05, \*\*p<.01

(3) 같은 동네거주 여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년원생 67.3%, 보호관찰 63.3%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림 2-5]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같은 동네거주 여부

두 집단 간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비교한 결과, 소년원생은 평균 3.72명, 보호관찰대상자는 평균 3.32명으로 소년원생일수록 가까운 사람들 중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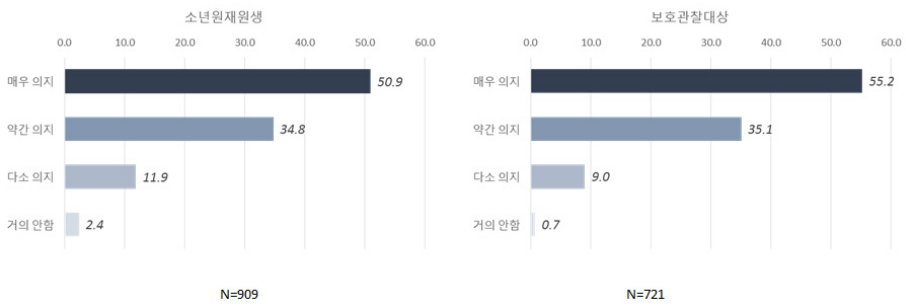
〈표 2-42〉 소년원과 보호관찰 거주지 연결망의 비교

	소년원(명)					보호관찰(명)					t값
	N	평균	S.D.	Min	Max	N	평균	S.D.	Min	Max	
같은 동네거주	(533)	3.72	1.53	0	5	(463)	3.32	1.69	0	5	3.971**

\*p<.05, \*\*p<.01

(4) 유대 정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지내는지를 질문한 결과, 소년원생의 50.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55.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약간 그렇다'까지 포함하면, 소년원생은 85.7%, 보호관찰대상자는 90.3%가 가까운 사람을 의지한다고 응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유대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유대정도

<표 2-43> 소년원과 보호관찰 연결망의 유대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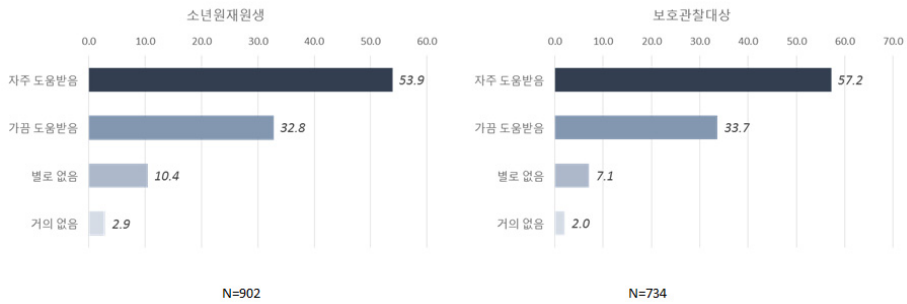
구분	소년원(명)					보호관찰(명)					t값
	N	평균	S.D.	Min	Max	N	평균	S.D.	Min	Max	
유대정도	(525)	3.53	0.49	1.6	4.0	(454)	3.59	0.47	1.6	4.0	-1.827

\*p<.05, \*\*p<.01

그러나 두 집단 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소년원생(3.53)과 보호관찰대상자(3.59) 간 유대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5) 도움 정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소년원생의 53.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보호관찰대상자는 57.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약간 그렇다'까지 포함하면, 소년원생은 86.7%, 보호관찰대상자는 90.9%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도움정도

두 집단 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대상자(3.64)가 소년원생(3.58)보다 평균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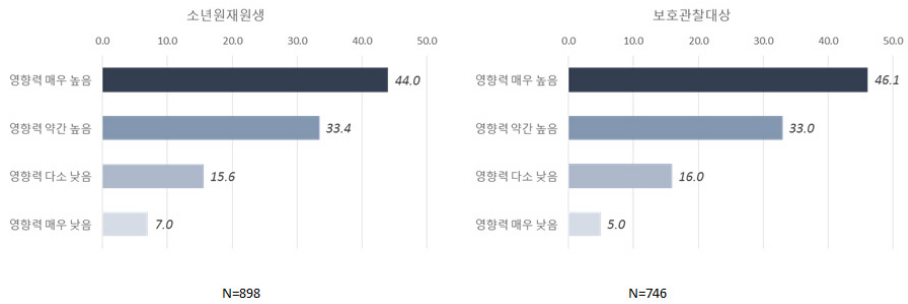
〈표 2-44〉 소년원과 보호관찰 연결망의 도움정도 비교

구분	소년원(명)					보호관찰(명)					t값
	N	평균	S.D.	Min	Max	N	평균	S.D.	Min	Max	
도움정도	(525)	3.58	0.47	1.2	4.0	(454)	3.64	0.43	1.4	4.0	-1.869

\* $p < .05$ , \*\* $p < .01$

## (6) 영향 정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소년원생의 44.0%가, 보호관찰대상자는 46.1%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까운 사람에 대한 유대정도나 도움정도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약간 그렇다'까지 포함하면, 소년원생의 77.4%, 보호관찰대상자의 79.1%는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모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각각 22.6%, 20.9%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림 2-8] 가까운 사람의 영향정도

두 집단 간 영향정도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대정도나 도움정도와 마찬가지로 영향정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5> 소년원과 보호관찰 연결망의 영향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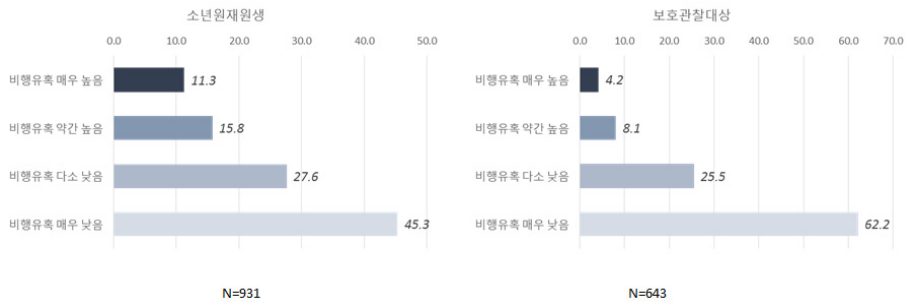
구분	소년원(명)					보호관찰(명)					t값
	N	평균	S.D.	Min	Max	N	평균	S.D.	Min	Max	
영향정도	(524)	3.29	0.76	1.0	4.0	(454)	3.34	0.72	1.0	4.0	-0.965

\*p<.05, \*\*p<.01

(7) 비행유혹을 느끼는 정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행의 유혹을 느끼는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소년원생의 11.3%, 보호관찰대상자의 4.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약간 그렇다'를 포함할 경우 소년원생은 27.1%, 보호관찰대상자는 12.3%가 비행의 유혹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비행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소년원생 72.9%, 보호관찰대상자 87.7%로 비행유혹을 느낀다는 응답보다 매우 높았다.





[그림 2-9]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비행유혹 정도

두 집단 간 비행유혹정도에 있어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보호관찰대상자(1.38)에 비해 소년원생(1.75)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비행의 유혹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6〉 소년원과 보호관찰 연결망의 비행유혹정도 비교

구분	소년원(명)					보호관찰(명)					t값
	N	평균	S.D.	Min	Max	N	평균	S.D.	Min	Max	
비행유혹	(524)	1.75	0.84	1.0	4.0	(453)	1.38	0.67	1.0	4.0	7.347 *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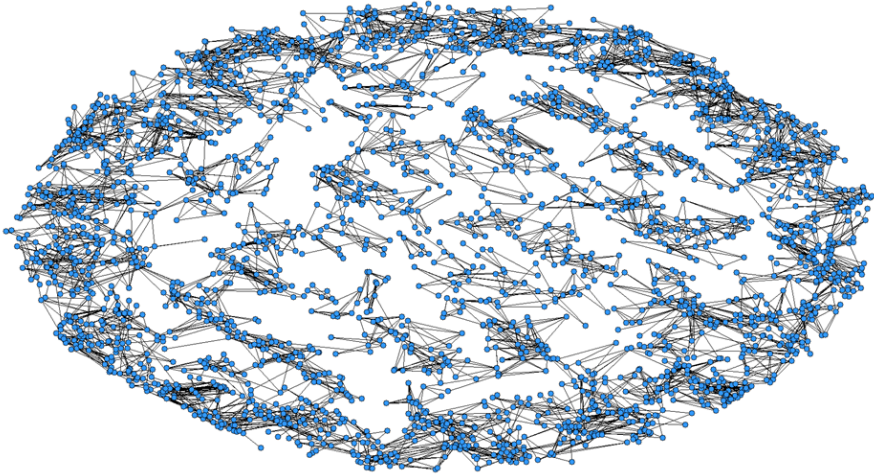
## 2) 자아중심 - 연결망의 형태

연결망 분석은 기본적으로 노드의 속성(attributions)보다는 관계(relationships)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노드는 다른 노드와 잘 연결되어 있는 반면, 어떤 노드는 다른 노드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노드 간 연결정도를 통해 연결망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었다. 전체수준(network-level)에서 연결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중심화(centralization)라고 한다면, 개인수준(actor-level)에서 연결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중심성(centrality)이라고 한다. 중심성은 연결망에서 한 노드가 얼마나 많은 다른 노드와 연결되는지(degree centrality)로 잴 수도 있고, 한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에 도달하려면 몇 단계나

필요한지(closeness centrality)로 켈 수도 있다. 혹은 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을수록(between centrality)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김용학·김영진, 2016: 117 - 118).

[그림 2-10]은 소년원생 533명에 대한 연결망을 모두 시각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전체네트워크(whole network)가 아닌 패널 참여자를 중심으로 각 개인의 자아중심 네트워크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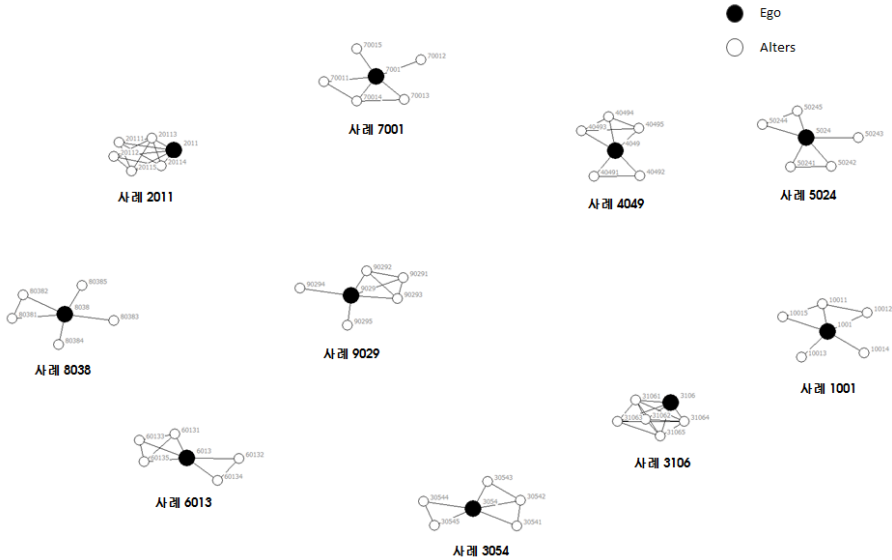
자아중심-연결망 전체표본 : Ego - Alters



[그림 2-10] 소년원 재원생의 자아중심 - 연결망 전체표본(N=533)

[그림 2-11]은 소년원생 533명 중 임의로 10명을 추출하여 시각화한 것으로 개인마다 고유한 네트워크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례 4049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3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2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연결된 3명과 연결된 2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례 3106은 자신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연결된 완전연결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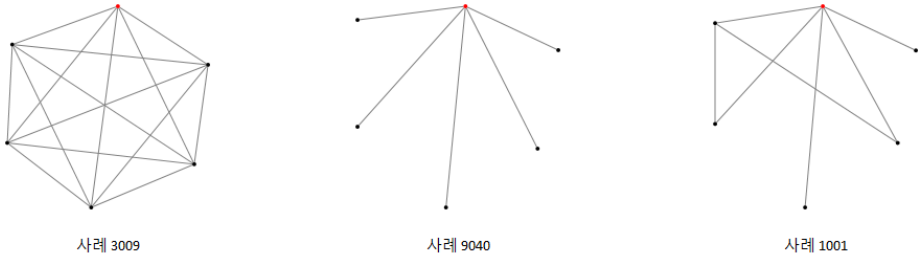
## 자아중심-연결망 랜덤표본 : Ego - Alters



[그림 2-11] 소년원 재원생의 자아중심 - 연결망 랜덤표본(N=10)

## (1) 중심성(centrality)

자아중심 - 연결망에서 중심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연결망 크기(size), 연결망 밀도(ego - density), 연결강도(strength), 중재자(broker), 매개성(ego betweenness) 등 기본적인 지표와 중개성(brokerage),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등 추가적인 지표가 있다(이수상, 2016: 333 - 336). 예를 들어, 사례 3009의 크기는 자신을 제외한 5명이고, 자신을 제외한 타인끼리의 연결(ties)은 모두 10개이므로 밀도는 1.0이 된다. 사례 9040의 경우는 사례 3009와 매우 대조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마찬가지로 5명이지만, 자신을 제외한 연결은 0이므로 밀도는 0이 된다. 사례 1001의 크기는 5명이고, 자신을 제외한 연결은 2이므로 밀도는 0.2가 된다.



[그림 2-12] 자아중심 - 연결망의 유형

각 개별노드의 중심성 지표를 소년원과 보호관찰 등 집단수준에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연결크기(size)를 제외하고는 연결정도(ties), 연결밀도(density), 중개자역할(broker)에서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해 가장 가까운 사람 5명을 모두 언급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2-47> 소년원과 보호관찰 연결망 중심성의 차이 비교

구분	소년원					보호관찰					t값
	N	평균	S.D.	Min	Max	N	평균	S.D.	Min	Max	
연결크기	(530)	4.86	0.51	1.0	5.0	(448)	4.77	0.68	1.0	5.0	2.269*
연결정도	(530)	5.79	3.19	0.0	10.0	(450)	5.43	3.12	0.0	10.0	1.785
연결밀도	(529)	0.62	0.32	0.0	1.0	(456)	0.59	0.30	0.0	1.0	1.430
중개자역할	(529)	0.69	0.16	0.5	1.0	(456)	0.71	0.15	0.5	1.0	-1.849

\*p<.05, \*\*p<.01

(2)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구조적 공백은 어떤 연결망에서 노드가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연결망 내에서 노드의 구조적 공백의 값이 크다는 것은 이웃하는 다른 행위자를 구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수상, 2016: 340). 즉 구조적으로 공백에 처한 다른 행위자를 연결시켜주는 위치에 있는 개인은 단절된 틈새를 매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연결망에서 구조적 공백을 차지할수록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기에 유리하고, 생산성 측면이나

승진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결망 분석에서 구조적 공백은 비중복성과 낮은 제약성으로 측정하는데, 낮은 제약성이란 중복된 관계가 없을 때, 구조적 공백을 연결할 때 발생한다(김용학·김영진, 2016: 210 - 211).

[그림 2-12]의 사례를 구조적 공백 관점에서 보면, 사례 1001은 사례 3009와 비교해 타인들로부터 제약을 덜 받을 수 있고, 사례 9040은 타인들로부터 거의 제약 없이 완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구조적 공백 지표 중 하나인 중복성은 해당 노드에 연결된 타자들에서 해당 노드와 연결을 제외한 연결정도의 평균값으로 계산한다. 타자들끼리 중복이 많으면 자아의 중복성이 커지고 영향력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수상, 2016: 344). 중복성으로 효과크기(effect siz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연결정도에서 중복성의 값을 제외하면 된다. 즉 자아에 연결된 타자들이 적은 수의 연결정도를 가질수록 자아의 효과크기는 커진다(이수상, 2016: 348). 효율성(efficiency)은 자아의 효과적인 효과크기를 연결망크기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고, 1보다 작으면 중복적인 관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용학·김영진, 2016: 218). 제약성(constraint)은 자아와 타자들의 연결정도와 관련이 있다. 타자들 모두 서로 간에 연결이 많을 때 자아는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타자들 사이에 중복이 많으면 자아의 제약이 커지고 중복이 적으면 자아로서는 제약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수상, 2016: 346). 위계성(hierarchy)은 종속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군대와 같이 위계서열이 명확히 구분되는 곳에서는 나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과 나의 직속상관이 업무관계를 맺는 이들이 크게 중복될 것이고, 나의 업무관계의 상당비율은 직속상관과 이루어질 것이다. 위계성은 이렇게 제약성이 특정 노드에 집중되는 경우를 탐색하고자 고안된 지표이다(김용학·김영진, 2016: 214). 간접성(indirects)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숫자가 작을수록 중복적 투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효율성과는 음의 상관성을 가진다(김용학·김영진, 2016: 218). 이상의 지표들을 소년원과 보호관찰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두 집단의 연결망 형태에서 구조적 공백의 차이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2-48〉 소년원과 보호관찰 구조적 공백의 차이 비교

	소년원					보호관찰					t값
	N	평균	S.D.	Min	Max	N	평균	S.D.	Min	Max	
효과크기	(530)	2.52	1.25	1.0	5.0	(458)	2.57	1.17	1.0	5.0	-0.716
효율성	(530)	0.52	0.25	0.2	1.0	(458)	0.55	0.24	0.2	1.0	-1.813
제약성	(530)	0.56	0.14	0.2	1.1	(458)	0.56	0.14	0.2	1.1	-0.111
위계성	(530)	0.03	0.06	0.0	1.0	(458)	0.04	0.07	0.0	1.0	-0.871
간접성	(530)	0.60	0.20	0.0	0.8	(458)	0.60	0.19	0.0	0.8	0.551

\*p<.05, \*\*p<.01

### 3) 자아중심 - 연결망 구조와 속성의 관계

앞서 살펴본 대로,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간에 연결망 속성이나 연결망 구조의 차이가 뚜렷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결망 속성과 연결망 구조의 관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연결망 성별속성에 따라<sup>13)</sup>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원생과 여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원생의 연결크기, 연결정도, 연결밀도, 중개자역할 등 연결망 지표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연결정도와 연결밀도는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원생일수록, 중개자 역할은 여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원생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9〉 소년원과 보호관찰 성별 속성에 따른 연결망 중심성 비교

	소년원			보호관찰		
	남성중심	여성중심	t값	남성중심	여성중심	t값
연결크기	4.87	4.82	-0.97	4.80	4.71	-1.26
연결정도	6.04	4.88	-3.72**	5.74	4.76	-3.10**
연결밀도	0.64	0.53	-3.53**	0.61	0.53	-2.79**
중개자역할	0.68	0.74	3.50**	0.70	0.74	2.52*

\*p<.05, \*\*p<.01

13) 남성중심 혹은 여성중심 연결망은 자신과 연결된 타인의 성별 중에서 남성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남성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성중심으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보호관찰대상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보호관찰소년일수록 연결정도와 연결밀도가 높았고, 여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보호관찰소년일수록 중개자 역할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이 많고 타인들끼리의 연결도 많은 반면, 여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자신을 통해 타인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주로 남자소년에서, 여성중심의 연결망은 주로 여자소년에서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자소년일수록 응집된 네트워크 형태가 많은 반면, 여자소년일수록 자신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성긴 형태의 네트워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법으로 연결망 거주지 속성<sup>14)</sup>에 따라 연결망 형태를 비교한 결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과 연결망이 많은 소년일수록 연결정도, 연결밀도가 높은 반면,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과의 연결망이 많은 소년일수록 중개자역할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자신과 타인 뿐 아니라 타인들끼리의 연결 또한 많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자신을 통해 타인들끼리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보호관찰소년의 경우에는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일수록 연결밀도가, 다른 동네중심의 연결망일수록 중개자 역할이 높게 나타나, 소년원생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0〉 소년원과 보호관찰 거주지 속성에 따른 연결망 중심성 비교

구분	소년원			보호관찰		
	같은 동네중심	다른 동네중심	t값	같은 동네중심	다른 동네중심	t값
연결크기	4.85	4.88	0.49	4.74	4.86	1.68
연결정도	5.93	4.75	-3.14**	5.58	5.08	-1.49
연결밀도	0.63	0.48	-4.01**	0.61	0.53	-2.50*
중개자역할	0.68	0.76	3.98**	0.70	0.74	2.45*

\*p<.05, \*\*p<.01

14) 거주지 속성구분 역시 성별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타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같은 동네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동네중심으로 코딩하였다.

타인의 관계유형은 크게 친구중심, 가족중심, 친구-가족-선생님 등 세 가지 유형<sup>15)</sup>으로 구분하였다. 흥미롭게도 소년원생의 경우에는 가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연결정도와 연결밀도가 높으면서 중개자역할은 가장 낮았다. 반대로 친구-가족-선생님 등 고른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연결정도나 연결밀도는 가장 낮으면서 중개자역할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친구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의 경우에는 연결크기는 높으나 연결정도나 연결밀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만일, 가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원생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들끼리 연결이 잘 되어 있다면, 친구-가족-선생님 등 고른 연결망을 가진 소년원생은 자신을 통해서만 타인들끼리 연결되는 경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친구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원생은 연결크기나 연결정도는 높은 편이지만, 자신이 중개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에는 친구중심이나 가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보호관찰소년이 친구-가족-선생님 등 고른 연결망을 가진 소년보다 연결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크기를 제외하고, 관계유형에 따른 연결망형태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2-51〉 소년원과 보호관찰 관계유형 속성에 따른 연결망 중심성 비교

구분	소년원				보호관찰			
	친구 중심	가족 중심	친구-가족-선생님	F값	친구 중심	가족 중심	친구-가족-선생님	F값
연결크기	4.89	4.77	4.75	2.70	4.79	4.78	4.40	3.94*
연결정도	5.78	5.98	3.38	4.87**	5.55	5.43	4.15	2.41
연결밀도	0.61	0.66	0.40	5.07**	5.55	5.43	4.15	2.41
중개자역할	0.70	0.67	0.80	5.09**	0.71	0.71	0.76	1.60

\*p<.05, \*\*p<.01

15) 친구중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친구, 애인, 선배, 후배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가족중심은 친아빠, 친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새아빠, 새엄마, 친척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친구-가족-선생님중심은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한 유형이 50% 이상을 넘지 않은 경우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연결망속성 변인들과 연결망형태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변인들이 나타났다. 먼저, 남성중심의 연결망은 연결정도, 연결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은 유대정도, 도움정도, 영향정도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두 집단 모두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타인과의 유대, 도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친구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두 집단 모두 비행유혹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연결망의 유대정도가 높을수록 두 집단 모두 도움정도와 영향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결정도, 연결밀도, 제약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즉 연결망의 유대정도가 높을수록 응집된 연결망형태를 가지는 경향이 높고, 그로 인해 타인의 영향이나 제약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움정도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결망형태에서는 두 집단 모두 연결크기와 연결정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연결정도와 연결밀도 역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구조적 공백의 지표 중 하나인 제약성은 연결정도와 연결밀도와는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반면,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의 차이를 보여준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소년원생 경우 남성중심의 연결망과 유대정도 간에, 제약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원생일수록 유대정도는 높으나, 자신이 속한 연결망에서 타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에는 남성중심의 연결망과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소년원생과 달리 유대정도나 제약성과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년원생의 경우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질수록 친구중심의 연결망, 그리고 비행유혹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같은 동네중심보다는 다른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원생일수록 친구·선후배들과 더 자주 어울리면서 비행유혹정도에 더 자주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일수록 연결정도가 높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보호관찰대상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년원생의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와 달리 친구중심의 연결망을 가질수록 연결망크기는 큰 반면에 유대, 도움, 영향정도는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소년원생에게서

연결망 속성 중 영향정도가 연결망형태와 상관성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의 영향정도는 연결크기가 적을수록, 연결정도가 높을수록, 연결밀도가 높을수록, 제약성이 높을수록 영향정도가 높았다. 비행유혹정도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달리 말해서 연결크기는 적으면서 연결밀도가 높은 연결망형태를 가진 소년원생일수록 비행유혹정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성이 높은 경향을 보여 자신이 속한 연결망 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연결크기가 적을수록, 연결밀도는 높을수록 비행유혹정도에 더 노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2-52〉 소년원 연결망 속성과 연결망 구조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1.000										
2	0.052	1.000									
3	0.065	-0.130*	1.000								
4	0.095*	0.131*	-0.149*	1.000							
5	0.030	0.169*	-0.124*	0.630*	1.000						
6	0.004	0.136*	-0.090*	0.449*	0.434*	1.000					
7	-0.002	-0.091*	0.166*	-0.023	-0.035	0.133*	1.000				
8	0.044	-0.022	0.103*	-0.007	-0.038	-0.114*	-0.004	1.000			
9	0.166*	0.140*	0.018	0.277*	0.214*	0.102*	0.044	0.298*	1.000		
10	0.158*	0.178*	-0.028	0.298*	0.252*	0.158*	0.050	-0.084	0.908*	1.000	
11	0.102*	0.166*	-0.083	0.255*	0.229*	0.163*	0.049	-0.441*	0.620*	0.869*	1.000

\*p<.05, \*\*p<.01

1.남성중심 2.같은 동네중심 3.친구중심 4.유대정도 5.도움정도 6.영향정도 7.비행유혹정도

8.연결크기 9.연결정도 10.연결밀도 11.제약성

위 음영은 소년원과 보호관찰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결과를, 이탤릭체는 각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의미함.

〈표 2-53〉 보호관찰 연결망 속성과 연결망 구조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1.000										
2	0.117*	1.000									
3	0.075	-0.025	1.000								
4	0.007	0.207*	-0.006	1.000							
5	0.051	0.190*	-0.008	0.644*	1.000						
6	-0.022	0.201*	-0.074	0.440*	0.472*	1.000					
7	0.006	0.047	0.153*	-0.054	-0.057	0.088	1.000				
8	0.060	-0.080	0.062	-0.026	-0.029	-0.044	-0.138*	1.000			
9	0.145*	0.071	0.056	0.125*	0.165*	0.041	0.064	0.430*	1.000		
10	0.130*	0.117*	0.023	0.130*	0.185*	0.037	0.144*	0.053	0.859*	1.000	
11	0.072	0.131*	-0.019	0.116*	0.176*	0.053	0.182*	-0.465*	0.418*	0.804*	1.000

\* $p < .05$ , \*\* $p < .01$ 

1.남성중심 2.같은 동네중심 3.친구중심 4.유대정도 5.도움정도 6.영향정도 7.비행유혹정도

8.연결크기 9.연결정도 10.연결밀도 11.제약성

위 음영은 소년원과 보호관찰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결과를, 이탤릭체는 각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의미함.

##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소년원을 출원한 소년이 사회정착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차 조사에서 9개 소년원에서 533명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비교집단으로 19개 보호관찰소에서 4호/5호 처분을 받은 463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년원생의 경우 사회복귀 과정(즉, 소년원에 있을 때, 소년원을 출원한 직후, 소년원을 출원하고 시간이 흐른 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패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보호관찰대상자도 소년원생이 사회복귀과정 동안 겪는 중요한 시점을 최대한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패널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정적요인과 경고/주의 및 재범여부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서와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고, 동적요인의 경우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하고자 하였다. 정적요인의 경우 범죄경력, 소년사법기관 접촉 경력, 학교 유예/무단결석, 문신, 음주, 흡연, 성경험, 유해흡입물질 경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동적요인의 경우 사회정착변수와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정착변수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인지/정서 특성과 행동특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요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개인내적 특성,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지역사회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2-54〉 연구설계 개요

조사 대상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자(비교집단)	
	9개의 소년원에서 533명		19개의 보호관찰소에서 463명	
조사 설계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자(비교집단)	
	1차 조사 (2018년 5월18일 ~ 31일) - 소년원 내		해당사항 없음	
	2차 조사 (2018년 7월 ~ 12월) - 임시퇴원자: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 만기퇴원자: 사회 복귀 후		1차 조사 (2018년 7월 9일 ~ 8월 3일) - 보호관찰 중	
	3차 조사 (2019년 2월 예정) - 임시퇴원자: 보호관찰 종료 전 1개월 - 만기퇴원자: 사회 내		2차 조사 (2019년 1월 ~ 2월 예정) - 보호관찰 종료 전 2~3개월	
	4차 조사 (2019년 7월 예정) - 임시퇴원자: 보호관찰 종료 후 3개월 - 만기퇴원자: 사회 내		3차 조사 (2019년 7월 예정) - 보호관찰 종료 후 3개월	
조사 내용 및 자료 수집	구분	내 용		출 처
	정적 요인	- 범죄경력 및 최초 비행 연령 - 소년원/보호관찰소 접촉 경력 - 학교 유예/무단결석 - 문신, 음주, 흡연, 성경험, 유해흡입물질 경험		- 보호관찰 결정전조사서
		동적 요인	사회정착 변수	- 긍정적 변화 (인지/정서, 행동) - 부정적 변화 (인지/정서, 행동)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변수		- 인구통계학적 특성 - 개인 내적 특성 -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 지역사회 특성	- 설문조사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간 사회정착변수와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요인 중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의 경우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 간의 연령차이가 크지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소년원생이 더 많았으며,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과 부모님을 주보호자라고 답한 비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생보다 높았다. 개인 내적 특성의 경우 소년원생의 자기통제와 도덕성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해 더 낮고 일탈적 일상활동은 더 높은 반면, 스트레스(긴장)의 경우 보호관찰대상자가 더 높았고 종교심은 소년원생이 더 높게 나타나, 소년원생의 개인 내적 특성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대체로 더 취약하나 모든 부분에서 취약한 것은 아니다.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은 대체로 소년원생의 부모애착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낮은 반면, 부정적 낙인과 비행친구와의 관계는 더 높게 나타나, 개인 간 상호특성에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취약했다. 지역사회 특성의 경우 소년원생이 주로 생활하는 곳의 지역무질서 정도가 보호관찰대상자가 생활하는 곳보다 더 심각했으며 지역치안수준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정착변수 중 긍정적 변화의 경우 긍정적 정체성, 담당직원과의 애착, 저축, 이타적 행동, 타인과 잘 지내는 정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정도, 자격증/검정고시 준비에서 소년원과 보호관찰대상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격증/검정고시 준비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생보다 높았다. 즉, 긍정적 인지, 정서, 행동 특성에서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 보다 더 취약했다. 사회정착 변수의 부정적 변화의 경우 우울정도를 제외한 모든 인지, 정서, 행동 특성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긍정적인 변화와는 반대로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 보다 모든 부정적 변화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들의 특성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년들을 성별과 처분을 기준으로 4 집단(남자 소년원생, 여자 소년원생, 남자 보호관찰대상자, 여자 보호관찰대상자)으로 나눈 후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요인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나이의 경우 남자 소년원생이 가장 많은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적었고,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혹은 퇴학 이상을 기준으로 남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다.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과 부모님이 주 보호자인 비율의 경우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다. 즉, 소년에 대한 부모의 보호력 측면에서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열약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 내적 특성에서 4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 소년원생일수록 긍정적인 특성인 자기통제와 도덕성에서 가장 낮았고, 부정적 특성인 일탈적 일상활동은 가장 높았다. 단, 종교심의 경우는 여자 소년원생이 오히려 높았다.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의 경우 부모애착에서는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고, 부정적 낙인과 비행친구 관계에서는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높았다.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부모애착에서는 가장 높았고, 부정적 낙인과 비행친구 관계에서는 가장 낮았다. 즉, 개인 간 특성에 있어서 네 집단 중에서도 여자 소년원생의 취약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역적 특성도 대체로 유사하게 지역무질서는 여자 소년원생이 생활하는 곳이 가장 높은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생활하는 곳의 무질서가 가장 낮았다.

사회정착변수의 긍정적 변화 중 부정감정 억제, 긍정적 정체성, 담당직원과의 애착, 책임인정, 취미활동, 저축, 이타적 행동, 타인과 잘 지냄, 가족과 함께 함, 자격증/검정고시 준비에서 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긍정적 정체성, 책임인정, 취미활동, 자격증/검정고시 준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낮았고,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대체로 높았다. 부정적 변화에 대한 네 집단 간 비교 결과는 긍정적 변화의 결과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즉, 여자 소년원생이 분노, 우울, 범죄유혹, 음주로 인한 문제, 흡연량, 폭력행위, 범죄피해경험, 학대경험, 흡연여부, 경고/주의 여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분노, 우울, 책임회피, 음주로 인한 문제, 폭력행위, 성적일탈, 범죄피해경험, 학대경험, 경고/주의 여부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착 보호 및 위험 요인에서 여자 소년원생이 대체로 가장 취약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처분에 따른 비교(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와 성별 및 처분에 따른 비교(남자 소년원생, 여자 소년원생, 남자 보호관찰대상자, 여자 보호관찰대상자)의 결과를 요약하면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정착관련 위험 및 보호요인이 사회정착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착변수에 따라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고,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에 따라서도 변수들 간의 관계가 달라졌다. 사회정착변수의 긍정적 변화 중 인지/정서 특성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중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가, 개인 내적 특성 중에서는 스트레스(긴장), 종교심과 도덕성이,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은 모든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소 2개 이상의 인지/정서 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특히, 부모애착의 경우 소년원생의 부적감정 억제, 사회적 지지, 책임인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모든 인지/정서 특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착 변수의 긍정적 변화 중 행동 특성의 경우 성별, 나이, 일탈적 일상활동, 종교심, 도덕성, 부모애착, 부정적 낙인, 비행친구, 지역무질서, 지역치안수준이 주요한 변수(최소 2개 이상의 행동 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애착과 아울러 종교심과 도덕성은 긍정적 행동 특성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변수였다.

사회정착관련 부정적 변화 중 인지/정서 특성은 성별, 자기통제, 스트레스(긴장), 종교심, 도덕성, 부정적 낙인, 지역치안 수준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다(최소 2개 이상의 인지/정서 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특히, 자기통제의 경우 소년원생들의 분노, 우울, 범죄유혹을 감소시켰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분노만을 감소시켰다. 사회정착변수의 부정적 변화 중 행동 특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나이, 자기통제, 스트레스(긴장), 일탈적 일상활동, 종교심, 부모애착, 부정적 낙인, 비행친구, 지역무질서로 나타났다(최소 3개 이상의 행동 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특히, 일탈적 일상활동의 경우 소년원생의 음주로 인한 문제, 사이버 일탈, 성적일탈, 흡연여부를 증가시켰고, 보호관찰대상자에서는 음주로 인한 문제, 흡연량, 폭력행위, 흡연여부를 증가시켰다.

사회연결망요인과 관련해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와 비교해 친구·애인·선후배 등 교우관계의 비중이 가족이나 선생님(멘토)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두 집단 모두 남성은 남성과, 여성은 여성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두 집단 모두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보다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정도, 도움정

도, 영향정도에서 차이는 없었으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비행의 유혹정도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결망형태와 관련해서는 연결크기를 제외하고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결망속성과 연결망형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연결정도, 연결밀도가 높은 반면, 여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중개자역할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 속성을 고려할 경우, 두 집단 모두 같은 동네 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연결정도, 연결밀도가 높은 반면, 다른 동네 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중개자역할이 높았다. 관계속성을 고려할 경우, 소년원생은 친구나 가족중심의 연결망을 가질수록 연결정도, 연결밀도가 높은 반면, 친구-가족-선생님 등 고른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중개자역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호관찰의 경우 관계유형에 따라 연결망형태의 차이가 뚜렷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연결망속성과 연결망형태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소년원생의 경우 남성중심, 다른 동네중심, 친구관계 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연결정도, 연결밀도, 제약성이 높고, 그들로부터 영향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에는 친구관계 중심의 연결망을 가질수록 비행유혹에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결망의 속성 및 형태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회정착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 3 장



# 보호소년의 유형화

이 주 영



# 보호소년의 유형화

## 제1절 개관

### 1. 소년범죄자 분류 및 처우

이 장에서는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범죄자 중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분류 및 처우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유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분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재범위험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재범위험성의 수준에 따라 처우 수준을 결정하여 처우할 때 보호관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천진호, 2010). 최근 들어 해외에서는 소년범죄자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소년범죄자를 재범위험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Andrew, Bonta, & Wormith, 2006). 이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선도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노력이 위험군일수록 더 효과적인 반면 비위험군에는 오히려 더 해롭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Andrew et al, 2006). 소년범죄자 중 재범위험이 높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군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여 대처하는 것이 소년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Hanson & Morton-Bourgon, 2009).

윤웅장(2017)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소년보호관찰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부터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소년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두고,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 JDRAI-S; 이정민, 조운오, 2017)<sup>16)</sup> 외에 소년의 행동변화, 취업,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보호관찰 기간 중 변동된 상황 및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 JDRAI-D; 양은경, 이수정, 김병배, 2018)를 함께 적용하도록 하였다.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개발 당시 2차에 걸친 타당화 연구(후향적 및 전향적)가 이루어졌으나 개발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장기간(3년 이상)의 추적조사를 통해 예측타당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의 초기 분류에 활용되는 변별기준점과 결정전 조사에서 활용되는 변별기준점을 이원화하여 사용하도록 제안되었다(법무부 내부자료). 이후 JDRAI-S는 분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고, 절도 소년보호관찰 위험성 평가도구(노일석, 2009)나 여자폭력 소년보호관찰 위험성 평가도구(노일석, 정진경, 2009) 등이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각기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위험성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적합한 처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홍영오, 노성호, 이수정, 고려진, 2009).

현재 국내 소년보호관찰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평점을 합산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윤용장, 2017: 9).

---

16) JDRAI-S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재비행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총 10개의 위험요인에 대해 평가자가 면담 및 관련 기록 참조를 통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3-1〉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 항목 및 점수 배점

항목	0점	1점	2점
성별	여자		남자
2. 또래집단의 평가 당시 나이	17세 이상	14세 이하	15~16세
3. 최초 비행 연령	14세 이상	13세 이하	
4. 범죄 경력	0회	1~2회	3회 이상
5. 평가 당시의 재학 여부	재학	비재학	
6. 중퇴 전력	없음		있음
7. 문신 유무	없음	있음	
8. 음주 경험	없음		있음
9. 보호자의 보호 능력	중간~높음	낮음	
10. 면담 시 태도	반성 및 속죄	변명 및 합리화	

출처: 윤웅장(2017), 9면.

현행 평가항목 및 점수배점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남자이면서, 평가 당시 나이가 15~16세 범위이고, 최초 비행 연령이 어리고 과거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중퇴를 하고 학업을 중단한 상태일수록, 음주 경험이 있고 문신이 있을수록,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낮을수록 재범 위험성에 높게 평가된다.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는 집중, 주요 I, 주요 II, 일반 I, 일반 II로 나뉘며, 집중 등급이 재범위험성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 5개월 이상 해당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가 동적 위험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김병배, 2017), 2017년 11월부터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는 성격 및 태도, 학교/직장, 가족, 또래친구, 여가/생활양식, 정신건강, 성 관련 등 7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별로 5개의 하위 측정문항을 가지고 있어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있음'과 '없음'으로 평가되며, 총점을 기준으로 0~13점은 재범위험성 '하', 14~16점은 재범위험성 '중', 17~35점은 재범위험성 '상'으로 구분된다.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는 심층 면담 질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과 심층면담 결과, 현지출장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윤웅장, 2017: 11).

〈표 3-2〉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의 요인별 문항

요인	문항	
성격 및 태도	충동성 및 자극추구 성향	
	공격성 및 분노조절 문제	
	행동 통제력	
	범죄력의 진전도	
2. 학교/직장	면담 시 태도	
	현재 재학/재직 여부	
	최근 6개월 이내 징계 경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최근 6개월 이내 구성원 간 갈등	
3. 가족	자기계발 의지	
	구조적 결손(친부모 부재) 여부	
	양육자와의 관계	
	최근 3년 이내 가정폭력 경험	
	최근 1년 이내 가출 경험	
4. 또래친구	가출 시 비행경험	
	입건 경험 있는 또래 친구	
	수용 경력 있는 또래 친구	
	또래 친구의 비행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5. 정신건강	친사회적 친구	
	비행집단에 가입한 경험	
	ADHD, 충동조절,品行장애 진단	
	기분장애 진단 등	
	사회적 고립	
6. 여가/생활양식	피해의식	
	자해/자살 시도	
	알코올/약물 중독, 의존	
	인터넷/게임 중독	
	사이버 비행	
7. 성	불규칙한 생활 습관	
	불건전한 장소 출입	
	남성	여성
	성매매, 성매매 알선/강요 경험	조건만남 경험
	문란한 성생활/성도착 음란채팅 등 사이버상 성 일탈	성매매 알선/강요 경험 비정상적 성관계 경험
음란물 중독 강간통념	성폭력 피해 후 부적응 임신 후 대처방법	

출처: 양은경 외(2018), 116면

정적 및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의 효과성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이러한 평가에 따른 다양한 처우가 재범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소년보호관찰 분류 및 처우의 문제 중 하나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와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 부재와 분류에 따른 처우 계획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이다. 평가 및 분류, 처우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년원과 보호관찰 현장에서는 분류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처우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현행 소년보호관찰 분류와 처우 방식이 소년보호관찰의 가장 큰 목표인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없다. 효과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증거기반 형사정책의 기본이며(김병배, 2017), ‘위험성-욕구-반응성(RNR) 원칙’이 증거기반 실천의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Perrault, Paiva-Salisbury & Vincent, 2012; Vincent, Paiva-Salisbury, Cook, Guy, & Perrault, 2012).

위험성 원칙(risk principle)은 고위험 대상자에게 지도감독과 사회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욕구 원칙(need principle)은 범죄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서는 범죄유발 요인(criminogenic need)에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반응성 원칙(responsivity principle)은 개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처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RNR 원칙을 간단히 정리하면, 소년범죄자의 범죄 행동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하고, 범죄자 개인의 고유한 특성, 다시 말해 범죄자 집단의 이질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개별 범죄자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를 실시해야만 소년보호관찰의 본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범죄유발 요인 및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이 과연 어떠한 이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인지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질성에 대한 규명은 이들을 보다 동질적인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이질성 규명은 소년범죄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효과적인 처우를 적용하는 틀로써 활용될 수 있다.

## 2. 유형화의 필요성 및 목적

이번 연구는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하는 보호소년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이질적인 집단임을 전제로 한다. 많은 선행연구와 이론이 소년범죄자 집단의 이질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각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은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 양상이 다르다. 보호소년의 이질성에 대한 파악은 이들의 향후 적응 및 사회정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는 개별 소년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소년 집단의 이질성에 근거한 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질성을 검토할 때 명심해야 할 사실은 보호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범가능성에만 초점을 둔 기준에서 벗어나 이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통합에 필요한 보호요인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보호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징에 맞춤형(tailored)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소년의 이질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유형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보호소년 분류 및 처우 체계 내에서는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분류 등급을 고려하여 처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에 따르면(법무부 내부자료),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 개별적 특성, 특별준수사항 부과 상황 등을 반영하여 처우계획을 수립하되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항목(예: 반사회적 성격 및 태도 교정, 복학 또는 검정고시 합격, 취업 또는 직업훈련의 실시, 건전한 학교(직장)생활의 유지, 가족 관계 개선,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정신질환 등 치료관리, 알코올 게임 등 의존 개선, 건전한 생활 습관 배양, 건전한 성의식 배양, 기타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 처우계획서를 작성하고 처우목표별로 세부 과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중 등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 주요 I 등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2개, 주요 II 등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1개의 핵심 처우목표를 선정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강점 및 장애 요인과 선정된 세부 과업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도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급 분류의 타당성이 검증된 바 없고,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개별적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그러한 특성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처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처우 프로그램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다소 주관적으로 등급이 결정되고,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경험적으로 지지된 과학적 분류 결과에 따른 맞춤형 처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처우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호소년 유형화는 실제 보호소년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들을 위한 처우가 어떠한 방식을 구성되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호소년의 유형화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호소년의 이질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둘째, 보호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정착에 요구되는 중요한 변수를 확인하며, 셋째, 유형화에 근거한 맞춤형 처우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경험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분류처우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1. 소년범죄자의 이질성

소년범죄자들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은 비행,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 외현화 문제,品行장애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문제행동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고했다. 첫째, 반사회적 행동의 분류와 관련하여, Dishion과 Patterson(2006)은 반사회적 행동을 외현적(overt)인 행동과 내재적(covert)인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외현적 반사회적 행동은 말다툼, 싸움, 성질부리기 등과 같이 걸음으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이며, 내재적 행동은 방화, 거짓말, 도벽, 무단결석 등과 같이 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행동이다. Frick(1998)은 이러한 구분법을 확장하여 외현적-내재적 차원에 파괴적-비파괴적 차원을 더하여 외현적이

며 파괴적인 반사회적 행동에 몸싸움, 폭행,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 등을 포함시켰으며, 고집을 부리거나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은 외현적인 비파괴적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내재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에는 거짓말, 도벽, 방화, 기물파손 등이 포함되며, 내재적이며 비파괴적인 행동에는 가출, 무단결석, 약물사용과 같은 지위 비행이 포함된다. 이처럼 소년범죄자들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은 단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결과는 이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개선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유형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한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Dodge(1991)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사회정보처리 이론에 근거하여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과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일련의 단계를 거쳐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1단계인 '부호화' 단계는 주변 단서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단서를 적게 사용한다. 2단계는 '단서의 해석'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받아들인 단서를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기억과 통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이 단계에서 또래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귀인하는 '적대적 귀인 편파'를 보인다. 3단계는 '목표 선택' 단계로 주어진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선택하는데,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이 단계에서 적응적인 문제해결보다 공격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4단계는 '반응 탐색' 단계로 3단계에서 선택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을 탐색하게 되고,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이 단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생성하지 못하고 적은 수의 반응만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단계는 '행동 선택' 단계로 4단계에서 생성한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공격적인 반응이 최선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막 단계인 6단계 '행동 수행' 단계에서 결국 공격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Crick & Dodge, 1994; Dodge, 2003). 앞서 언급한 반응적 공격성은 타인의 도발이나 좌절에 대해 화를 내는 보복 반응이 특징인데, 이러한 반응적 공격성은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결함을 보인다. 반면, 주도적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분노와는 관련이 없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고의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주로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후기 단계에서 결함을 보인다.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와 관련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연구(Brendgen, Vitaro, Tremblay, & Lavoie, 2001)에서 주도적 공격성은 비행 관련 폭력과 더 큰 관련성을 보였고, 반응적 공격성은 데이트 폭력과 더 큰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기 초기에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주도적 공격성과 비행 관련 폭력의 관련성이 더 강했으나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반응적 공격성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온정과 돌봄 수준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유형의 공격성이 각각 서로 다른 폭력 형태와 관련되고 여기에 개입되는 부모의 영향도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Achenbach와 Rescorla(2001)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경험적으로 도출된 2개의 광대역(broad) 증후군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문제가 주가 되는 외현화(externalizing) 문제이다. 외현화 증후군은 다시 두 가지의 하위 증후군으로 구분되는데, 규칙위반 증후군은 정해진 규칙과 규범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 특징으로 거짓말, 도벽, 무단결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격행동 증후군은 말다툼, 물건파괴, 반항, 싸움, 타인 위협 등의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의 구분은 많은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었는데, 공격행동 증후군이 규칙위반 증후군보다 더 높은 유전적 속성을 지니며 (Edelbrock, Rende, Plomin, & Thompson, 1995), 공격행동 증후군의 시간적 안정성이 더 높았다(Stanger, Achenbach, & Verhulst, 1997).

넷째, 청소년들의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문제행동에 대해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는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APA, 2013).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출판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이하 DSM-5)'에서는 품행장애를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정신장애로 정의하고 있고, 발병 연령에 근거하여 아동기 발병형과 청소년기 발병형을 구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품행장애 중에서도 후회나 죄책감의 결여, 냉담 및 공감의 결여, 수행에 대한 무관심, 피상적이거나 결여된 정서를 특징으로 하는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라는 명시자(specifier)를 두고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이 명시자를 추가로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명시자는 원래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 이하 CU 특질)로 연구되었던 개념으로, 심각한 품행문제를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들 중 심각하고, 공격적이고, 안정적인 패턴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하위집단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Frick & White, 2008).

다섯째, 청소년 문제행동은 발달 과정에 따라서도 유형화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류가 Moffitt의 ‘평생지속형(Life-course persistent: 이하 LCP)’ 과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 limited: 이하 AL)’ 의 구분이다. LCP 유형은 이른 나이에 발병하여 성인기까지 반사회적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미세한 신경인지적 결함, 까다로운 기질, 과잉행동 등과 같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신경심리학적 문제들을 보인다(Moffitt, Caspi, Harrington & Milne, 2002:179 재인용). 이들은 또한 불충분한 양육, 파괴된 가족유대관계, 또래와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 등의 환경적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범법 행위에 가담하며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파괴적인 성향을 보인다. 반면, AL 유형은 사춘기 즈음에 문제행동이 나타났다가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비행이 특징이고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으로 공격적 모습(physical aggression)을 보이지는 않으나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다. AL 유형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지도감독, 비행또래와의 어울림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Moffitt과 동료들(2002)에 따르면, 지속적인 범죄에 가담할 위험이 큰 유형은 LCP 유형이며 LCP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개입 수준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Loeber 등(1993)은 종단연구에 근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반사회적인 행동의 발달경로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사소한 공격성으로 시작하여 신체적 싸움이 출현하고 폭력이 발생하는 외현적 경로(overt pathway), 사소한 내재적 행동으로 시작하여 재산에 손상을 가하고 여러 가지 비행이 출현하는 내재적 경로(covert pathway), 12세 이전에 나타나며 고집스러운 행동, 반항, 권위 회피 행동을 보이는 권위 갈등 경로(authority conflict pathway)이다. 권위 갈등 경로는 다른 두 경로보다

일찍 시작되나 외현적 경로와 내재적 경로의 최종 단계가 훨씬 더 심각한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외현적 경로에서는 강간 및 폭력, 내재적 경로에서는 사기 및 강도).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 경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달 경로에 최초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 반사회적 행동의 지속과 중단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다(Wicks-Nelson & Israel, 2015).

## 2. 소년범죄자 유형 분류의 새로운 기준

지난 수십 년 간 소년범죄자 혹은 비행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형화하고 분류하려는 노력들은 대부분 특정 이론에 기반을 두거나 겉으로 표현되는 문제행동 자체만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Dishion & Patterson, 2006; Tremblay, 2010). Loeber와 Farrington(2000)은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 및 심각한 폭력적 범죄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범주별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 요인으로는 충동성, 과잉행동, 빠른 발병의 파괴적 행동 등이 있고, 가족 요인으로는 부모의 반사회적 행동,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어머니의 우울증,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포함되며, 학교 요인으로는 일탈 또래들과의 관계, 또래 거부 등이, 이웃 및 사회 요인으로는 열악한 이웃 및 빈곤, 무질서한 지역사회, 무기 사용 가능성 등이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 집단의 이질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게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범죄 및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이들이 범죄의 경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적응적인 보호요인들까지 함께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년범죄자들의 타고난 기질, 이른 사춘기 발달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과 부모에 의한 초기 학대경험 또는 가혹한 양육방식 등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었다(Ge et al., 2011; Mendle et al., 2011; Moffitt & Caspi, 2001). 반면, 효과적인 부모양육행동이나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긍정적인 가족 맥락도 부정적인 개인내적 요인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Hipwell et al., 2008; Williams & Steinberg, 2011). 청소년들의 일탈 또래 관계 및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비행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Dishion et al., 2012). 더불어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 약물사용, 정신병리, 위험한 성행동 등은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예측하는 근접(proximal)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Abram et al., 2003; Steinberg et al., 2013; Teplin et al., 2002). 이 밖에도 최근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위험감수행동이 주목받고 있다(Bava & Tapert, 2010; Steinberg, 2009). 이상의 위험 및 보호요인들은 소년범죄자 집단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규명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로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유형분류가 절실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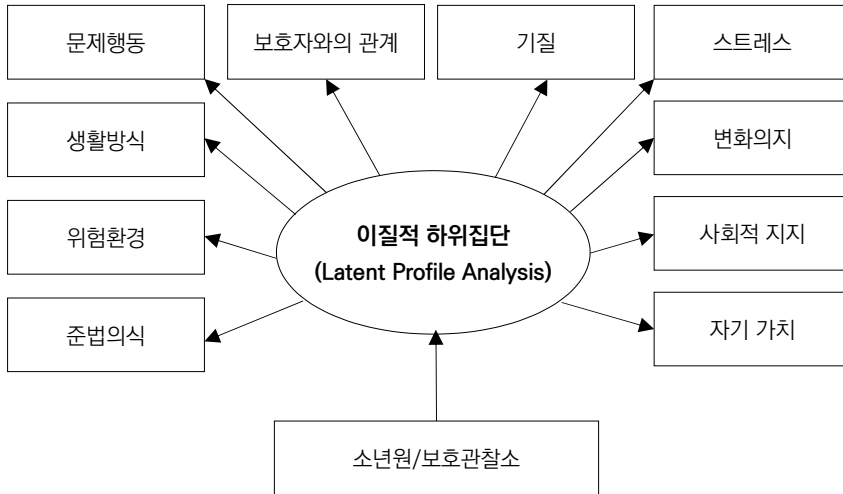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몇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영(2017)은 부모가 보고한 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지능, CU 특질, 충동성, 아동기 역경, 부모의 양육행동(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 심리적 통제, 한계 설정), 비행또래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이들을 유형화한 결과, 3개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가장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를 나타낸 집단으로 이들은 개인내적 기질의 취약성이 크고, 아동기에 경험한 역경이 심각하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두드러졌다. 두 번째 집단은 중간 수준의 외현화 문제를 나타낸 집단으로 아동기 역경은 낮았으나, 기질적인 취약성이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집단은 가장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를 나타낸 집단으로 이들은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수들에서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 즉, 범죄 유형이나 처분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가장 심각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집단에 대해서는 개인내적 기질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보호관찰을 받고는 있으나 외현화 문제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의 효과적인 선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한지연 등(2018)의 연구에서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규칙위반 행동 집단’, ‘외현화 문제 집단’, ‘혼합문제 집단’의 3가지 하위집단이 확인되었고, 이들 집단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이 서로 다름이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 바 있다.

보호소년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개발한 ASEBA(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의 평가도구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www.aseba.co.kr, 2018.11.7. 최종접속 인출). 서아현, 이주영, 김현경, 오경자(2018)의 연구에서는 ASEBA의 평가도구들 중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조절곤란 프로파일(Dysregulation Profile: 이하 DP)을 확인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규칙위반', '외현화 문제', '혼합문제'의 3가지 하위집단을 발견하였고 이 중에서 '혼합문제' 집단은 불안/위축, 공격행동, 주의집중문제 척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조절곤란 프로파일 양상을 보였다. 조절곤란 프로파일(CBCL-DP) 집단은 수면문제 같은 생리적 기제의 문제는 물론 우울 및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 반항행동과 품행문제 등의 외현화 문제, 조증, 정신증, 반복적인 생각 및 행동 등 정신병리적 문제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이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집단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년범죄자들은 문제행동의 측면에서나 그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 측면에서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속성을 엄격한 방법으로 구분하고 선별하는 작업은 소년범죄자들에게 대한 최적의 처우를 계획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3. 이질성에 따른 유형분류를 위한 방법론

소년범죄자 집단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위험 및 보호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형분류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주로 활용된 방법론은 변인-중심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으로서, 이러한 접근에 해당하는 상관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등의 분석 방법은 개인들 간의 차이를 규명해주기 보다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반면, 개인-중심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은 겉으로 잘 관찰되지 않는 집단 내의 이질성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갖는 접근으로, 이러한 접근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하위 집단을 발견해내는데 매우 유용하다(Muthén, 2004).



[그림 3-1] 연구모형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 또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은 횡단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중심 접근의 분석 방법으로 소년범죄자들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위험 및 보호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개인마다 독특한 위험 및 보호요인을 가지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발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LCA와 LPA는 전체 집단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할 때 임의의 절단점(cut-off point)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주고, 서로 다른 하위 집단을 결정할 수 있는 통계적인 기준을 제공한다(Muthén & Muthén, 2000). LCA와 LPA 결과는 유사한 패턴의 위험 및 보호요인을 가지는 소년범죄자들의 하위 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년범죄자 집단을 유형화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이 장에서는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잠재 프로파일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 제3절 보호소년 유형화 분석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제2장의 대상과 동일하다.<sup>17)</sup> 이 장에서는 패널조사 1차 설문지와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 Report: YSR)을 모두 완료한 대상자의 자료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3〉 표본의 특성

(단위: 명)

		소년원	보호관찰	계
성별	남자	436 (55.9)	344 (44.1)	780 (100.0)
	여자	96 (44.7)	119 (55.4)	215 (100.0)
	계	532 (53.5)	463 (46.5)	995 (100.0)
연령별	13세 이하	0 (0.0)	6 (100.0)	6 (100.0)
	14세~16세	115 (39.9)	173 (60.1)	288 (100.0)
	17세~19세	396 (59.9)	265 (40.1)	661 (100.0)
	20세 이상	21 (52.5)	19 (47.5)	40 (100.0)
	계	532 (53.5)	463 (46.5)	995 (100.0)
교육수준별	초졸 이하	39 (32.0)	83 (68.0)	122 (100.0)
	중졸	303 (52.0)	280 (48.0)	583 (100.0)
	고졸 이상	186 (65.5)	98 (34.5)	284 (100.0)
	계	528 (53.4)	461 (46.6)	989 (100.0)

17) 연구대상에 대한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의 제3절 패널종단조사 연구의 내용을 참조하라.

## 2. 조사도구

### 가. 패널조사 설문지

제2장에서 소개된 패널연구의 조사항목 중 1차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전체 문항 내용을 검토하여 유사한 개념을 측정한다고 판단된 문항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기초로 주요 변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자기가치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정되었다. 자기 가치 문항은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산출된 변인들 중 연구대상자의 외현화 문제 및 내재화 문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들을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활용한 변인 및 각 변인에 포함된 문항, 변인별 내적 합치도는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4>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활용된 변인 및 문항 내용

변인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	
		소년원	보호관찰소
<b>보호자와의 관계</b>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자와의 관계가 부정적	나는 보호자를 존경했다	.89	.86
	우리 집안 분위기는 좋았다		
	나는 친구 집에 가거나 외출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말을 했다		
	나의 보호자는 내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관심이 있었다		
	나는 보호자의 훈계방식을 이해하고 따랐다		
<b>기질</b>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 기질이 낮음	나는 보호자와 대화를 자주 했다	.65	.49
	나에게는 안전보다는 재미와 모험이 중요했다		
	나는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했다		
	나는 쉽게 화를 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좋았다		
<b>스트레스</b>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음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중요했다	.79	.77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했다		
	나는 보호자와 말이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외모(몸무게, 키, 얼굴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변인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	
		소년원	보호관찰소
<b>생활방식</b>	나는 밤에 주로 집밖에서 지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나는 친구들과 자주 몰려 다녔다	.79	.60
생활방식이 안정적	내 생활과 내 주위를 보면 나쁜 일을 할 기회가 많았다		
	(내가 주로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에는...) 문제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주로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에는...)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b>위험환경</b>			
점수가 높을수록	(내가 주로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에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84	.79
위험환경 노출이 적음	(내가 주로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에는...) PC방, 노래방, 당구장, 술집, 클럽, 여관, 모텔이 많이 있었다		
	(내가 주로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에는...) 주변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나 경찰차를 자주 보았다		
	나는 야단맞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급한 경우에는 새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b>준법의식</b>			
점수가 높을수록	나는 친구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86	.82
준법의식이 높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는 걸리지만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b>변화의지</b>			
점수가 높을수록	나는 내 행동에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	.76	.71
변화의지가 낮음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비행행동을 계속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에는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도움이나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다		
	나는 밖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연락할 어른이 바로 머리에 떠올랐다		
<b>사회적 지지</b>			
점수가 높을수록	나는 밖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73	.75
사회적 지지가 적음	나는 밖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나는 밖에서 친구 이외의 사람들(학교, 아르바이트 등)과 다툼 없이 잘 지냈다		
	나는 밖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자주 보냈다		
	가까운 친구 중에는 나에게 사고치지 말라고 말리는 친구가 있었다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꽤 만족한다		
<b>자기 가치</b>			
점수가 높을수록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활방식을 좋아한다	.74	.78
자기 가치가 높음	어떤 청소년들은 거의 항상 자신에게 만족한다		
	어떤 청소년들은 자기 그대로를 좋아한다		
	어떤 청소년들은 자기 모습을 매우 좋아한다		

나.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 Report: YSR)

연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개발한 Youth Self Report를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S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연구대상자 본인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자기보고용 척도이며,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1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된다.

〈표 3-5〉 YSR 문제행동 척도의 구성

요인명		문항수	내용 및 점수계산
증후군 척도	내재화	① 불안우울	13    불안우울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② 위축우울	8    위축우울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③ 신체증상	10    신체증상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⑩ 내재화 총점		31    ① + ② + ③
	외현화	④ 규칙위반	15    규칙위반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⑤ 공격행동	17    공격행동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⑪ 외현화 총점		32    ④ + ⑤
	⑥ 사회적 미성숙		11    사회적 미성숙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⑦ 사고문제		12    사고문제와 관련된 문항의 합
	⑧ 주의집중문제		9    주의집중문제와 관련된 문항의 합
	⑨ 기타문제		10    기타문제 문항의 합
	⑫ 문제행동총점		105    ⑩ + ⑪ + ⑥ + ⑦ + ⑧ + ⑨
DSM 진단 척도	① DSM 정서문제	13    DSM 정서문제를 반영한 문항의 합	
	② DSM 불안문제	6    DSM 불안문제를 반영한 문항의 합	
	③ DSM 신체화 문제	7    DSM 신체화 문제를 반영한 문항의 합	
	④ DSM ADHD	7    DSM ADHD를 반영한 문항의 합	
	⑤ DSM 반항행동문제	5    DSM 반항행동문제를 반영한 문항의 합	
	⑥ DSM 품행문제	15    DSM 품행문제를 반영한 문항의 합	
문제행동 특수 척도	① 강박증상	8    강박증상을 반영한 문항의 합	
	② 외상후스트레스문제	14    외상후스트레스문제를 반영한 문항의 합	

문제행동 척도는 증후군 척도, DSM 진단 척도, 문제행동 특수척도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증후군 척도에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규칙위반, 공격행동,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를 측정하는 8개의 소척도가 포함되며, 기타문제와 이들 소척도들의 합으로 구성되는 내재화 총점, 외현화 총점, 문제행동총점이 산출된다. 둘째, DSM 진단 척도에는 DSM 정서문제, DSM 불안문제, DSM 신체화 문제, DSM ADHD, DSM 반항행동문제, DSM品行문제가 포함된다. 셋째, 문제행동 특수척도에는 강박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가 포함된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는 외현화 총점의 T점수와 내재화 총점의 T점수가 활용되었다.

〈표 3-6〉 YSR 문제행동 척도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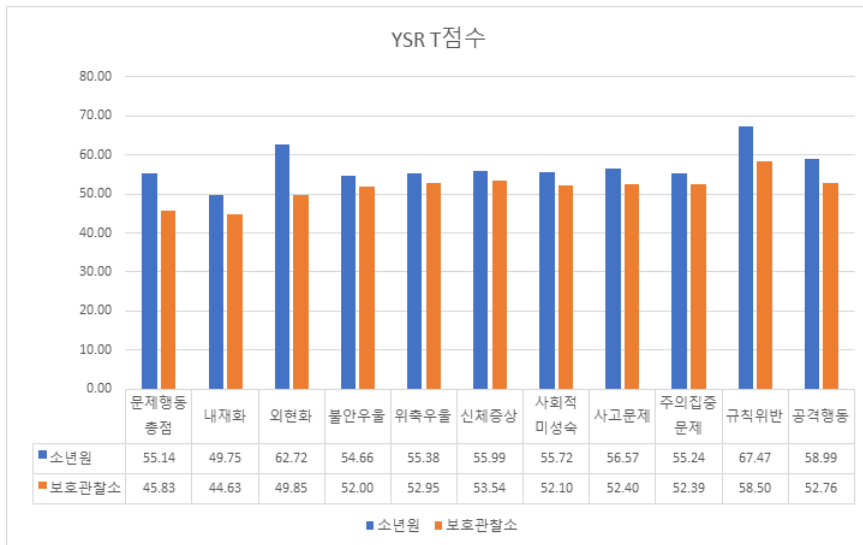
	요인명	문항 내용
증후군 척도	① 불안우울	'잘 운다',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있다' 등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해하는 것
	② 위축우울	'즐거는 것이 매우 적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등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 주변에 대한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
	③ 신체증상	'어지러워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피곤해한다' 등 의학적으로 확인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것
	⑩ 내재화 총점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over-controlled behavior), 내면화되고 과잉 통제된 문제
	④ 규칙위반	'잘못된 행동(버릇없이 굴거나 나쁜 짓)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등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행동들을 충동적으로 하는 것
	⑤ 공격행동	'말다툼을 많이 한다', '자기 물건을 부순다' 등 언어적, 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적대적인 태도
	⑪ 외현화 총점	통제가 부족한 행동(under-controlled behavior),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문제
	⑥ 사회적 미성숙	'어른들에게 붙어있으려 하거나 너무 의존적이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등 나이에 비해 어리고 미성숙한 면, 비사회적인 측면 등 사회적 발달과 관련
	⑦ 사고문제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한다', '비정상적인 이상한 생각을 한다' 등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반복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보거나 듣는 등의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고 및 행동

요인명	문항 내용
⑧ 주의집중문제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등 주의력 부족이나 과다한 행동 양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곤란을 겪는 것
⑨ 기타문제	‘손톱을 깨문다’, ‘체중이 너무 나간다’ 등 위에 제시된 8개의 증후군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빈도로 나타나는 문제행동
⑫ 문제행동총점	전반적인 문제행동의 정도
DSM 진단척도	① DSM 정서문제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등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는 정서문제
② DSM 불안문제	‘학교에 가는 것을 겁낸다’, ‘걱정을 한다’ 등 불안 증상과 유사한 행동을 평가, 전반적인 혹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
③ DSM 신체화 문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제외)’, ‘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등 의학적으로 확인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불안정, 긴장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인 불편 또는 통증 호소
④ DSM ADHD	‘충동적이거나 생각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집중을 잘 못하고 쉽게 산만해진다’ 등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부산하거나 한 가지 일에 주의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바라는 것
⑤ DSM 반항행동문제	‘말다툼을 많이 한다’,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짜증을 부린다’ 등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폭력성, 비협조적 행동
⑥ DSM品行문제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문제행동 특수척도	① 강박증상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한다’, ‘특정한 행동을 계속 되풀이 한다’ 등 특정 사고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② 외상후스트레스문제	‘어른들에게 붙어있으려 하거나 너무 의존적이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등 심각한 외상적인 사건에 직면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

### 3.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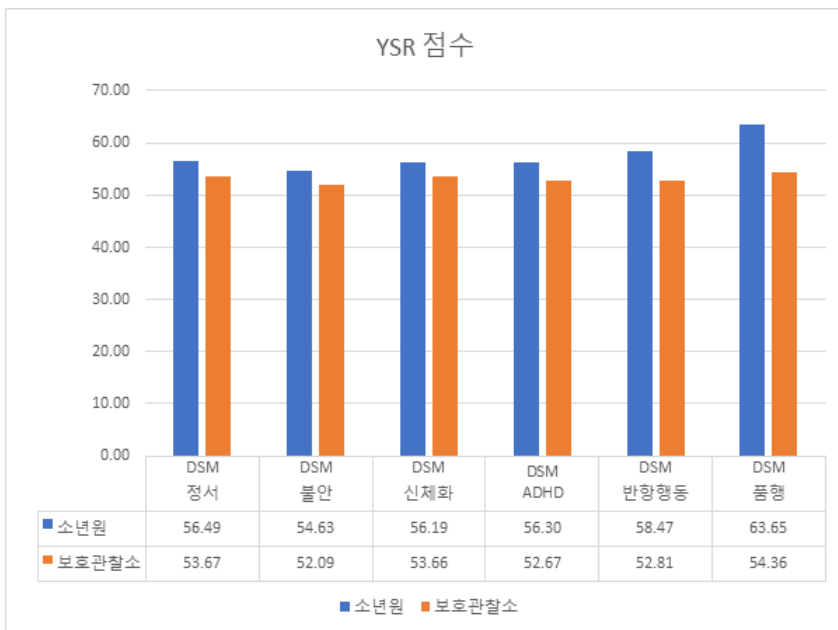
#### 가.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 문제행동 비교

소년원 대상자와 보호관찰소 대상자의 문제행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YSR 증후군 척도의 T점수를 [그림 3-2]에 제시하였다.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중 문제행동총점과 내재화 및 외현화는 T점수 기준으로 64T 이상이면 임상(clinical) 수준, 60T 이상이면 준임상(subclinical) 수준에 해당하며, 나머지 척도들은 70T 이상이면 임상 수준, 65T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에 해당한다. 소년원 대상자들의 경우 외현화 점수가 62.72T로 준임상 수준에 해당하였고, 규칙위반 점수가 67.47T로 준임상 수준에 해당하였다. 반면, 보호관찰소 대상자들은 모든 척도에서 소년원 대상자들보다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으며, 준임상 수준에 미치는 척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현화 문제에서 소년원 대상자들과 보호관찰소 대상자들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3-2]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집단의 YSR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T점수

다음으로, 소년원 대상자와 보호관찰소 대상자의 YSR DSM 진단 척도의 T점수를 [그림 3-3]에 제시하였다. DSM 진단 척도의 경우 70T 이상이면 임상 수준, 65T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에 해당하는데 소년원 대상자들의 경우 품행문제 점수가 준임상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관찰소 대상자들은 모든 척도에서 소년원 대상자들보다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으며, 준임상 수준에 미치는 척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항행동과 품행문제 척도에서 소년원 대상자들과의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3-3]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집단의 DSM 진단 척도 T점수

전반적으로 소년원 대상자들의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규칙위반이나 공격행동, 반항행동이나 품행문제와 같이 겹으로 드러나는 반사회적인 행동적 문제들에 있어서 소년원 대상자들이 훨씬 높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었다.



### 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이 장의 주요 변인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집단 각각에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7). 소년원 집단에서는 변화의지와 사회적 지지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외현화와 내재화 문제 점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보호자와의 관계는 여자가 더 부정적이고, 기질은 여자가 더 충동적이었으며, 스트레스는 여자가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생활 방식은 여자가 더 불안정적이고, 여자가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준범의식은 여자가 더 낮았으며, 자기가치도 여자가 더 낮았다. 소년원 대상자 532명 중 여자는 96명(18%)밖에 되지 않지만 여자 대상자들의 문제행동이 훨씬 더 심각하고 이와 관련되는 주요 변인들의 지표도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특히, 여자 대상자의 외현화 T점수는 임상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으로 이들의 외현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보호관찰 집단에서는 기질, 생활방식, 위험환경, 준범의식, 사회적 지지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소년원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자 대상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와 관련되는 주요 변인들의 지표도 여자가 부정적이었다. 단, 소년원에서는 변화의지에서 남녀 차이가 없었던 반면, 보호관찰소에서는 여자 대상자 변화의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변인명	소년원			보호관찰소		
	남자(n=434)	여자(n=96)	t	남자(n=344)	여자(n=119)	t
	M(SD)	M(SD)		M(SD)	M(SD)	
외현화T점수	60.03 (16.38)	76.08 (16.92)	-8.63**	48.32 (10.75)	54.29 (14.35)	-4.51**
내재화T점수	48.18 (15.04)	57.43 (14.31)	-5.50**	43.05 (10.75)	49.21 (14.06)	-4.96**
보호자 관계 <sup>a</sup>	11.560 (4.33)	13.92 (4.55)	-4.78**	9.75 (3.40)	10.65 (3.57)	-2.46*
기질 <sup>b</sup>	12.73 (2.98)	11.47 (2.89)	3.79**	13.49 (2.67)	13.37 (2.37)	.43
스트레스 <sup>c</sup>	15.55 (3.36)	13.09 (3.78)	6.33**	16.21 (3.03)	14.82 (3.23)	4.23**

변인명	소년원			보호관찰소		
	남자(n=434)	여자(n=96)	t	남자(n=344)	여자(n=119)	t
	M(SD)	M(SD)		M(SD)	M(SD)	
생활방식 <sup>d</sup>	5.90 (2.21)	5.18 (2.17)	2.92**	8.67 (1.89)	8.98 (1.97)	-1.53
위험환경 <sup>e</sup>	10.80 (3.44)	9.93 (3.59)	2.23*	13.85 (3.36)	13.76 (3.32)	.25
준법의식 <sup>f</sup>	12.26 (3.79)	11.11 (3.93)	2.67**	15.24 (3.09)	15.34 (3.00)	- .33
변화의지 <sup>g</sup>	8.41 (2.73)	8.53 (2.94)	-.40	8.91 (2.68)	9.48 (2.62)	-2.00*
사회적 지지 <sup>h</sup>	13.85 (3.91)	14.23 (3.54)	-.87	12.02 (3.42)	12.45 (3.46)	-1.18
자기가치	13.88 (3.12)	12.41 (3.69)	3.98**	14.07 (3.11)	12.71 (3.65)	3.94**

\*p<.05, \*\*p<.01

a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자와의 관계가 부정적, b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 기질이 낮음,

c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음, d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방식이 안정적,

e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환경 노출이 적음, f 점수가 높을수록 준법의식이 높음,

g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의지가 낮음, h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음,

i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가치가 높음

#### 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대상자의 유형화를 실시하기에 앞서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활용되는 주요 변인들과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집단 모두에서 주요 변인 간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외현화와 내재화 문제 모두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충동적이고 위험추구적인 기질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생활방식이 불안정적일수록, 위험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준법의식이 낮을수록, 변화의지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자기가치가 낮을수록 높았다. 소년원 집단에서 외현화 문제와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변인은 기질, 생활방식, 위험환경, 준법의식이었고, 보호관찰에서는 위험환경과 준법의식이 외현화 문제와 가장 상관성이 높았다. 내재화 문제의 경우, 외현화 문제와 달리 소년원과 보호관찰 집단 모두에서 스트레스와 자기가치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 즉, 외현화 문제와 달리 정서적인 문제가 주가 되는 내재화 문제는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부족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

고, 규칙위반이나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대상자가 위험한 환경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있는지 여부와 준법의식의 부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문제행동의 수준이 심각한 소년원 대상자들의 외현화 문제는 기질적인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이들이 타고나는 충동적이고도 위험추구적인 개인내적 속성이 외현화 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8〉 주요 변인 간의 상관

	보호자 관계	기질	스트 레스	생활 방식	위험 환경	준법 의식	변화 의지	사회적 지지	자기 가치
소년원 (n=530)									
외현화	.31**	-.43**	-.36**	-.42**	-.42**	-.45**	.15**	.23**	-.20**
내재화	.20**	-.18**	-.40**	-.13**	-.18**	-.21**	.18**	.16**	-.36**
보호관찰소 (n=463)									
외현화	.28**	-.29**	-.32**	-.37**	-.43**	-.42**	.17**	.20**	-.33**
내재화	.21**	-.09*	-.35**	-.10*	-.20**	-.21**	.21**	.21**	-.44**

\*p<.05, \*\*p<.01

## 라. 유형화를 위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 1)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유형화: 잠재계층 분류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집단 각각에서 연구대상 유형화를 위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가 2개, 3개, 4개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표 3-9〉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Muthén & Muthén, 2000; 이주영, 2012에서 재인용): (1) BIC와 Adj BIC값이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2) Entropy: 잠재계층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0.8 이상이면 좋은 분류, (3) 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PBLRT): k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의 잠재계층 모형이 기각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이 검증에서 p값이 유의미하면 k개의 잠재계층 모형 선택 (McLachlan & Peel, 2000), (4) 이론적 해석 가능성: 선택된 모형에서 잠재계층의

수에 대한 이론적 해석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이다. 그리고 계층의 구성 비율에서 전체 대상자 중 5% 미만의 대상자가 한 계층으로 결정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기준(Hipp & Bauer, 2006)을 감안하여 모든 계층의 구성 비율이 최소한 전체 대상자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집단 모두에서 3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잠재계층 모형의 적합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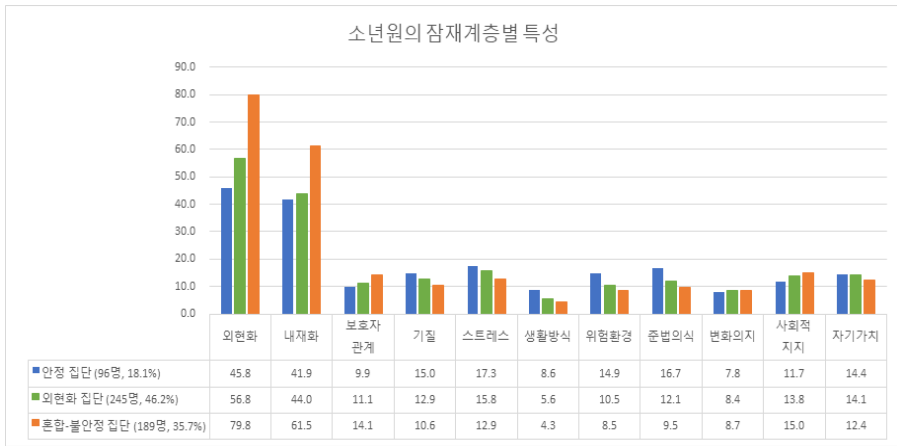
계층 수	loglikelihood	AIC	BIC	Adj BIC	Entropy	PBLRT ( <i>p</i> )
소년원 ( <i>n</i> =530)						
2개	-16449.15	32966.30	33111.58	33003.65	.80	.000
<b>3개</b>	<b>-16317.43</b>	<b>32726.86</b>	<b>32923.41</b>	<b>32777.40</b>	<b>.79</b>	<b>.000</b>
4개	-16201.76	32519.53	32967.35	32583.25	.82	.000
보호관찰소 ( <i>n</i> =463)						
2개	-13715.66	27499.32	27640.01	27532.10	.75	.000
<b>3개</b>	<b>-13595.29</b>	<b>27282.58</b>	<b>27472.92</b>	<b>27326.93</b>	<b>.81</b>	<b>.000</b>
4개	-13472.62	27101.24	27341.23	27157.15	.50	.000

P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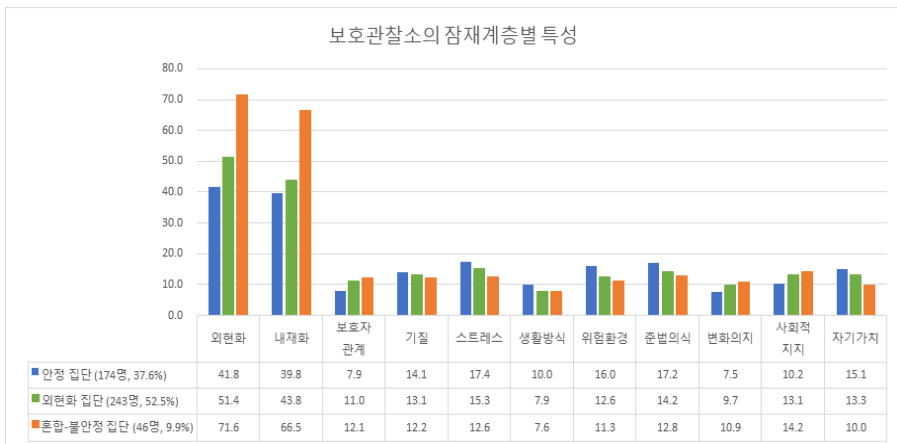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집단 각각에서 3개의 하위집단으로 대상자가 유형화되었다(표 3-10). 각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집단은 ‘안정 집단’으로 외현화와 내재화 문제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이었다. 두 번째 집단은 ‘외현화 집단’으로 내재화 점수는 높지 않으나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외현화 문제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었다. 세 번째 집단은 ‘혼합-불안정 집단’으로 외현화 문제는 임상 수준으로 매우 높고 내재화 문제 역시 준임상 혹은 임상 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었다. 소년원에서는 안정 집단에 96명(18.1%)의 대상자가 포함되었고, 외현화 집단에 245명(46.2%), 혼합-불안정 집단에 189명(35.7%)의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보호관찰소 자료에서는 안정 집단에 174명(37.6%)의 대상자가 포함되었고, 외현화 집단에 243명(52.5%), 혼합-불안정 집단에 46명(9.9%)의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모두 외현화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는데, 소년원에서는 혼합-불안정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가 35.7%로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보호관찰에는 이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가 9.9%에 그쳤다(그림 3-4, 3-5).

〈표 3-10〉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유형화 결과

	소년원 (n=530)			보호관찰소 (n=463)		
	사례수(%)	외현화 T점수	내재화 T점수	사례수(%)	외현화 T점수	내재화 T점수
안정 집단	96(18.1)	45.8	41.9	174(37.6)	41.8	39.8
외현화 집단	245(46.2)	56.8	44.0	243(52.5)	51.4	43.8
혼합-불안정 집단	189(35.7)	79.8	61.5	46(9.9)	71.6	66.5



[그림 3-4] 소년원의 잠재계층별 특성



[그림 3-5] 보호관찰의 잠재계층별 특성

## 2)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유형별 주요 변인의 차이

소년원의 유형화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3개의 하위집단 유형별로 주요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3-11). 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서 혼합-불안정 집단의 지표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집단의 외현화 점수는 80.06T로 임상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이 특징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내재화 점수 역시 61.79T로 준임상 수준 이상이었다. 이와 관련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은 보호자와의 관계가 안정 집단이나 외현화 집단에 비해 매우 부정적이어서 보호자의 지도감독이 부재함은 물론 보호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기질적으로는 충동적이고 위험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였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가장 높았으며, 생활방식도 매우 불안정하여 밤에 주로 집 밖에서 지내고, 친구들과 자주 몰려다니고, 주변에 나쁜 일을 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환경적으로 유해한 조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준범의식이 낮고, 변화에 대한 의지는 안정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닦쳤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나 유능감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즉, 소년원 대상자들 중 1/3 이상은 이러한 혼합-불안정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고, 이들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 뿐만 아니라 심리 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불안과 우울감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고위험(high-risk) 집단으로 생각된다.

한편, 외현화 집단은 정서적인 문제는 보고하지 않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적인 행동이 준임상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집단으로 소년원 대상자들 중 절반 가량이 이 집단에 속하는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혼합-불안정 집단보다는 범죄와 관련되는 위험요인의 수준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변화의지에 있어서는 혼합-불안정 집단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전반적인 자기가치 및 유능감은 혼합-불안정 집단만큼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안정 집단인데,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고, 범죄와 관련되는 위험요인의 수준도 가장 낮다. 소년원에 이와 같은 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이 약 18%에 이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3-11〉 소년원의 유형화 결과

		안정 집단 <sup>a</sup> (n=96)	외현화 집단 <sup>b</sup> (n=245)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n=189)	F	Scheffe
외현화T점수	M	45.29	56.64	80.06	365.04**	a<b<c
	SD	10.25	12.18	10.91		
내재화T점수	M	41.61	43.87	61.79	135.78**	a<b<c
	SD	11.25	11.13	14.52		
보호자 관계 <sup>d</sup>	M	9.96	11.04	14.24	46.38**	a<b<c
	SD	4.26	3.67	4.57		
기질 <sup>e</sup>	M	15.13	12.94	10.61	108.36**	a>b)c
	SD	2.68	2.39	2.62		
스트레스 <sup>e</sup>	M	17.45	15.84	12.95	78.59**	a>b)c
	SD	2.52	3.02	3.53		
생활방식 <sup>e</sup>	M	8.69	5.73	4.34	227.21**	a>b)c
	SD	1.76	1.57	1.63		
위험환경 <sup>e</sup>	M	15.10	10.54	8.50	202.75**	a>b)c
	SD	2.61	2.49	2.78		
준법의식 <sup>e</sup>	M	16.96	12.12	9.48	221.96**	a>b)c
	SD	2.43	2.76	3.10		
변화의지 <sup>d</sup>	M	7.78	8.42	8.77	4.13*	a<b, c
	SD	2.87	2.55	2.94		
사회적 지지 <sup>d</sup>	M	11.75	13.84	15.13	27.24**	a<b<c
	SD	3.73	3.57	3.75		
자기가치 <sup>e</sup>	M	14.61	14.20	12.33	23.85**	a, b)c
	SD	2.98	2.95	3.45		

\*p&lt;.05, \*\*p&lt;.01

d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 e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의미

다음으로, 보호관찰소의 유형화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3개의 하위집단 유형별로 주요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3-12).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혼합-불안정 집단의 지표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 집단의 외현화 점수는 71.59T로 임상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이 특징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내재화 점수도 67.24T로 임상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점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보호관찰소 자료에서의 혼합-불안정 유형의 내재화 점수가 소년원 자료에서의 혼합-불안정 유형의 내재화 점수(61.79T)보다 높다는 점이다. 즉, 4호나 5호 처분을 받은 혼합-불안정 유형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9호나 10호 처분을 받은 혼합-불안정 유형의 소년원 대상자들보다 외현화 문제

행동의 수준은 낮지만 심리 내적인 불안이나 우울, 위축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화의지는 소년원의 혼합-불안정 유형보다 더 낮았고, 자기가치와 유능감도 더 낮은 특징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호관찰소의 혼합-불안정 유형은 범죄와 관련되는 위험요인들에서 가장 부정적인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보호자와의 관계, 기질, 생활방식 등에서는 외현화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보호관찰소의 외현화 집단은 규칙위반이나 공격행동만이 중간 정도로 높은 유형이었고, 안정 집단은 문제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고 범죄의 위험요인 수준도 가장 낮은 유형이었다. 소년원에서는 안정 집단의 유형이 18.1%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보호관찰소에서는 안정 집단의 유형이 37.6%로 소년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3-12〉 보호관찰의 유형화 결과

		안정 집단 <sup>a</sup> (n=174)	외현화 집단 <sup>b</sup> (n=243)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n=46)	F	Scheffe
외현화T점수	M	41.71	51.57	71.59	193.33**	a<b<c
	SD	8.69	9.40	11.54		
내재화T점수	M	39.94	43.72	67.24	163.49**	a<b<c
	SD	9.31	8.71	10.95		
보호자 관계 <sup>d</sup>	M	7.87	11.08	12.11	68.75**	a<b, c
	SD	2.43	3.32	3.57		
기질 <sup>e</sup>	M	14.22	13.12	12.35	14.65**	a>b, c
	SD	2.78	2.30	2.63		
스트레스 <sup>e</sup>	M	17.44	15.36	12.46	67.32**	a>b>c
	SD	2.80	2.68	3.04		
생활방식 <sup>e</sup>	M	10.16	7.95	7.65	111.73**	a>b, c
	SD	1.57	1.58	1.57		
위험환경 <sup>e</sup>	M	16.18	12.60	11.35	104.70**	a>b>c
	SD	2.78	2.81	2.58		
준법의식 <sup>e</sup>	M	17.33	14.26	12.76	96.35**	a>b>c
	SD	2.36	2.60	3.16		
변화의지 <sup>d</sup>	M	7.43	9.84	11.09	73.95**	a<b<c
	SD	2.21	2.37	2.44		
사회적 지지 <sup>d</sup>	M	10.09	13.16	14.46	67.17**	a<b<c
	SD	2.88	3.09	3.17		
자기가치 <sup>e</sup>	M	15.18	13.43	9.72	66.14**	a>b>c
	SD	3.19	2.73	2.79		

\*p<.05, \*\*p<.01

d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 e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의미



### 마. 유형별 특성 비교

#### 1) 소년원과 보호관찰 간 유형별 성비, 보호처분명, 교육수준의 차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유형별 성비, 보호처분명, 교육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표 3-13>부터 <표 3-16>에 제시하였다. 소년원의 유형별 성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안정 집단과 외현화 집단은 남자의 비율이 각각 88.5%와 91.4%로 여자에 비해 남자의 구성 비율이 높은 반면, 혼합-불안정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33.9%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전체 여자 대상자의 66.7%가 혼합-불안정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보호처분명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혼합-불안정 집단에서 9호보다는 10호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표 3-13> 소년원의 유형별 성비 및 보호처분명

	성별		$\chi^2$	보호처분명		$\chi^2$
	남자	여자		9호	10호	
안정 집단	85 (88.5%)	11 (11.5%)	49.51**	58 (61.1%)	37 (38.9%)	26.79**
외현화 집단	224 (91.4%)	21 (8.6%)		119 (48.6%)	126 (51.4%)	
혼합-불안정 집단	125 (66.1%)	64 (33.9%)		58 (30.7%)	131 (69.3%)	

\* $p < .05$ , \*\* $p < .01$

유형별 교육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혼합-불안정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재학'과 '중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빈도가 높았고, 안정 집단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표 3-14〉 소년원의 유형별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재학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재학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중퇴/ 휴학/ 재학	대학교 중퇴/ 휴학/ 재학	x <sup>2</sup>
	안정 집단	0 (0%)	7 (7.4%)	15 (15.8%)	33 (34.7%)	36 (37.9%)	0 (0%)	
외현화 집단	1 (0.4%)	9 (3.7%)	39 (16.1%)	107 (44.2%)	81 (33.5%)	1 (0.4%)	4 (1.7%)	
혼합-불안정 집단	2 (1.1%)	20 (10.6%)	44 (23.4%)	63 (33.5%)	58 (30.9%)	1 (0.5%)	0 (0%)	

\*p<.05, \*\*p<.01

보호관찰소의 유형별 성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안정 집단과 외현화 집단은 남자의 비율이 각각 79.3%와 75.7%로 여자에 비해 남자의 구성 비율이 높은 반면, 혼합-불안정 집단은 여자의 비율이 52.2%로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유형별 보호처분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15〉 보호관찰의 유형별 성비 및 보호처분명

	성별		x <sup>2</sup>	보호처분명		x <sup>2</sup>
	남자	여자		4호	5호	
안정 집단	138(79.3%)	36(20.7%)	19.43**	118(67.8%)	56(32.2%)	5.26
외현화 집단	184(75.7%)	59(24.3%)		176(72.4%)	67(27.6%)	
혼합-불안정 집단	22(47.8%)	24(52.2%)		25(55.6%)	20(44.4%)	

\*p<.05, \*\*p<.01

유형별 교육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혼합-불안정 집단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재학'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3-16〉 보호관찰의 유형별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재학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재학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중퇴/ 휴학/ 재학	대학교 중퇴/ 휴학/ 재학	$\chi^2$
안정 집단	0 (0%)	23 (13.4%)	16 (9.3%)	91 (52.9%)	30 (17.4%)	3 (1.7%)	9 (5.2%)	15.85
외현화 집단	1 (0.4%)	45 (18.5%)	32 (13.2%)	120 (49.4%)	36 (14.8%)	1 (0.4%)	8 (3.3%)	
혼합-불안정 집단	0 (0%)	14 (30.4%)	3 (6.5%)	18 (39.1%)	10 (21.7%)	0 (0%)	1 (2.2%)	

전체적으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모두 혼합-불안정 집단은 여자의 비율이 높고, 보호처분 수준이 더 높고,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 2) 소년원과 보호관찰 간 유형별 반사회적 행동의 차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도출된 3개의 유형이 다양한 종류의 반사회적 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음주와 관련된 6개 문항('나는 술에 취해서 실수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술에 중독됐다고 느껴본 적이 있었다', '나는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다', '나는 술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한테 술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술을 자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의 합산 총점으로 분석한 결과(〈표 3-17〉, 〈표 3-18〉),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모두 혼합-불안정 유형에서 음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소년원의 유형별 음주 문제

	안정 집단 <sup>a</sup> ( <i>n</i> =95)	외현화 집단 <sup>b</sup> ( <i>n</i> =245)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 <i>n</i> =189)	<i>F</i>	<i>Scheffe</i>
음주 문제 <sup>d</sup>	<i>M</i> 20.56	17.71	14.85	47.02**	a>b>c
	<i>SD</i> 3.84	4.65	5.43		

\* $p < .05$ , \*\* $p < .01$

d 점수가 낮을수록 음주 문제가 심각함

반면, 보호관찰소의 세 유형은 각각 대응되는 소년원의 유형에 비해서는 음주 문제가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보호관찰의 유형별 음주 문제

		안정 집단 <sup>a</sup> (n=174)	외현화 집단 <sup>b</sup> (n=243)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n=46)	F	Scheffe
음주 문제 <sup>d</sup>	M	22.06	19.30	16.70	45.79**	a>b>c
	SD	3.20	4.10	4.65		

\*p<.05, \*\*p<.01

d 점수가 낮을수록 음주 문제가 심각함

다음으로, 도박, 인터넷 및 휴대폰의 불법 사용, 폭력, 위협 성행동 등의 비행행동을 합산한 총점으로 분석한 결과(〈표 3-19〉, 〈표 3-20〉), 소년원에서는 혼합-불안정 유형의 비행행동이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관찰소에서는 혼합-불안정 유형과 외현화 유형의 비행행동의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의 안정 유형과 보호관찰소의 안정 유형의 비행행동 수준은 비슷하였고 각 집단 내의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비행행동의 심각성이 가장 낮아 이들의 재범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표 3-19〉 소년원의 유형별 비행행동

		안정 집단 <sup>a</sup> (n=95)	외현화 집단 <sup>b</sup> (n=245)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n=189)	F	Scheffe
비행행동 <sup>d</sup>	M	39.35	32.45	28.03	100.04**	a>b>c
	SD	5.66	6.00	7.16		

\*p<.05, \*\*p<.01

d 점수가 낮을수록 비행행동이 심각함

〈표 3-20〉 보호관찰의 유형별 비행행동

		안정 집단 <sup>a</sup> (n=174)	외현화 집단 <sup>b</sup> (n=243)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n=46)	F	Scheffe
비행행동 <sup>d</sup>	M	40.32	35.25	33.11	52.27**	a>b, c
	SD	5.51	5.80	5.49		

\*p<.05, \*\*p<.01

d 점수가 낮을수록 비행행동이 심각함

개별 비행행동에 대한 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21>, <표 3-22>에 제시하였다. 소년원의 경우, 도박, 인터넷/휴대폰 불법 아이템 거래, 인터넷/휴대폰 음란사이트 방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행 항목에서 혼합-불안정 유형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나타냈다.

<표 3-21> 소년원의 유형별 비행 항목별 차이

비행항목 <sup>d</sup>		안정집단 <sup>a</sup> (n=96)	외현화 집단 <sup>b</sup> (n=245)	혼합-불안 정 집단 <sup>c</sup> (n=189)	F	Scheffe
나는 도박을 했다	M	3.25	2.50	2.47	19.23**	a>b, c
	SD	.93	1.01	1.19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불법으로 아이템을 거래하였다	M	3.65	3.23	3.03	14.88**	a>b, c
	SD	.67	.85	1.08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음란사이트를 방문했다	M	3.09	2.45	2.41	17.89**	a>b, c
	SD	.92	.89	1.10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많이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	M	3.26	2.93	2.54	19.15**	a>b>c
	SD	.84	.88	1.10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느껴 지루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자주 있었다	M	3.01	2.59	2.23	21.59**	a>b>c
	SD	.88	.91	1.07		
나는 밖에서 사람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적이 자주 있었다	M	3.52	2.84	2.24	65.00**	a>b>c
	SD	.73	.90	.99		
나는 밖에서 도구나 물건으로 누군가를 위협해본 적이 자주 있었다	M	3.69	3.13	2.54	56.36**	a>b>c
	SD	.60	.82	1.01		
나는 밖에서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었다	M	3.19	2.57	1.86	68.44**	a>b>c
	SD	.93	.95	.95		
나는 밖에서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M	3.56	2.80	2.15	84.23**	a>b>c
	SD	.61	.91	.94		
나는 밖에서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	M	2.81	2.24	1.99	18.82**	a>b>c
	SD	1.01	1.03	1.08		
나는 밖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를 겪었다	M	3.53	3.17	2.91	11.35**	a>b>c
	SD	.87	.99	1.16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78	2.02	1.66	49.26**	a>b>c
	SD	.95	.89	.88		

\*p<.05, \*\*p<.01

d 점수가 낮을수록 비행행동이 심각함

한편, 보호관찰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행 항목에서 혼합-불안정 유형과 외현화 유형이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나타냈고 안정 유형은 개별 비행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표 3-22〉 보호관찰의 유형별 비행 항목별 차이

비행항목 <sup>d</sup>		안정집단 <sup>a</sup> (n=174)	외현화 집단 <sup>b</sup> (n=243)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n=46)	F	Scheffe																																																																																																																																		
나는 도박을 해 본 경험이 있다	M	3.34	2.89	2.87	9.89**	a>b, c																																																																																																																																		
	SD	1.01	1.08	1.11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불법으로 아이템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	M	3.74	3.40	3.46	9.13**	a>b, c		SD	.66	.87	.81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음란사이트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	M	2.91	2.61	2.76	4.87**	a>b, c		SD	1.01	.93	1.04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많이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	M	3.24	2.84	2.67	12.03**	a>b, c		SD	.91	.93	.99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느껴 지루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자주 있었다	M	2.82	2.38	2.02	16.98**	a>b, c		SD	1.10	.90	.75	나는 사람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적이 자주 있었다	M	3.59	3.17	2.76	29.67**	a>b, c		SD	.66	.77	.85	나는 도구나 물건으로 누군가를 위협해본 적이 자주 있었다	M	3.70	3.29	3.09	23.50**	a>b>c		SD	.60	.76	.76	나는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었다	M	3.28	2.70	2.35	28.12**	a>b, c		SD	.93	.92	.92	나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M	3.82	3.32	3.11	41.20**	a>b, c		SD	.44	.71	.77	나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M	3.29	2.84	2.70	10.79**	a>b, c		SD	1.04	1.08	1.13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불법으로 아이템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	M	3.74	3.40	3.46	9.13**	a>b, c																																																																																																																																		
	SD	.66	.87	.81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음란사이트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	M	2.91	2.61	2.76	4.87**	a>b, c		SD	1.01	.93	1.04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많이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	M	3.24	2.84	2.67	12.03**	a>b, c		SD	.91	.93	.99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느껴 지루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자주 있었다	M	2.82	2.38	2.02	16.98**	a>b, c		SD	1.10	.90	.75	나는 사람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적이 자주 있었다	M	3.59	3.17	2.76	29.67**	a>b, c		SD	.66	.77	.85	나는 도구나 물건으로 누군가를 위협해본 적이 자주 있었다	M	3.70	3.29	3.09	23.50**	a>b>c		SD	.60	.76	.76	나는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었다	M	3.28	2.70	2.35	28.12**	a>b, c		SD	.93	.92	.92	나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M	3.82	3.32	3.11	41.20**	a>b, c		SD	.44	.71	.77	나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M	3.29	2.84	2.70	10.79**	a>b, c		SD	1.04	1.08	1.13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음란사이트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	M	2.91	2.61	2.76	4.87**	a>b, c																																																																																																																																		
	SD	1.01	.93	1.04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많이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	M	3.24	2.84	2.67	12.03**	a>b, c		SD	.91	.93	.99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느껴 지루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자주 있었다	M	2.82	2.38	2.02	16.98**	a>b, c		SD	1.10	.90	.75	나는 사람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적이 자주 있었다	M	3.59	3.17	2.76	29.67**	a>b, c		SD	.66	.77	.85	나는 도구나 물건으로 누군가를 위협해본 적이 자주 있었다	M	3.70	3.29	3.09	23.50**	a>b>c		SD	.60	.76	.76	나는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었다	M	3.28	2.70	2.35	28.12**	a>b, c		SD	.93	.92	.92	나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M	3.82	3.32	3.11	41.20**	a>b, c		SD	.44	.71	.77	나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M	3.29	2.84	2.70	10.79**	a>b, c		SD	1.04	1.08	1.13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많이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	M	3.24	2.84	2.67	12.03**	a>b, c																																																																																																																																		
	SD	.91	.93	.99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느껴 지루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자주 있었다	M	2.82	2.38	2.02	16.98**	a>b, c		SD	1.10	.90	.75	나는 사람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적이 자주 있었다	M	3.59	3.17	2.76	29.67**	a>b, c		SD	.66	.77	.85	나는 도구나 물건으로 누군가를 위협해본 적이 자주 있었다	M	3.70	3.29	3.09	23.50**	a>b>c		SD	.60	.76	.76	나는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었다	M	3.28	2.70	2.35	28.12**	a>b, c		SD	.93	.92	.92	나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M	3.82	3.32	3.11	41.20**	a>b, c		SD	.44	.71	.77	나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M	3.29	2.84	2.70	10.79**	a>b, c		SD	1.04	1.08	1.13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느껴 지루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자주 있었다	M	2.82	2.38	2.02	16.98**	a>b, c																																																																																																																																		
	SD	1.10	.90	.75			나는 사람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적이 자주 있었다	M	3.59	3.17	2.76	29.67**	a>b, c		SD	.66	.77	.85	나는 도구나 물건으로 누군가를 위협해본 적이 자주 있었다	M	3.70	3.29	3.09	23.50**	a>b>c		SD	.60	.76	.76	나는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었다	M	3.28	2.70	2.35	28.12**	a>b, c		SD	.93	.92	.92	나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M	3.82	3.32	3.11	41.20**	a>b, c		SD	.44	.71	.77	나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M	3.29	2.84	2.70	10.79**	a>b, c		SD	1.04	1.08	1.13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나는 사람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적이 자주 있었다	M	3.59	3.17	2.76	29.67**	a>b, c																																																																																																																																		
	SD	.66	.77	.85			나는 도구나 물건으로 누군가를 위협해본 적이 자주 있었다	M	3.70	3.29	3.09	23.50**	a>b>c		SD	.60	.76	.76	나는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었다	M	3.28	2.70	2.35	28.12**	a>b, c		SD	.93	.92	.92	나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M	3.82	3.32	3.11	41.20**	a>b, c		SD	.44	.71	.77	나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M	3.29	2.84	2.70	10.79**	a>b, c		SD	1.04	1.08	1.13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나는 도구나 물건으로 누군가를 위협해본 적이 자주 있었다	M	3.70	3.29	3.09	23.50**	a>b>c																																																																																																																																		
	SD	.60	.76	.76			나는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었다	M	3.28	2.70	2.35	28.12**	a>b, c		SD	.93	.92	.92	나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M	3.82	3.32	3.11	41.20**	a>b, c		SD	.44	.71	.77	나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M	3.29	2.84	2.70	10.79**	a>b, c		SD	1.04	1.08	1.13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나는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었다	M	3.28	2.70	2.35	28.12**	a>b, c																																																																																																																																		
	SD	.93	.92	.92			나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M	3.82	3.32	3.11	41.20**	a>b, c		SD	.44	.71	.77	나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M	3.29	2.84	2.70	10.79**	a>b, c		SD	1.04	1.08	1.13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나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M	3.82	3.32	3.11	41.20**	a>b, c																																																																																																																																		
	SD	.44	.71	.77			나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M	3.29	2.84	2.70	10.79**	a>b, c		SD	1.04	1.08	1.13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나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M	3.29	2.84	2.70	10.79**	a>b, c																																																																																																																																		
	SD	1.04	1.08	1.13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적이 있다	M	3.73	3.52	3.35	6.29**	a>b, c																																																																																																																																		
	SD	.67	.76	1.04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M	2.87	2.28	1.98	27.59**	a>b, c																																																																																																																																		
	SD	.98	.87	1.00																																																																																																																																				

\*p<.05, \*\*p<.01

d 점수가 낮을수록 비행행동이 심각함

요약하면, 소년원 내의 혼합-불안정 유형은 다양한 종류의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유형이라면, 보호관찰소 내에서는 외현화 유형과 혼합-불안정 유형이 비슷한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여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혼합-불안정 유형 뿐 아니라 외현화 유형의 비행행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시사된다.

### 3) 소년원과 보호관찰 간 유형별 담당교사와의 관계 및 변화에 대한 태도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3개 유형별로 담당교사와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지, 변화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3-23, 표 3-24). 담당교사와의 관계는 ‘이 곳의 (담당) 선생님은 내 마음에 든다’, ‘이 곳의 (담당) 선생님은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곳의 (담당) 선생님은 나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신다’, ‘이 곳의 (담당)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 곳의 (담당) 선생님은 나의 고민을 잘 아신다’의 5개 문항의 합산 점수로 평가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태도는 ‘소년원에서(또는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나는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년원에서(또는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나는 검정고시나 (학업연계를 통해) 졸업장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년원에서(또는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나는 여기에 온 것이(또는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소년원에서(또는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나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의 4개 문항의 합산 점수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소년원에서는 담당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외현화 유형과 혼합-불안정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안정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만이 담당교사와 가장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변화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는 세 유형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안정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마저도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다.

〈표 3-23〉 소년원의 유형별 담당교사와의 관계 및 변화에 대한 태도

		안정 집단 <sup>a</sup> (n=95)	외현화 집단 <sup>b</sup> (n=245)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n=189)	F	Scheffe
담당교사와의 관계 <sup>d</sup>	M	8.34	8.93	9.71	4.50*	a(b, c)
	SD	3.76	3.62	4.16		
변화에 대한 태도 <sup>d</sup>	M	6.33	6.78	6.76	1.22	
	SD	2.34	2.42	2.74		

\*p<.05, \*\*p<.01

d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의미

한편, 보호관찰소에서는 담당교사와의 관계나 변화에 대한 태도 측면 모두에서 안정 유형이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이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

들은 담당 선생님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의지도 매우 부족한 모습이였다.

〈표 3-24〉 보호관찰의 유형별 담당교사와의 관계 및 변화에 대한 태도

		안정 집단 <sup>a</sup> (n=174)	외현화 집단 <sup>b</sup> (n=243)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n=46)	F	Scheffe
담당교사와의 관계 <sup>d</sup>	M	6.88	8.58	9.41	23.07**	a<b<c
	SD	2.59	3.13	2.93		
변화에 대한 태도 <sup>d</sup>	M	7.08	8.21	8.24	11.60**	a<b<c
	SD	2.46	2.42	2.69		

\*p<.05, \*\*p<.01

d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의미

#### 4)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간 유형별 YSR DSM 진단 척도의 차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3개 유형별 YSR DSM 진단 척도 T점수의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3-25〉와 [그림 3-6]은 소년원의 결과이다.

〈표 3-25〉 소년원의 유형별 DSM 진단 척도(T점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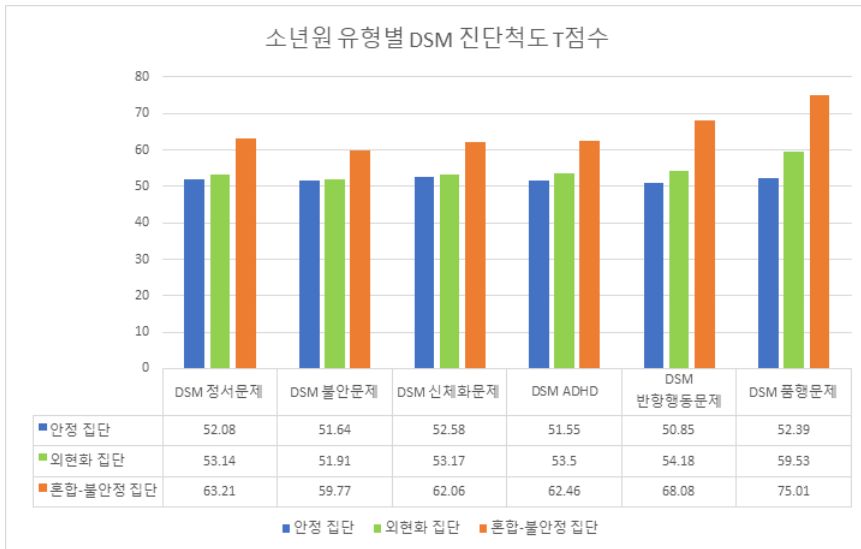
DSM 진단척도 <sup>d</sup>		안정 집단 <sup>a</sup> (n=96)	외현화 집단 <sup>b</sup> (n=245)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n=189)	F	Scheffe
DSM 정서문제	M	52.08	53.14	63.21	115.98**	a, b<c
	SD	5.05	5.31	10.46		
DSM 불안문제	M	51.64	51.91	59.77	80.51**	a, b<c
	SD	3.58	4.05	10.28		
DSM 신체화문제	M	52.58	53.17	62.06	66.75**	a, b<c
	SD	4.81	6.21	12.17		
DSM ADHD	M	51.55	53.50	62.46	80.70**	a, b<c
	SD	4.49	5.90	11.84		
DSM 반항행동문제	M	50.85	54.18	68.08	141.77**	a<b<c
	SD	2.85	5.87	14.95		
DSM 품행문제	M	52.39	59.53	75.01	370.67**	a<b<c
	SD	5.19	7.73	7.92		

\*p<.05, \*\*p<.01

d T점수 65 이상은 준임상 수준, 70 이상은 임상 수준



소년원 내의 혼합-불안정 유형이 모든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특히 DSM 반항행동문제는 준임상 수준 이상, DSM 품행문제에서는 임상 수준 이상의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정신병리적 증상이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DSM 반항행동문제와 DSM 품행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에서는 안정 유형과 외현화 유형 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3-6] 소년원의 유형별 DSM 진단척도 T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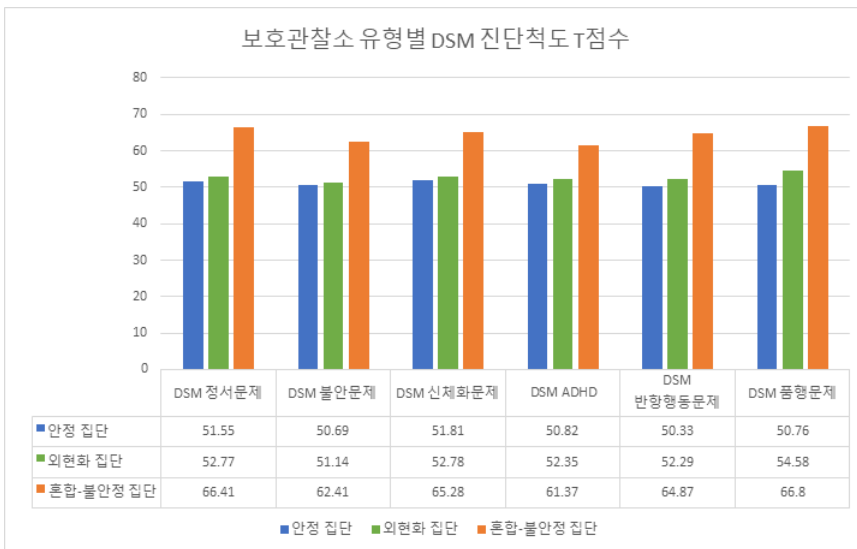
〈표 3-26〉과 [그림 3-7]에는 보호관찰소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소 내의 혼합-불안정 유형이 모든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특히 DSM 반항행동문제는 준임상 수준에 근접, DSM 품행문제는 준임상 수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소년원과 달리 보호관찰소의 혼합-불안정 유형은 DSM 정서문제와 DSM 신체화문제가 준임상 이상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은 과소 통제된 외현화 문제는 물론 과잉 통제된 내면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 3-26〉 보호관찰의 유형별 DSM 진단 척도(T점수)의 차이

DSM 진단척도 <sup>d</sup>		안정 집단 <sup>a</sup> (n=174)	외현화 집단 <sup>b</sup> (n=243)	혼합-불안정 집단 <sup>c</sup> (n=46)	F	Scheffe
DSM 정서문제	M	51.55	52.77	66.41	166.04**	a, b<c
	SD	3.85	4.79	8.92		
DSM 불안문제	M	50.69	51.14	62.41	184.23**	a, b<c
	SD	2.13	2.76	9.66		
DSM 신체화문제	M	51.81	52.78	65.28	93.54**	a, b<c
	SD	4.16	5.04	13.39		
DSM ADHD	M	50.82	52.35	61.37	86.69**	a<b<c
	SD	2.41	5.01	9.18		
DSM 반항행동문제	M	50.33	52.29	64.87	125.81**	a<b<c
	SD	1.53	4.67	13.85		
DSM 품행문제	M	50.76	54.58	66.80	161.19**	a<b<c
	SD	2.62	5.94	9.05		

\*p<.05, \*\*p<.01

d T점수 65 이상은 준임상 수준, 70 이상은 임상 수준



〔그림 3-7〕 보호관찰의 유형별 DSM 진단척도 T점수

## 제4절 유형화 결과의 시사점

이 장에서는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하는 보호소년 집단이 이질적인 집단임을 전제로 보호소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보호소년의 이질성에 근거한 유형화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맞춤형(tailored) 처우 방향을 알려준다. 특히 유형화에 있어서 보호소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은 물론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에 필요한 보호요인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현재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우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 장에서는 첫째, 보호소년의 이질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둘째, 보호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정착에 요구되는 중요한 변수를 확인하고, 셋째, 유형화에 근거한 맞춤형 처우 체계를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경험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분류처우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모두에서 3개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정 집단'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수준이 모두 낮았으며,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주요 지표들도 양호한 편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규칙위반 행동과 공격행동이 두드러졌으며 내재화 문제 수준은 낮았다. 세 번째 유형은 '혼합-불안정 집단'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수준이 가장 높았고,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주요 지표들이 매우 부정적이며, 교육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여자 대상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소년원의 유형화 결과를 보면, 가장 고위험에 속하는 혼합-불안정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이 35.7%로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처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보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자의 지도감독이 부재하여 이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에게는 보호자의 보호력 회복을 위한 개입이 반드시 요구된다. 보호자의 보호력 회복을 위해서는 보호자들을 적극적으로 대상자 처우 범위 내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및 가족문제와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적 가족치료가 필요하겠다. 소년범죄자들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법적 처분 내에 보호자들을 관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보호자의 모니터링 부재와 맞물려 생활방식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여 밤에는 주로 집 밖에서 지내면서 비행 친구들과 몰려다니고 환경적으로 유해한 조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불안정한 생활방식에 대한 교정적 접근이 동반되어야 한다. 범죄에 취약한 기질과 더불어 이들이 보이고 있는 낮은 준범의식과 낮은 변화의지는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이 소년원에서 퇴원한 이후 재범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적 개입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없는 건강한 사회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어 이들에 대한 학업적 지원도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년원생들은 외현화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이 46.2%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변화의지 측면에서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행동문제에 대한 교정과 함께 변화의지의 증진을 위한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년원 내에는 안정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도 적지 않은 비율(18.1%)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문제행동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되는 위험요인의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사회 재진입 및 사회정착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소년원 내에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안정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이 다른 두 유형의 대상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받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화 결과에서 주목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사실은 각 유형별 남녀의 구성 비율이다. 안정 집단과 외현화 집단이 대부분 남자들로 구성되는 것에 반해 혼합-불안정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년원 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전반적인 문제행동의 심각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되는 주요 지표에서 남자들보다 나빴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소년원생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이고도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자 소년들의 경우 남자 소년들에 비해 정신장애의 공존 빈도가 높고, 여자 소년들의 범죄경험이나 정신장애는 위험 성행동이나 조기 임신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문제가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짐으로써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에 연루된 소년들의 재범과 관련한 성별차이를 검토한 메타분석에서는 여자들의 경우 아동기 학대,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 가족의 약물남용이 재범을 잘 예측하였다. 보호요인 측면에서는 친사회적 또래, 약물남용의 부재, 교육적/직업적 강점이 남자 소년들의 성공(예: 재범 없음)을 잘 예측한 반면, 여자 소년들은 친사회적 가치(prosocial values)가 성공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ott & Brown, 2018). 따라서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 중에서도 여자 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소년원 내 혼합-불안정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일수록 음주, 도박, 폭력, 위험 성행동 등을 포함하는 반사회적 행동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출원 후에도 재범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혼합-불안정 유형과 외현화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소년원 내 담당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 담당 교사에 의한 사후관리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년원 내에서는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전문성이 높은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출원 이후의 사회적응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소년원의 유형화 결과 및 유형별 처우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27〉 소년원의 유형화 결과 및 유형별 개입 방안

	특징	처우 방안
안정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행동 수준이 낮음</li> <li>범죄관련 위험요인 적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관성 있는 선도</li> <li>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정착 유도 가능</li> </ul>
외현화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격적인 문제행동</li> <li>낮은 변화의지</li> <li>유능감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격성 감소를 위한 행동수정 및 밀착 모니터링</li> <li>변화의지 촉진을 위한 동기 강화 상담</li> </ul>
혼합-불안정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자의 보호력 부재</li> <li>충동적이고 위험추구적인 기질</li> <li>높은 수준의 스트레스</li> <li>불안정한 생활방식</li> <li>유해한 환경 조건에 노출</li> <li>낮은 준법의식과 변화의지</li> <li>사회적지지 부족</li> <li>자기가치 및 유능감 결여</li> <li>여자의 비율이 높음</li> <li>낮은 교육수준</li> <li>심각한 반사회적 행동</li> <li>담당교사와 부정적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교육 및 가족치료</li> <li>정서조절능력 함양을 위한 개인상담 및 코칭</li> <li>생활방식 교정 및 환경 통제를 위한 일상생활관리</li> <li>준법의식 및 변화의지 제고</li> <li>정서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료</li> <li>체계적인 학업 지원</li> <li>여자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개입</li> </ul>

보호관찰소의 유형화 결과도 소년원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각 유형의 비율은 다소 상이하였다. 보호관찰소에서도 외현화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51.4%), 소년원에 비해 안정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37.6%). 흥미로운 사실은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가 소년원에 비해 적었지만(9.9%) 보호관찰소 내의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은 소년원 내의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보다 내재화 문제가 더 심각했다. 변화의지나 자기가치 측면에서도 소년원 내 동일한 유형의 대상자들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유능감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내 처우를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 중에도 소년원생들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처우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유능감의 회복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된 소수의 혼합-불안정 유형은 추후 재범으로 다시 사법적 체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보호관찰소 내 혼합-불안정

집단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분류와 평가 단계에서 성차를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소의 세 유형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음주, 도박, 폭력, 위험 성행동 등의 반사회적 행동 수준에서 혼합-불안정 유형과 외현화 유형 간에 차이가 없었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모든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또래와의 관계를 차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외현화 유형의 대상자들도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만큼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외현화 유형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공격성 감소를 위한 개입과 이들이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비행또래와의 연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의 유형화 결과 및 유형별 처우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28〉 보호관찰의 유형화 결과 및 유형별 개입 방안

	특징	처우 방안
안정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행동 수준이 낮음</li> <li>범죄관련 위험요인 적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관성 있는 선도</li> <li>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정착 유도 가능</li> </ul>
외현화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격적인 문제행동</li> <li>보호자와의 부정적 관계</li> <li>충동적이고 위험추구적인 기질</li> <li>불안정한 생활방식</li> <li>심각한 반사회적 행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격성 감소를 위한 행동수정 및 밀착 모니터링</li> <li>보호자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가족치료</li> <li>생활방식 교정을 위한 일상생활관리</li> <li>비행또래와의 관계망 차단</li> </ul>
혼합-불안정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자의 보호력 부재</li> <li>충동적이고 위험추구적인 기질</li> <li>높은 수준의 스트레스</li> <li>불안정한 생활방식</li> <li>유해한 환경 조건에 노출</li> <li>사회적지지 부족</li> <li>매우 심각한 정서적 문제</li> <li>매우 낮은 변화의지</li> <li>자기가치 및 유능감 부재</li> <li>심각한 반사회적 행동</li> <li>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교육 및 가족치료</li> <li>정서조절능력 함양을 위한 개인상담 및 코칭</li> <li>생활방식 교정 및 환경 통제를 위한 일상생활관리</li> <li>우울 및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심층 치료</li> <li>유능감 회복과 긍정적 변화에 대한 동기화</li> <li>여자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개입</li> </ul>

##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하는 보호소년 집단이 문제행동 및 그와 관련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측면에서 서로 이질적인 집단임을 전제로 보호소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보호소년의 이질성에 근거한 유형화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맞춤형된 처우 방향을 알려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소년의 유형화 분석은 보호소년의 이질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보호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정착에 요구되는 중요한 변수를 확인하며, 유형화에 근거한 맞춤형 처우 체계를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한 분류처우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호처분 9호와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원 재원생 532명과 4호와 5호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소 대상자 463명을 대상으로 패널조사 설문지와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SR)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모두에서 3개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정 집단'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수준이 모두 낮았으며,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주요 지표들도 양호한 편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주로 규칙위반 행동과 공격행동이 두드러졌으며 내재화 문제 수준은 낮았다. 세 번째 유형은 '혼합-불안정 집단'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수준이 모두 높고,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주요 지표들이 매우 부정적이며, 상대적으로 여자 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3개 유형 중 혼합-불안정 유형은 보호자의 보호력이 부재하고, 기질적으로는 충동적이고 위험추구적이며, 일상생활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불안정한 생활방식과 유해한 환경 조건에 노출되어 있으며, 준법의식과 변화의지가 낮고, 사회적지지가 부족하며, 자기가치 및 유능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모두에서 드러났으나, 보호관찰소의 혼합-불안정 유형이 소년원의 혼합-불안정 유형보다 더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보였다.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은 사회재진입이 가장 어려운 집단으로서 부모교육, 개인코칭, 일상



생활관리, 학업지원, 성 인지적 개입 등의 개별 처우가 필요에 따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외현화 유형은 공격적 행동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으로 행동수정과 비행또래와의 관계망 차단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안정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관습적인 가치와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일관된 선도가 요구된다.

보호소년의 유형화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보호소년의 이질성 파악을 위한 평가시스템 도입이다. 보호관찰 현장에서는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나, 보호소년의 분류는 단순히 재범위험성으로만 이루어지기보다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행동의 수준 및 그와 관련되는 범죄유발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보호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법무부에서는 2017년부터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를 도입하여 다양한 영역의 위험요인들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는 보호관찰관의 심층면담 결과와 현지출장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유형화 변인을 중심으로 간편하게 평정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보호소년의 분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보호소년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처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호관찰 현장에서는 분류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처우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의 유형화 결과에 나타난 주요 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개별 대상자에게 보다 적합한 처우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에게는 보호자의 보호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대상자의 불안정한 생활방식에 대한 교정적 접근, 준법의식의 제고와 변화의지 증진을 위한 교육적 개입, 정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치료 등 개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듈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보호소년의 분류와 처우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성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넷째, 연구를 통한 근거기반실천의 실행이다. RNR 원칙에 따라 고위험 대상자에게 지도감독과 사회자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학적

인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호소년의 행동 개선을 위해 범죄유발 요인에 개입하고 개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호소년의 이질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유형화는 보호소년의 이질성 파악을 위한 과학적인 시도로서 근거기반실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보호소년들이 범죄경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개입 요소를 찾아서 해당 요소에 시간과 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보호소년의 유형화는 그러한 개입 요소를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유형화는 특정 시점에 측정된 일회성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세 가지 유형이 어떤 범죄경로에 연결되는지는 향후 지속되는 종단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사회정책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김정숙·황여정



# 사회정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제1절 개관

이 장은 2017년에 1차년도에 개발한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1차년에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한계점, 소년원생의 요구 및 출원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년원생의 심리·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을 위한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즉, 소년원생들이 소년원 재원 중 생활태도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력 향상 등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왔던 반면,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정착지원은 주로 진학·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사실이다(박성훈 외, 2017: 255~256).

2차년에는 2017년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위한 강의안 개발, 소년원 재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시범운영, 시범운영 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소년원생을 위한 차별화된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소년원생들은 재원 기간 동안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년원생의 출원 후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에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분석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을 위한 근거 확보의 일환으로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프로그램 담당 강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 프로그램 시범적용을 담당했던 강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결과 및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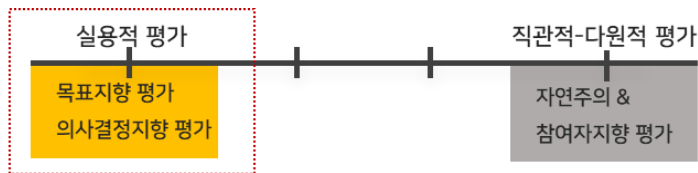
### 1. 평가모형의 개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평가 분야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평가모형을 살펴보고,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에 적합한 평가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evaluation)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며, 이를 위한 기준의 결정, 관련 정보 수집, 기준의 적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5). 1965년 이후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들이 발전했는데, 인식론적 차이에 따라 실용적 평가(utilitarian evaluation)와 직관적-다원적 평가(intuitionist-pluralist evaluation)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실용적 평가는 과학적, 객관적 정보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직관적-다원적 평가는 프로그램이 각 개인에게 끼친 영향력에 따라 프로그램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이 때문에 직관적-다원적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은 있을 수 없고 다양한 기준과 판단이 존재함을 가정한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62).

실용적 평가에는 목표지향 평가(objective-oriented evaluation)와 의사결정 지향 평가(management-oriented evaluation)가, 직관적-다원적 평가에는 자연주의 평가(naturalist evaluation)와 참여자 지향 평가(participant-oriented evaluation)가 대표

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목표지향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이며, 의사결정 지향 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68). 반면, 자연주의 평가는 자발적 지원자나 일반적 군중들의 경험에 기초한 자연주의적 일반화에 목표를 두며, 참여자지향 평가 역시 평가의 가치, 기준, 요구 등에 대한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관여(involveement)에 있다고 본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68, 140).



[그림 4-1] 프로그램 평가 접근방법의 구분

출처: Fitzpatrick, Sanders & Worthen(2004: 68)을 참고하여 재구성

각 접근방법의 특성은 그 자체로 강점요인이라 볼 수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직관적-다원적 평가는 평가기준의 다원성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참여자의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객관성 결여는 한계점으로 비판받는다. 특히 제한된 시간과 예산 범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관적-다원적 평가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147-148).

198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모형들이 등장하였다. 이 평가모형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한 결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 때문에 결과지향 평가(outcome or results-oriented evaluation)로도 불리며, Kirkpatrick의 평가모형이 대표적이다. 이 모형은 평가 실시와 결과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492).

이 연구는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고,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전체 소년원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용적 평가모형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원 후 소년원생들의 사회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역량의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Kirkpatrick의 평가모형을 정리하고, 이번 연구에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 실용적 평가

### 가. 목표지향 평가

목표지향 평가의 한 가지 예로 Provus의 간극평가 모형(discrepancy evaluation model)을 들 수 있다. 그는 평가를 1) 평가기준에 합의하고, 2)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수행과 설정된 목표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며, 3) 프로그램의 개선, 유지, 종료를 결정하기 위해 그 간극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다 (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75).

Provus는 프로그램 평가를 설계, 실행, 과정, 성과, 비용-편익 분석 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 '설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 과정에 대한 규정, 필요 자원과 참여자 설정이 이루어진다. 2단계 '실행'에서는 당초 설계한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간극이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 및 투입 요소들의 조정 또는 프로그램의 종료를 제안하였다. 3단계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이 이루어진다. 4단계 '성과'에서는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성과(immediate outcomes)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한다. 5단계 '비용-편익 분석'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효과성을 판단한다 (권일남 외, 2016: 248).

Provus의 간극평가모형은 모든 확인 가능한 간극이 제거될 때까지 활동의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Provus는 매 단계마다 간극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시정조치가 가능하며 최선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을 제안한 바 있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77).

목표지향 평가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에 있다. 목표지향 평가모형은 이해하기 쉽고, 평가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프로그램 참가자의 성과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권일남 외, 2016: 247; 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82).

반면, 이 평가모형은 기준 목표와 프로그램에 따른 결과 간의 간극(discrepancies)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며, 기준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성과들이 무시되거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경시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기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권일남 외, 2016: 247; 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82-83).

#### 나. 의사결정지향 평가

Stufflebeam은 평가를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기술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그는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CIPP 모형을 제안하였다. CIPP 모형은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로 구성된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90-91).

〈표 4-1〉 CIPP 모형의 내용

구분	내용
상황평가	기관 상황 분석, 프로그램 대상자 확인, 요구분석 및 문제점 진단
투입평가	프로그램 전략, 프로그램 실행 절차, 예산 및 일정 결정
과정평가	프로그램 절차나 실행에서의 문제점 확인 또는 예측,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진행과정에서의 사건/활동 기록
산출평가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기술(description) 및 판단, 성과와 당초 목표와의 비교, 프로그램의 가치와 장점 분석

출처: Fitzpatrick, Sanders & Worthen(2004: 91).

CIPP 모형은 프로그램 전 과정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의사결정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선호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실시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점도 있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95-96).

### 3. 결과지향 평가

#### 가.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

결과지향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여기에는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이 대표적인 모형으로 포함된다. 이 평가모형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권일남 외, 2016: 253). Kirkpatrick은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를 교육 프로그램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토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그는 4수준, 즉 반응평가(reaction evaluation), 학습평가(learning evaluation), 행동평가(behavior evaluation), 결과평가(results evaluation)를 제안하였다(Kirkpatrick, 1996: 18). 각 평가의 구체적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

구분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응(만족도) 평가</li> <li>프로그램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달성도</li> <li>효과성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업 적용도</li> <li>학습 전이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성과 기여도</li> <li>교육투자 가치</li> </ul>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전, 중, 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종료 3~6개월 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종료 6~12개월 후</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li> <li>강사</li> <li>연수진행자</li> <li>프로그램 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 습득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된 지식, 기능,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성과 중 교육이 기여한 부분</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지</li> <li>면담</li> <li>관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지</li> <li>필기시험</li> <li>실기, 시범</li> <li>역할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지</li> <li>관찰</li> <li>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지</li> <li>면담</li> </ul>

출처: 정재삼(2004: 250)의 내용을 재구성.

Kirkpatrick은 4수준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평가 설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한 바 있다(〈표 4-3〉 참조).

〈표 4-3〉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 설계

구분	평가 설계
반응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떤 반응(교육시설, 교육일정, 교재 및 학습자료, 강사 등)을 조사하려고 하는지를 결정할 것</li> <li>반응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조사 설계 필요→ 설문지에는 최대한의 정보를 묻되,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설계</li> <li>참여자 전원의 반응평가 결과를 확보할 것</li> <li>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li> <li>평가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기준을 설정할 것 (예: 강사 3.5점 이상, 시설 4점 이상 등)</li> <li>반응평가 실시 후, 수용 가능한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li> <li>반응평가 결과를 강사, 의사결정자 등에게 전달할 것</li> </ul>
학습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평가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할 것</li> <li>지식, 태도 평가: 지필검사를 통해 실험집단 vs 통제집단의 평균비교 가능</li> <li>기능 평가: 수행검사를 통해 평가 가능</li> <li>참여자 전원의 학습평가 결과를 확보할 것</li> <li>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학습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내용, 방법에 대한 검토와 조치 필요</li> </ul>
행동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동평가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할 것</li> <li>행동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것</li> <li>교육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평가를 실시할 것</li> <li>행동변화를 관찰하거나 알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면담을 실시할 것</li> <li>참여자 전원의 행동평가 결과를 확보할 것(비용, 시간, 효용 고려)</li> <li>적절한 시간 후, 반복평가 실시할 것</li> </ul>

구분	평가 설계
결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평가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할 것</li> <li>• 교육 프로그램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것</li> <li>• 교육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평가를 실시할 것</li> <li>• 적절한 시간 후, 반복평가를 실시할 것</li> <li>• 비용, 시간, 효용을 고려할 것</li> <li>• 교육 프로그램 결과의 근거(evidence)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li> </ul>

출처: Kirkpatrick(1996: 27~70)의 내용을 재구성.

### 나.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의 장단점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은 프로그램에 대한 각 수준별 평가가 용이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과 활용이 명확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투자에 대한 회수 효과를 산정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후 Phillips는 이를 보완하여 투자회수효과(return on investment: ROI)를 평가하는 ROI 과정모형을 제안하였다(정재삼, 2004: 251).

## 제3절 사회정착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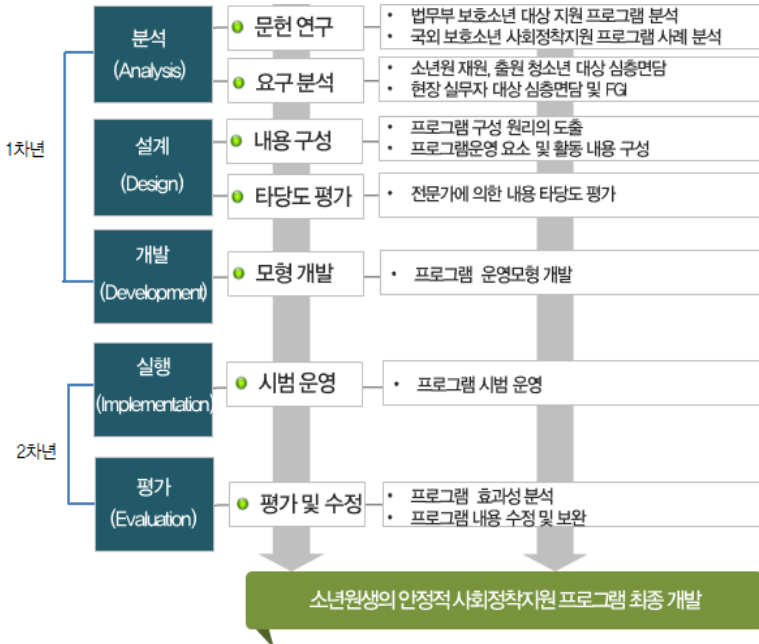
### 1. 연구방법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을 위해 대표적인 교수설계모형인 ADDIE 모형(그림 4-3)을 적용하여 1차년(2017년)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차년(2018년)에는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단계를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과정에서는 문헌연구, 실험조사 및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형을 검토하였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는 연구진이

새롭게 개발하기보다는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영역에 반영된 심리·사회적 역량의 구성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각 영역에 해당하는 측정지표별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는 한편, 관련 선행연구가 없는 경우는 연구진이 별도로 문항을 개발하여 전체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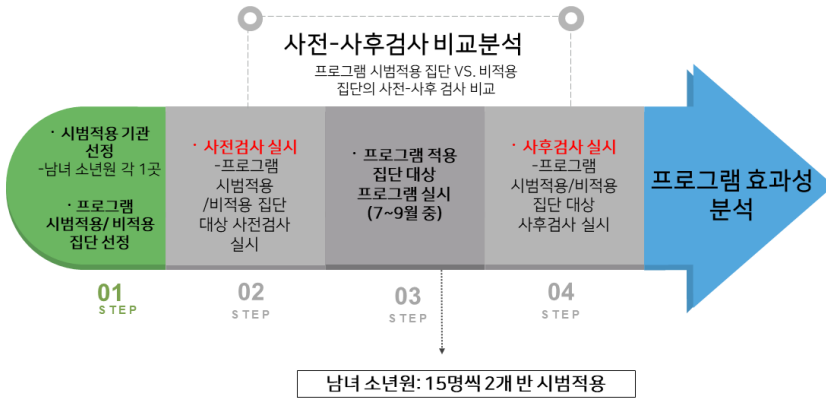
[그림 4-2] 교수설계를 위한 ADDIE 모형

출처: 권일남 외(2016: 148)을 참고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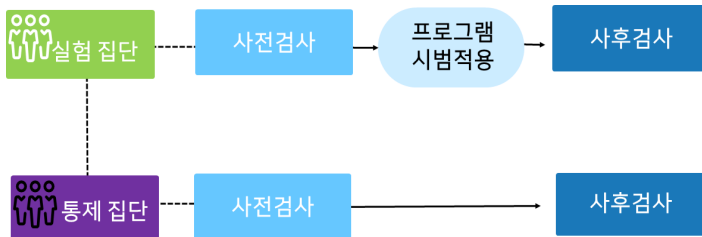
### 나. 실험조사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위해 남녀 소년원 각 1곳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15명을 기준으로, 2개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소년원별로 3~6월까지의 기존 교육과정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7~9월 중에 시범적용이 이루어졌다. A소년원(남자소년원)의 경우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주당 2회(1회, 2회기 진행), 총 3주에 걸쳐 7~8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B소년원(여자소년원)의 경우 3일(1일, 4회기 진행) 동안 12회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8~9월 중에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각 소년원이 소재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두드림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실험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시범적용을 위해 소년원에서는 프로그램 시범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을 각각 30명씩 선정하고 시범적용 직전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시범적용 집단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12회기 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 시범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은 실험집단(프로그램 적용 집단)과 통제집단(프로그램 비적용 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술한 실험조사 절차와 실험조사 설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실험조사 절차



[그림 4-4]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실험조사 설계

출처: 성태제·시기자(2006: 289)을 참고하여 재구성

### 다. 면담조사 및 전문가 FGI

프로그램 시범적용 후 프로그램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원생과 소년원의 인성교육 또는 사회복귀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자에는 남녀 소년원 재원생 각 4명과 인성교육 또는 사회복귀반 담당자 2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면담조사 및 전문가 FGI 참여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4〉 면담조사 및 전문가 FGI 참여자

		구분	인원
면담 조사	소년원생	A소년원(남자소년원)	4명
		B소년원(여자소년원)	4명
	소년원 인성교육 또는 사회복귀반 담당자	2명	
전문가 FGI	A 소년원 담당 강사	3명	
	B 소년원 담당 강사(센터담당자 포함)	4명	
계			17명

## 2. 평가지표의 개발

이번 연구는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해 실험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시범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사후검사에서 반영할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7년에 개발한 ‘소년원생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은 1) 자기이해 및 탐색 2)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 3)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 4) 경제관리 및 경제교육 5) 미래설계 I(꿈&비전 설계) 6) 미래설계II(진학 모듈, 취업모듈) 7) 출원 후 정보제공 및 수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적용 프로그램은 전체 21회기 프로그램 내용 중 시범적용 대상 소년원에서 요구하는 12회기로 구성하여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7개 영역별 교육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와 특정 영역만을 선별하여 운영하더라도 프로그램 전체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 모두를 제시하였다.

### 가. 평가지표 개발의 원칙 및 고려사항

이 연구에서는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에 사용될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과 고려사항을 반영하였다.

#### 1) 프로그램 구성 방식을 고려한 모듈식 지표 구성

첫째,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을 고려해 효과성 분석을 위한 측정영역 및 측정지표를 모듈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장에서 시범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21회기로 개발되었지만, 각 소년원의 상황에 따라 12회기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듈화 되어 있다(박성훈 외, 2017: 360). 따라서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소년원에서는 제시된 21회기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구성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각 소년원별로 운영된 프로그램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를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로 주요 측정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 2) 이용 편의 및 프로그램 목적을 반영한 범용 지표의 제시

이번 연구는 모듈식 구성과 함께 현장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프로그램의 목적을 반영한 범용 지표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듈식 지표 구성은 해당 영역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계열 비교 혹은 타 기관이나 타 학급과의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시계열 비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추후 프로그램 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와 추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반영하는 범용 지표도 함께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나. 측정지표의 도출

프로그램의 성과는 해당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표 4-5>는 시범 적용할 프로그램 영역별로 교육목표와 이를 반영한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4-5〉 프로그램 영역별 교육목표 및 측정지표

영역	교육목표	측정지표
① 자기이해 및 탐색	• 1차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장점을 알아보며, 스스로 가치있는 사람임을 안다.	자아 존중감
	• 2차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다/ 자신도 미래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운다.	회복 탄력성
② 의사소통·대인관계 기술	• 1차시: 내가 가진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분노라는 감정도 다른 감정과 같이 중요함을 알고 자신의 분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다	공격성/ 분노 통제
	• 2차시: 비합리적 사고를 긍정적인 합리적 사고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공격성/ 분노 통제
	• 3차시: 분노 상황과 관련된 3가지 입장(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요령을 익힌다	공감 능력
	• 4차시: 공감과 경청의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어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공감 능력
③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	• 1차시: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나의 긍정적 미래를 위한 관계를 찾아본다	긍정적 관계 유지
	• 2차시: 행동의 결과 미리 생각하기 /출원 후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비교를 통한 출원 후 계획과 다짐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익히기	자기조절
④ 경제관리·경제교육	• 1차시: 미성년자 핸드폰 개통 및 해지 방법을 알려주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자립하여 집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안전하게 집을 계약할 수 있게 한다	경제지식
	• 2차시: 여러 가지 예금 방법을 알려주어 각자의 목적에 맞는 예금을 할 수 있게 한다 /세금의 종류 및 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한다	경제지식
	• 3차시: 신용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신용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어 신용관리를 하게 한다 /경제범죄 상황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처벌에 대해 알게 하여, 다양한 경제 범죄 유혹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범죄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경제지식/ 경제관념
⑤ 미래설계 I (꿈&비전 설계)	• 1차시: 자신의 진로설계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인다 /바람직한 진로 선택 및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한다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한 한 요소로 직업을 탐색한다	진로의식/ 진로 효능감
	• 2차시: 자신의 직업 및 진로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진로장벽 대처방안을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진로 효능감

영역	교육목표	측정지표
[6]-1. 미래설계 II (진학 준비)	• 1차시: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정보 탐색이 중요함을 안다 /진학 퀴즈를 통해 대학 진학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안다 /진로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진로진학 정보 탐색하는 방법을 안다	진로 효능감
	• 2차시: 자기소개서의 목적과 문항별 특징을 안다 /각 문항들 중 1개를 골라 초안을 작성해본다	진로 효능감
	• 3차시: 대학 입시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안다 /면접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다 /실제 모의면접을 통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진로 효능감
[6]-2. 미래설계 II (취업 준비)	• 1차시: 노동과 노동인권의 의미를 이해한다 /사회적 '약속·신뢰'의 중요성을 터득한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본다	직업가치
	• 2차시 및 3차시: 청소년이 일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근로기준법을 이해한다 /구직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대처할 준비를 한다 /청소년 노동자가 현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인지한다	근로보호 관련 지식
[7]-1. 출원 후 정보제공 및 수료식	• 1차시: 취업성공패키지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알고, 구직탐색활동을 할 수 있다 /취업사관학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사관학교를 알아본다 /출원 후 지원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동기를 갖는다	출원 후 지원 서비스 인지
	• 2차시: 수료식을 진행하고 참가자 개개인에게 수료증을 배부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다.	교육 만족도

출처: 각 영역 및 영역별 교육목표는 박성훈 외(2017) 353쪽 <표 5-36> 및 393-486쪽 각 회기별 세부목표 참조

이 장에서는 상술한 프로그램의 각 영역별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영역별 성과 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1영역: 자기이해 및 탐색

먼저, [1] 자기이해 및 탐색 영역은 자존감 향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향상시키고, 출원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박성훈 외, 2017: 352). 이 영역은 2개 차시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교육목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돕는 데 있다(박성훈 외, 2017: 353). 따라서 1영역은 자존감과 회복탄력성을 측정지표로 도출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이승현(2014)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했는데,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좋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등 5개 문항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 2개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일컫는 개념으로(Garmerzy, 1993; Luther, Cicchetti & Becker, 2000; 신우열·김민규·김주환, 2009: 106에서 재인용), 열악한 환경이나 역경에 처하기 쉬운 소년원생들의 사회정착 능력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문항은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과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원인분석력(3문항), 감정통제력(3문항), 충동통제력(3문항), 감사하기(3문항), 생활만족도(3문항), 낙관성(3문항), 관계성(3문항), 커뮤니케이션능력(3문항), 공감능력(3문항) 등 9개 유형에 대해 총 27개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 가운데 프로그램 교육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유형인 낙관성에 관한 3개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제시된 문항을 소년원생의 상황에 맞게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등 3개 문항이다.

## 2) 2영역: 의사소통·대인관계 기술

다음으로, ② 의사소통·대인관계 기술 영역에서는 감정조절 방법,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싸움을 피하는 대화법 등 타인과 조화롭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박성훈 외, 2017: 352). 이 영역은 4차시로 구성되어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수 비중이 큰 편이다. 개별 차시의 주요 교육목표로는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분노를 조절하며, 공감과 경청의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 등이 설정되었다(박성훈 외, 2017: 353). 이를 반영하는 효과성 판단의 지표로는 공격성, 분노 통제, 공감 능력 등이 설정되었다.

공격성은 이승현(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준용하였다. 여기에는 '나는 다

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다', '나는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때린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다' 등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분노 통제는 전점구(1996)의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가운데 분노 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Spielberg et al.(1988)이 제작한 척도(STAXI)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타당화 한 척도이다(서경란, 2014 :76에서 재인용). 이 척도에서 분노 통제는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여타 요인과의 문항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화난 감정을 자제한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화를 참는다', '나는 냉정을 유지한다', '나는 나쁜 평가를 받으면 격분한다' 등 6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공감 능력은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한 공감 능력의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친구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의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 3) 3영역: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

③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는 소년원생들이 출원 후 재범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주변 비행청소년과의 접촉 및 범죄 유혹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인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다(박성훈 외, 2017: 352). 이 영역은 총 2차시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교육목표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지속하는 방법을 익히고, 부정적 행동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며,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등이다(박성훈 외, 2017: 353). 따라서 3영역은 긍정적 관계 유지와 자기조절이 측정지표로 설정되었다.

긍정적 관계 유지를 포착하는 문항으로는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나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다' 등이 포함되었으며, 문항은 연구진이 개발하였다.

자기조절은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이 사용한 충동 통제력 문항 가운데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나는 내가 이루려는 목표가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프로그램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나는 친구들이 다시 나쁜 일을 하자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문항을 연구진이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 4) 4영역: 경제관리·경제교육

④ 경제관리·경제교육은 총 3차시로 구성되는데, 각 차시별로 출원 후 바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들, 예컨대 핸드폰 개통하기, 집 구하기, 은행계좌 개설하기, 세금 내기, 핸드폰 명의도용의 유혹 차단하기, 신용불량의 위험 예방하기 등 실생활과 관련된 대응 방법을 다룬다(박성훈 외, 2017: 352).

경제관리·경제교육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은 하나의 지표로 집약되기보다는 실생활과 직결된 경제관리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4영역은 자아존중감, 탄력성, 공격성과 같이 특정 요인을 측정하는 척도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터득해야 할 지식을 터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대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 서류에 대한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집 계약할 때 등기부 확인은 최근 1개월 이내의 등기부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일 필요는 없다’, ‘계약금이나 잔금 지불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 또는 현금거래를 통해 하면 된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미성년자가 통장을 만들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나는 건강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국세 등 세금은 밀리거나 내지 않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는다’, ‘대출이 없고 현금만 사용하면 신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나중에 연체금을 모두 갚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지출을 하고, 갚을 능력을 고려해서 거래를 해야 한다’ 등 11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일부

문항은 단지 해당 지식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응답 과정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과정의 학습효과를 염두에 두고 포함하였다. 또한 경제관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나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초과하더라도 일단 구입할 것이다' 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5) 5영역: 미래설계 I -꿈·비전 설계

㉟ 미래 설계 I(꿈·비전 설계) 영역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진로 목표를 설정하며,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생활태도 등을 다룬다(박성훈 외, 2017: 352). 이 영역은 총 2차시로 구성되는데, 1차시에는 자신의 진로설계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이고, 바람직한 진로 선택 및 준비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한 요소로서 직업을 탐색하는 데 교육목표가 있다(박성훈 외, 2017: 354). 2차시에는 자신의 직업 및 진로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찾아보고, 진로장벽 대처방안을 알고 해결하도록 돕는 데 목표가 있다(박성훈 외, 2017: 354). 상술한 교육내용과 목표를 고려하여 5영역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는 진로 의식과 진로효능감이 도출되었다.

진로의식은 이승현(2014)에서 사용된 진로와 미래가치에 관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등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진로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이 수집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II 고등학생용 설문지에 수록된 문항을 소년원생에게 맞게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관심 있는 직업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직업 정보 중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나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는 소년원을 나간 이후의 내 진로(취업, 진학,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취업, 진학, 창업 등)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등 6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 6) 6영역: 미래 설계Ⅱ-진학 준비·취업 준비

〔6〕 미래 설계Ⅱ는 진학 준비와 취업 준비의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되었다. 진학 모듈에서는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면접 등을 통해 대학입시 준비 과정을 경험해보도록 구성되었다(박성훈 외, 2017: 352). 취업 모듈에서는 소년원생들이 출원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이 아닌 정당한 근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깨우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박성훈 외, 2017: 352).

미래 설계Ⅱ 영역에서 진학 준비 모듈과 취업 준비 모듈은 모두 각각 3차시로 구성되었다. 진학 준비 모듈의 주요 교육 목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기소개서의 목적과 문항별 특징을 이해하며, 대학 입시 면접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익히는 데 있다(박성훈 외, 2017: 354). 취업 준비 모듈의 교육 목표는 노동과 노동인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청소년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며, 일자리를 찾으면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준비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박성훈 외, 2017: 354).

상술한 프로그램 내용과 교육 목표를 고려하여, 미래 설계Ⅱ 영역에서 진학 준비 모듈의 효과성은 진로효능감을 통해 파악하고, 취업 준비 모듈의 효과성은 직업가치를 묻는 문항과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로효능감은 앞서 5영역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며, 직업가치를 묻는 문항은 여성가족부(2016)가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근로보호 영역 문항을 차용하여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옮겨갈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위험하거나 청소년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도 하고 싶다' 등 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은 프로그램에서 다룬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한 핵심 내용을 선별하여 작성하였다.

이 문항은 안선영 외(2014)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되 2018년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임금을 어떻게 받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2장 작성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한 장씩 가져야 한다’, ‘2018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이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할 경우,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유급휴일은 일하지 않고 하루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함)’ 등이 포함되었다.

#### 7) 7영역: 출원 후 정보제공 및 수료식

[7] 출원 후 정보제공 및 수료식에서는 출원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료증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박성훈 외, 2017: 352). 이 영역은 총 2차시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1차시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이룸학교(舊 취업사관학교) 제도를 비롯해 출원 후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도록 하는 데 있고, 2차시에는 수료증을 배부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다(박성훈 외, 2017: 354).

따라서 7영역은 출원 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간략히 점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효과 및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출원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를 비롯해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출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나에게 중요했다’,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 ‘이번 교육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 등 만족도 조사 문항이 포함되었다. 상술한 문항 가운데 앞의 5개는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고, 뒤에 4개는 이승현(2014)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제시한 각 영역별 효과성 측정 문항들이 <표 4-6>에 정리되어 있다.



〈표 4-6〉 프로그램 영역별 측정지표 및 측정문항

영역	측정지표	측정문항
① 자기이해 및 탐색	자아 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나 자신이 좋다</li> <li>•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li> <li>•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li> <li>•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li> <li>•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한다</li> </ul> ※ 출처: 이승현(2014).
	회복 탄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li> <li>•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li> <li>•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li> </ul> ※ 출처: 신우열·김민우·김주환(2009)의 회복탄력성 측정문항 가운데 낙관성 문항 발췌
② 의사소통·대인관계 기술	공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li> <li>•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다</li> <li>• 나는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li> <li>• 나는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때린다</li> <li>•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다</li> </ul> ※ 출처: 이승현(2014).
	분노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화난 감정을 자제한다</li> <li>• 나는 다른 사람을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li> <li>•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li> <li>• 나는 화를 참는다</li> <li>• 나는 냉정을 유지한다</li> <li>• 나는 나쁜 평가를 받으면 격분한다</li> </ul> ※ 출처: 서경란(2014).
	공감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li> <li>• 나는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li> <li>• 나는 친구가 화를 낼 경우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li> </ul> ※ 출처: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의 회복탄력성 측정문항 가운데 공감 능력에서 발췌
③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	긍정적 관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li> <li>•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다</li> </ul> ※ 연구진 자체 개발
	자기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내가 이루려는 목표가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li> <li>• 나는 친구들이 다시 나쁜 일을 하자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li> </ul> ※ 첫 번째 문항은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의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 두 번째 문항은 연구진 자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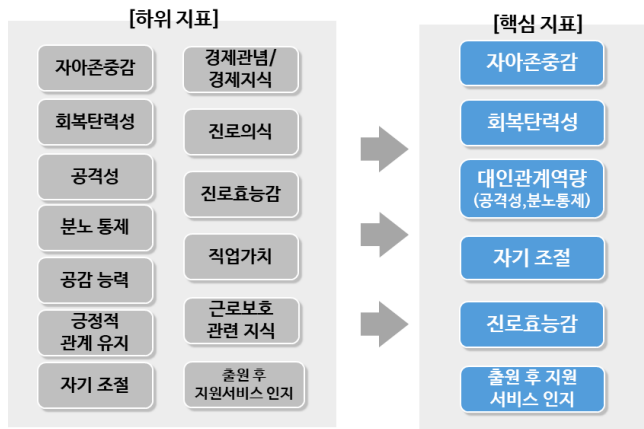
영역	측정지표	측정문항
<p>④ 경제관리· 경제교육</p>	<p>경제관념/ 경제지식</p>	<p>[아래 문항에 대한 인지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대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i> <li>•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 서류에 대한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li> <li>• 집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확인은 최근 1개월 이내의 등기부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일 필요는 없다</li> <li>• 계약금이나 잔금 지불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 또는 현금거래를 통해서 하면 된다</li> <li>•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li> <li>• 미성년자가 통장을 만들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li> <li>• 건강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li> <li>• 국세 등 세금은 밀리거나 내지 않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는다</li> <li>• 대출이 없고 현금만 사용하면 신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li> <li>•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나중에 연체금을 모두 갚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게 된다</li> <li>•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지출을 하고, 값을 능력을 고려해서 거래를 해야 한다</li> <li>• 나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초과하더라도 일단 구입할 것이다 (해당 문항은 5점 척도)</li> </ul> <p>※ 연구진 자체 개발</p>
<p>⑤ 미래설계 I (꿈&amp;비전 설계)</p>	<p>진로 효능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li> <li>•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li> <li>•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li> <li>•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li> </ul> <p>※ 출처: 이승현(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관심있는 직업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li> <li>• 나는 여러 가지 직업 정보 중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li> <li>• 나는 나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li> <li>• 나는 소년원을 나간 이후의 내 진로(취업, 진학,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li> <li>•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취업, 진학, 창업 등)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li> <li>•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li> </ul> <p>※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I 1차년도(2016) 고등학생용 설문지.</p>
<p>⑥-1. 미래설계 II (진학 준비)</p>	<p>진로 효능감</p>	<p>상동(上同)</p>

영역	측정지표	측정문항
[6]-2. 미래설계 II (취업 준비)	직업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옮겨갈 수 있다</li> <li>•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위험하거나 청소년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도 하고 싶다</li> </ul> ※ 출처: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근로보호 관련 지식	[아래 문항에 대한 인지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일을 하고 임금을 어떻게 받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2장 작성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한 장씩 가져야 한다</li> <li>• 2018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이다</li> <li>•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할 경우,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li> <li>•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유급휴일은 일하지 않고 하루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함)</li> </ul> ※ 출처: 안선영 외(2014)를 참조하여 일부 수정
[7]-1. 출원 후 정보제공 및 수료식	출원 후 지원 서비스 인지 /주관적 효과 및 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원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li> <li>•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li> <li>•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li> <li>• 이번 교육은 출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li> <li>•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li> <li>•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나에게 중요했다</li> <li>•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li> <li>•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li> <li>•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li> </ul> ※ 출처: 1~5번째 문항은 연구진 자체 개발/ 6~9번 문항은 이승현 (2014).

#### 다. 핵심지표의 도출

이 장에서 적용될 프로그램은 모듈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혹은 시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운영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와 문항을 활용하여 효과성 평가지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각 프로그램 차시별 효과를 확인하는 하위지표 외에 본 프로그램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범용 효과성 평가지표를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지표는 개별 차시별 교육목표보다는 프로그램의 전체 목적을 반영하는 지표들로 선정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년원생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심리·사회적 역량을 기르고,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미래 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데 있다(박성훈 외, 2017: 344)는 점을 고려하여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대인관계역량(공격성·분노통제), 자기조절, 진로효능감,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를 핵심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림 4-5] 소년원생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한 핵심지표 구성

〈표 4-7〉에는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대인관계역량, 자기조절, 진로효능감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구성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측정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와 출원 후 지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범용 효과성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4-7〉 프로그램 핵심지표 및 측정문항

핵심지표	측정문항
자아 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나 자신이 좋다</li> <li>•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li> <li>•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li> <li>•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li> <li>•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한다</li> </ul> ※ 출처: 이승현(2014).
회복 탄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li> <li>•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li> <li>•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li> </ul> ※ 출처: 신우열·김민우·김주환(2009)의 회복탄력성 측정문항 가운데 낙관성 문항 발췌
대인관계역량 (공격성, 분노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li> <li>• 나는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li> <li>• 나는 다른 사람을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li> <li>•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li> </ul> ※ 출처: 1-2번째 문항은 이승현(2014)/ 3-4번째 문항은 서경란(2014).
자기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내가 이루려는 목표가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li> <li>• 나는 친구들이 다시 나쁜 일을 하자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li> </ul> ※ 첫 번째 문항은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의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 두 번째 문항은 연구진 자체 개발
진로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관심있는 직업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li> <li>• 나는 여러 가지 직업 정보 중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li> <li>• 나는 나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li> <li>• 나는 소년원을 나간 이후의 내 진로(취업, 진학,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li> <li>•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취업, 진학, 창업 등)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li> <li>•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li> </ul> ※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I 1차년도(2016) 고등학생용 설문지.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주관적 효과 및 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원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li> <li>•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li> <li>•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li> <li>• 이번 교육은 출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li> <li>•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li> <li>•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나에게 중요했다</li> <li>•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li> <li>•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li> <li>•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li> </ul> ※ 출처: 1~5번째 문항은 연구진 자체 개발/ 6~9번째 문항은 이승현(2014).

## 제4절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1. 분석 개요 및 분석 결과

#### 가. 분석 개요

이 연구에서는 2017년 개발한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프로그램 핵심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진되었다. 효과성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 및 절차, 조사 참여자, 효과성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효과성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 및 절차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남자 소년원인 A소년원과 여자 소년원인 B소년원에서 이루어졌다. 각 소년원별로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15명을 기준으로, 2개 집단(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한 비교 집단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재원생 30명을 확보하였다.

A소년원의 경우 첫 번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용은 7월 2일에 시작하여 7월 18일에 종료되었는데, 주 2회씩(1회, 2회기 진행)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두 번째 집단의 경우, 7월 30일에 시작하여 8월 14일에 종료되었다. 마찬가지로 주 2회 동안 실시하여 총 6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시범적용 당일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종료일에 역시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비참여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질문지는 동일한 반면, 참여집단의 경우 사후검사 질문지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문항이 추가되었다.

A소년원에서는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총 21회기 내용 중, 6-1 진학모듈에 포함된 프로그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을 포함하여 12회기 내용을 구성하였다. A소년원의 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 및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A소년원(남자) 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 및 절차

대상(일시)		절차	비고
첫 번째 집단 (2018. 7.2.~7.18.)		• 실험, 통제집단 대상 사전검사 실시(7.2.)	총 6회 (주 2회, 1회당 2회기)
		• 실험 집단 대상 시범적용(7.2.~7.18.)	
		• 실험, 통제집단 대상 사후검사 실시(7.18.)	
두 번째 집단 (2018. 7.30.~8.14.)		• 실험, 통제집단 대상 사전검사 실시(7.30.)	상동
		• 실험 집단 대상 시범적용(7.30.~8.14.)	
		• 실험, 통제집단 대상 사후검사 실시(8.14.)	
영역	구분	세부내용	12회기
1. 자기이해 및 탐색	1-1	• 자존감 향상	
	1-2	•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
2.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	2-1	• 내가 가진 다양한 감정 파악하기 & 분노의 원인 이해하기 - 내 안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분노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해보기 - 분노를 다스리는 자기 대화	○
	2-2	• 감정조절 방법 - 배려, 공감, 경청 -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감사 표현하기 등	○
	2-3	• 입장 바꿔보기 -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하기 - 피해자 연습 해보기	○
	2-4	• 싸움을 피하는 대화 방법 -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응하는 방법 -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
3.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	3-1	•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 인맥지도 만들기, 감정선 그려보기 등 -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지속할 수 있는 방법	○
	3-2	• 지인의 유혹에 대한 대처	○
4. 경제관리· 경제 교육	4-1	• 핸드폰 개통, 집 계약하기	
	4-2	• 은행계좌 개설하기, 세금 내기 등	
	4-3	• 핸드폰 명의도용의 유혹, 보이스 피싱, 불법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위험 등 출원 후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이해하기	○
5. 미래 설계 I (꿈&비전 설계)	5-1	• 내가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 꿈 찾아보기 - 진로 설계, 진로 고민의 중요성 - 왜 좀 더 바람직한 꿈을 꾸어야 하는가	○
	5-2	•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생활 태도 & 생활 관리 - 습관화 된 게임이나 무기력 극복 방법	○

영역	구분	세부내용	12회기
6-1. 미래 설계 II (진학 모듈)	진학 모듈		
	6-1-1	•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	
	6-1-2	• 대입 전형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해보기	
	6-1-3	• 대입 전형을 위한 모의 면접	
6-2. 미래 설계 II (취업 모듈)	사회진출 모듈		
	6-2-1	• 정당한 노동/근로를 해야 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 구직 후 금방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	○
	6-2-2	•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 근로자의 권리 - 계약서 샘플 작성해보기 - 모의 면접	
	6-2-3	•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	
7. 출원 후 정보 제공/ 수료식	7-1	• 출원 후 지원서비스 및 관련 정보	
	7-2	• 수료식 (케이스에 담긴 수료증 수여)	○

B소년원에서는 첫 번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용을 8월 1~3일 동안 1일 4회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용은 9월 4~6일 동안 동일하게 1일 4회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B소년원 프로그램 시범적용이 시작되는 날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날에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A소년원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사후검사 질문지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문항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B소년원의 경우, 3일 동안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어 사전검사 후 사후검사가 바로 이루어짐으로써 통제집단에게는 검사지에 포함된 문항을 기억하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실험집단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B소년원에서 구성한 12회기 프로그램 내용 중 특징적인 점은 여섯 번째 미래설계 영역에서 6-1 진학모듈을 선택한 반면 6-2 사회진출 모듈을 제외했다는 점에 있다. B소년원은 여자 소년원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출원 후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4-9〉 B소년원(여자) 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 및 절차

대상(일시)		절차	비고
첫 번째 참여집단 (2018. 8.1.~8.3.)		• 실험, 통제집단 대상 사전검사 실시(8.1.)	3일 (1일 4회기)
		• 실험 집단 대상 시범적용(8.1.~8.3.)	
		• 실험, 통제집단 대상 사후검사 실시(8.3.)	
두 번째 참여집단 (2018. 9.4.~9.6.)		• 실험, 통제집단 대상 사전검사 실시(9.4.)	상동
		• 실험 집단 대상 시범적용(9.4.~9.6.)	
		• 실험, 통제집단 대상 사후검사 실시(9.6.)	
영역	구분	세부내용	12회기
1. 자기이해 및 탐색	1-1	• 자존감 향상	
	1-2	•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
2. 의사소통 · 대인관계 기술	2-1	• 내가 가진 다양한 감정 파악하기 & 분노의 원인 이해하기 - 내 안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분노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해보기 - 분노를 다스리는 자기 대화	○
	2-2	• 감정조절 방법 - 배려, 공감, 경청 -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감사 표현하기 등	○
	2-3	• 입장 바꿔보기 -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하기 - 피해자 연습 해보기	○
	2-4	• 싸움을 피하는 대화 방법 -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응하는 방법 -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
3.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	3-1	•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 인맥지도 만들기, 감정선 그려보기 등 -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지속할 수 있는 방법	○
	3-2	• 지인의 유혹에 대한 대처	
4. 경제관리 · 경제 교육	4-1	• 핸드폰 개통, 집 계약하기	
	4-2	• 은행계좌 개설하기, 세금 내기 등	
	4-3	• 핸드폰 명의도용의 유혹, 보이스 피싱, 불법대출로 인한 신용 불량 위험 등 출원 후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이해하기	○
5. 미래 설계 I (꿈&비전 설계)	5-1	• 내가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 꿈 찾아보기 - 진로 설계, 진로 고민의 중요성 - 왜 좀 더 바람직한 꿈을 꾸어야 하는가	○
	5-2	•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생활 태도 & 생활 관리 - 습관화 된 게으름이나 무기력 극복 방법	○

영역	구분	세부내용	12회기
6-1. 미래 설계 II (진학 모듈)	진학 모듈		
	6-1-1	•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	○
	6-1-2	• 대입 전형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해보기	○
	6-1-3	• 대입 전형을 위한 모의 면접	
6-2. 미래 설계 II (취업 모듈)	사회진출 모듈		
	6-2-1	• 정당한 노동/근로를 해야 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 구직 후 금방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	
	6-2-2	•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 근로자의 권리 - 계약서 샘플 작성해보기 - 모의 면접	
	6-2-3	•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	
7. 졸업 후 정보 제공/ 수료식	7-1	• 졸업 후 지원서비스 및 관련 정보	○
	7-2	• 수료식 (케이스에 담긴 수료증 수여)	

2) 효과성 평가를 위한 조사참여자

소년원생 사회정착지원 시범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조사에는 A소년원 60명(실험집단 30명, 통제집단 30명), B소년원 60명(실험집단 30명, 통제집단 30명) 등 총 120명(실험집단 60명, 통제집단 60명)이 참여하였다. <표 4-10>에는 시범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실험/통제 집단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표 4-10> 효과성 평가를 위한 조사참여자 현황

집단 구분	소년원 구분		처분명		연령 (평균)	계
	A소년원	B소년원	9호	10호		
실험집단	30명 (1차 15명, 2차 15명)	30명 (1차 15명, 2차 15명)	41	19	17.05	60
통제집단	30명 (1차 15명, 2차 15명)	30명 (1차 15명, 2차 15명)	30	30	17.42	60
계	60명	60명	71	49	17.23	120

성별의 경우, 여자 소년원 중 1개 소년원, 남자 소년원 중 1개 소년원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에는 여자 60명(실험집단 30명, 통제집단 30명), 남자 60명(실험집단 30명, 통제집단 30명)이 포함되었다. 총 120명이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위한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실험집단 가운데 2명은 프로그램 참여 도중 탈락하였다.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료하고 사후 검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118명으로 집계되었다<sup>18)</sup>.

### 3)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점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개괄적인 차이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집단 간 사후 점수의 차이가 시범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인지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검사의 영향을 통제하고 두 집단 사후검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sup>19)</sup>을 실시하였다 (임영식 외, 2012: 76).

### 4) 효과성 분석 척도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활용한 척도는 II장에서 제시한 6가지 핵심지표, 즉 자아존중감(5개 문항), 회복탄력성(3개 문항), 대인관계역량(4개 문항), 자기조절(2개 문항), 진로효능감(6개 문항), 출원 후 지원 서비스 인지(1개 문항)에 해당하는 2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출원 후 지원 서비스 인지 지표(1문항)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문항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모든 핵심지표의 신뢰도 계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조절의 사후검사 신뢰도 계수가 .443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핵심지표 중 대인관계역량에 해당하는 측정문항은 공격성과 분노통제로 구성되어

18) A소년원 1명과 B소년원 1명 등 총 2명의 참여자가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도중에 탈락하였다. 또한 A소년원에서 1명은 사전검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사후검사만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분석의 총 사례수는 사후검사에서 1명, 사후검사에는 총 2명이 배제되었다.

19) 사전-사후검사 실험설계를 통한 효과성 분석은 크게 사전-사후 차이값에 대한 t-test와 공분산 분석(ANCOVA) 방법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사를 통해 동질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시범적용 과정에서 B소년원과 같이 3일 동안 프로그램 시범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사후검사의 차이값이 미미하거나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t-test보다는 사전검사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 통제집단의 사후검사를 비교분석하는 공분산 분석(ANCOVA)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있는데, 대인관계역량에 해당하는 모든 측정문항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분석결과와 점수가 낮고,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도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단일요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공격성과 분노통제 등 2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신뢰도 값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분석에서도 두 가지 요인을 분리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1〉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척도의 신뢰도 계수

핵심지표	사전검사 (Cronbach's Alpha)	사후검사 (Cronbach's Alpha)
자아존중감	.828	.873
회복탄력성	.782	.840
대인관계역량(공격성)	.558	.732
대인관계역량(분노통제)	.835	.779
자기조절	.616	.443
진로효능감	.857	.904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	-
전체	.894	.931

각 문항들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④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으며, 각 핵심지표에 해당하는 문항을 합산한 값을 분석하였다. 공격성 문항('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나는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효과성 분석을 위한 나머지 지표들이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긍정적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공격성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역산한 값을 분석하였다. 즉 공격성 지표는 점수가 높을수록 비공격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 나. 효과성 분석 결과

### 1) 효과성 지표별 분석 결과

먼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2개 소년원 응답자를 모두 통합한 전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각 소년원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년원별로

나누어 별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남/여 소년원 차이에서 비롯되는 재원생의 근본적 차이, 소년원 내 분위기 및 풍토 차이, 운영 강사진 차이 등 소년원별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요인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A소년원과 B소년원에서 운영한 12차시 프로그램은 대부분 구성이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차이에 차이가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 운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소년원별로 구분해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전체 응답자 대상 분석 결과

#### (가) 사전 측정치에 대한 집단 동질성 검사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하위 지표인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공격성, 분노 통제, 자기조절, 진로효능감, 그리고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비공격성을 제외하면 모든 하위 영역과 이를 합산한 전체 지표에서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검사 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5$ ). 이러한 결과는 비공격성 지표를 제외하면 효과성 평가 전체 지표를 비롯해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공감능력, 자기조절, 진로효능감,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등에서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임을 의미한다.

〈표 4-12〉 효과성 평가지표 사전 측정치와 집단 동질성 검증 (전체)

지표	구분	N	사전		t
			평균	표준편차	
전체	실험집단	59	65.10	8.39	0.011
	통제집단	60	65.08	9.66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59	16.75	2.63	0.595
	통제집단	60	16.43	3.08	
회복탄력성	실험집단	59	9.98	1.70	0.967
	통제집단	60	9.67	1.87	
비공격성	실험집단	59	4.80	1.44	-2.673**
	통제집단	60	5.53	1.57	

지표	구분	N	사전		t
			평균	표준편차	
분노통제	실험집단	59	6.25	1.18	1.438
	통제집단	60	5.92	1.37	
자기조절	실험집단	59	6.53	1.07	1.668
	통제집단	60	6.15	1.36	
진로효능감	실험집단	59	18.42	3.29	-0.981
	통제집단	60	19.02	3.30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실험집단	59	2.37	0.83	0.039
	통제집단	60	2.37	0.90	

\*p<.05, \*\*p<.01

(2) 사후 측정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사전 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비공격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표 4-13>에는 사후 검사 결과에 대해 실험/통제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효과성 평가 지표 전체의 총합으로 구성된 전체 지표와 자기조절,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항목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자기조절력이 향상되었고, 출원 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표 4-13> 효과성 평가지표 사후 측정치와 집단 간 차이 검증 (전체)

지표	구분	N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전체	실험집단	58	70.17	9.54	2.120*
	통제집단	60	66.25	10.51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58	17.50	2.72	1.617
	통제집단	60	16.63	3.08	
회복탄력성	실험집단	58	10.45	1.69	1.513
	통제집단	60	9.95	1.88	

지표	구분	N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비공격성	실험집단	58	5.62	1.83	0.582
	통제집단	60	5.43	1.66	
분노통제	실험집단	58	6.60	1.23	1.503
	통제집단	60	6.25	1.32	
자기조절	실험집단	58	6.86	1.08	2.314*
	통제집단	60	6.37	1.23	
진로효능감	실험집단	58	20.02	3.42	1.355
	통제집단	60	19.15	3.53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실험집단	58	3.12	0.90	3.732**
	통제집단	60	2.47	1.00	

\* $p < .05$ , \*\* $p < .01$

그 밖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비공격성, 분노통제, 진로효능감 등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더 좋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지표의 총합으로 구성된 전체 지표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소년원생의 사회정착 역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프로그램 효과성 지표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사후검사에서 관찰된 집단 간 차이가 프로그램 참여에서 비롯되는 차이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은 매개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그 영향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통제하여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결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성태제, 2007: 202). 예컨대, 각 집단의 사전 검사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치를 할 경우, 사후 점수에서 집단 차이가 처치에 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공분산분석은 회귀식을 이용하여 각 집단의 매개변수의 평균을 동일하게 한 후 종속변수를 교정하여, 교정된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다(성태제, 2007: 202). 따라서 이번 연구처럼 일종의 실험설계에서 사전-사후 검사값이

존재하는 경우, 처치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 그 결과가 <표 4-1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표들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전체  $F=7.893$ ,  $p<.01$ ). 하위지표별로는 비공격성과 진로효능감, 그리고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지표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비공격성 지표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나는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리고 싶다’ 등 2개 문항에 대한 역코딩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험집단 소년원생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감정을 조절하고 싸움을 피하는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에 비해 통제집단 소년원생의 응답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험집단에서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진로효능감에서도 실험/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소년원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 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데 있는 만큼(박성훈 외, 2017: 344), 소년원생들이 진로효능감을 기르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특히 소년원생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진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진로 영역을 2-track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효능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5.487$ ,  $p<.05$ ). 이는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직업정보를 찾고, 진로 계획을 세우며, 진로를 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전 보다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항목에 대해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F=16.529$ ,  $p<.001$ ).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출원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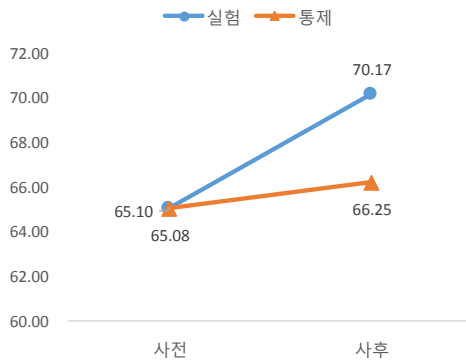


〈표 4-14〉 효과성 평가지표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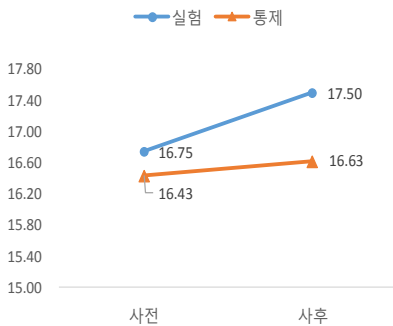
지표	변량원	전체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전체	공변량: 사전 역량 전체	5665.490	1	5665.490	106.908**
	주효과: 집단 (프로그램 참여 여부)	418.265	1	418.265	7.893**
	오차	6041.339	114	52.994	
	전체	555612.000	117		
자아존중감	사전 자아존중감	586.158	1	586.158	171.376**
	프로그램 참여 여부	8.084	1	8.084	2.363
	오차	389.916	114	3.420	
	전체	34945.000	117		
회복탄력성	사전 회복탄력성	144.474	1	144.474	73.438**
	프로그램 참여 여부	2.148	1	2.148	1.092
	오차	224.271	114	1.967	
	전체	12499.000	117		
비공격성	사전 비공격성	90.041	1	90.041	39.227**
	프로그램 참여 여부	10.840	1	10.840	4.722*
	오차	261.675	114	2.295	
	전체	3942.000	117		
분노통제	사전 분노통제	31.995	1	31.995	23.509**
	프로그램 참여 여부	0.924	1	0.924	0.679
	오차	155.150	114	1.361	
	전체	4998.000	117		
자기조절	사전 자기조절	46.453	1	46.453	48.309**
	프로그램 참여 여부	2.872	1	2.872	2.987
	오차	109.620	114	0.962	
	전체	5284.000	117		
진로효능감	사전 진로효능감	456.275	1	456.275	55.323**
	프로그램 참여 여부	45.251	1	45.251	5.487*
	오차	940.217	114	8.248	
	전체	46320.000	117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사전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18.491	1	18.491	24.347**
	프로그램 참여 여부	12.553	1	12.553	16.529**
	오차	86.582	114	0.759	
	전체	1026.000	117		

\*p&lt;.05, \*\*p&lt;.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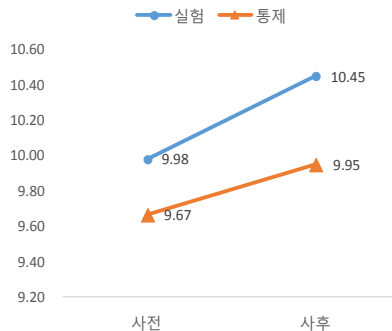
[그림 4-6]부터 [그림 4-13]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각 지표별로 사전-사후 검사에 따른 변화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4-6]에 제시된 효과성 평가 지표 전체 점수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사전 검사 점수는 거의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적용 후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는 차이가 발생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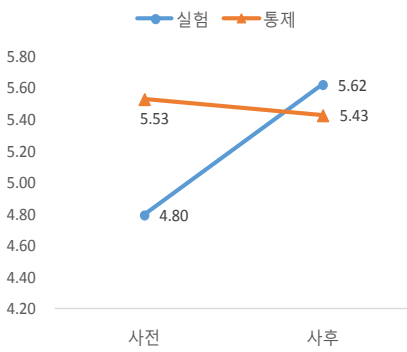
[그림 4-6] 효과성 평가지표(총합)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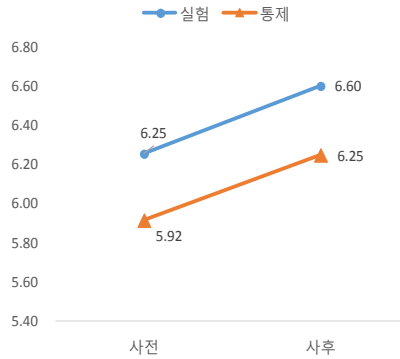
[그림 4-7]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그림 4-8] 회복탄력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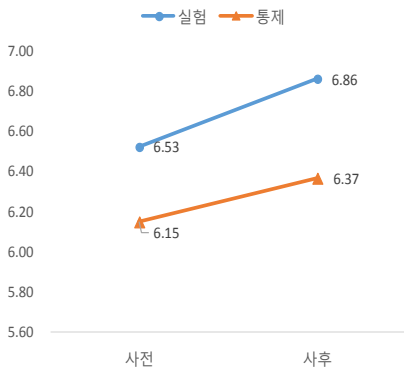


[그림 4-9] 비공격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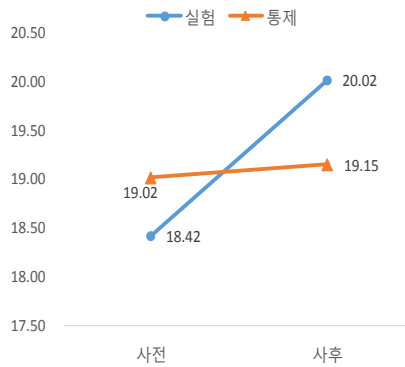


[그림 4-10] 분노통제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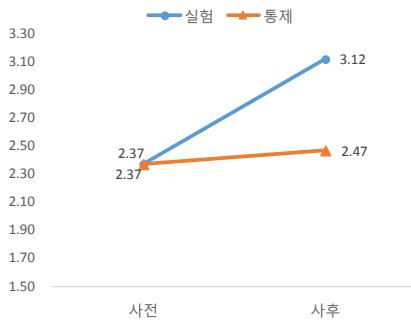
[그림 4-9]에 제시된 비공격성 경우, 사전 검사에서는 오히려 통제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점수 상승으로 인해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이 더 좋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4-12]의 진로효능감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아울러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항목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 출발점은 두 집단이 거의 동일하지만, 실험집단의 점수 상승으로 사후 검사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11] 자기조절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그림 4-12] 진로효능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그림 4-13] 출원서비스 인지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 2) A소년원 대상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적용한 2개 소년원을 분리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A소년원 재원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사전 측정치에 대한 집단 동질성 검사

〈표 4-15〉에는 사전검사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 동질성 검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비공격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는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비공격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비공격성 경우에는 실험집단이 평균 4.86점, 통제집단이 평균 5.83점으로 나타나,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5〉 효과성 평가지표(전체 및 하위영역별) 사전 측정치와 집단 동질성 검증(A소년원)

지표	구분	N	사전		t
			평균	표준편차	
전체	실험집단	29	65.38	7.03	-0.652
	통제집단	30	66.87	10.24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29	17.10	2.11	-0.044
	통제집단	30	17.13	3.01	
회복탄력성	실험집단	29	9.97	1.45	0.221
	통제집단	30	9.87	1.94	
비공격성	실험집단	29	4.86	1.53	-2.436*
	통제집단	30	5.83	1.53	
분노통제	실험집단	29	6.31	1.23	1.082
	통제집단	30	5.93	1.44	
자기조절	실험집단	29	6.55	0.95	0.896
	통제집단	30	6.27	1.44	
진로효능감	실험집단	29	18.17	3.01	-1.574
	통제집단	30	19.50	3.44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실험집단	29	2.41	0.82	0.331
	통제집단	30	2.33	1.03	

\*p&lt;.05, \*\*p&lt;.01

## (2) 사후 측정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표 4-16〉에는 사후 검사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전 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표에서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6〉 효과성 평가지표 사후 측정치와 집단 간 차이 검증 (A소년원)

지표	구분	N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전체	실험집단	29	67.76	9.40	-0.753
	통제집단	30	69.83	11.61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29	17.41	2.61	-0.026
	통제집단	30	17.43	3.08	
회복탄력성	실험집단	29	10.03	1.74	-0.789
	통제집단	30	10.40	1.81	
비공격성	실험집단	29	5.48	1.68	-0.462
	통제집단	30	5.70	1.91	
분노통제	실험집단	29	6.28	1.16	-0.550
	통제집단	30	6.47	1.48	
자기조절	실험집단	29	6.45	1.09	-0.585
	통제집단	30	6.63	1.33	
진로효능감	실험집단	29	19.10	3.51	-1.465
	통제집단	30	20.50	3.80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실험집단	29	3.00	0.93	1.124
	통제집단	30	2.70	1.12	

\* $p < .05$ , \*\* $p < .01$ 

다만 비공격성 지표에 대한 사전 검사에서 감지되었던 집단 간 차이가 사후 검사에서는 소실되었다. 이는 사전 검사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실험집단의 비공격성 점수가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일부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 (3) 프로그램 효과성 지표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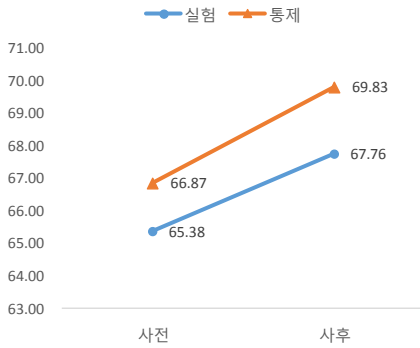
보다 엄밀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 사전 검사 결과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실시한 공분산분석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사이에는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4-17〉 효과성 평가지표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A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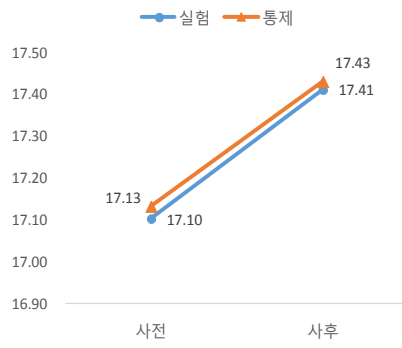
지표	변량원	전체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전체	공변량: 사전 역량 전체	3641.561	1	3641.561	73.391**
	주효과: 집단 (프로그램 참여 여부)	13.852	1	13.852	0.279
	오차	2729.035	55	49.619	
	전체	280787.000	58		
자아존중감	사전 자아존중감	238.011	1	238.011	59.110**
	프로그램 참여 여부	0.058	1	0.058	0.014
	오차	221.463	55	4.027	
	전체	17978.000	58		
회복탄력성	사전 회복탄력성	56.793	1	56.793	26.167**
	프로그램 참여 여부	4.136	1	4.136	1.906
	오차	119.372	55	2.170	
	전체	6201.000	58		
비공격성	사전 비공격성	56.437	1	56.437	24.474**
	프로그램 참여 여부	2.342	1	2.342	1.016
	오차	126.827	55	2.306	
	전체	2016.000	58		
분노통제	사전 분노통제	24.521	1	24.521	18.309**
	프로그램 참여 여부	2.779	1	2.779	2.075
	오차	73.660	55	1.339	
	전체	2434.000	58		
자기조절	사전 자기조절	35.064	1	35.064	39.465**
	프로그램 참여 여부	1.900	1	1.900	2.139
	오차	48.867	55	0.888	
	전체	2574.000	58		
진로효능감	사전 진로효능감	255.542	1	255.542	27.700**
	프로그램 참여 여부	3.378	1	3.378	0.366
	오차	507.387	55	9.225	
	전체	23631.000	58		
출원 후 자원서비스 인지	사전 출원 후 자원서비스 인지	6.566	1	6.566	6.721*
	프로그램 참여 여부	1.120	1	1.120	1.147
	오차	53.734	55	0.977	
	전체	531.000	58		

\*p&lt;.05, \*\*p&lt;.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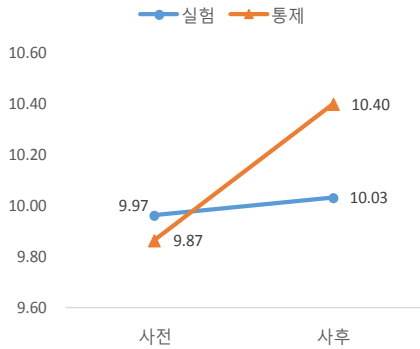
[그림 4-14]에서 [그림 4-21]에는 A소년원에서 실시한 시범 프로그램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가 각 지표별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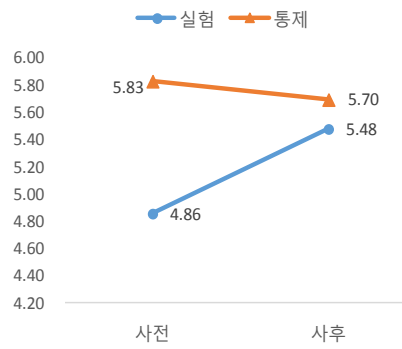
**[그림 4-14]** 효과성 평가지표(총합)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소년원)



**[그림 4-15]**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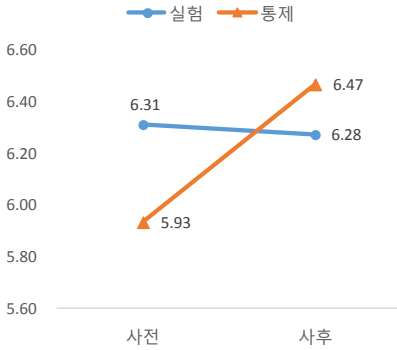


**[그림 4-16]** 회복탄력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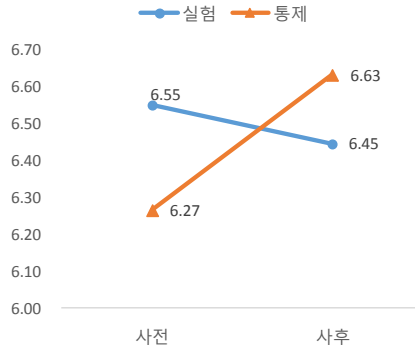


**[그림 4-17]** 비공격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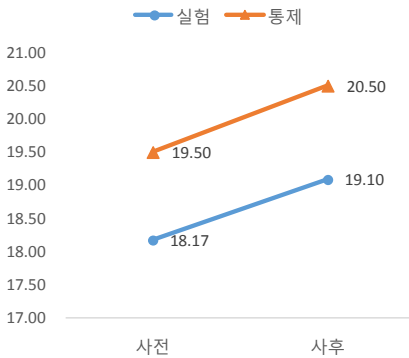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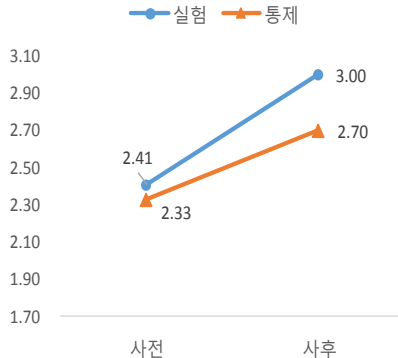
[그림 4-18] 분노통제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소년원)



[그림 4-19] 자기조절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소년원)



[그림 4-20] 진로효능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소년원)



[그림 4-21]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A소년원)

### 3) B소년원 대상 분석 결과

#### (1) 사전 측정치에 대한 집단 동질성 검사

〈표 4-18〉에는 B소년원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실시한 사전 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두 집단에 대해 차이 검증(t-test)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비공격성, 분노통제, 자기조절, 진로효능감 등 핵심지표를 비롯해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그리고 이를 총합한 효과성 평가 전체 지표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에 대해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동질한 집단임을 의미한다.

〈표 4-18〉 효과성 평가지표(전체 및 하위영역별) 사전 측정치와 집단 동질성 검증(B소년원)

지표	구분	N	사전		t
			평균	표준편차	
전체	실험집단	30	64.83	9.63	0.642
	통제집단	30	63.30	8.84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30	16.40	3.05	0.850
	통제집단	30	15.73	3.03	
회복탄력성	실험집단	30	10.00	1.93	1.108
	통제집단	30	9.47	1.80	
비공격성	실험집단	30	4.73	1.36	-1.318
	통제집단	30	5.23	1.57	
분노통제	실험집단	30	6.20	1.16	0.935
	통제집단	30	5.90	1.32	
자기조절	실험집단	30	6.50	1.20	1.447
	통제집단	30	6.03	1.30	
진로효능감	실험집단	30	18.67	3.58	0.154
	통제집단	30	18.53	3.14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실험집단	30	2.33	0.84	-.320
	통제집단	30	2.40	0.77	

\* $p < .05$ , \*\* $p < .01$

## (2) 사후 측정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이 같은 동질성 검사 결과를 근거로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4-19〉에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한 실험집단/통제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사후 검사에서는 비공격성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재원생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분노통제, 자기조절, 진로효능감,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수준에서 모두 더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상술한 지표들

의 총합으로 산출된 전체 점수도 더 높게 파악되었다(실험집단 평균 72.59 vs. 통제집단 평균 62.67,  $t=4.428$ ,  $p<.001$ ). 비공격성 경우에도 실험집단의 평균이 5.76점으로 통제집단의 평균(5.17)보다 더 높게 파악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4-19〉 효과성 평가지표 사후 측정치와 집단 간 차이 검증 (B소년원)

지표	구분	N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전체	실험집단	29	72.59	9.21	4.428**
	통제집단	30	62.67	7.97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29	17.59	2.87	2.326*
	통제집단	30	15.83	2.91	
회복탄력성	실험집단	29	10.86	1.55	3.038**
	통제집단	30	9.50	1.87	
비공격성	실험집단	29	5.76	1.99	1.334
	통제집단	30	5.17	1.34	
분노통제	실험집단	29	6.93	1.22	2.931**
	통제집단	30	6.03	1.13	
자기조절	실험집단	29	7.28	0.92	4.457**
	통제집단	30	6.10	1.09	
진로효능감	실험집단	29	20.93	3.12	4.149**
	통제집단	30	17.80	2.67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실험집단	29	3.24	0.87	4.582**
	통제집단	30	2.23	0.82	

\* $p<.05$ , \*\* $p<.01$

### (3) 프로그램 효과성 지표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표 4-20〉은 프로그램 참여 효과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사후 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공분산분석 결과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재원생들은 효과성 전체 지표를 비롯해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비공격성, 분노통제, 자기조절, 진로효능감 및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등 모든 지표에서 통제집단

에 비해 긍정적 수준을 보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이 비참여 소년원생들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분노통제, 자기조절, 진로효능감이 더 높고, 공격성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출원 후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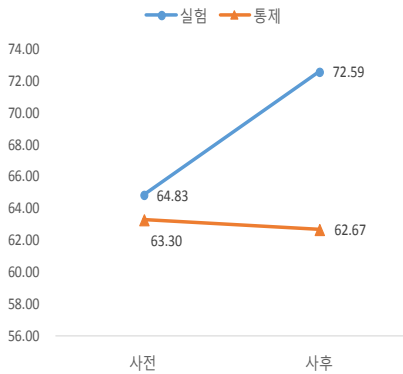
〈표 4-20〉 효과성 평가지표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B소년원)

지표	변량원	전체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전체	공변량: 사전 역량 전체	1826.230	1	1826.230	42.764**
	주효과: 집단 (프로그램 참여 여부)	1160.305	1	1160.305	27.170**
	오차	2391.471	56	42.705	
	전체	274825.000	59		
자아존중감	사전 자아존중감	318.923	1	318.923	112.837**
	프로그램 참여 여부	17.790	1	17.790	6.294*
	오차	158.278	56	2.826	
	전체	16967.000	59		
회복탄력성	사전 회복탄력성	83.971	1	83.971	55.337**
	프로그램 참여 여부	16.279	1	16.279	10.728**
	오차	84.977	56	1.517	
	전체	6298.000	59		
비공격성	사전 비공격성	32.626	1	32.626	13.963**
	프로그램 참여 여부	10.385	1	10.385	4.444*
	오차	130.851	56	2.337	
	전체	1926.000	59		
분노통제	사전 분노통제	9.283	1	9.283	7.475**
	프로그램 참여 여부	8.954	1	8.954	7.210**
	오차	69.546	56	1.242	
	전체	2564.000	59		
자기조절	사전 자기조절	13.609	1	13.609	16.980**
	프로그램 참여 여부	14.312	1	14.312	17.856**
	오차	44.884	56	0.801	
	전체	2710.000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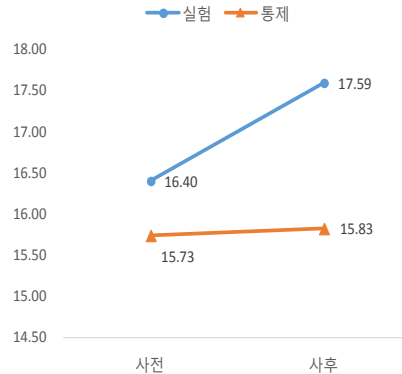
지표	변량원	전체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진로효능감	사전 진로효능감	154.792	1	154.792	26.765**
	프로그램 참여 여부	137.554	1	137.554	23.784**
	오차	323.870	56	5.783	
	전체	22689.000	59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사전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13.753	1	13.753	28.606**
	프로그램 참여 여부	15.971	1	15.971	33.220**
	오차	26.924	56	0.481	
	전체	495.000	59		

\* $p < .05$ , \*\* $p < .01$

[그림 4-22]부터 [그림 4-29]에는 B소년원에서 실시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평균 값 변화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든 지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전 검사 대비 사후 검사에서 효과성 평가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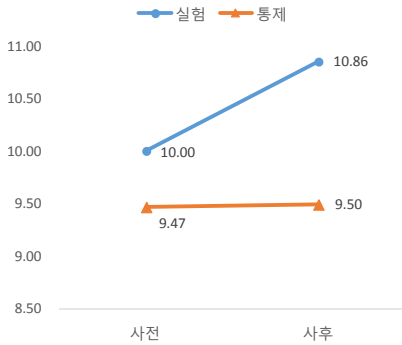


[그림 4-22] 효과성 평가지표(총합)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B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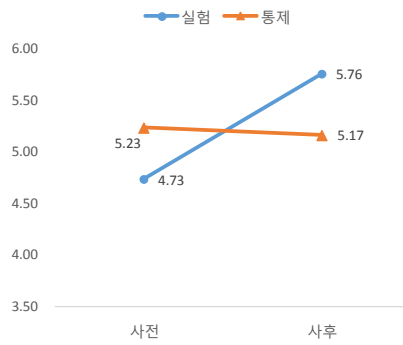


[그림 4-23]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B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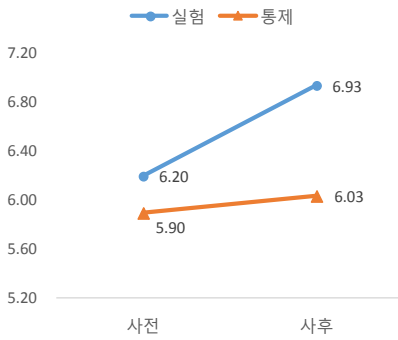
특히 비공격성 지표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는 통제집단이 더 높았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점수가 개선되어 양자 간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앞서 살펴본 t-test 및 공분산분석 결과는 이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임을 입증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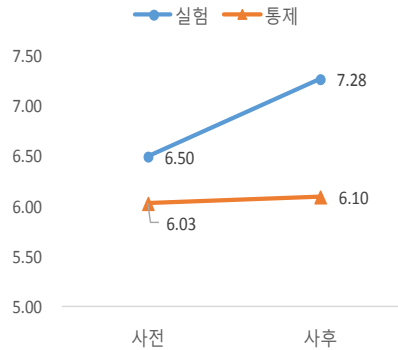
[그림 4-24] 회복탄력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B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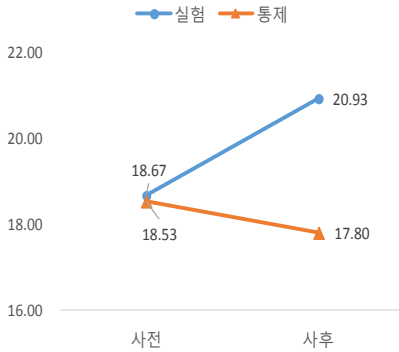
[그림 4-25] 비공격성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B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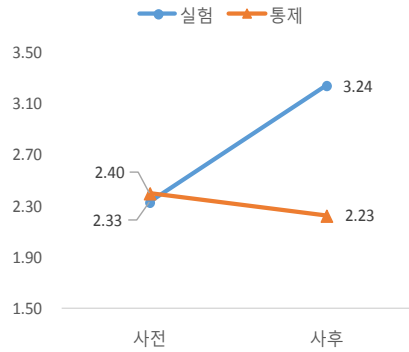
[그림 4-26] 분노통제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B소년원)



[그림 4-27] 자기조절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B소년원)



[그림 4-28] 진로효능감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B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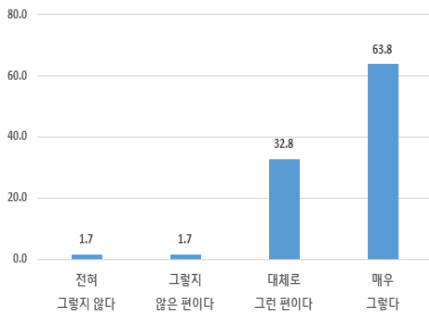
[그림 4-29]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B소년원)

#### 다. 만족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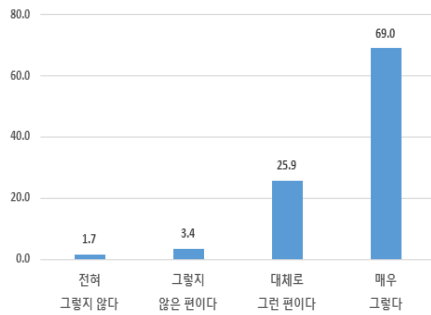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효과성 분석 외에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관적 효과 및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만족도 분석 결과 역시 전체 참가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소년원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전체 참가자

먼저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문항에 대해 참가자의 63.8%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32.8%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적으로 96.6%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그림 4-30 참조).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9.0%, '대체로 그런 편이다' 25.9%로 높게 파악되었다. 부정적 응답은 5.1%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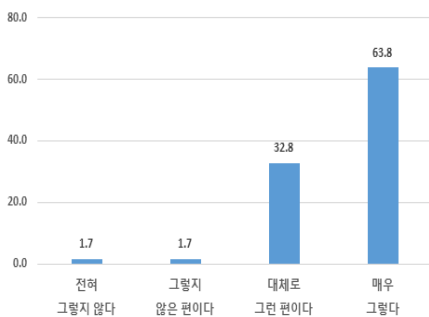


[그림 4-30]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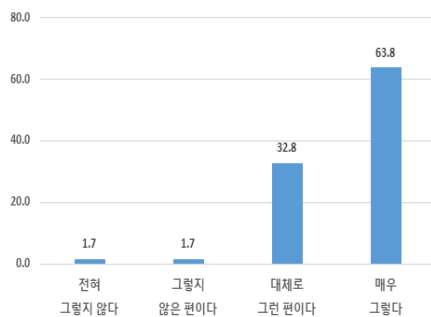


[그림 4-31]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단위: %)

‘이번 교육은 출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3.8%,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32.8%로 나타났다(그림 4-32 참조).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문항 역시 ‘매우 그렇다’ 63.8%, ‘대체로 그런 편이다’ 32.8%로 나타나, 긍정적 평가가 96.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그림 4-3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참가자 대부분이 출원 후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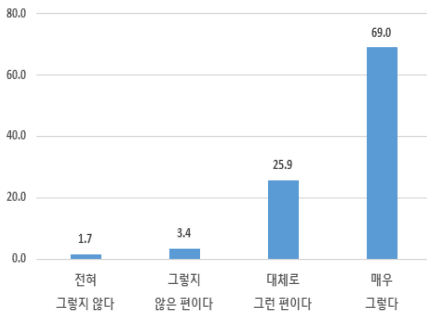
[그림 4-32] 이번 교육은 출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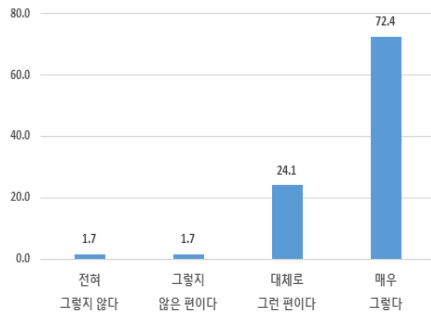
[그림 4-33]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위: %)



교육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묻는 문항의 경우,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나에게 중요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69.0%, ‘대체로 그런 편이다’ 25.9%로 긍정적 응답이 94.9%를 차지했다(그림 4-34 참조).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는 ‘매우 그렇다’ 72.4%, ‘대체로 그런 편이다’ 24.1%로 긍정적 응답이 96.5%로 파악되었다(그림 4-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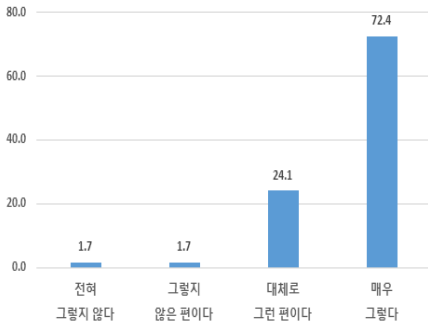


[그림 4-34]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나에게 중요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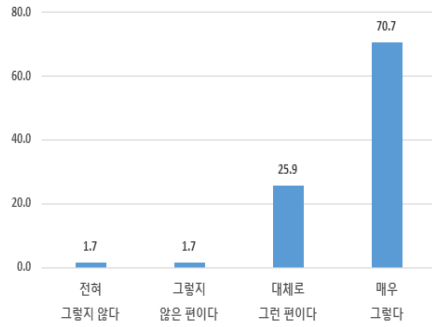


[그림 4-35]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 (단위: %)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질문에는 72.4%의 참가자들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도 24.1%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96.5%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그림 4-36 참조).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70.7%, ‘대체로 그런 편이다’ 25.9%로 긍정적 응답이 96.6%를 차지하였다(그림 4-37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내용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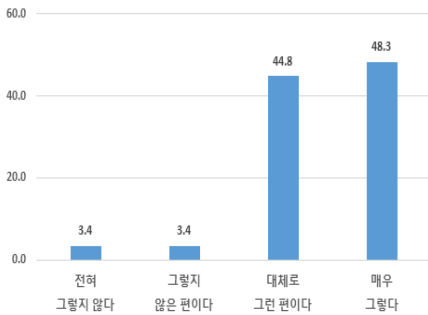
[그림 4-36]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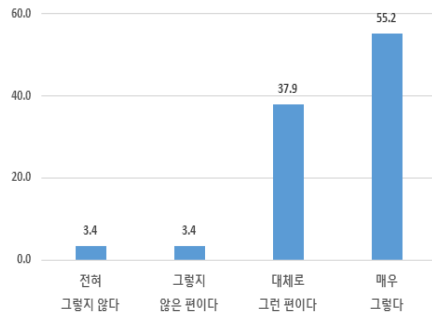
[그림 4-37]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 (단위: %)

## 2) A 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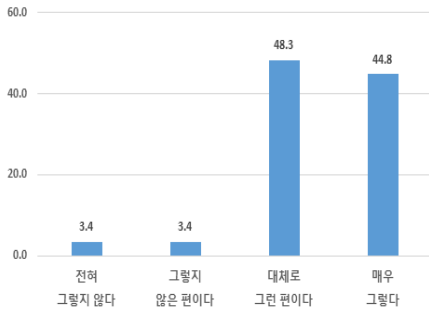
[그림 4-38]부터 [그림 4-45]에는 A소년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8개 항목에서 모두 긍정적 응답(대체로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 응답을 기준으로 하면, 앞서 살펴본 전체 응답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 비해 10~20%p 가량 낮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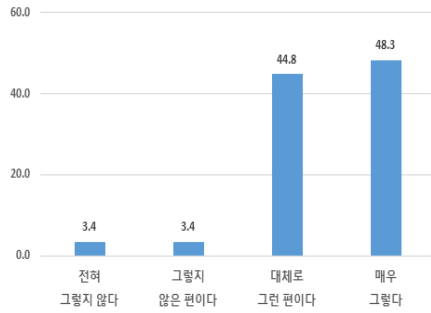
[그림 4-38]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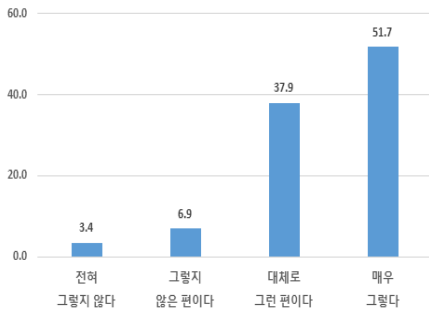
[그림 4-39]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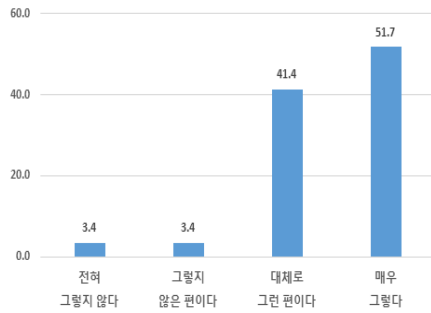
[그림 4-40] 이번 교육은 졸업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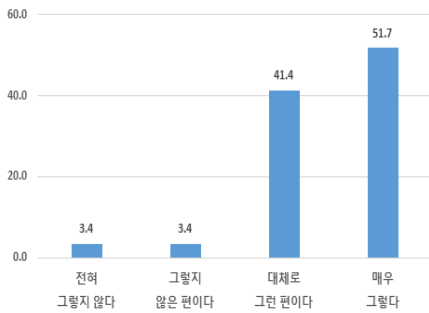
[그림 4-41] 이번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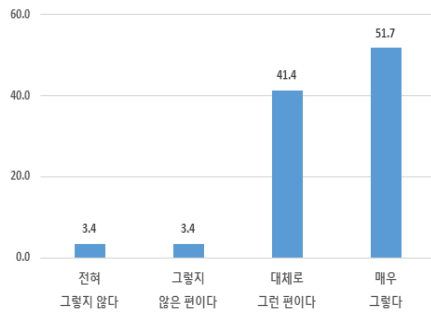
[그림 4-42]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나에게 중요했다 (단위: %)



[그림 4-43]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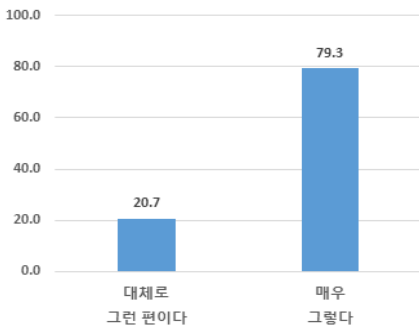
[그림 4-44]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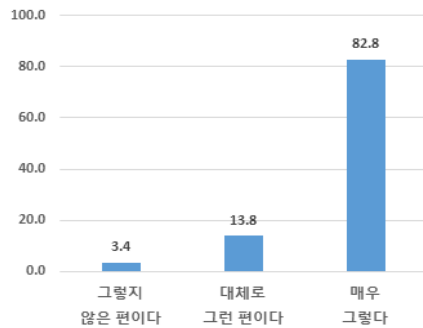
[그림 4-45]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 (단위: %)

3) B 소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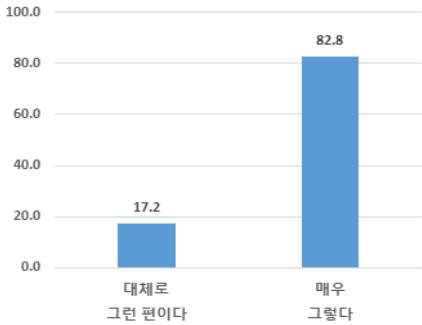
[그림 4-46]에서 [그림 4-53]에는 B소년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B소년원 참가자들은 A소년원 참가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대부분 항목에서 부정적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적 반응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79~93% 수준을 차지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 있었다',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3.1%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는 문항에도 89.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데도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적 반응이 82.8%를 차지했고, '이번 교육은 출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데도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소년원 재원생들이 출원 후 사회정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준비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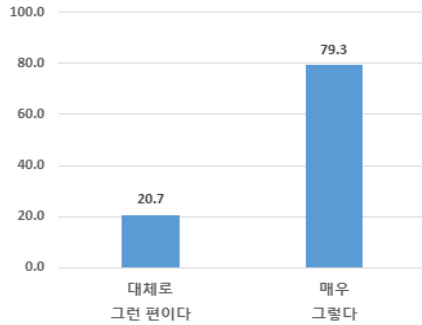
[그림 4-46]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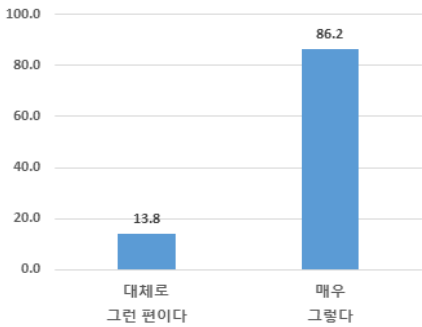
[그림 4-47]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스스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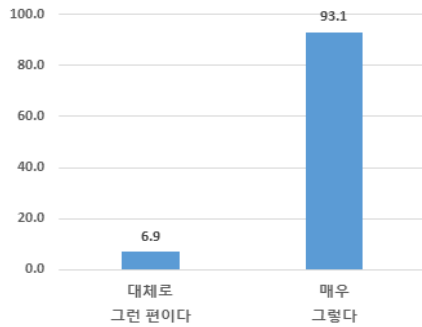
[그림 4-48] 이번 교육은 출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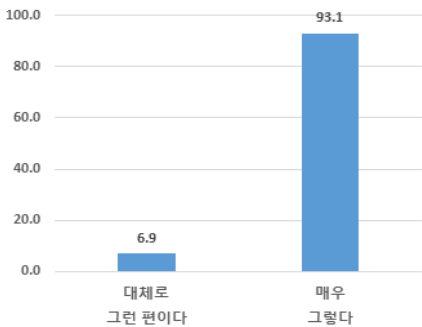
[그림 4-49] 이번 교육을 통해 출원 후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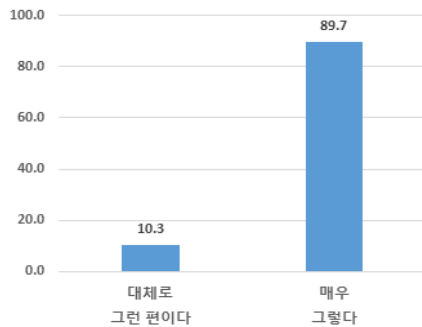
[그림 4-50]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나에게 중요했다 (단위: %)



[그림 4-51]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 (단위: %)



[그림 4-52]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 (단위: %)



[그림 4-53]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 (단위: %)

## 2. 면담조사 개요 및 분석 결과

### 가. 면담조사 개요

#### 1) 프로그램 참여 소년원생 및 소년원 인성교육 담당자 대상 면담조사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내용 개선 및 효과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범적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과 소년원의 인성교육 또는 사회복귀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년원생의 경우 소년원 내에서 이수했던 인성교육 프로그램 종류 및 그에 대한 만족도, 기존 인성교육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내용, 구성, 운영 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소년원 인성교육 또는 사회복귀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년원생의 반응 및 만족도에 대한 의견,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면담조사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4-21〉 면담조사 참여자

구분	소속	대상자	성별	연령 (만)	재원경력 (현재 처분명)	입원 이유
프로그램 참여자	A소년원	재원생A	남	19	2회(9호)	폭행
		재원생B	남	19	2회(9호)	절도
		재원생C	남	17	1회(9호)	보호관찰위반
		재원생D	남	18	2회(9호)	보호관찰위반
	B소년원	재원생E	여	15	1회(10호)	보호관찰위반
		재원생F	여	15	1회(10호)	보호관찰위반
		재원생G	여	21	2회(9호)	보호관찰위반
		재원생H	여	17	1회(9호)	보호관찰위반
소년원 인성교육/ 사회복귀반 담당자	A소년원	담당자A	남	40대	-	-
	B소년원	담당자B	여	30대	-	-

## 2) 전문가 대상 FGI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점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시범적용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강사를 대상으로는 표적집단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이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두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며,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시범적용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점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꿈드림센터 담당자 D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담당강사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반면, 담당강사 G는 꿈드림센터 담당자이면서 직접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년원생의 반응, 프로그램 운영과정 상의 어려움,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4-22〉 전문가 대상 FGI 참여자

대상자	성별	연령대	경력 <sup>20)</sup>	비고
프로그램 담당강사 A	여	40대	5년	B소년원 강의
프로그램 담당강사 B	여	40대	5년	B소년원 강의
프로그램 담당강사 C	여	50대	5년	B소년원 강의
꿈드림센터 담당자 D	남	30대	3년 8개월	B소년원 담당
프로그램 담당강사 E	여	20대	6개월	A소년원 강의
프로그램 담당강사 F	남	20대	6개월	A소년원 강의
꿈드림센터 담당자 G	남	30대	3년 6개월	A소년원 강의

## 나. 면담조사 분석 결과

### 1) 재원생 및 소년원 담당자 대상 면담조사 결과

먼저, 프로그램 시범적용에 참여했던 소년원생 8명과 소년원 인성교육 또는 사회복지관 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면담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면담내용 결과는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 ‘기존 인성교육 프

20) A~C 강사들의 경력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두드림 프로그램을 담당할 경력을 의미하며, 관련 프로그램 담당 경력은 약 10년에 이른다.

그럼과의 차이', '프로그램 개선 사항'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들의 '욕하는 성격', '인내심 부족', '불성실함' 등의 성격이나 태도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출원 후 이런 성격과 태도는 재범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고 꾸준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년원생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기간 동안 이러한 성격과 태도를 바꾸기를 원했다. 시범적용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년원생들은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도움이 되었던 내용 중 하나로 감정조절, 싸움을 피하는 대화 방법 등을 학습한 대인관계기술을 꼽았다.

연구자: 들었던 프로그램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재원생 A: 싸움을 피하는 대화방법.

재원생 B: 감정조절이요.

연구자: 왜 기억에 남아요?

재원생 A: 제가 사람이랑 싸우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피하려고 유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재원생 B: 저는 욕하는 성격이 있어서요.

재원생 H: 저는 화내고 막 욕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못하는 거랑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주고 하는 거요. (중략) (그래서) 저는 이제 대인관계 이런 거 의사소통하고 자기감정 컨트롤 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것 같아요)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출원 후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출원 후 자립을 계획하고 있는 재원생 G는 과거 본인이 했던 축구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코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세우게 된 새로운 진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대학진학을 원하는 재원생 F는 미래 설계Ⅱ(진학 모듈)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재원생 E의 지적대로 출원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원생 G: 제가 나가서 뭘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고. 좋아하는 걸 먼저 하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사실 축구를 했어가지고 초등학생 가르치는 코치?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거 준비해 보려고요.

재원생 E: 저는 출원 후 되게 막막한 그런 게 앞섰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깐. 근데 소년원에서 나가서도 꾸준히 향후 선생님들과 만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출원 후 사후지도? 그런 것도 알아봐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 거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정확히.

재원생 F: 저는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학과에 대한 정보 찾는 방법이에요.

연구자: 나중에 대학 진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재원생 F: 네. 저는 대학은 인생에서 꼭 한 번쯤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년원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재원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다. 그런데 검정고시 통과만으로는 사회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대학진학을 원하는 재원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취업모듈 대신 진학모듈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B소년원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사회복지반 담당자 B 역시 진로·진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재원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고 말했다.

담당자 B: 마지막 프로그램 내용 중에 진로나 검정고시 따고서 진학할 수 있는 과들. 중졸 고졸은 소년원에서는 취득하게 하니까 검정고시 취득 후 대학에 간다면 어떤 과가 있나 이런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직업도 우리가 많이 아는 직업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걸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저건 정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너희가 검정고시 취득하고 나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좋았어요.

(2) 기존 인성교육 프로그램과의 차이

시범적용에 참여했던 재원생들은 소년원에서 이수했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예로 각종 비행예방 교육을 열거하면서도 딱히 기억에 남는 교육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그나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성비행 예방교육이었는데, 재원생 E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원생 E: 저는 인성교육 중에 성비행 예방이 (기억나요). 근데 솔직히 저는 성 비행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남자애들도 그렇겠지. 그런 게 더 많고 강절도예방 보다는 저는 성비행 예방이 도움이 됐어요. 제 몸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깨우치게 되고....

시범적용이 이루어졌던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소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드림 프로그램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림 프로그램과 이번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수했던 소년원생들은 두 가지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반응했다.

재원생 A: 두드림은 꿈을 향해 실천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걸 사회에 나갔을 때 이로운 것들(을 가르쳐줘요). 두드림은 꿈 같은 거, 성격 같은 거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사회에 나갔을 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재원생 D: 이 프로그램이 다른 인성교육에 비해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나갈 때 맞춰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줘서 (도움이 됐어요).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잘 몰랐던 직업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재원생 H: 두드림은.. 뭐. 나가서 일자리를 가질 때 청소년들 노동 그런 거 배우고. 저축이나. 세상 살아가야 할 때 자립하거나 그런 것들 배우는 데. 이거(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는 나 자신의 성격 같은 거나 스트레스 그런 거 아니면  
화나 그런 거 절제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소년원생들은 이 프로그램이 출원 전 사회정착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감정조절이나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에 비해 두드림은 꿈을 갖는 것, 경제적 자립에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재원생 G는 두드림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의 차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출원 후 사회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었고, 출원 후 사회정착에 따르는 두려움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기존 프로그램에서  
는 주로 심리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대인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원생 G: 이번 거는 제가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마음에 와 닿게?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불어 넣어준 거 같아요.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제  
성격을 들여다보는 시간.

연구자: 성격을 들여다보는 건 두드림에서도 하나요?

재원생 G: 하긴 하는데, 살짝 달라요.

연구자: 어떻게 다른가요?

재원생 G: 자기에 대해 들여다보는 건 같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생활할 때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중략) 저는 일단 대인관계, 제 성격 그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 얘기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한 번 실험해 볼까?'  
싸움을 피하는 대화의 방법. 한 번 해보니깐. 진짜 '어! 달라지긴 하네.'  
제가 다르게 나오니깐 상대방도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 (3) 프로그램 개선 사항

시범적용에 참여했던 소년원생들은 프로그램 개선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해주었다.

#### (가) 회기별 시간 연장

소년원생들은 프로그램 내용 확대보다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A, B소년원 모두 시범적용은 총 12회기로 한 회기 당 약 50분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B소년원의 소년원생들은 강사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거나 상호작용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이유로 회기 당 시간을 50분보다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재원생 E: 일단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생님들이 저희가 있을 때 4명, 5명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음.. 약간 면담이 저희는 되게 필요해요. 깊은 곳에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 (나) 소년원생들의 참여 확대

A소년원에서는 프로그램이 좀 더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여타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게임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해 본 경험이 있는 소년원생들은 이 프로그램이 다소 정적인 활동(개인 활동지 작성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물론, 재원생 A는 소년원생들의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활동지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연구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있어요?

재원생 B: 좀 더 활동적으로요.

재원생 A: 이게 나이차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린애들은 활발하니까 앉아서 작성하는 걸 힘들어하고 지루해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앉아서 하는 게 편하니까.

## (다) 소년원 내 프로그램 배치와 운영의 문제

이번 프로그램의 시범적용은 A, B소년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시범적용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은 출원 전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경우, 프로그램을 언제 어떻게 배치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A소년원 사회복지반 담당자 A는 기본교육 기간 중에는 소년원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이수자 종료되고 사회복지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교육기간(10일) 동안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효율적일 것으로 제안하였다.

담당자 A: 소년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싸우기도 해서 징벌방에 가기도 하고, 재판 받으러 나가고 (프로그램에) 빠지게 되는 일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외부 제약이 없는 사회복지반 교육 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반면, B소년원 담당자 B는 사회복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10일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12회기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일부 소년원생도 사회정착 프로그램이 기본교육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담당자 B: 10일 교육 시간이 짧아요. 10일안에 들어야 하는 게 많아요. 이 수업이 12시간인데 배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반 10일을 늘릴 경우에는 가능한데, 10일 안에 그걸 다 하기에는 부족하다. 한 달 정도면 모르겠지만, 10일은 휴일 포함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원생 G: 저는요. 나가기 직전보다는 좀 나가기 전에 시간을 두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아무 생각 안하고 있다가 이걸 듣고. '아! 내가 이걸 할까?' '이렇게 해야 한다. 뭐 먼저..' 그런데 시간은 또 촉박해요. 곧 있음 나가는 데. '아 그냥. 하지말자.' 이래 버릴 수가 있으니까. 좀 기간 틈을 이렇게 쬐서 듣는 게...(좋은 것 같아요).

## 2) 전문가 FGI 분석 결과

### (1)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시범적용에 참여한 강사들은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영역 중 소년원생의 반응이 좋았던 내용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전 영역, 미래설계 영역을 꼽았다. 해당 영역에 대한 소년원생의 반응이 좋았던 것은 무엇보다 소년원생 스스로 자기이해,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출원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설계 영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시범적용을 담당했던 강사들은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이 사항들은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효과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로 간주할 수 있다.

#### (가) 처분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 별도 구성

A 소년원에서는 두 개 시범적용 반을 구성할 때 9호와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원생을 참여집단으로 함께 구성한 반면, B 소년원에서는 9호와 10호를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강사들은 9호와 10호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했다. 강사 F와 담당자 G는 처분에 따라 소년원생들 사이에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9호와 10호를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사 F: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호 애들까지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던 게 10호 애들이 훨씬 더 반항적이고 얘기도 듣지 않아서 진행이 훨씬 더 힘들었던 거 같아요.

담당자 G: 10호와 9호가 같이 섞여 있으면 9호 아이들이 주눅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9호, 10호 같이 섞여 있을 때보다는 10호끼리만 있을 때가 더 역동이 있어요.

강사 A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처분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범과 재범을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초범인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반면, 재범의 경우에는 비행의 반복성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사 A: 저는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초범은 초범들끼리 묶어서 하고 재범은 재범들끼리 묶어서 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게 되면 초범인 친구들을 골라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면 애네들이 나가서 재범하는 게 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희망을 본 거 같아요.

#### (나) 프로그램 참여 인원

A, B 소년원 모두 시범적용을 위한 참여집단 인원은 15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의 적정 수준이 남녀 소년원별로 상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소년원생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무조건 적은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

담당자 G에 따르면, 여자 소년원과 달리 남자 소년원의 경우 한 명의 강사가 5명(한 모둠당 인원)의 소년원생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를 근거로 A 소년원의 시범적용을 담당했던 담당자 G는 프로그램 참여 적정 인원을 15명보다는 10명 이하 수준으로, B 소년원의 담당자 D는 10~12명을 제안하였다.

담당자 G: 다섯 명의 남자 아이를 한 테이블에서 한 명의 교사가 돌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남자애들은 되게 부산스럽거든요. 집중도 잘 못하고, 그래서 모둠별로 세 명에서 네 명 정도 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10명 이하 정도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담당자 D: (여자 소년원에서는) 열다섯 명도 괜찮다고 생각은 드는데 한 열 명 정도로 해도 나쁘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열 명에서 열두 명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다) 소년원생의 요구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들은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소년원생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점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인식했다. 강사 C는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이 학박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서 진행되는 두드림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였다. 두드림 프로그램이 사회정착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경험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사회정착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와 의사소통 등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출원 후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강사 C: 두드림 프로그램은 진로동기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거를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꿈, 경제, 독립. 뭐 어쨌든 진로. 다시 또 계획 세우기 해서 쪽 한 번 훑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좀 뭔가 준비할 때 잘하지 않을까.'하는 프로그램이고,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보니깐 이거는 인간의 어떤 심성과 인성에 약간 중점을 두면서도 진로를 가미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정, 좀 의사소통을 잘못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갈등 때문에 여기(소년원) 와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거기에다가 진로를 완전히 떨어트릴 수는 없으니깐 진로도 가미해서 했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강사 A: 저희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사전 조사를 해서 아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걸 반영했어요. 욕구 충족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서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와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실하게 준비했던 거 같고. 저희가 성공적이었던 거는 맞춤형교육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성향에 맞게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기실 많은 프로그램에서 진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소년원생이 출원 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특히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년원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궁금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B 소년원에서 시범적용을 담당했던 강사



A와 C는 프로그램 운영 초반에 15명의 소년원생 각각의 진로 욕구를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진로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었다. 이처럼 소년원생의 욕구에 기초한 맞춤형 프로그램이야말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

강사 C: 진로에 대한 애들의 욕구가 그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깐, 사회에 나갈 때 아니면 여태까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부모로부터도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었잖아요. 또래들과 어떤 즐거움을 쫓다가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소년원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가끔 물어보는데 선생님들도 바쁘시니까 세세하게 알아봐주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 (라)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적용 시점

강사들은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A 소년원의 경우, 주 2회, 3주 동안 진행된 반면, B 소년원의 경우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사들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소년원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년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즉, 소년원의 여건에 따라 단기 집중적 운영 방식 또는 장기 분산적 운영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며, 운영 방식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히려 운영 방식 보다는 프로그램의 적용 시점, 즉 소년원생의 입원 초기에 진행하는 것과 출원 직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자기이해 및 자기조절과 진로에 관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자기이해와 자기조절에 중점을 둘 경우 소년원생이 입원하는 초기에 실시하여 자기조절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진로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출원 직전 진로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에 대한 준비가 높은 시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사 C: 이게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가 약간 달라요. 자기이해나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을 볼 때는 초반에 하는 게 좋고, 진로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출원하기 전에 했으면 좋고. 저희가 하다보니깐 애들이 진로에 너무 관심이 많고, 또 의사소통이나 인맥관리나 여러 가지 자기감정 다루는 것에도 관심이 많고, 지금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중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시기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아요.

#### (마) 강화물 제공

강사들은 소년원 내에서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강화물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소년원생 중 대다수는 입원 전 재학 중에도 장시간 수업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청소년들이다. 이 때문에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강화물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B 소년원에서 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을 관찰한 결과, 강사들은 분위기가 흐려지거나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아지는 즉시 강화물을 활용해 소년원생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 일반 학생과 달리 학습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이 부족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는 강화물의 활용이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강사 C: 간식 같은 것도 저희들이 풍족하게 제공하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발표를 잘 했어요.

### (2) 프로그램 개선 사항

#### (가) 회기당 시간 연장

A, B 소년원 모두 12회기(1회기당 50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범적용 과정에서 운영하였다. 그런데 소년원생 면담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강사들 역시 12회기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회기 당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강사 B: 제가 학생 한 명에게 뭐가 수정되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프로그램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소년원생들은 강사들과 충분한 상호작용과 관련 정보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러기에는 회기당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담당자 D는 소년원의 여건이 허락할 경우 20시간까지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일부 강사는 15시간 내외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현재 12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에 비해 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담당자 D: 회기를 늘린다고 보단 회기의 시간을 한 회기 당 두 시간씩 한다면 이렇게 좀 늘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아요. 최대 20시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 (나) 프로그램 내용 보완 및 수정

강사 A는 현재 6-1 미래 설계 II(진학 모듈)에 해당하는 내용을 출원 후 소년들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현재 진학모듈은 주로 대학진학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면접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소년원생들은 재원 기간 동안 대부분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므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소년원에서 중학교 과정 중에 있는 소년원생들은 출원 후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므로, 그들이 출원 후 진학할 수 있는 거주지 내 다양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나 입학 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강사 A: 현재 6-1 진학모듈이 세 가지잖아요.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모의 면접 이런 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오히려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하나는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는 지금 중학교 과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인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 영역에서 다루는 지인의 유혹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강사들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소년원생에게 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강사 A: 저희는 지인의 유혹에 대한 대처를 (수업 내용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사실 저희도 해 줄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정확한 답은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소스 정도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이거든요.

##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1차년에 개발한 소년원생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남자소년원 및 여자소년원을 각 1개씩 선정하여, 2018년 7~9월에 걸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실험집단)과 비참여집단(통제집단)을 동수(同數)로 배정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t-test와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효과와 프로그램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족도 조사도 별도로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의견과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 면담도 진행하였다.

효과성 분석 결과, 사회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핵심지표의 총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사전 점수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가 사회정착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지표별로는 비공격성, 진로효능감,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등에서 프로그램 참여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정착 프로그램이 “소년원생들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심리·사회적 역량을 기르고,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 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데 주요 목적”(박성훈 외, 2017: 344)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확인된 결과는 사회정착 프로그램이 실제 적용을 통해 이 같은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표 4-23〉 효과성 평가를 위한 공분산분석 결과 요약

구분	전체	소년원 구분	
		A소년원	B소년원
전체	○	-	○
자아존중감	-	-	○
회복탄력성	-	-	○
비공격성	○	-	○
공감능력	-	-	○
자기조절	-	-	○
진로효능감	○	-	○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	-	○

소년원생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정착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위해 진로효능감 등 진로 관련 역량을 기르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실제로 효과성 분석 결과에서도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며, 원하는 진로를 탐색해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등을 통해 알아본 ‘진로효능감’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도출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프로그램 시범적용에 참여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결과 분석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원 재원 기간 동안 ‘욱하는 성격’, ‘참여성과 인내심 부족’ 등을 변화시키고, 출원 후의 진로·직업 관련 정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소년원생들은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내용 중 감정조절, 싸움을 피하는 대화방법, 대학진학 관련 정보 등이 유용하다고 인식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정착 프로그램은 기존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사회정착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 자기탐색 및 자기조절을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고 실천하게 한다는 점, 출원 후 목표 수립 및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착 프로그램이 “소년원생들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심리·사회적 역량”과 “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 진로 목표를 설정”(박성훈 외, 2017: 344)하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 있음도 시사한다.

소년원생들은 프로그램 개선사항으로 프로그램 회기별 시간 연장(내용 증가가 아닌 회기 당 시간 연장)과 소년원생의 활동 참여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소년원 담당자들은 소년원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시범적용을 담당했던 강사들은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처분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 구성, 프로그램 참여 적정 인원, 소년원생의 요구수준 파악을 통한 맞춤형 내용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식(단기집중형 vs. 장기분산형), 적용시점(입원 초기 vs. 출원 직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프로그램 개선 사항으로 회기당 시간 연장,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및 수정사항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전체 21회기 프로그램 내용 중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효과성 분석에 포함되지 못해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회기들이 존재한다. A, B 소년원의 프로그램 시범적용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었던 회기는 1-1 자존감 향상, 4-1 휴대폰 개통, 집 계약하기, 4-2 은행계좌 개설하기, 세금 내기, 6-1-3 대입 전형을 위한 모의 면접, 6-2-2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의 권리, 6-2-3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 등이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소년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모듈식 구성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 회기 내용들을 12회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 시범적용 과정에서 A, B 소년원별로 전체 회기를 분배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해 볼 수 있었지만 소년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체 회기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시범적용 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회기 내용의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아 있다. 향후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경우, 효과성 분석에 포함되지 못했던 회기 내용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 론

박 성 훈





# 결론

## 제1절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사회재진입의 관점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검토와 출원 후 소년들의 실태를 종단적으로 연구하고자 기획된 연속과제이다. 2017년에 수행된 1차년 연구에서는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소년원 사회복지교육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자립생활관 및 Y.E.S.센터 등 소년원생의 사회재진입을 돕는 기관의 개선방안,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간 협력확대의 필요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018년에 수행된 2차년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경험적 측면에서 소년들의 사회정착과정을 추적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재범여부나 재범원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그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듯이 일부 소년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강력 사건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상당수 소년범죄자들은 엄연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이고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 혹은 재범의 시각에서만 소년범죄자를 바라볼 경우 이들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놓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생여정에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

상태이다. 소년범죄자 역시 범죄사실만 제외한다면 일반소년과 마찬가지로 친구관계, 가정문제, 학업문제, 진로문제, 건강문제, 경제적 원조 등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여 고민하고,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며,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거나 극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년범죄자를 청소년복지의 관점에서 혹은 교육발달의 관점에서 출원 이후 변화의 양상 및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재범여부나 재범원인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소년범죄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연구는 1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자에 적합한 조사설계를 기획하고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전공의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의 함의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 1. 1차 패널조사 결과

최근 패널종단조사는 범죄학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여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점점 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종단 조사를 통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패널조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조사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패널종단조사의 기획단계부터 법무부 정책실무가들과 꾸준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예비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설계 및 조사항목을 수차례 검토하였다.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패널종단조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 만기퇴원 및 임시퇴원 등 퇴원유형, 개인별로 다른 퇴원시기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사설계를 바탕으로 2차년 연구에서는 1차 표본으로 소년원생 553명, 보호관찰소년 463명을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이론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정착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인지/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와 부정적 변화(인지/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그리고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개인 내적 측면, 개인 간 상호작용 측면, 지역사회 측면)이 포함되었다.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내적 요인 중에서 소년원생의 자기통제, 도덕성, 일탈적 일상활동은

보호관찰소년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으나, 스트레스와 종교심은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보다 높았다. 따라서 소년원생의 개인내적 특성이 보호관찰소년보다 대체로 취약한 편이나 모든 부분에서 취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 간 상호작용 요인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부정적 낙인의 인식, 비행친구와의 관계에서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 개인 간 특성에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요인에서는 소년원생이 주로 생활하는 곳의 지역무질서 정도가 보호관찰소년이 생활하는 곳보다 심각한 경향을 보였고, 지역치안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정착관련 긍정적인 변화를 비교한 결과, 긍정적 정체성, 담당직원과의 애착, 저축, 이타적 행동, 타인과 잘 지내는 정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정도에서 보호관찰소년이 소년원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인지·정서·행동의 긍정적 측면에서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분노, 범죄유혹, 책임회피, 음주로 인한 문제, 흡연, 도박, 사이버일탈, 폭력행위, 성적일탈, 피해경험, 학대경험 등 대부분의 사회정착관련 부정적인 변화에서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보다 부정적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소년들의 특성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년들을 성별과 처분을 기준으로 네 개 집단(남자 소년원생, 여자 소년원생, 남자 보호관찰소년, 여자 보호관찰소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자기통제, 도덕성, 일탈적 일상활동 등 개인내적 특성과 부정적 낙인, 비행친구, 부모애착 등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모두에서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억제, 담당직원과의 애착, 책임인정, 저축, 이타적 행동, 타인과 잘 지냄, 가족과 함께 함 등 사회정착의 긍정적 변화요인과 분노, 우울, 범죄유혹, 음주로 인한 문제, 흡연, 폭력행위, 피해경험, 학대경험 등 부정적 변화요인에서 여자 소년원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결국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보다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여자 소년원생일수록 개인적·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위험 및 보호요인이 사회정착 변화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지/정서적 측면에서 소년원생의 긍정적 변화는 스트레스, 종교심, 도덕성 등 개인 내적

특성,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지역사회 특성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애착은 소년원생의 부적감정 억제, 사회적 지지, 책임인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애착과 아울러 종교심과 도덕성은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인지/정서적 측면에서 소년원생의 부정적 변화는 자기통제, 스트레스, 종교심, 도덕성, 부정적 낙인, 지역치안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자기통제의 경우 소년원생들의 분노, 우울, 범죄유혹을 감소시켰다. 행동 측면의 부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역시 자기통제, 스트레스, 일탈적 일상활동, 종교심, 부모애착, 부정적 낙인, 비행친구, 지역무질서로 나타나, 개인 내적 요인을 비롯해 개인 간 상호작용 요인, 지역사회 요인이 모두 부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홉째, 사회연결망요인과 관련해서는 소년원생이 보호관찰소년에 비해 친구·애인·선후배 등 교우관계의 비중이 다른 관계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거주지 측면에서는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 모두 유사성(similarity) 경향을 보였다.

열 번째, 연결망속성과 연결망형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연결정도, 연결밀도가 높았다. 반면 여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다른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중개자역할이 높게 나타났다. 관계유형의 측면에서 소년원생의 경우 친구나 가족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연결정도와 연결밀도가 높은 반면, 친구-가족-선생님 등 고른 형태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중개자역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보호관찰소년에서는 관계유형에 따라 연결망형태의 차이가 뚜렷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 2. 보호소년 유형화

이번 연구에서는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을 포함한 보호소년이 단일한 집단이 아닌 이질적인 집단임을 전제로 보호소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보호소년의 이질성에 근거한 유형화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맞춤형된 처우의 방향을 알려주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호소년의 유형화는 보호소년의 이질성을

전제로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의 유형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유형화에 따른 특성 차이를 비교하며, 정책적으로 경험적 분석에 근거한 맞춤형 분류처우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앞서 패널종단조사를 통해 수집된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정착관련 요인과 위험 및 보호요인에 더해 유형화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 행동 평가척도(Youth Self Report)를 추가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변인-중심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과 달리 개인-중심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에 기초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은 겉으로는 잘 관찰되지 않는 집단 내 이질성을 규명하는데 적합한 분석도구로서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하위집단을 발견해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생과 보호관찰소년 모두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정 집단'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수준이 모두 낮았으며,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주요 지표들도 양호한 편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주로 규칙위반 행동과 공격행동이 두드러졌으며 내재화 문제 수준은 낮았다. 세 번째 유형은 '혼합-불안정 집단'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수준이 모두 높고,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주요 지표들이 매우 부정적이며, 상대적으로 여자소년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둘째, 소년원생의 유형화 결과를 보면, 가장 고위험에 속하는 혼합-불안정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이 35.7%로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혼합-불안정 유형의 대상자들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처우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보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호자의 지도감독이 부족해 사회정착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혼합-불안정 유형의 경우 대상자 뿐 아니라 보호자의 보호력 회복을 위한 개입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소년원생 중에서 외현화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는 46.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은 변화의지 측면에서 혼합-불안정 유형과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외현화 집단의 소년원생에게는 공격적인 행동문제에 대한 치료와 함께 변화의지의 증진을 위한 동기화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소년원생 중에서 안정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는 18.1%로 적지 않은 소년들이 여러 지표에서 안정적 성향을 보였다. 안정집단의 소년원생은 문제행동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되는 위험요인의 수준도 낮기 때문에 사회정착 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소년원에서는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안정 집단에 속하는 소년들이 나머지 두 유형의 소년들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받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타당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다섯째, 보호소년의 유형화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각 유형별 남녀의 구성 비율이다. 안정 집단과 외현화 집단이 대부분 남자소년으로 구성되는 것에 비해 혼합-불안정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자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여자 소년원생이 남자 소년원생보다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되는 주요 지표들 역시 남자 소년원생보다 좋지 않게 나타났다. 유형화와 성별 차이를 함께 고려한다면, 혼합-불안정 유형에 속한 여자소년들에 대한 개별 처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소년에 대한 유형화 역시 소년원생의 유형화와 비슷하였으나 유형별 비율은 조금씩 달랐다. 즉, 외현화 집단에 속하는 소년이 51.4%로 소년원생(46.2%)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고, 안정 집단에 속하는 소년 역시 37.6%로 소년원생(18.1%)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혼합-불안정 유형에 속하는 소년이 9.9%로 소년원생(35.7%)보다는 적었으나, 이들은 소년원집단의 혼합-불안정 유형에 속하는 소년보다 내재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였다. 변화의지나 자기가치 측면에서도 소년원집단의 혼합-불안정 유형과 비교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자신에 대한 유능감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내 처우를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도 혼합-불안정에 속하는 소년원생 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보호관찰소년이 있음을 말해준다.

### 3. 사회정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효과성 평가는 1차년 연구에 개발했던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검토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평가모형 중에서도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모형 중 반응평가와 학습평가를 적용하여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지표’와 프로그램 전반의 교육목표를 포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측정지표에는 ① 자기이해 및 탐색 영역 중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 ② 의사소통·대인관계 기술 영역에서는 공격성/분노통제 및 공감능력, ③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에서는 긍정적 관계유지와 자기조절, ④ 경제관리·경제교육 중 경제지식, 경제관념, ⑤ 미래 설계 I(꿈·비전 설계) 영역 중 진로의식, 진로효능감, ⑥ 미래 설계 II(진학 준비·취업 준비) 영역 중 직업가치, 근로보호 관련 지식, ⑦ 출원 후 정보제공 및 수료식 영역 중 출원 지원 서비스 인지, 주관적 효과 및 교육만족도가 포함되었다. 한편, 핵심지표에는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대인관계역량, 자기조절, 진로효능감,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주관적 효과 및 교육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실험설계를 적용하였다.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남자소년원 및 여자소년원 각각 1곳씩 총 2곳에서 전문강사의 진행에 따라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실험집단)과 비참여집단(통제집단)을 각 30명씩 배정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은 공분산분석(ANCOVA)을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인식한 프로그램의 주관적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양적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들과 소년원 내 담당직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평가지표 총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사전 점수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그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가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평가지표 중 비공격성, 진로효능감,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등에서 프로그램 참여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소년원별로 구분하여 효과성을 확인한 결과, A소년원(남자)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사이에는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B소년원(여자)은 전체 지표를 비롯해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비공격성, 분노통제, 자기조절, 진로효능감, 출원 후 지원서비스 인지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수준을 나타냈고, 두 집단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셋째, 만족도 분석 결과 두 소년원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교육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나에게 유용했다', '이번 교육을 받은 게 즐겁고 재미있었다' 등 교육내용과 관련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넷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결과에서도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정착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를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게 한다는 점, 출원 이후 목표 수립 및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프로그램이 목표로 했던 대인관계 향상, 진로목표 설정 등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소년원생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사회정착프로그램의 개선 사항으로 소년들은 프로그램 회기 당 충분한 시간 보장, 활동중심의 내용 보강을, 소년원 담당자들은 소년원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합리적 배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강사들은 처분에 따른 참여자 구성, 적정 참여인원의 배정, 참여자 특성에 맞는 내용 구성, 소년원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의 다양화, 현실을 반영한 일부 내용의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 제2절 정책적 함의

### 1. 패널조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 가. 여자 소년원생에 대한 집중 처우

소년원생과 보호관찰대상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 사회정착관련 변화요인 및 위험·보호요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자 소년원생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자 소년원생일수록 긍정적인 특성인 자기통제와 도덕성이 낮은 경향을, 부정적인 특성인 일탈적 일상활동은 오히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인지/정서적 특성이나 음주로 인한 문제, 흡연, 폭력, 경고/주의경험 등 부정적 행동 특성에서도 여자 소년원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자 보호관찰대상자가 분노, 우울, 책임회피, 음주로 인한 문제, 폭력행위, 성적일탈, 범죄피해경험, 학대경험, 경고/주의 여부에서 가장 낮았다. 연결망 분석에서도 여자 소년원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연결망 내에서 비행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생에 대한 유형화 결과에서도 안정 집단이나 외현화 집단과 비교해 혼합-불안정 집단에서 남자 소년원생보다는 여자 소년원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번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여자 소년원생의 개인적·환경적 취약성은 여자 소년원생에 대한 집중적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자 소년범의 경우 남자 소년범에 비해 정신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범죄경험과 정신장애는 위험한 성행동이나 조기 임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를 통해 다음 세대까지 나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도 여자 소년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수용방침이 존재하며, 출원 이후 여자 소년들을 위한 자립생활관도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자 소년원생이 개인적·환경적 특성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개입은 현재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사회정착프로그램이 남자 소년원생보다는 여자 소년원생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남자 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자 소년들에게 사회정착프로그램이 작은 지푸라기처럼 유용한 정보제공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게 했다고 평가된 점은 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나. 관계유형의 특성에 따른 개별 처우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소년원생은 성별, 거주지별, 관계유형에서 유사성(similarity) 경향을 보였다. 즉,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같은 동네사람끼리, 가족이나 선생님 같은 어른보다는 친구끼리 더 가깝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계속성이 아닌 관계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 소년일수록 연결정도와 연결밀도가 높은 반면에 여자 소년일수록 중개자역할이 높았다. 즉, 남자 소년일수록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대부분 친구들)끼리도 가깝고 서로 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여자 소년들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아는 경우는 많지 않고 연결망 내에서 자신을 통해야만 서로 알 수 있는 관계유형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자 소년은 여자 소년과 비교해 같은 동네에서 연결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친구중심의 연결망을 가진 소년원생일수록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행유혹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며, 같은 동네보다는 먼 동네에 사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나 범죄학 이론에서도 비행친구들과 교류가 범죄의 시작이나 재범여부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소년원에서 나온 임시퇴원자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이외의 원거리에 살고 있는 교우관계까지 파악하고 이들과의 접촉여부나 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다. 정신건강 고위험자에 대한 치료 처우

보호소년의 유형화 분석 결과, 소년원의 혼합-불안정 유형에 속한 소년일수록 DSM 반항행동문제는 준임상 수준 이상, DSM 품행문제는 임상 수준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정신병리적 증상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보호관찰소의 혼합-불안정 유형

역시 DSM 반항행동문제는 준임상 수준에 근접, DSM 품행문제는 준임상 수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보호관찰소의 혼합-불안정 유형에 속한 소년들은 DSM 정서문제, DSM 신체화문제 또한 준임상 이상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소의 혼합-불안정에 속한 소년일수록 과소 통제된 외현화 문제는 물론 과잉 통제된 내면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소년원 내 정신질환에 관한 연구(권수진·유진, 2016)에 따르면, 소년원 내 정신질환은 소년원 집단생활에서 오는 부적응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수의 소년원생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 소년사법체계에서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들은 7호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질환·장애가 있는 소년들이 모두 7호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중증이 아닌 경계선에 있어 일반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경우 효과적인 처우를 기대하기 어렵다(권수진·유진, 2016: 53). 물론 소년원 차원에서도 심신건강회복반 등을 운영하면서 심리상담 치료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개입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이나 예산도 충분히 확보된 것은 아니다(권수진·유진, 2016: 56).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임시퇴원자의 경우 소년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의 심각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동반된 혼합-불안정 유형에 속한 소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

#### 라. 보호자 및 가족의 보호력 회복을 위한 개입

소년원생 중에서도 혼합-불안정에 속한 소년들은 여러 지표에서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보호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출원 후에도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혼합-불안정 유형에 속한 소년원생일수록 개인의 부정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치료적 개입과 더불어 보호자에 대한 개입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가족에 대한 통합적 개입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오레곤 대학교 Social Learning Center에서 개발한 Treatment Foster Care in Oregon(TFCO)은 오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개발된 소년범죄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TFCO 프로그램은 패터슨(Gerald R. Patterson)과 동료들이 제시한 ‘강압적 가정(coercive family)’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아이들의 가치관과 행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학습하게 되는데, 자녀에 대해 강압적 양육태도를 가진 보호자 밑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보호자에 대해 똑같은 강압적 반응을 보이고, 자녀의 강압적 반응이 커질수록 보호자 역시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TFCO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가족문제, 특히 자녀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Akers, 2017: 109).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접 오레곤 주에 위치한 TFCO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sup>21)</sup> TFCO 측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미국 7개 주를 비롯해 영국, 호주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TFCO는 소년범죄자가 가족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보호자 혹은 다른 가족들이 이들에 대해 효과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TFCO는 소년에게는 적합한 위탁 가정과 멘토 등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스스로 개선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매일 단위로 일상생활을 규칙화하며, 비행친구들과 만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들과는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측면이나 학습측면의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는 가족에 대한 개입도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와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사, 관계기술 트레이너, 정신건강 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온전히 1명의 소년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협력한다. TFCO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원이 충분히 발굴되고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TFCO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소년범죄자 뿐 아니라 가족의 보호력 회복을 위해서는 소년의 보호자를

21) TFCO를 방문한 내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연수·출장보고 중 연구진이 작성한 “미국 TFCO(Treatment Foster Care Oregon), 민영/주립 소년원 방문(2018, 박성훈·조영오)” 출장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문의 TFCO에 관한 내용은 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적극적으로 처우 범위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가정 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적 가족치료가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

#### 마. 소년보호관찰 분류와 처우의 연계

이번 연구는 소년범죄자들이 단일한 집단이 아닌 다양한 이질성에 기초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과학적인 분류기법에 근거하여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소년원생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은 물론 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특성을 고려한 유형화는 출원 후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처우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소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은 물론 지역사회 재통합에 필요한 보호요인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우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소년의 유형화 분석은 입시퇴원자를 포함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분류체계의 마련과 재범예방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사회정착을 위한 처우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보호소년의 이질성 파악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 현장에서는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대상자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나, 보호소년의 분류를 현재와 같이 재범위험성으로만 평가하기보다 실제적 문제행동 수준, 그와 연관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소년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처우계획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 현장에서는 분류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처우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유형화의 변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개별 소년들에게 보다 적합한 처우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혼합-불안정 유형에 속한 소년은 보호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불안정한 생활방식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교육, 준법의식 제고와 변화의지 증진을 위한 체험교육, 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치료 등 개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듈식으로 처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보호소년의 분류와 처우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 및 처우계획의 효과성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 바. 소년원과 소년보호관찰의 연계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소년원생을 둘러싼 보호기관 및 민간기관 간에 소년에 관한 정보공유, 처우계획 및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할 협의체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년범죄자 분류, 생활지도, 처우계획수립,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소년보호기관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문제, 지역적 거리, 부족한 인력, 사법기관에 대한 강한 거부감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국가기관 간에 정보공유는 가능하나 처우 및 지원을 함께 고민할 만한 협의체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수행 중 연구진은 미국 뉴욕주의 폐쇄형 소년원(Industry Residential Center)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sup>22)</sup> 이곳에서 소년처우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팀 접근법(team approach)’으로 소년범죄와 관련된 교육기관, 가정, 시설 내·외 소년기관, 의료기관이 함께 일을 해 나갔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소년들이 사회 내 처우 혹은 시설 내 처우를 받거나 상관없이 소년원 담당자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관찰관 같은 역할의 CMSO(Community Multi-Services Offices)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한다는 사실이다. 소년이 시설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CMSO 직원이 시설로 찾아와 소년처우에 대하여 소년원 담당자와 논의하고, 소년이 시설에서 나와 사회 내 처우로 처분이 바뀌더라도 소년원 담당자가 밖으로 나가 CMSO 직원과 소년처우에 대하여 상의한다는 것이다. 1인당 담당하는 소년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소년원과 보호관찰 간 교차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전문영역에서 상호협조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담당자에 따르면, 소년판사의 경우 소년의 처분을 결정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소년의 변화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분을 변경하기

22) IRC에 관한 내용은 앞의 출장보고서(박성훈·조영오, 2018)를 참고하였다.

도 하였다. 미국의 소년원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소년처우에 있어 한 명의 소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소년에 대한 정보 및 상태를 공유하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 2. 효과성 평가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

### 가.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

이번 연구는 1차년에 개발된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실제로 소년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중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소년원생의 연령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학교 수준의 소년원생들은 출원 후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므로, 거주지 인근의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배우는 내용, 향후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소년원생에게는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진학 가능한 대학 및 학과 정보 등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정착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이 강점 관점(strength perspective)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소년원생들은 출원에 대한 동경과 함께 두려움도 크다. 이러한 양가적 감정이 뒤섞여 있는 소년원생에게 교육내용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출원 후 바뀌지 않은 환경이나 생활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범적용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교육내용이 출원 이후 목표 수립과 실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년들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소년원 담당자들 역시 사회정착프로그램이 소년들이 알고 싶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뿐 아니라 강점 관점에 기반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했다. 부정적

측면을 억제하는 교육내용보다는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정착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천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강점(strength)을 가지고 있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관점(천정웅 외, 2010: 17)에 기초한 프로그램 내용이 소년원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 나.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중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소년원 재원기간 동안 사회정착프로그램의 적용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정착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은 A소년원 경우 주 2회(회당 2회기)씩 3주 간 총 12회기로 진행하였고, B소년원은 3일 간 집중적으로(1일 4회기) 총 12회기로 진행하였다. 이처럼 시범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은 소년원 내부 교육 상황과 일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들에 따르면, 단기 집중형 또는 장기 분산형 프로그램 진행이 프로그램의 효과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강사들은 프로그램의 적용시점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큰 특징은 전반부에 자기이해와 탐색,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등 심리·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위치해 있고, 후반부에 출원 후 미래설계 및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년원생의 요구나 소년원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소년들이 긴장하고 적응에 많은 시간을 쏟는 입원 초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 혹은 진로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한 출원 직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정착프로그램의 수업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사회정착프로그램의 시범적용은 회기 당 50분 씩 총 12회기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소년원생 대상 심층면접 결과, 프로그램 내용을 소년원생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데 12시간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의 부족에 대한 인식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강사



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소년원생의 발표와 참여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총 수업시간을 15시간~18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일정에 프로그램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정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은 적어도 다른 교육일정으로 인해 사회정착프로그램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수업참여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소년원생의 요구 및 소년원의 필요에 따라 반복적, 주기적으로 전달할 내용과 일회적으로 전달할 내용을 구분해 운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자기이해 및 탐색 영역,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 영역은 소년원생에게 반복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정조절이나 긍정적 생활태도 등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해 볼 수 있다. 시범적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필요성 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경제관리 및 경제교육, 출원 후 정보 제공과 같이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둔 영역의 경우에는 일회성, 단발성 교육으로 실시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소년원의 상황과 소년원생을 위한 교육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영역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구성과 적정 인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들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참여자 구성 시 동일한 처분을 받은 소년들로 참여자를 구성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학습 효과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9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과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섞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서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수업 당 참여인원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범운영 결과, 여자 소년들 경우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참여도가 높은 반면, 남자 소년들은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강사들은 여자 소년원의 경우 10~12명(모듬당 3~4명)이 적절한 반면, 남자 소년원의 경우 10명 이하(모듬 당 3~4명)가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프로그램 진행 시 최선의 학습효과를 위해 적합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 결과, 소년원 담당자들은 대체로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효과성 및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소년원 인성교육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처분별로 인성교육이 구체화·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소년원 여건에 맞게 편의적·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에 대한 점검과 보완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또는 교수자료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전달하는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의 활용 및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는 교육방법의 적용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교수자료의 활용,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의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소년원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외부와의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년원 인성교육 시 인터넷 접속을 통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 다행히 이번 시범적용에서는 소년원의 협조를 얻어 동영상 활용이 가능하였는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화물(간식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프로그램 효과를 제고하는 데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정착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할 경우,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강화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 다. 프로그램 전문강사의 확보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교수자의 역량과 전문성은 프로그램 만족도와 효과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프로그램 담당 강사들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요구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강사들은 모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의 전문가들이기는 하였으나 A소년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들은 두드림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소년원 내 프로그램 담당 경력이 1년 미만이었 던 반면, B소년원 강사들의 경력은 두드림 프로그램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비행경

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경력은 10년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경력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결과, 대체로 B소년원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강사들의 역량과 열의에 따른 차이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 만족도와 효과성은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체는 강사이므로 교수자의 역량이야말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달리 비행경험이 있고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수자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하다. 소년원생에 적합한 전문적 교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사전적 지식과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학습자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교수법도 요구된다. 향후 사회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별도의 교육과 정기적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전문강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 소년원과 전문강사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등이 요구된다.

#### 라. 사회정착프로그램 최종안 및 활용예시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정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소년원생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사회정착프로그램은 ‘미래설계Ⅱ(진학 모듈)’ 내용을 소년원생의 진로 욕구를 고려하여 현실화하였다. 수정 전 프로그램에서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소년원생을 위해 대학 및 학과 정보 제공, 대입전형에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년원생 중 일부는 중학교 과정 중이면서 출원 후 고등학교 진학을 계획 중에 있고, 다른 일부는 고졸 검정고시를 활용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소년원에서 중학교 과정 또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거나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소년들에게는 학업을 지속하는 방법과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회기 내용을 수정하였다.

〈표 5-1〉 소년원생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최종안

영역	구분	세부내용
1. 자기이해 및 탐색	1-1	• 자존감 향상
	1-2	•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2. 의사소통 · 대인관계 기술	2-1	• 내가 가진 다양한 감정 파악하기 & 분노의 원인 이해하기 - 내 안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분노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해보기 - 분노를 다스리는 자기 대화
	2-2	• 감정조절 방법 - 배려, 공감, 경청 -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감사 표현하기 등
	2-3	• 입장 바꿔보기 -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하기 - 피해자 연습 해보기
	2-4	• 싸움을 피하는 대화 방법 -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응하는 방법 -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하는 방법
3. 사회적 관계의 영향 파악하기	3-1	•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 인맥지도 만들기, 감정선 그려보기 등 -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지속할 수 있는 방법
	3-2	• 지인의 유혹에 대한 대처
4. 경제관리 · 경제 교육	4-1	• 핸드폰 개통, 집 계약하기
	4-2	• 은행계좌 개설하기, 세금 내기 등
	4-3	• 핸드폰 명의도용의 유혹, 보이스 피싱, 불법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위험 등 출원 후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이해하기
5. 미래 설계 I (꿈&비전 설계)	5-1	• 내가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 꿈 찾아보기 - 진로 설계, 진로 고민의 중요성 - 왜 좀 더 바람직한 꿈을 꾸어야 하는가
	5-2	•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생활 태도 & 생활 관리 - 습관화 된 게임이나 무기력 극복 방법
6-1. 미래 설계 II (진학 모듈)	<b>진학 모듈 (변경)</b>	
	6-1-1	• <b>학업을 지속하는 방법</b> - 검정고시로 학력 취득 및 대학 진학하는 방법
	6-1-2	• <b>고등학교 진학 정보 찾기</b> -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 안내 및 내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 관련 정보 찾기
	6-1-3	• <b>대학 진학 정보 찾기</b> - 다양한 대학 유형 안내 및 내 진로에 맞는 대학 및 학과 정보 찾기

영역	구분	세부내용
6-2. 미래 설계 II (취업 모듈)	사회진출 모듈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노동/근로를 해야 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li> <li>- 구직 후 금방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li> </ul>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amp; 근로자의 권리</li> <li>- 계약서 샘플 작성해보기</li> <li>- 모의 면접</li> </ul>
	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li> </ul>
7. 출원 후 정보 제공/수료식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원 후 지원서비스 및 관련 정보</li> </ul>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료식 (케이스에 담긴 수료증 수여)</li> </ul>

앞서 언급한 대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진행시간과 관련하여 대체로 12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대안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할 때, 15~18시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유의할 점은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을 늘리면서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내용은 유지하되 해당 차시에 배정하는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회기 당 50분 기준으로 개발한 1차시 분량은 유지하되 수업마다 실제 적용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 수업 시 소년들의 적극적 참여와 발표가 이루어질 때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대되고 만족도 역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각 차시마다 참가자들이 좀 더 자주 발표기회를 갖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시 당 수업시간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차시 당 수업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12차시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되 기존 차시 당 50분으로 배정된 시간을 80분(10분 휴식)으로 연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총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연장된다. 둘째, 소년원 여건 상 사회정착프로그램에 18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각 차시의 분량을 줄이는 대신 해당 차시 당 시간을 최소 60분 이상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표 5-2〉 사회정착 프로그램의 활용(예시)

구분	차시	시간	세부 내용	구분	차시	시간
1 일차	1	09:30-10:30	• [1-2]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1 일차	1	09:00-10:30
	2	10:30-11:30	• [2-1] 내가 가진 다양한 감정 파악하기 & 분노의 원인 이해하기		2	10:30-12:00
	3	13:30-14:30	• [2-2] 감정조절 방법		3	13:30-15:00
	4	14:30-15:30	• [2-3] 입장 바꿔보기		4	15:00-16:30
2 일차	5	09:30-10:30	• [2-4] 싸움을 피하는 대화 방법	2 일차	5	09:00-10:30
	6	10:30-11:30	• [3-1] 나에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6	10:30-12:00
	7	13:30-14:30	• [5-1] 내가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 꿈 찾아보기		7	13:30-15:00
	8	14:30-15:30	• [5-2]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생활 태도 & 생활 관리		8	15:00-16:30
3 일차	9	09:30-10:30	진학 모듈 • [6-1] 학업을 지속하는 방법	3 일차	9	09:00-10:30
	10	10:30-11:30	• [6-2] 고등학교 진학 정보 찾기		10	10:30-12:00
	11	13:30-14:30	• [6-3] 대학 진학 정보 찾기		11	13:30-15:00
	12	14:30-15:30	• [7-1] 출원 후 지원서비스 및 관련 정보 • [7-2] 수료식(수료증 수여)		12	15:00-16:30
합계		총 12시간		합계		총 18시간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사회정착프로그램은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년들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출원 이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갈 힘을 기르는 데 최우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정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12차시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차시 당 시간을 연장해 총 18시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제시된 모형은 예시에 해당하므로 소년원 사정에 따라 운영기간이나 시간 등은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1. 국내 문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권수진·유진(2016).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일남·전명순·김태균·김정울(2016).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창지사.
- 김도영(2017).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활동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 155-178.
- 김병배(2017).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과 향후 과제. 보호관찰, 17(1), 41-81.
- 김지선·안성훈·박성훈·윤옥경·노성훈·원혜옥(2014). 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용학·김영진(2016).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준호·이순래(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전영실·박성훈(2014).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동·조제성(2016). 청소년의 일탈적 생활양식이 학교폭력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2, 5-32.
- 남상호(2011).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방법론”.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발표문. 13-52.
- 노일석(2009). 청소년 절도사범 재범 예측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449-470.
- 노일석, 정진경(2009). 여자 청소년 폭력사범 재범 예측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65-386.
- 대검찰청(2006; 2017).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민수홍·이유미(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전후 가해경험,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한국사회이론학회, 48, 163-196.
- 박성훈·김지영·조영오·김현정·황여정·김정숙·배상균·고나영(2017).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훈·조영오(2018). “미국 TFCO(Treatment Foster Care Oregon), 민영/주립 소년원 방문(국외출장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준휘 외, 20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범죄백서(2017). 법무연수원.
- 법무부(2018).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 서경란(2014).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이 남자 중학생의 분노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문화포럼, 39(1), 63-90.
- 서아현·이주영·김현경·오경자(2018). 보호관찰 청소년의 CBCL 조절곤란 프로파일(Dysregulation Profile)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28(2)
- 성태제(2007). 알기 쉬운 통계분석: 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성태제·시기자(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신우열·김민규·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아영아(2015). 비공식낙인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 의 조절효과. 교정복지연구, 37, 21-44.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은경·이수정·김병배(2018). 소년범 재범위험요인에서의 성차연구: JDRAI-D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1), 111-125.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경자·김영아(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용장(2017). 소년보호관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11(3), 1-29.
- 이병기·노성호(1994). 소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상(2016).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 이승현(2014). 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정민·조운오(2017).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JDRAI-S 및 처우계획서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17(1), 7-40.
- 이주영(2012).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련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801-822.
- 이주영(2017). 소년법 위반 청소년들의 이질성에 기반한 위험 및 보호요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일반 심포지엄.
- 임영식·유제민·정정은·김유나·양도규·양수경·김영민·강현정·전아영(2012).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원.
- 임정재(2016). 음주친구가 청소년의 음주시작에 미치는 영향-사회학습이론과 친구연결망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41, 99-130.
- 전경구(1996).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연구(II). 재활심리연구, 3(1), 53-69.
- 전영실·김지영·박성훈(201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영실·김지영·박성훈(2015).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규형, 김희주(2016).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 감독·애정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비교. 한국아동복지학, 56, 195-220.
- 정선희·유조안(2016). 인지동 동네 무질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의 부모관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6, 1-32.
- 정재삼(2004). 교육프로그램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은미·진영선·임정아·조아미(2016).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 357-378.
- 조제성·조운오(2017). 자기통제와 부모학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LGM 중단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3, 157-180.
- 천정웅·김미옥·최명민·노혜련·이용교(2010). 강점관점 청소년개발 레질리언스. 서울: 신정.
- 천진호(2010).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처우의 개선방안. 동아법학, 48, 421-456.

- 하형석·정은진·최승주(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한국교육고용패널Ⅱ 1차년도 고등학생용 설문지.
- 한지연·서아현·김현경·오경자·이주영(2018). 소년보호관찰 집단의 이질적 문제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위험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9(3), 303-330.
- 홍영오·노성호·이수정·고려진(2009). 소년범의 검사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 가도구 개발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황성현(2016). 청소년비행에서 비행친구가 선행하는가, 비행이 선행하는가? - 잠재성 정모형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23, 53-70.

## 2. 국외문헌

- Abram, K. M., Teplin, L. A., McClelland, G. M., & Dulcan, M. K. (2003). Comorbid psychiatric disorders in youth in juvenile deten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11), 1097-1108.
- Achenbach, T. M., & Rescorla, L.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 Agnew, R. (2012). Reflection on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91, 33-38
- Akers, Ronald L., Christine S. Sellers, and Wesley G. Jennings. (2017).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7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Andrews, D. A., Bonta, J., & Wormith, J. S. (2006). The recent past and near future of risk and/or need assessment. *Crime & Delinquency*, 52(1), 7-27.
-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 Bava, S., & Tapert, S. F. (2010). Adolescent brain development and the risk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Neuropsychology Review*, 20(4), 398-413.
- Benson Michael L. (2013). *Crime and the Lifecourse: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Routledge.
- Borgatti, Stephen P., Martin G. Everett, and Jeffrey C. Johnson. (2018). *Analyzing*

- Social Networks (2nd Edition). CA: SAGE Publications Ltd.
- Braga, A. A., Welsh, B. C., Schnell, C. (2015). Can policing disorder reduce crim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2, 567-588.
- Brendgen, M., Vitaro, F., Tremblay, R. E., & Lavoie, F. (200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Predictions to physical violence in different contexts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caregiv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4), 293-304.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
- Crossley, Nick, Elisa Bellotti, Gemma Edwards, Martin G. Everett, Johan Koskinen, and Mark Tranmer. (2015). *Social Network Analysis for Ego-Net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Ltd.
- Dishion, T. J., Ha, T., & Véronneau, M. H. (2012). An ecolog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eviant peer clustering on sexual promiscuity, problem behavior, and childbearing from early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nhancement of the life history frame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48(3), 703-17.
- Dishion, T. J. & Patterson, G. R. (2006). The development and ecology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D. Ch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3: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2nd ed.) NJ: John Wiley & Sons.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Pepler & K.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Dodge, K. A. (2003). Do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mediate aggressive behavior? In B. B. Lahey, T. E. Moffitt, & A. Caspi (Eds.), *Causes of conduct disorder and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Guilford Press.
- Edelbrock, C., Rende, R., Plomin, R., & Thompson, L. A. (1995). A twin study of

- competence and problem behavior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5), 775-785.
- Farrington, D. P., & Brandon C. Welsh. (2007). *Saving children from a life of crime: Early risk factors and effective interven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Felson, M., Eckert, M. (2016). *Crime and everyday life*(5th ed.). Los Angeles: Sage.
- Fitzpatrick, J. L., Sanders, J. R., & Worthen, B. R.(2004). *Program evalu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actical guidelines*(3rd edition).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Frick, P. J. (1998).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Applying the two-factor model of psychopathy to children. In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ety* (pp. 161-187). Springer, Dordrecht.
- Frick, P. J., & White, S. F. (2008). Research review: The importa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for developmental models of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59-375.
- Garmezy, N.(1993).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e, X., Natsuaki, M. N., Jin, R., & Biehl, M. C. (2011). A contextual amplification hypothesis: Pubertal timing and girl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M. Kerr, H. Stattin, R. C. M. E. Engles, G. Overbeerk, & A. Andershed (Eds.), *Understanding girls' problem behavior: How girls' delinquency develops in the context of maturity and health, co-occurring problems, and relationships*, Hot topics in developmental research (pp. 11-29). New York, NY: Wiley-Blackwell.
- Hansen, Derek L., Ben Shneiderman, Marc A. Smith. (2011). *Analyzing Social Media Networks with NodeXL: Insights from a Connected World*. MA: Morgan Kaufmann Publications.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09). The accuracy of recidivism risk assessments for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118 prediction studies. *Psychological Assessment*, 21(1), 1-21.

- Hipp, J. R. & Bauer, D. J. (2006). Local solutions in the estimation of growth mixture models. *Psychological Methods*, 11(1), 36-53.
- Hipwell, A., Keenan, K., Kasza, K., Loeber, R., Stouthamer-Loeber, M., & Bean, T. (2008).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girls'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and parental punishment and warmth: A six year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5), 663-677.
- Hoeve, M., Stams, G.J.J.M., van der Put, C.E., Dubas, J. S., van der Laan, P. H., & Gerris, J. R. M.(2012).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 771-785.
- Jang, S. J.(2018). Religiosity, crime, and drug use among juvenile offenders: A test of reciprocal relationships over tim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 4445-4464.
- Kelly, P. E., Polanin, J. R., Jang, S. J., Johnson, B. R. (2015). Religion, delinquency, and drug use: A meta-analysis. *Criminal Justice Review*, 40, 505-523.
- Kirkpatrick, D. L.(1996).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 Laub, J. H., Nagin, D. S., & Sampson, R. J. (1998). Trajectories of change in criminal offending: Good marriages and the desistance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5-238.
- Laub, J. H., & Sampson, R. J. (2003). *Shared beginnings, divergent lives. Delinquent boys to age 70*. Brantford, Ont.: W. Ross MacDonald School Resource Services Library.
- Leve, L. D., Chamberlain, P., & Reid, J. B. (2005). Intervention outcomes for girls referred from juvenile justice: effects on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6), 1181.
- Liberman, A. M., Kirk, D. S., & Kim, K. (2014). Labeling effects of first juvenile arrests: Secondary deviance and secondary sanctioning. *Criminology*, 52, 345-370.
- Loeber, R., & Farrington, D. P. (2000). Young children who commit crime: Epidemiology, developmental origins, risk factors, early interventions,

- and policy implica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737-762.
- Loeber, R., Wung, P., Keenan, K., Giroux, B., Stouthamer-Loeber, M., Van Kammen, W. B., & Maugham, B. (1993). Developmental pathways in disruptive child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1-2), 103-133.
- Luther, S.S., Cicchetti, D., &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xfield, Michael G., & Earl R. Babbie. (2015). *Research Method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Wadsworth Publishing.
- McLachlan, G.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John Wiley & Sons.
- Menard, S. (1991). *Longitudinal Research: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age Publications, inc.
- Mendle, Jane, Leslie D. Leve, Mark Van Ryzin, Misaki N. Natsuaki, & Xiaojia Ge. (2011). Associations between early life stress, child maltreatment, and pubertal development among girls in Foster Car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4), 871-880.
- Moffitt, Terrie E. (2009). "A review of research on the taxonomy of life-course persistent versus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edited by Cullen, Francis T., John Wright & Kristie Blevins.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New Brunswick: Transaction.
- Moffitt, T. E., & Caspi, A. (2001). Childhood predictors differentiate life-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pathways among males and femal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2), 355-375.
- Moffitt, T. E., Caspi, A., Rutter, M., & Silva, P. A. (2001). *Sex differences in antisocial behaviour: Conduct disorder, delinquency, and violence in the Dunedin Longitudinal Stu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ffitt, T. E., Caspi, A., Harrington, H., & Milne, B. J. (2002). Males on the life-course-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pathways:

- Follow-up at age 26 yea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1), 179-207.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New York: Sage.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 35-569.
- Pratt, T. C., & Cullen, F. 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 Pratt, T. C., Cullen, F. T., Sellers, C. S., Winfree, L. T., Madensen, T. D., Daigle, L. E., Fearn, N. E., & Gau, J. M. (2010). The Empirical Status of Social Learning Theory: A Meta-Analysis. *Justice Quarterly*, 27:6, 765-802.
- Perrault, R. T., Paiva-Salisbury, M., & Vincent, G. M. (2012). Probation officers' perceptions of youths' risk of reoffending and use of risk assessment in case management.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30(4), 487-505.
- Perry, Brea L., Bernice A. Pescosolido, and Stephen P. Borgatti. (2018). *Egocentric Network Analysis: Foundations, Methods, and Model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pson, Robert J., & John H. Laub. (1995).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 Sarnecki, Jerzy. (2001). *Delinquent networks: Youth co-offending in Stockholm*.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epfer, A., & Piquero, A. R. (2006). Self-control, moral beliefs, and criminal

- activity. *Deviant Behavior*, 27, 51-71.
- Scott, T. & Brown, S. L. (2018). Risks, strengths, gender, and recidivism among justice-involved youth: A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6(11), 931-945.
- Soothill, Keith, Claire Fitzpatrick, Brian Francis. (2009). *Understanding Criminal Careers*. Willan Publishing.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l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New York: Springer Verlag, 89-108.
- Stanger, C., Achenbach, T. M., & Verhulst, F. C. (1997). Accelerated longitudinal comparisons of aggressive versus delinquent syndr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1), 43-58.
- Steinberg, L. (2009). Should the science of adolescent brain development inform public policy? *The American Psychologist*, 64(8), 739-50.
- Steinberg, J. K., Grella, C. E., & Boudov, M. R. (2013). Risky Sexual Behavior and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Among Incarcerated Female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policy and practice. In B. Sanders, Y. F. Thomas, B. G. Deeds (Eds.), *Crime, HIV and health: Intersections of criminal justice and public health concerns* (pp. 63-79). Netherlands: Springer.
- Teplin, L. A., Abram, K. M., McClelland, G. M., Dulcan, M. K., & Mericle, A. A. (2002). Psychiatric disorders in youth in juvenile deten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9(12), 1133-43.
- Tremblay, R. E., Vitaro, F., Nagin, D., Pagani, L., & Seguin, J. R. (2003). The Montreal longitudinal and experimental study. In *Taking stock of delinquency* (pp. 205-254). Springer, Boston, MA.
- Turanovic, J., J., & Pratt, T. C. (2013). The consequences of maladaptive coping: Intergrating general strain and self-control theories to specify a causal pathway betwee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9, 321-345.



- Vazsonyi, A. T., Mikuska, J., & Kelley, E. L.(2017). It's time: A meta-analysis on the self-control-deviance link.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8, 48-63.
- Vincent, G. M., Paiva-Salisbury, M. L., Cook, N. E., Guy, L. S., & Perrault, R. T. (2012). Impact of risk/needs assessment on juvenile probation officers' decision making: Importance of implementation.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8(4), 549.
- Wicks-Nelson, R., & Israel, A. C. (2015).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8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 Wikström, P. O. H., & Svensson, R.(2010). When does self-control matter? The interaction between morality and self-control in crime causation.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7, 395-410.
- Wiley, S. A., Slocum, L. A., Esbensen, F. (2013).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being stopped or arrested: An extension of the labeling mechanisms through which police contact leads to subsequent delinquency. *Criminology*, 51, 927-966.
- Williams, L. R., & Steinberg, L. (2011).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adjustment in a sample of juvenile offenders. *Child Development*, 82(2), 633-645.



---

# Abstract

---

## **A study on the reentry of juvenile offenders from the training schools in South Korea (II)**

Park, Seong-hoon · Jo, Young-oh · Kim, Jung-sook

Hwang, Yeo-jung · Lee, Joo-young

As a three-year(2017-2019) research proje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 for successful reentry of youth offenders by assessing the current juvenile correctional system and conducting empirical analyses with longitudinal data.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project we focused on evaluating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and programs including roles of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in terms of reentry, and also conducting survey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probationers toward juvenile reentry. During the second year of the project we shifted our focus from the system to empirical analyse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youth offenders' changes in their perception, attitude, and behavior during the process of reentry. Prior researchers tend to heavily emphasize recidivism as a measure of successful reentry and examine correlates of recidivism, while they do not pay enough attention to the process of reentry including positive and/or negative progress until recidivism. That is, prior research seem to understand reentry of juvenile offender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instead of youth welfare perspective, which provides us with an opportunity of understanding reentry issues from comprehensive approaches beyond recidivism. Therefore, the current study applies youth welfare perspective to explain reentry issues. To this end, scholars from diverse research areas, such as criminology, sociology, psychology, and education worked together in analyzing data, explaining the results, and providing implication.

We start to collecting juvenile offenders' data who are at juvenile training

schools with panel data design to track their changes in perception, attitude, and behavior. Different from panel design with people in community, we require to collaborate with officers at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t the juvenile justice division to get information of juvenile inmates such as their dispositions and starting/ending dates which influence research design. In addition, we collect juvenile offenders data who get probation as a comparison group. For the first wave of the data we conducted survey with 533 juvenile inmates at residential facilities and 463 juvenile offenders on probation. First, we compared the inmates group to probationers group in reentry factors(positive/negative changes in perception/emotion and behavior) and protective/risk factors of reentry (intra/inter personal factors and community factors), and second we divided the whole sample into 4 groups (male inmates, female inmates, male probationers, female probationers) and compared them in reentry factors and protective/risk factors of reentr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youth at residential facilities were worse in intra and inter personal factors among protective/risk factors of reentry and also in reentry factors(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 particular, female inmates were the most vulnerable among the four group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between protective/risk factors and reentry factors show that most protective and risk factors influenced perception/emotion factors among positive reentry factors, while parental attachment, religiosity, and moral belief affected behavioral factors of positive reentry. Perception and emotion factors of negative reentry were influenced by self-control, strain, religiosity, moral belief, labeling, and community security level, while behavioral factors of negative reentry were affected by most protective and risk factors. In addition, we conducted network analyses to explore juvenile offenders'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results showed that juvenile inmates had stronger affiliation with friends instead of adults than probationers. Also, the type of relationship(e.g. relationship with friend or family members) influenced network structure only

for juvenile inmates, but not for juvenile probationers.

Considering providing juvenile offenders with customized reentry program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it is really important to examine if heterogeneous subgroups really exist in both inmates and probationers groups, and if so, how many subgroups exist in each group. Using the protective/risk factors and reentry factors as well as Youth Self Report (a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 we conducted latent profile analys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ree subgroups appeared in both groups. The first group was named stable group due to no symptom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the second group was named externalizing group due to symptoms of externalizing problems, while the last group was named mixed-unstable group due to symptoms of both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Among the juvenile inmates group 46.2% were included in the externalizing group, 18.1% were in the stable group, and 35.7% were in the mixed-unstable group, while the probationers group was composed of 51.4% of the externalizing group, 37.6% of the stable group, and 9.9% of the mixed-unstable group. That is, there were more juveniles in the inmates group who exhibited symptom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than the probationers group.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re were much more juveniles who had symptom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the probationers group than expected.

We also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entry program developed in the first year. To evaluate this program juveniles at one male and one female residential facilitie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mong the 30 juveniles 15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the rest 15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as a comparison group. Pre and post tests were used to examine the program effectiveness. We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the youth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staff involved in the program, and the program leader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with two measures. The first was called measurement indicators which include seven areas, such as understanding myself, communication skills, social interactions, financial management skills, career preparation(academy and job), collecting information of resources after reentry. The second was named major indicators which include self-esteem, resilience, self-regulation, career efficacy, understanding reentry services in community,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The results found higher increase in psycho-social abilities(i.e. decrease in aggression, increase in both career efficacy and understanding reentry services in community) of the youth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after controlling for the pre-scores of the indicators. In addition, the youth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contents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 the youth involved in the program were quite satisfied with getting useful information of reentry, better understanding themselves within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preparing for the reentry step-by-step.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ogram helps the youth develop psycho-social 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forementioned, we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of all, the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provide more intensive reentry services for female inmates, individualized reentry program based on the youth's relationship with others, mental services for the youth with mental issues, and intervention program focusing on recovering family strengths. Secondly, the juvenile probation office need to reevaluate their classification system and reentry services and programs, and also should work more closely with juvenile residential facilities in order to make the transition from residential facilities to probation and community more smooth. Thirdly,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juvenile offenders' reentry issues and provide mor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develop and run evidence-based reentry programs.

# 부록

## [부록1] 각 변수에 대한 문항 및 신뢰도

표 1. 개인내적 특성

변수	문항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소년원	보호 관찰소
자기통제	나에게는 안전보다는 재미와 모험이 중요했다	0.65	0.49
	나는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했다		
	나는 쉽게 화를 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좋았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중요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했다		
스트레스 (긴장)	나는 보호자와 말이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0.80	0.77
	나는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외모(몸무게, 키, 얼굴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일탈적 일상활동	나는 밤에 주로 집밖에서 지냈다	0.76	0.64
	나는 친구들과 자주 몰려 다녔다		
	내 생활과 내 주위를 보면 나쁜 일을 할 기회가 많았다		
	나는 술을 마시면 많이 취할 때까지 마셨다		
종교심	나는 신이 있다고 믿었다	0.89	0.85
	나에게 종교나 신앙은 중요했다		
	나는 종교와 관련된 책(성경책, 불경 포함)을 읽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했다		
도덕성	나는 야단맞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0.86	0.82
	나는 급한 경우에는 새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친구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는 걸리지만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표 2. 개인 간 상호작용 특성

변수	문항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소년원	보호 관찰소
부모애착	나는 보호자를 존경했다	0.89	0.86
	우리 집안 분위기는 좋았다		
	나는 친구 집에 가거나 외출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말을 했다		
	나의 보호자는 내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관심이 있었다		
	나는 보호자의 훈계방식을 이해하고 따랐다		
	나는 보호자와 대화를 자주 했다		
부정적 낙인	주변 어른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0.77	0.81
	밖에 있는 친구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비행친구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았다	-	-

표 3. 지역사회 특성

변수	문항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소년원	보호 관찰소
지역 무질서	문제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	0.84	0.82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PC방, 노래방, 당구장, 술집, 클럽, 여관, 모텔이 많이 있었다		
지역 치안 수준	근처에 CCTV나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가 있었다	0.77	0.68
	주변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나 경찰차를 자주 보았다		



표 4. 긍정적 변화 중 인지/정서 특성

변수	문항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소년원	보호 관찰소
부적감정 억제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했다	0.69	0.66
	나는 괴로울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 했다		
긍정적 정체성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0.79	0.73
	나는 내 행동에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비행행동을 계속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밖에서 그동안 저지른 비행에 대해 반성하였다			
사회적 지지	내 주변에는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도움이나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다	0.64	0.59
	나는 밖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연락할 어른이 바로 머리에 떠올랐다		
	가까운 친구 중에는 나에게 사교치지 말라고 말리는 친구가 있었다		
담당 직원과의 애착	이 곳의 선생님은 내 마음에 든다	0.96	0.94
	이 곳의 선생님은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곳의 선생님은 나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신다		
	이 곳의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 곳의 선생님은 나의 고민을 잘 아신다		
책임인정	여기에 온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0.63	0.55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표 5. 긍정적 변화 중 행동 특성

변수	문항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소년원	보호 관찰소
취미활동	나는 밖에서 취미생활(음악, 운동 등)을 하고 있었다	-	-
저축	나는 밖에서 적은 돈이나마 돈을 모으고 있었다	-	-
이타적 행동	나는 밖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0.71	0.76
	나는 밖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타인과 잘지냄	나는 밖에서 친구 이외의 사람들(학교, 아르바이트 등)과 다툼 없이 잘 지냈다	-	-
가족과 함께함	나는 밖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자주 보냈다	-	-
직업준비	나는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0.76	0.80
	나는 직업에 대해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다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꽤 알고 있었다		
	나는 장래희망이나 갖고 싶은 직업이 있었다		
자격증/ 검정고시 준비	이곳에서 나는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다	0.65	0.65
	검정고시나 학업연계를 통해 졸업장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다		

표 6. 부정적 변화 중 인지/정서 특성

변수	문항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소년원	보호 관찰소
분노	나는 힘든 상황에서 자주 화를 냈다	-	-
우울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었다	0.86	0.77
	나는 힘든 상황에서 자주 슬프고 우울했다		
범죄유혹	나는 밖에서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	-	-
책임회피	이곳에서 나는 여기에 온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0.88	0.80
	이곳에서 나는 여기에 온 것이 사회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나는 여기에 온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표 7. 부정적 변화 중 행동 특성

변수	문항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소년원	보호 관찰소
음주로 인한 문제	나는 술에 취해서 실수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다	0.91	0.91
	나는 술에 중독됐다고 느껴본 적이 있었다		
	나는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다		
	나는 술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한테 술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술을 자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흡연여부	나는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	-	-
흡연량	(만일, 담배를 피웠다면)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웠습니까?	-	-
도박정도	나는 도박(사설경마, 사설경륜, 스포츠토도 등)을 했다	-	-
사이버 일탈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불법으로 아이템을 거래하였다	0.44	0.45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음란사이트를 방문했다		
폭력행위	나는 밖에서 사람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적이 자주 있었다	0.85	0.78
	나는 밖에서 도구나 물건으로 누군가를 위협해 본 적이 자주 있었다		
	나는 밖에서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었다		
성적일탈	나는 밖에서 피임도구(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	0.51	0.57
	나는 밖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임신, 낙태, 성병, 성매매)를 겪었다		
범죄 피해 경험	페북이나 카톡 메신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당하기	0.65	0.54
	페북이나 카톡 메신저로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받기		
	페북이나 카톡 메신저로 협박 당하기		
	말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말로 협박 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성희롱(성폭행) 당하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기		
학대경험	나는 보호자로부터 심한 체벌이나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	-
경고/주의 여부	이곳에서 여러분은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부록2] 사회정책 변수와 보호 및 위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표 1. 긍정적 변화(상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인내적 변수					개인 간 변수				지역사회 변수	
	성별 (남자=0/ 여자=1)	나이	교육 수준	거주지 (부모=1/ 그 외=0)	주 보호자 (친부모=1/ 그 외=0)	자기 통제	스트 레스	일상 활동	종교심	도덕성	부모 애착	부정적 낙인	비행 친구	지역 무질서	지역 치안 수준	소년원/ 보호관찰
부적 감정 억제	-0.13**	0.14**	0.07	0.01	-0.01	0.07	-0.09*	-0.14**	0.13**	0.27**	-0.13**	-0.08	-0.13**	0.06		
	-0.13**	0.00	0.02	0.04	0.00	0.03	0.15**	-0.22*	0.20**	0.24**	-0.16**	-0.13**	-0.21**	0.07		
긍정적 정책성	0.02	0.14**	0.05	0.01	-0.01	-0.09*	-0.10*	0.09*	-0.03	0.15**	-0.07	0.15**	0.06	0.14**		
	-0.08	0.11*	0.17**	-0.05	0.01	-0.01	0.29**	-0.18**	0.26**	0.39**	-0.28**	-0.11*	-0.19**	0.03		
사회적 지지	0.03	0.06	-0.03	0.11*	-0.02	-0.02	-0.21**	-0.07	0.15**	0.32**	-0.12**	0.10*	-0.06	0.07		
	0.02	-0.00	0.06	-0.04	-0.01	-0.07	0.20**	-0.08	0.19**	0.36**	-0.14**	0.02	-0.04	0.14**		
지원 과의 애착	-0.08	0.02	-0.02	-0.02	0.10*	0.04	-0.07	0.01	0.13**	0.09*	-0.10*	-0.01	0.03	-0.01		
	-0.11*	0.01	0.09	0.01	0.02	-0.00	0.12**	-0.17**	0.21**	0.26**	-0.23**	-0.04	-0.13**	0.01		
책임 인정	-0.06	0.01	-0.04	0.02	0.00	0.01	-0.06	-0.04	0.06	0.14**	-0.03	-0.05	0.03	0.06		
	-0.12**	-0.12**	-0.11*	0.05	-0.07	0.03	0.16**	-0.19**	0.24**	0.30**	-0.14**	-0.08	-0.17**	0.09*		

	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인내적 변수					개인 간 변수				지역사회 변수		
	성별 (남자=0/ 여자=1)	나이	교육 수준	거주지 (부모=1/ 그 외=0)	주 보호자 (친부모=1/ 그 외=0)	자기 통제	스트 레스	일상 활동	종교심	도덕성	부모 애착	부정적 낙인	비행 친구	지역 무질서	지역 치안 수준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취미 활동	-0.06 -0.14**	0.08 -0.01	-0.04 0.04	0.04 0.13**	0.02 0.01	0.04 -0.02	-0.03 0.18**	-0.05 -0.20**	0.18** 0.13**	0.17** 0.16**	0.14** 0.29**	-0.02 -0.20**	-0.04 -0.10*	-0.03 -0.12*	0.09* 0.03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저축	-0.08 -0.02	0.21** 0.16**	0.04 0.13**	0.05 0.03	-0.02 0.08	0.15** 0.02	-0.08 0.15**	-0.18** -0.11*	0.14** 0.10*	0.26** 0.13**	0.17** 0.24**	-0.12** -0.12**	-0.10* -0.04	-0.14** -0.09*	0.03 -0.03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이타적 행동	-0.01 -0.08	0.09* 0.05	0.06 0.11*	0.03 -0.00	-0.05 -0.01	0.04 -0.06	0.00 0.13**	-0.09* -0.09*	0.24** 0.11*	0.11** 0.17**	0.15** 0.34**	0.00 -0.13**	0.03 -0.07	-0.06 -0.05	0.06 0.11*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타인과 갈지냄	-0.05 -0.09	0.16** 0.02	0.09* 0.04	0.12** -0.01	-0.07 0.02	0.05 0.02	-0.15** 0.24**	-0.10* -0.13**	0.04 0.07	0.14** 0.20**	0.22** 0.26**	-0.08 -0.24**	-0.01 -0.08	-0.15** -0.20**	0.00 0.09*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가족과 함께함	-0.14** -0.07	0.04 -0.10*	0.05 -0.00	0.22** 0.23**	-0.09* -0.12**	0.12** 0.01	-0.14** 0.21**	-0.26** -0.25**	0.24** 0.18**	0.22** 0.24**	0.45** 0.53**	-0.12** -0.26**	-0.18** -0.22**	-0.18** -0.20**	0.01 -0.03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직업 준비	0.00 0.01	0.09* 0.01	0.01 0.07	0.12** -0.01	0.02 -0.03	0.00 0.04	-0.06 0.13**	-0.11* -0.15**	0.26** 0.21**	0.13** 0.18**	0.29** 0.37**	-0.08* -0.13**	-0.01 -0.11*	-0.03 -0.08	0.15** 0.04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자각증/ 경고시 준비	0.08 0.04	0.04 0.17**	0.04 0.11*	-0.08* -0.01	0.05 0.07	-0.05 0.04	-0.09* 0.04	0.11* -0.11*	0.07 0.11*	-0.04 0.13**	0.06 0.16**	0.01 -0.00	0.06 -0.04	0.14** -0.03	0.10* -0.04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p<0.05 \*\*p<0.01

표 2. 부정적 변화(상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인내적 변수					개인 간 변수			지역사회 변수	
	성별 (남자=0/ 여자=1)	나이	교육 수준	거주지 (부모=1/ 그 외=0)	주 보호자 (친부모=1/ 그 외=0)	자기 통제	스트레스	일상 활동	종교심	도덕성	부모 애착	부정적 낙인	비행 친구	지역 무질서	지역 치안 수준
본노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원/ 보호관찰
	0.14**	-0.03	-0.08	-0.17**	0.01	-0.57**	0.33**	0.40**	0.05	-0.40**	-0.14**	0.25**	0.27**	0.43**	0.27**
	0.10*	0.05	0.02	0.00	0.01	-0.38**	-0.33**	0.26**	-0.02	-0.30**	-0.12**	0.17**	0.15**	0.29**	0.10*
우울	0.35**	0.05	-0.11**	-0.08	0.03	-0.30**	0.45**	0.17**	0.23**	-0.13**	0.23**	0.12**	0.18**	0.18**	0.14**
	0.21**	-0.01	-0.04	0.00	0.05	-0.14**	-0.40**	0.16**	0.04	-0.20**	0.24**	0.12*	0.18**	0.18**	0.07
범죄 유혹	0.10*	-0.13**	-0.07	-0.16**	-0.02	-0.43**	0.24**	0.47**	0.03	-0.09*	0.37**	0.48**	0.42**	0.19**	0.19**
	-0.02	-0.06	-0.02	0.00	-0.07	-0.14**	-0.17**	0.37**	0.06	-0.16**	0.36**	0.26**	0.37**	0.05	0.05
책임 회피	-0.02	0.02	0.04	0.02	0.02	-0.15**	0.21**	0.16**	0.15**	-0.02	0.22**	0.06	0.21**	0.16**	0.16**
	0.02	0.09*	0.07	-0.05	0.03	-0.10*	-0.21**	0.16**	0.10*	-0.15**	0.17**	0.03	0.19**	-0.04	-0.04
음주로 인한 문제	0.14**	0.04	0.02	-0.12**	-0.04	-0.33**	0.23**	0.47**	0.21**	-0.07	0.31**	0.26**	0.41**	0.22**	0.22**
	0.23**	0.11*	0.04	-0.08	0.04	-0.09	-0.19**	0.43**	0.08	-0.16**	0.29**	0.25**	0.43**	0.06	0.06
흡연 여부 (예=1/ 아니오=0)	0.03	0.06	0.02	0.00	0.03	-0.01	-0.06	0.17**	-0.02	-0.03	-0.04	0.15**	0.12**	0.06	0.06
	-0.11*	0.15**	0.09*	-0.04	0.12**	-0.08	-0.01	0.23**	-0.12**	-0.04	0.18**	0.22**	0.21**	0.15**	0.15**
흡연량	0.06	-0.04	-0.07	-0.11*	0.04	-0.11*	0.05	0.20**	0.10*	-0.08	0.16**	0.21**	0.21**	0.12**	0.12**
	-0.02	0.16**	0.16**	-0.04	-0.06	-0.08	-0.02	0.25**	-0.06	-0.12*	0.12*	0.10	0.24**	0.08	0.08

	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인내적 변수					개인 간 변수			지역사회 변수	
	성별 (남자=0/ 여자=1)	나이	교육 수준	거주지 (부모=1/ 그 외=0)	주 보호자 (친부모=1/ 그 외=0)	자기 통제	스트레스	일상 활동	종교심	도덕성	부모 애착	부정적 낙인	비행 친구	지역 무질서	지역 치안 수준
도박 정도	소년원/ 보호관찰 -0.13** 0.07	소년원/ 보호관찰 0.09* 0.07	소년원/ 보호관찰 0.13** 0.13**	소년원/ 보호관찰 0.05 -0.00	소년원/ 보호관찰 -0.15*** -0.05	소년원/ 보호관찰 -0.22** -0.14**	소년원/ 보호관찰 -0.00 0.01	소년원/ 보호관찰 0.27** 0.30**	소년원/ 보호관찰 0.01 -0.03	소년원/ 보호관찰 -0.20** -0.24**	소년원/ 보호관찰 0.11** -0.05	소년원/ 보호관찰 0.22** 0.26**	소년원/ 보호관찰 0.32** 0.36**	소년원/ 보호관찰 0.27** 0.36**	소년원/ 보호관찰 0.13** 0.09*
사이버 일탈	-0.22** -0.36**	0.02 -0.06	0.04 0.06	0.04 0.09	-0.11* -0.15**	-0.24** -0.14**	0.11* -0.06	0.28** 0.24**	0.05 -0.02	-0.27** -0.35**	0.08 -0.03	0.21** 0.26**	0.29** 0.29**	0.26** 0.28**	0.18** 0.08
독력 행위	0.10* 0.04	-0.06 -0.00	-0.01 -0.00	-0.12** -0.04	-0.02 -0.02	-0.42** -0.19**	0.18** -0.14**	0.49** 0.40**	0.05 0.06	-0.41** -0.33**	-0.10* -0.10*	0.37** 0.36**	0.48** 0.35**	0.47** 0.43**	0.21** 0.16**
성적 일탈	-0.01 0.11*	0.11* 0.29**	0.03 0.19**	-0.15** -0.15**	-0.06 0.12**	-0.24** -0.12**	0.10* -0.14**	0.35** 0.16**	0.08 0.09*	-0.25** -0.19**	-0.03 -0.22**	0.22** 0.17**	0.39** 0.28**	0.30* 0.22**	0.17** 0.05
범죄 피해	0.31** 0.13**	-0.09* -0.03	-0.15** -0.05	-0.07 -0.04	0.10* 0.02	-0.01 0.02	0.25** -0.15**	0.08 0.07	0.10* 0.07	-0.09* -0.02	-0.12** -0.07	0.08 0.09	0.07 0.09*	0.09* 0.10*	0.04 0.08
학대 경험	0.15** 0.08	-0.02 -0.03	0.01 -0.01	-0.18** -0.03	0.06 0.04	-0.17** -0.12**	0.33** -0.36**	0.09* 0.13**	0.14** 0.19**	-0.15** -0.21**	-0.12** -0.21**	0.23** 0.19**	0.10* 0.08	0.13** 0.13**	0.06 -0.06
경고/주의 횟수	0.06 0.20**	-0.11* 0.07	0.01 -0.01	-0.09* -0.05	0.50 0.11*	-0.21** -0.06	0.06 -0.12*	0.18** 0.18**	0.05 0.08	-0.21** -0.03	-0.12** -0.17**	0.12** 0.17**	0.09* 0.15**	0.17** 0.18**	0.09* 0.08

\*p<0.05 \*\*p<0.01

### [부록3] 패널조사 설문지

##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ID   -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소년보호 정책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은 소년보호정책을 위해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다음 각 질문마다 끝까지 잘 읽고 난 후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여러분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 친구, 선후배, 선생님을 포함해서 대략 몇 명인가요? ( )명

2. 다음의 질문은 위에서 여러분이 생각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 5명**을 생각하며 응답해 주세요.

구분	연번	2-1. 관계 <보기> 번호 참조	2-2. 성별	2-3. 같은 동네사람 여부	2-4. 현재 그 사람과 연락 여부	2-5.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정도	2-6.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정도	2-7.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정도	2-8. 그 사람과 있을 때 비행유혹을 느끼는 정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5명	1		① 남자 ② 여자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자주 연락 ② 가끔 연락 ③ 연락 안함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③ 별로 없음 ④ 거의 없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2		① 남자 ② 여자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자주 연락 ② 가끔 연락 ③ 연락 안함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③ 별로 없음 ④ 거의 없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3		① 남자 ② 여자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자주 연락 ② 가끔 연락 ③ 연락 안함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③ 별로 없음 ④ 거의 없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4		① 남자 ② 여자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자주 연락 ② 가끔 연락 ③ 연락 안함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③ 별로 없음 ④ 거의 없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5		① 남자 ② 여자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자주 연락 ② 가끔 연락 ③ 연락 안함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③ 별로 없음 ④ 거의 없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① 매우 높음 ② 약간 높음 ③ 다소 낮음 ④ 매우 낮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보기>**

- ① 친아빠      ② 친엄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형제·자매  
 ⑥ 새아빠      ⑦ 새엄마      ⑧ 친구      ⑨ 애인(사귀는 사람)      ⑩ 선배(형, 누나, 언니)  
 ⑪ 후배(동생)      ⑫ 친척 어른      ⑬ 소년원 선생님      ⑭ 보호관찰 선생님      ⑮ 학교 선생님  
 ⑯ 효광원·마자렐로 등에서 만난 선생님·수녀님      ⑰ 자립생활관·YES센터 등에서 만난 선생님      ⑱ 멘토 선생님  
 ⑲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 )

3. 위에서 가깝다고 응답한 사람의 **순서대로 적은 후 2명씩 짝지어** 두 사람끼리 서로 얼마나 알고 지내는지 응답해 주세요.

가까운 사람 5명	1	2	3	4	5
1					
2	① 서로 잘 알고 친하다 ②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③ 서로 전혀 모른다				
3	① 서로 잘 알고 친하다 ②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③ 서로 전혀 모른다	① 서로 잘 알고 친하다 ②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③ 서로 전혀 모른다			
4	① 서로 잘 알고 친하다 ②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③ 서로 전혀 모른다	① 서로 잘 알고 친하다 ②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③ 서로 전혀 모른다	① 서로 잘 알고 친하다 ②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③ 서로 전혀 모른다		
5	① 서로 잘 알고 친하다 ②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③ 서로 전혀 모른다	① 서로 잘 알고 친하다 ②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③ 서로 전혀 모른다	① 서로 잘 알고 친하다 ②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③ 서로 전혀 모른다	① 서로 잘 알고 친하다 ② 서로 알지만 친하지 않다 ③ 서로 전혀 모른다	

4. **현재** 여러분의 주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 ① 친아빠/친엄마 두 분      ② 친아빠 혼자      ③ 친엄마 혼자  
 ④ 친아빠/새엄마 두 분      ⑤ 친엄마/새아빠 두 분  
 ⑥ 할머니/할아버지 두 분      ⑦ 할머니 혼자      ⑧ 할아버지 혼자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⑩ 보호자 없음(☞ 5번으로)

4-1. 여러분은 솔직히 주 보호자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5.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보호자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보호자를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집안 분위기는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구 집에 가거나 외출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말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나의 보호자는 내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보호자의 훈계방식을 이해하고 따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보호자와 대화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보호자로부터 심한 체벌이나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다음 제시된 각 문항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잘 나타내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는 안전보다는 재미와 모험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보호자와 말이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외모(몸무게, 키, 얼굴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7. 다음의 질문은 힘든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나 경험을** 잘 나타내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힘든 상황에서 자주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괴로울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힘든 상황에서 자주 슬프고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8. 다음은 **현재**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b>☞ 현재기준, 평소 생활할 때...</b>					
1	나는 밤에 주로 집밖에서 지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들과 자주 몰려 다닌다	①	②	③	④
3	내 생활과 내 주위를 보면 나쁜 일을 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술을 마시면 많이 취할 때까지 마신다	①	②	③	④
<b>☞ 현재기준,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에는...</b>					
5	문제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6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PC방, 노래방, 당구장, 술집, 클럽, 여관, 모텔이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9	근처에 CCTV나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주변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나 경찰차를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b>☞ 현재기준, 평소에....</b>					
11	나는 아단맞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급한 경우에는 새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친구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걸리지만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여러분이 **현재**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여러 개 응답 가능)

- ① 미래에 대한 불안감                      ② 경제적 어려움                      ③ 나의 의지부족
- ④ 비행친구들의 유혹                      ⑤ 주위의 차가운 시선                      ⑥ 가족과 갈등
- ⑦ 친구 관계의 어려움                      ⑧ 기타(구체적으로:                      )

10.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행동에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비행행동을 계속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5	주변 어른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현재 취미생활(음악, 운동 등)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현재 그동안 저지른 비행에 대해 반성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현재 적은 돈이나마 돈을 모으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다음은 여러분의 긍정적 경험과 신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잘 나타내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주변에는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도움이나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힘든 일이 생기면 연락할 어른이 바로 머리에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 이외의 사람들(학교, 아르바이트 등)과 다툼 없이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가족들과 시간을 자주 보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8	나에게 종교나 신앙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종교와 관련된 책(성경책, 불경 포함)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한다	①	②	③	④
11	가까운 친구 중에는 나에게 사고치지 말라고 말리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음은 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잘 나타내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직업에 대해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직업을 갖는 것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경제적 뒷받침이 안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꽤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장래희망이나 갖고 싶은 직업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다음 질문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타내는 곳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술에 취해서 실수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술에 중독됐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술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5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한테 술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술을 자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담배를 피운다	① 예 (☞문7-1로)		② 아니오 (☞문14로)	
7-1	(만일, 담배를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웁니까?	①전혀 안핼	②반갑 미만	③한갑 미만	④한갑 이상
7-2	(만일, 담배를 피운다면) 나는 내가 담배 때문에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4. 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해당되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도박(사설경마, 사설경륜, 스포츠토트 등)을 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불법으로 아이템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음란사이트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많이 해서 건강(시력 등)이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느껴 지루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람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도구나 물건으로 누군가를 위협해 본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참지 못해 싸운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피임도구(콘돔) 없이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임신, 낙태, 성병, 성매매)를 가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내 주변에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다	①	②	③	④

15. 다음은 소년원에서 나온 이후 여러분이 당한 피해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억을 잘 되살려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당했다면 가해자는 어떤 관계인지 아래 <보기>에서 골라 응답해 주세요.

문	항	피해경험 유무	가해자와 관계
1	페북이나 카톡 메신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    )회	
2	페북이나 카톡 메신저로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    )회	
3	페북이나 카톡 메신저로 협박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    )회	
4	말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    )회	
5	말로 협박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    )회	
6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    )회	
7	심하게 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    )회	
8	성희롱(성폭행)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    )회	
9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기	① 없다    ② 있다 (    )회	

<보기>			
가해자와의 관계:	① 부모님	② 친척	③ 친구
	④ 애인	⑤ 선배/후배	⑥ 모르는 사람

16. 여러분은 현재 직업(아르바이트 포함)이 있습니까?

- ① 무직                      ② 학생                      ③ 농/어업                      ④ 노동
- ⑤ 공장근로자              ⑥ 상업(자영)              ⑦ 상업(고용)              ⑧ 서비스업
- ⑨ 유흥업                                      ⑩ 운수업                      ⑪ 사무직
- ⑫ 기타(구체적으로 :                      )

17. 여러분의 한 달 수입은 용돈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수입 없음                      ② 수입 있음 (₩ 약                      만원)
- ♣ 꼭 기재해주세요.

18. 여러분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돈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 ① 지출 없음                      ② 지출 있음 (₩ 약                      만원)
- ♣ 꼭 기재해주세요.

19. 여러분은 돈이 생기면, 주로 어디에 돈을 사용합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유흥비(구체적으로 :                      )    ② 취미활동(구체적으로 :                      )
- ③ 외모치장                      ④ 생활비                      ⑤ 기타(구체적으로 :                      )

20. 여러분은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한달에 1-2회                      ③ 한달에 3-4회
- ④ 일주일에 1-2회                      ⑤ 일주일에 3-4회                      ⑥ 일주일에 5회 이상

21. 여러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합니까?

-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하루에 1-2시간                      ③ 하루에 3-4시간
- ④ 하루에 5-6시간                      ⑤ 하루에 7-8시간                      ⑥ 하루에 9시간 이상





※ 끝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SQ1. 여러분의 교육수준

- ① 초등학교 중퇴 혹은 재학      ②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혹은 재학
-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중퇴 혹은 재학
- ⑤ 고등학교 졸업                    ⑥ 전문대학 중퇴, 휴학 또는 재학
- ⑦ 대학교 중퇴, 휴학, 또는 재학

SQ2. 여러분은 현재 주로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 ① 부모님 집    ② 여관·모텔    ③ 달방    ④ 고시원    ⑤ 원룸
- ⑥ 친구집    ⑦ 선후배 집    ⑧ 친척집    ⑨ 가출팸    ⑩ 쉼터
- ⑪ PC방    ⑫ 빈집 등 노숙    ⑬ 찜질방    ⑭ 기타(                      )

SQ3. 위에 응답한 곳에서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 ① 어른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애인
- ⑤ 형제자매    ⑥ 친척    ⑦ 기타(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62-01

연구총서 18-CB-0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발 행 | 2018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http://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사)한국장애인어워크협회 02) 2272-0307

I S B N | 979-11-89908-02-7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